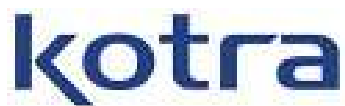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브라질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6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10
2. 주요 산업 동향 /21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45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47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51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54
대한수입규제동향 /58
관세제도 /59
주요인증제도 /62
지적재산권 /68
통관운송 /71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79
- 외국기업 투자동향 /81
- 우리기업 투자동향 /86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97
- 진출형태별 절차 /103
- 투자입지여건 /122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127
- 조세제도 /137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141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143
- 2. 물가정보 /147
- 3. 바이어발굴 /150
-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168
- 5.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174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180
- 7. 이주정착 가이드 /182
- 8. 출장가이드 /195



1992 MAGELLAN Geographix/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브라질 연방 공화국(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위치	남미 대륙 동부
면적	8,511,965km ² (세계 5위, 남미대륙의 47.7%)
기후	열대성(북부), 아열대성(중부), 온대성(남부) 연평균 기온은 23~24℃로 4계절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수도	브라질리아 (Brasilia, 인구 233만 명)
인구	189,612,814명(2008년 8월 기준)
주요도시	São Paulo, Rio de Janeiro, Porto Alegre, Curitiba 등
민족	백인(55%, 포르투갈계, 독일계, 이탈리아계, 스페인계, 폴란드계), 흑백혼혈(38%), 흑인(6%), 기타(1%, 일본계, 아랍계, 인디오)
언어	포르투갈어
종교	가톨릭
건국(독립)일	1822년 9월 7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4년, 중임 가능)
국가원수(실권자)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s Inácio Lula da Silva)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 외교부

나. 경제지표

GDP	1조3,100억 달러(2007년)
실질경제성장률	5.4%(2007년)
1인당 GDP	6,930달러(2007년)
실업률	9%(2007년)
물가상승률	4.5%(2007년)
화폐단위	Real(헤알화)
환율	2008년 9월 22일 기준, US\$1=R\$1.80
외채	US\$1,932억(2007년 12월)
외환보유고	US\$2,051억(2008년 8월)
산업구조	○ 상강하박형 산업구조, 중남미 국가중 제조업 기반 발달 - 세계적 다국적기업 진출확대로 산업구조 고도화 - 현지투자 역사가 50년이 넘는 기업 다수 존재 ○ 중소기업 미발달로 부품산업 취약 - 브라질정부의 고 이자율 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정책 부재로 중소기업이 미발달하였으나 1998년 브라질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 성장 중
교역규모('08. 8월)	수출: US\$1,308 억, 수입: US\$1,139 억, 수지: US\$169 억
교역품	○ 주요 수출품 - 기계류, 자동차, 철강, 육류, 곡물, 철광석, 광물성연료, 사료, 항공기, 전기기기, 목재, 설탕, 신발, 커피, 알루미늄 등 ○ 주요 수입품 - 광물성연료, 기계류, 전기기기, 자동차, 유기화학품, 광학정밀기기, 플라스틱제품, 의료용품 등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 브라질 중앙은행(BACEN)

다. 한-브라질 관계

체결협정	문화협정(67년), 과학기술협력협정(91년), 이중과세방지협정(91년), 항공협정(95년), 관광협정(97년), 상용. 투자. 취재 복수사증 발급협정(97년), 사증면제 협정발효(2002.5.20) 자원협력 M.O.U. 서명 (2004.11)
교역규모 (2008년 8월)	- 수출: 36 억 4 천 3 백만 달러(70.53%증가) - 수입: 18 억 8 천 7 백만 달러(49.53%증가) - 수지: 24 억 5 천 8 백만 달러 (* 참고: 브라질 관세청 자료)
교역품	- 대 브라질 주요 수출품 - 자동차, 철강제품, 타이어, 가정용전자제품, 전자 부품, 고무제품, 산업 기계, 섬유사 등 - 대 브라질 주요 수입품 - 대두박류, 음료, 곡류, 커피류, 두류, 주류, 연초류, 철광, 고령토, 동광 등
투자교류	수출입은행 자료 기준 2008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투자 신고액은 U\$14억6,800만(205건)이며 투자금액은 U\$9억3,543만(330건)으로 제조업(U\$ 5억7,007만)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진출업체로는 LG전자, 삼성전자, POSCO, CJ, 현대자동차(2008년 9월 투자 MOU체결) 등 대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에 반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진출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교민	교민 수: 약 5만 명(2007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2. 정치 사회 동향

가. 정치 동향

1) 룰라 정부 정치 동향

룰라 대통령은 2006 년 말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해 집권 2 기를 맞았다. 특히 2 기 정부에서는 11 개 정당이 참여하는 거대 연립정권이 탄생했으며, 집권 노동자당(PT)이 하원의장을, 연립 정권의 핵심 파트너인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이 상원의장을 차지하면서 룰라 대통령으로서의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강력한 집권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브라질 의회는 원내 최다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의 레난 칼레이로스 의원을 상원의장, 집권 노동자당(PT)의 아를린도 시나글리아 의원을 하원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칼레이로스 의장은 1 기 정부에서부터 룰라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인물이며, 시나 글리아 의장은 집권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룰라 대통령으로서는 의회 내에 역대 어느 대통령 보다 든든한 후원세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룰라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던 지난 2003 년 초에 구성된 의회와 비교한 수치로도 입증된다. 2003 년 당시 하원에는 전체 513 명의 의원 가운데 친(親) 룰라가 254 명, 반(反) 룰라는 259 명으로 '여소야대'가 형성됐으나 올해는 11 개 정당이 거대 연립정부에 참여하면서 352 명 대 159 명으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81 명의 의원들로 이루어진 상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2003년에는 여권이 31명, 야권이 50명이었으나 올해는 49 대 32로 범여권 우세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를 두고 현지 언론은 "룰라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거대 연정 구상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면서 집권 기반을 강화하고 야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신임 상·하원 의장이 모두 정치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지난해 대선 이전부터 개혁작업을 강조해 온 룰라 대통령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뛰어난 카리스마로 무장한 룰라 대통령은 상·하원 의장을 원내 1, 2 당이자 연정의 두 축인 PMDB와 PT가 차지함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에 강한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룰라 정권 평가

지난 4월 28일 브라질 유력 여론조사기관인 CNT 센서스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정부가 지난 2003년 초 출범 이래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T 센서스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룰라 정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7.5%를 기록해 출범 첫 달인 2003년 1월의 56.6%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룰라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11.3%로 지난 2월의 13.7%에 비해 2.4%포인트 낮아지면서 최저치를 보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룰라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3선을 시도할 경우 지지표를 던지겠다는 응답자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집권 노동자당(PT) 내에서 제기돼 온 개헌론에 또 다시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됐다.

앞서 지난달 말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다타폴라(Datafolha)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룰라 대통령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5%를 기록하면서 1990년대 이후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룰라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소득 증가, 사회구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시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10월 브라질은 전국 시장·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룰라 대통령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야권의 비난 속에서도 농촌지역 1,000여 개 빈곤 도시 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재정지원 계획과 빈곤층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수혜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국민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 룰라 정부의 외교정책

□ 남미통합 가속화

룰라 대통령은 중남미 통합을 목표로 역내 지도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남미공동시장(Mercosul)의 양적·질적 성장과 기능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2006년 베네수엘라에 이어 올해는 볼리비아를 남미공동시장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일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 대미 관계

미국은 브라질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자 협력 대상이며, 특히 최근 들어 유력한 대체 에너지 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탄올의 대량생산 및 공동연구를 통해 브라질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석유 소비량을 줄이고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사용을 확대 함으로써 미래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에너지 안보’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막대한 석유자원을 무기로 중남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2007년 3월 초 브라질을 방문해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 정상회담은 ‘바이오 에너지 정상회담’으로 일컬어지며, 향후 미국과 브라질 관계가 한층 확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8년 11월 중순에는 브라질이 주도로 바이오 에너지 국제 컨퍼런스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 남남 협력

룰라 정부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인도, 나아가 중국까지 포함하는 ‘남남(南南)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미국 과 유럽연합(EU) 외에도 제3 세계권에서 신규시장을 개척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룰라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 아프리카 외교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브라질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과 맞물리면서 대 아프리카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남 협력의 대표적 사례이며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IBSA(인도-브라질-남아공) 협력 체제는 외교적 우선순위를 갖고 더욱 심화, 발전될 전망이다.

□ 대 아시아 관계

또한 룰라 정부 2기에서는 1기에 비해 아시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중국, 한국 및 일본 등 동아시아 Big3와의 고위인사 교류 및 실질협력 교류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2006년 12월 초 볼리비아 개최 제2차 남미 국가 공동체(CASA) 정상회의 시 향후 남미-아시아 정상회의를 추진키로 합의, 발표한 바 있다.

□ 다자관계

유엔을 위시한 다자 국제기구는 세계평화 및 안보 유지에 불가결하고, 개발국과 개도국의 균형 있는 참여 하에 유엔안보리가 재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나. 재계동향

브라질의 대표적인 재계 조직으로는 전국경제인연합회(CNI: Confederação Nacional das Industrias)와 상파울루 경제인 연합회(FIESP: Federação das Industrias do Estado de São Paulo)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브라질 경제의 중심지인 상파울루 경제인의 이해를 대변하는 FIESP는 브라질 정치·경제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FIESP는 집권 이전부터 룰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집권 이후 룰라 정부가 시장지향적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FIESP의 입장은 종전의 반대에서 지지 입장으로 선회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룰라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지만 FIESP는 세제 및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보다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현 정부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FIESP는 여전히 현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의 근간인 고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FIESP는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연평균 4.5~5%의 GDP 성장률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 인도 등 다른 브릭스(BRICs) 국가들의 성장률과 맞먹는 성장정책을 추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다. 미디어

브라질에서 미디어는 여론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85년 민주화 이후 언론매체는 1992년 콜로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는 등 브라질 정치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문맹자가 많은 브라질에서 TV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브라질 전역을 커버하는 글로보(Globo) TV의 위력은 매우 막강하다.

최근에는 룰라 대통령의 친형과 관련된 비리의혹과 정치계 주요 인사들의 비리 스캔들을 집중 보도하면서 룰라 대통령과 미묘한 대결양상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치안 불안 상황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면서 룰라 대통령이 언론 보도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다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 노동세력

브라질에서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20~25%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면 노조 가입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브라질 노동조합의 특징은 노동자조합, 기업가조합, 자유업조합의 3개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각 조합 별로 총연맹(전국 단위의 산업별), 연맹(주 단위), 조합(도시, 농촌단위)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노동부 산하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산업별 조합의 경우 기업 내 조합은 금지되어 있다. 1988년 10월 공포된 신 헌법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확대되어 조합활동 및 단체행동권에 있어 종래보다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노동조합단체는 금융노조, 석유노조, 사법부직원 및 복지행정 노조가 가입한 노동자 총연맹(CGT: General Confederation of Workers), 철강노조 등 직능별 노조가 가입한 단일 노동자 연맹(CUT, United Workers' Federation)으로 대별된다. CGT는 전통적으로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CUT는 집권당인 노동자당(PT)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이다. 룰라 대통령이 1989년 이후 강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노조세력의 급신장에 기인했다.

집권여당인 노동자당의 강력한 지지세력이기도 한 CUT는 집권 이후 룰라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3년 가을에는 룰라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을 주도하기도 했으며, 2004년 중순에는 룰라 정부에 대해 사회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브라질 내 노동세력은 대선이나 총선 등 결정적인 상황에서 룰라 대통령 및 노동자당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마. 무토지 농민운동(MST: Movimento dos Trabalhadores Rurais Sem Terra)

브라질의 민주화 운동이 정점에 달했던 1984년 출범한 무토지 농민운동(MST)은 브라질에서 가장 부유한 20%가 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극심한 불평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무토지 농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MST는 토지 점거라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약 100만 명의 농민들을 정착시켰고, 치열한 대정부 투쟁 끝에 토지개혁을 브라질의 핵심적인 정치 의제로 부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MST는 멕시코의 사빠띠스따, 아르헨티나의 피께테로 및 공장점거운동 등과 더불어 남미의 대표적인 시민 운동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MST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 후보를 지원했다. 룰라가 대통령이 되면 토지개혁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룰라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그의 임기 말까지 40만 농가에 유휴 토지를 배분해 정착시키고 2004년까지 우선적으로 11만 5,000 농가를 정착시키기로 공약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의 공약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침에 따라 MST는 2004년 11월 토지를 침탈하는 등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MST의 약탈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국 측 관심사항

1) 교역 현안

브라질의 대한 수입 규제 관련해서는 현재 PVC 덤프링 조사 개시 1건이 있다. 2007년 9월 21일, 브라질 Brasken사에 의해 중국산 및 한국산 PVC에 대해 덤프링 제소가 들어왔고,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측은 1년 간의 심사를 거쳐 2008년 9월 LG 화학 PVC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확정했다. 동 조치는 2013년 8월 29일 만료될 예정이다.

또한 2005년 하반기에는 브라질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타이어에 대해 최저가격제를 적용해 한동안 대 브라질 타이어 수출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었다. 중국산 범람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잦으므로 우리 수출에도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2) 투자 현안

우리 기업의 브라질 진출이 확대되면서 브라질 투자 진출 시 요구하는 희망사항도 다양화하고 있다. 종전 브라질 진출 우리 업체들이 브라질 정부 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투자 진출 시 요구되는 과다 현지부품 사용 비율의 하향 조정 △브라질 진출 외국기업의 외환구좌 개설 불허 및 과실송금 제한 등 외환거래 제한 완화 등이었다.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 정부 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직접투자 시 추가적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제도 법제화 △우회 수입몰량 제한 강화 △완제품 수입관세와 판매에 부과되는 세제 인하 등이다.

나. 브라질 측 관심사항

1) 브라질산 농산물의 수입개방 촉구

현재 브라질은 한국이 위생검역상의 이유로 수입을 허용치 않고 있는 브라질산 생과일(특히 망고), 가금류, 냉동·냉장육(소고기) 등에 대한 수입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당분간 브라질산 생육 수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은 2004년 우리 정부가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 위생조건”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2005년 6월 중순부터 개시되었다.

2)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

브라질은 한국의 복잡한 통관 절차 등 비관세 무역장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산물 분야의 높은 관세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3) 기타 주요 관심사항

이 외에 브라질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은 △광산물, 알코올(에탄올) 등 1차 상품 및 항공기, 트럭, 기계류 등 공산품 수출 확대 △인프라 분야 민관합동프로젝트(PPP) 참여 확대 △반도체, 선박 건조 등 첨단기술 분야 투자 유치 △IT 등 한국 기술우위 분야 협력 확대 등이다.

다. 양측 공통 관심사항: 한-MERCOSUL 무역협정 체결 공동연구

지난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방문에서 한-MERCOSUL 무역협정 체결의 공동연구를 추진기로 합의했다.

이의 일환으로 제1차 공동연구회의가 2005.5.4~5 양일 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되었다. 1차 회의에서 양측은 한-MERCOSUR 무역협정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공동연구 작업 방식(TOR: Terms of Reference)에 합의했다.

한편 한-MERCOSUL 무역협정 제2차 공동연구회의가 2005.8.17~18 양일 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차 회의에서 양측은 양측 간 교역·투자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며, 무역협정의 영향분석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기에 앞서 상세한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논의했다.

양측은 2차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협정의 영향분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2006년에 추가 회의를 가졌으며 양측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한-MERCOSUL 무역협정의 형태 및 공식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은 EU와의 FTA 협상 이후 주요 FTA 대상으로 MERCOSUR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최근 양국 정부 간 논의 사항

□ 2007년 2월 초 한국의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브라질을 방문해 룰라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이 방문을 통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과 2005년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층 긴밀해진 양국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파울루~리우 데 자네이루 간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 룰라 대통령이 즉석에서 참여 희망 분야를 묻고 한국형 철도 차량과 건설 노하우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현재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브라질 IT 협력센터 설치 문제도 양측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룰라 대통령과 장 장관은 유엔개혁, 전 지구적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빈곤퇴치 등 문제를 논의한 것은 양국 간 협력의 폭을 한 단계 넓힐 수 있는 단초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룰라 대통령은 한국이 교토 의정서의 당사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는데 양국이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했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입장에서 유엔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IT·철강 등 분야에서 한국과 관계 강화를 희망한다는 발언과 함께 노 대통령 임기 내에 다시 한번 양국 정상에 상호방문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언급했다.

지난 12월 7일 제 2차 한-브라질 자원협력위원회가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양국간 에너지 자원분야 관계자 25명이 참가했다. 광물, 석유 및 석유화학, 바이오 에탄올 등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양측은 2008년 중 서울에서 제 3차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마. 외교관계

1990년대 들어 양국 관계는 상호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경제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김영삼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 정상간의 교환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1996년 9월 10~12일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했다. 수교 이래 최초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발전, 민주화, 정치개혁 추진 등에서 공통점이 많아 상호협력 가능성이 많음을 확인하고,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실질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1년 1월에는 카르도주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양국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통상을 비롯한 제반 분야에 걸친 실질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취지에서 「21세기 한·브라질 특별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IT/BT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카르도주 대통령은 판문점을 방문하여 북한과의 수교를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8년 만인 2004년 11월 16~18일 브라질을 국민 방문,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자원협력약정 체결 및 자원협력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브라질의 풍부한 천연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으며, 한·MERCOSUR 간 무역협정 체결 타당성 공동연구 합의를 통해 중남미 최대 시장인 MERCOSUR과 향후 FTA 체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한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5년 5월 23~26일 한국을 국민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5월 25일 정상회담을 갖고 2004년 11월 정상회담 시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양국 간 제반 현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 방안 및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브라질 정상회담 성과

방문 시기	주요 성과
1996.9.10~12	○ 금융협력 - 우리 은행의 브라질 내 지점 개설에 원칙적인 합의 ○ 협정체결 - 관광협력협정 - 상용복수 비자면제협정 ○ 양국간 협의기구 설치 - 한-브라질 21세기위원회 설치
2001.1.17~20	○ 양국 간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 의학기술 개발, 환경보호 기술 개발, 원자력 기술을 응용한 식품품 개발 등 협력을 위해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 양국 간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사증면제 협정 체결 ○ 양국 간 R&D 분야 관련 기업/연구소 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합의
2004.11.16~18	○ 자원·에너지 협력 - 한-브라질 자원협력약정 체결 - 한-브라질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합의(장관급 회의) ○ 교역분야 협력 - 한-MERCOSUR 간 무역협정 체결 타당성 공동연구 - 중소기업진흥공단, 상파울루에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 수출입은행,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과 1억 달러 규모의 장단기 수출신용 공여계약 체결 ○ IT분야 협력 - 한· 브라질 IT협력센터 설치 합의 ○ 과학기술 협력 - 한· 브라질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2005.5.23~26	○ 농업 협력 - 양국 농업협력위원회 설립 양해각서 ○ 교역·투자 협력 - KOTRA-브라질 무역투자진흥청(APEX) 간 협력 양해각서 ○ 인적 교류 - 한-브라질 포럼 설립 합의 ○ 금융 협력 - 수출입은행-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간 협력 양해각서 - 한국산업은행 현지법인 “KDB 브라질” 설립 ○ 과학기술 협력 - 양국 간 우선협력 분야 선정 합의 - 생명공학, 원자력, 항공, 바이오매스(Biomass), 나노기술, 연료전지

자료: 외교통상부, 청와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브라질 경제의 특징

1) 주기적 불안정이 계속되는 경제

지난 20년간 브라질 경제는 짧은 경기회복과 긴 경기침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성향이 강했다. 이 같은 브라질 경제의 주기적 특성을 놓고 ‘롤러코스터 경제’ 또는 ‘닭의 날개짓’(Chicken Flight, 포르투갈어로는 Voo de Galinha)이라고 부른다.

브라질 경제가 주기적인 불안정을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주로 환율, 통화, 재정 등 3가지 변수의 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브라질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를 인위적으로 동결시키거나 자국 통화를 달러화에 고정시키는 등 정통 경제정책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취해 왔다.

또한 정치적 인기(populism)를 의식한 방만한 재정 운영은 공공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다. 이같이 시장경제에 반하는 충격요법을 사용한 결과 브라질 경제는 불안정하고 성장과 침체를 반복하는 주기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

2) 계층 간 및 지역간 소득불평등 심각: 벨린디아(Belindia)

브라질은 세계에서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다. 지난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HDR)에 따르면 브라질은 세계에서 8번째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 정도는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지난 2003년의 경우 브라질의 지니계수는 0.593을 기록, 177개 비교 대상국 중 8위를 기록했다.

브라질보다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는 중남미 지역의 과테말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프리카 국가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소득자 10%가 브라질 전체 국부의 46.9%를 갖고 있는데 반해 하위 소득자 10%는 0.7%만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소득 불평등은 브라질의 악명 높은 폭력과 범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지난 2002년에만 폭력사건 관련 비용으로 130억 달러가 지출되었다. 폭력사건 및 범죄로 연간 100억 달러의 잠재적 관광소득을 잃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지역·계층 간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빔대어 일부 학자들은 브라질을 ‘벨린디아’(남부 지역 소득 수준은 선진국인 벨기에 수준, 동북부 지역의 소득수준은 인도 수준)라 칭하기도 한다.

3) 브라질 경제성장의 장애요인: 브라질 코스트

브라질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브라질 코스트란 일반적으로 브라질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 비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복잡한 법 체계, 높은 세금과 금리, 관료주의와 인프라 시설 미비 등이 브라질 코스트의 주 내용이다. 즉 브라질의 경제 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모든 부정적 요인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브라질 코스트의 주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높은 세금부담이다. 브라질 기업들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세금 부담을 지목하고 있다. 기업들이 지적하는 브라질 조세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금이 복잡하고 종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브라질 조세제도의 문제점은 브라질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설문에서도 확인되었다. 2004년 2월 브라질 내 197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브라질에 진출하거나 투자할 때 감수해야 하는 이른바 브라질 코스트 가운데 관료주의와 세금 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인프라 시설이 낙후돼 있다는 점이다. 브라질의 인프라 시설은 지난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장기 발전계획 부재와 투자 부족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1년에 브라질은 인프라 개발을 등한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2001년 초부터 심각한 전력난으로 브라질 경제는 커다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서 물류비용은 제품의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의 물류 비용은 OECD 국가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세 번째로 뿌리깊은 관료주의에 따른 정부의 비효율성이다. 브라질은 장기간의 군사독재로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다. 게다가 식민시대의 전통과 군사독재 문화의 잔재인 관료적 권위주의 통치 관행이 혼재해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정부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치권과 관료의 부패를 빗대어 브라질에서는 “낮에는 정치가와 관료들이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브라질은 그들이 잠자는 밤에만 성장 한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만연하고 있기도 하다.

네 번째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현재 브라질의 노동법은 1940년대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의 노동법을 모태로 하고 있어 시대 상황에 크게 뒤처져 있으며, 매우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이러한 경직되고 복잡한 노동법은 결국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정규직 노동자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다. 브라질 노동법의 낙후성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2003년 World Bank에 따르면 브라질은 고용의 경직성을 규정하는 4대 변수, 즉 고용의 유연성, 고용 조건, 해고의 유연성, 노동법 가운데 고용 조건을 제외한 3가지 변수가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 외에도 높은 금리, 자본시장의 미성숙 등에 따라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브라질 코스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4) 이중적인 산업구조

브라질은 항공, 우주과학 등 최첨단 분야의 과학기술은 세계 정상급 수준인데 반해 가전 제품을 비롯한 일반 제품 생산을 위한 실용기술은 크게 낙후돼 있는 매우 이중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는 물론 개도국 중에서도 비교적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브라질은 축산업, 광업, 철강, 우주항공, 수송기기, 식품, 섬유, 신발산업 등에서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우주항공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브라질은 오랜 기술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4대 항공기 제조국가로 이미 발돋움한 상태다. 브라질은 110인승 이하 중소형 여객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이 주요 고객이다. 항공기는 브라질의 최대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금까지 6,000대 이상 판매되어 전 세계 58개국 영공을 누비고 있다. 브라질은 이미 1980년대 우주

로켓을 자체 설계, 발사에 성공하는 등 우주항공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 일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높은 우주항공 기술을 인정받아 브라질은 미국이 주도 하는 국제우주정거장(ISS) 사업에 개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사상 최초로 국제우주정거장에 자국 우주인을 보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향후 브라질의 첨단기술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03년 조지아 기술연구소는 브릭스(BRICs) 4개국 가운데 브라질이 러시아와 중국을 제치고 인도 다음의 기술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은 또한 과학기술 학문 분야별로 고르게 양질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농업 부문과 생명공학 부문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급인력을 양산하고 있다.

나. 경제발전 과정: 20세기 경제발전 역사

1) 수입 대체 산업화 태동으로 공업화 개시

1930년대 이전까지 브라질 경제는 광대한 영토와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커피, 사탕수수, 면화, 코코아 등 농업 생산에 의존했다. 브라질은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1930년대부터 국내 산업 육성, 도시노동자 계층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수입대체 산업화를 적극 추진했다.

2) 정부 주도형 경제의 시발

1950년대 이후 브라질에서는 정부 주도형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과도한 통화 팽창과 재정 지출 증가로 고인플레이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주셀리노 쿠비체키 대통령(1956~1961)이 수도를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브라질리아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을 지출했다.

3) 브라질의 경제 기적과 한계

1964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1940~1950년대 달성한 자본 축적을 바탕으로 중공업 위주의 공업화 정책과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경제 안정화 정책에 주력했다. 이와 같은 경제 정책에 힘입어 1968~1973년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10%를 상회하는 “브라질의 기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브라질의 기적은 1973년 말 제1차 석유 파동으로 막을 내렸고, 이후 브라질은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로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4) 외채 의존 성장정책의 실패 → 외환위기 발발

군사정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974년부터 외자 도입을 통한 기간산업 육성 및 수입대체산업화 등 성장 위주의 정책에 의존했다. 그 결과 외채 규모는 1974년 170억 달러에서 1978년 480억 달러로 약 3배가 급증했다.

군사정부는 1982년 멕시코의 외채상환 중단 선언에 따른 외환위기로 외자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또 다시 경제위기에 봉착, IMF와의 금융지원 조건으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IMF의 안정화 정책은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를 야기시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저항이 거세졌다. 결국 군사정부는 선거에서 패배해 21년간의 군사독재가 종식되었다.

1985년 집권한 조제 사르네이(José Sarney) 민선정부는 인플레이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물가 동결 등 충격적이며 비정상적 경제정책을 실시했으나 오히려 물가 인상만 부추기는 등 경제 혼란을 가중시켰다. 특히 외채 누증, 외환보유고 급감 등으로 브라질 정부는 1987년 2월 외채상환 유예를 선언했다.

5) 1990년대 경제 개혁: 미완의 개혁

1990년대 초 대통령이 부정부패 연루 혐의로 탄핵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혼란 속에서 1995년 개혁 성향의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조(Fernando Henrique Cardoso) 대통령이 등장, 강력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는 1990년대 중반 물가 안정을 달성하고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듯 했다.

그러나 해알화 高평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악화로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된데다 재정 개혁 지체 및 고금리에 따른 정부 부채 급증 등의 영향으로 1999년 경제위기가 발발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경제 혼란 및 경기 침체를 노정시켰다.

6) 2000년대 실용좌파 정부 출범

2003년 초 룰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브라질은 경제정책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좌파 출신이라는 국내외 우려 속에서 집권한 룰라 대통령이 실제로는 ‘우파보다 더 우파적인’ 정책을 취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룰라 정부는 인플레이 억제를 최우선시하면서 간축재정정책을 취해 외채 조기상환 등 외형적인 결실을 맺었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금리가 산업 생산성을 악화시키면서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2004년 국내총생산(GDP) 4.9% 성장이라는 성과를 거둔 뒤 2005년 성장률이 2.3%에 그치면서 저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9월 이래로 지속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실시하고 국내소비 확대, 장기저리대출 확대, 국민소득 확대 등으로 소비가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2007년에는 5.4%의 경제성장으로 호황을 이루고 있다.

또한 지속되는 해알화 강세로 브라질 대외무역에서 수입이 크게 늘고 수출이 주춤하는 등 무역흑자 기조가 꺾이고 있으며, 지속되는 중국산 수입 급증으로 브라질 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등의 움직임도 있다.

다. 연도별 거시경제 지표

구 분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GDP	U\$억	4,594	4,933	6,050	7,960	10,660	13,100	-
1인당 GDP	U\$	2,631	2,789	3,417	4,321	5,705	6,930	-
경제성장률	%	1.9	-0.2	4.9	2.3	3.7	5.4	4.8(2008. 목표)
물가상승률(IPCA)	%	12.5	9.3	7.6	5.69	3.14	4.45	4.48(연간누적)
실업률(연말)	%	10.5	10.9	9.6	8.3	8.4	7.4	8.1(2008.7월)
기준금리(연말)	%	25.0	16.5	17.75	18.5	13.25	11.25	13.75(2008.9월)
수출	U\$억	603.6	730.8	964.8	1,183.1	1,374.7	1,803	1,308(2008.8월)
수입	U\$억	472.3	482.5	627.8	735.3	913.9	1,206	1,139(2008.8월)
무역수지	U\$억	131.3	248	337.0	447.8	460.7	1,606	169(2008.8월)
외국인 직접투자	U\$억	165.9	101.4	181.7	151.9	187.8	346	314.9(2008.7월)
환율(연말)	U\$=R\$	3.530	2.902	2.654	2.20	2.14	1.80	1.80(2008.9월)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IPEA, IBGE

라. 주요 경제정책

1) 각종 개혁 입법 추진

2003년 출범한 룰라 정부는 브라질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농지 개혁 등 4대 개혁을 야심차게 추진했다. 집권 초기 신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난항이 예상되었던 연금 개혁과 세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 연금 개혁과 세제 개혁의 주요 내용

- 연금 개혁
 -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간 연금 수령의 상한선 통일. 향후 연금 제도에 가입하는 신규 공공·민간 부문 노동자는 月 최고 2,400 헤알의 연금을 받게 됨.
 - 퇴직 연령 상향 조정: 남자의 경우 종전 53세에서 60세로, 여자의 경우 이전 48세에서 55세로 퇴직 연령 연장
 -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공무원의 임금 상한선 설정. 연방 공무원의 임금 상한선은 현재 대법원 법관의 월 임금인 1만 7,300 헤알로 설정. 주정부 법관의 경우, 월 임금 상한선은 연방 대법관 임금의 90.25%로 제한
 - 사회 보장세 인상. 현재 공공·민간 부문 노동자의 사회 보장세를 5~7%에서 11%로 인상
- 세제 개혁
 - 세수 기반 확보를 통해 기초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키 위해 논란의 여지가 많은 금융 거래세(CPMF)를 2007년까지 연장. 금융거래세(CPMF)는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됨.
 - 주정부간 세제 분쟁을 없애기 위해 현재 27개 주마다 상이한 유통세율을 5개로 조정
 - 소득세와 공업제품세(IPI)를 통해 새로운 연방기금을 조성, 저개발 지역인 북부, 동북부 및 중서부 주를 지원. 연방 연료소비세(CIDE)의 25%는 주정부 및 시정부에 이전
 - 수출 부문 경쟁력 촉진을 위해 수출상품에 대한 세금 면제. 세금 면제로 인해 손실은 공업제품세와 수입세를 통해 조성

2004년에 브라질 정부의 경제 개혁은 파산법, 혁신법, 사법개혁, 민관합동 인프라 투자 촉진 법(PPP) 제정 등 거시 개혁보다는 미시 개혁에 치중되었다.

집권 중반기로 들어선 룰라 정부의 개혁 정책은 그간 지방선거 일정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해 기피해 왔던 노동개혁, 농지개혁, 정치개혁 등 거시 개혁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05년 초부터 불거진 정치 스캔들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정치적 위기로 각종 개혁 입법 추진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2) 민관 합동 인프라 투자 촉진법(PPP) 추진

브라질 정부는 인프라 개발이 브라질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절감하고 인프라 부문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해 민관 합동 인프라 투자촉진법(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2004년 12월 제정했다. 여기서 PPP란 단순히 공공재 성격인 인프라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프로젝트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 경영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PPP는 위험부담, 자금조달 측면에서 기존 민자 유치 모델과는 달리 정부와 민간 참여자의 상호협력이 중요한 요소이다.

PPP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해 민간 부문에게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PPP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은 적어도 사업비의 20%를 조달해야 하며 최장 계약 기간은 35년이다. 또한 공공 사업자, 즉 정부의 의무 불이행(디폴트)에 따른 피해를 보충하기 위해 PPP 보증기금(FGP)을 설립했다.

3) 2기 정부 경제성장촉진정책(PAC: 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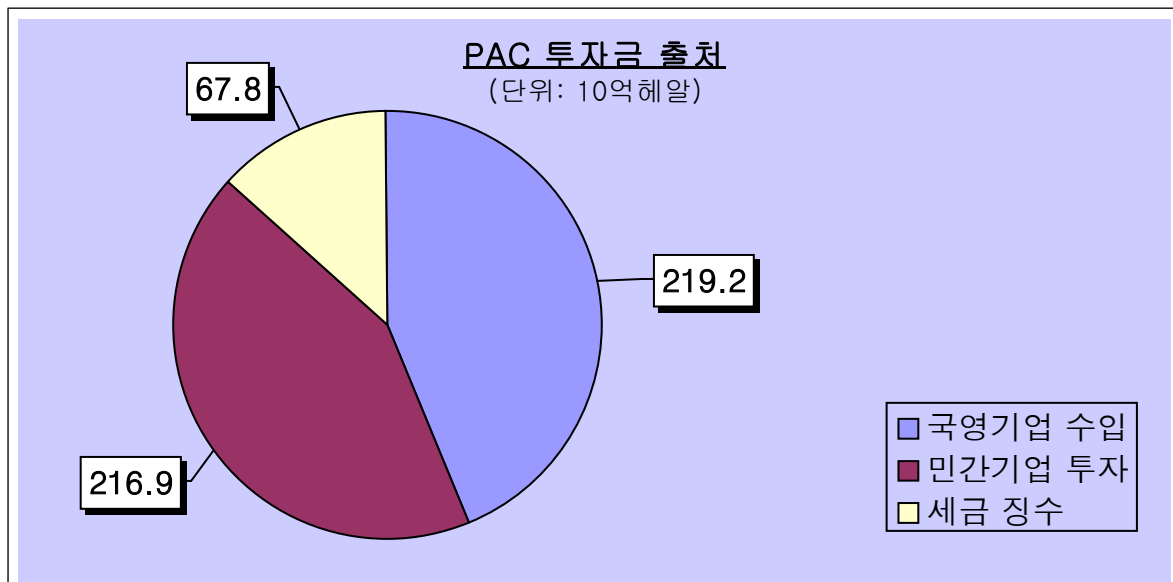
□ 개요

2007년 초 취임 2기를 맞이한 룰라 대통령은 3개월에 걸친 토론 끝에 브라질 경제성장촉진 프로그램 PAC(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를 2007년 1월 22일 발표했다. 총 5039억 헤알(당시 1달러=2.13 헤알)이 각종 에너지 개발 및 산업 인프라 보강에 투자될 계획이며, 정부 예산과 민간기업 투자금으로 재원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3% 안팎의 경제 저성장 현상으로 브릭스 국가 중 가장 낮은 투자 유치율을 나타내고 있는 브라질은 경제성장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이번에 발표된 PAC의 주요 골자도 2007년 목표 4.5%, 2008년부터 5% 등의 단계적 경제성장을 제고가 주요 목표이다. 이번 조치로 브라질 정부는 약 49억 헤알 상당의 세금을 줄여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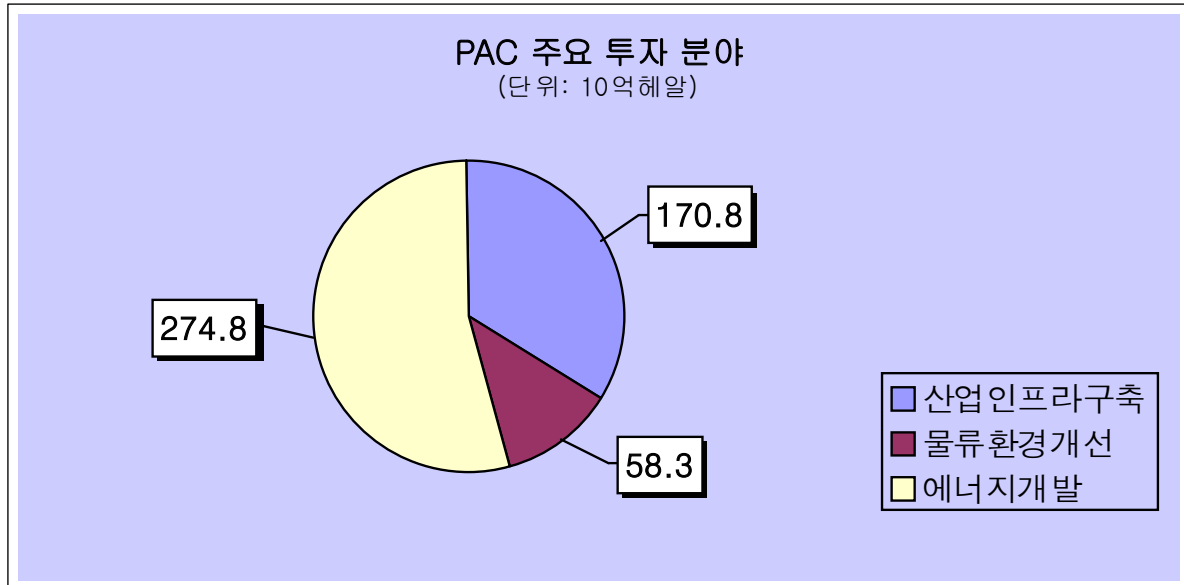
정무부, 통상산업개발부, 재무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할 예정인 경제성장촉진 프로그램 PAC는 7개의 임시조치(MP: Medida Provisória), 2건의 기존 법안 보완, 3건의 신규법 제정, 8개의 법령 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 5039억 헤알 가운데 2870억 헤알은 정부가 마련할 계획이며, 나머지 2169억 헤알은 민간기업 투자로 충당 계획이다.



자료: INFOGRAFICO/AE

- 산업 인프라 투자가 핵심 목표
 - 도로 건설, 항만 및 공항 시설 보강, 에너지 개발, 주거 환경 및 위생시설 개선 분야에 총 5039억 헤알 투자

분야	공사 내역
도로	총 길이 45,337 km 도로 확충
철로	총 길이 2,518 km 철로 확충
항구	12 개 항구 시설 확충
수로	67 개 항구 수로 시설 개선
공항	20 개 공항 시설 보강



자료: INFOGRAFICO/AE

- 자금 지원 확대
 - 연방정부가 CEF(Caixa Economica Federal: 연방 경제 은행)에 52억 헤알을 지원, 주 정부 및 시정부가 주관하는 위생시설 개선, 서민주택 건설 등 프로젝트에 사용할 계획
 - FGTS(Fundo de Garantia do Tempo de Serviço: '근무보장연금'으로 고용주가 국가에 매월 납부하고 CEF가 관리. 퇴직 시에 국가가 해당 근로자에게 누적된 금액을 지불) 중 50억 헤알을 활용해 인프라 투자 펀드를 만드는 동시에, 일반인도 FGTS 적립금의 10%까지 펀드 구매 가능하다.
- 투자환경 개선
 - 헌법 제23조 개정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의회 통과 절차 간소화
 - 민관 합동 투자 프로젝트 투자 기업을 위해 투자액 환불보장제도 강화
 - 천연가스 관련 법률 제정
 - 업체 간 공정경쟁체제 구축(담합 예방 및 근절)
 - SUDENE(북동부 개발청) 내에 SUDAM(아마존 지역 개발청) 설치
- 세금 감면
 - 건물 건축 시 납부한 PIS/Cofins (사회보장세) 환급 기간 단축
 - 산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원자재 구입 시 Pis/Cofins 면제
 - 인프라 투자 분야 펀드 구입시 소득세 면제
 - 디지털TV용 장비업체 대상으로 공업세(IPI), Pis/Cofins, 해외송금세(Cide) 등 영세율 적용
 - 반도체 판매업체 대상으로 소득세 면제, IPI, Pis/Cofins, Cide 영세율 적용
 - 4,000 헤알 미만 컴퓨터 판매 시 Pis/Cofins 면제

○ 기타 계획

- 공무원 임금 인상 제한: 광역물가지수(IPCA) 변동률+연간 1.5%에 기준함.
- 기본임금 인상: 소비자 물가지수(INPC) 변동률+현재부터 2년 전 GDP 성장률에 근거해 산출
- 국가사회보장포럼(Forum Nacional Previdência Social) 설립
- 정부 입찰 과정의 신속 간소화
- 연방 공무원 연금 제도 보완
- 사회보장제도 개선
- PAC 운영본부 설립

□ 기대 효과

			
건설	인프라 공사	투자 펀드	반도체
사회보장세(Pis/Cofins) 환급 기간이 종전의 25년에서 24개월로 감소	신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Pis/Cofins 면제	인프라 투자 펀드 구입할 경우 개인소득세 면제 혜택	법인소득세, IPI, Pis/Cofins, Cide 면제 혜택
			PAC(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컴퓨터	철골재	디지털 TV	
컴퓨터 대상 Pis/Cofins 면제 혜택을 2,500 이하에서 4000 헤알 이하로 확대	공업세 (IPI) 5%에서 0%로 감면	공업세(IPI), Pis/Cofins, 연료세(Cade)면제혜택	

세금 감면 세부 내역 비교

(단위: 10억 헤알)

	2007	2008
시행 중인 조치	5.2	8.9
개인 소득세율 조정	1.3	2.5
가속 감가상각 기간 적용 기한연장*	0.9	0.9
건설업계 Pis/Cofins 누적 기한 연장	0.6	0.6
중소기업 대상 세제 혜택	2.5	4.9
2007년 시행 조치	1.4	2.6
건축 시 Pis/Cofins 세제 혜택	1.2	2.3
인프라 보강 공사 세금 감면		
인프라 투자 펀드 세금 감면	-	-
컴퓨터 분야 감세 혜택 확대	0.2	0.2
디지털 TV 분야 세금 감면	-	-
반도체 분야 세금 감면	-	-
철골재 구입 시 세금 감면	0.1	0.1
감면 세금 총액	6.6	11.5

주: *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정상보다 빠른 가속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감가상각 부분의 25%까지 소득세(CSSL)에서 감면해 주는 정부 조치. 일례로 기계장비의 경우 과거에는 평균 수명을 10년으로 규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4년으로 단축시켜, 연간 감가상각 비용이 증가됨. 이미 시행 중인 동 조치는 2006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까지 연장됨.

마. 최근 경제 동향

1) GDP 성장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2005년 브라질 GDP 성장률은 연초 예상치인 3.5%에 훨씬 못 미치는 2.3%에 그쳤으며, 이는 2004년 4.9%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2006년 경제 성장률은 2.8% 안팎”이라고 브라질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2007년 3월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IBGE)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GDP 산출 방식에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이미 발표된 2000~2005년의 GDP 및 경제성장률을 새로운 산출방식에 따라 다시 계산한 결과 많은 차이가 발견되어 수정이 불가피했다. 새로운 계산법에 의해 2004년 GDP 성장률은 5.7%, 2005년은 2.9%, 2006년은 3.7%로 각각 수정되었다.

룰라 집권 기간 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4%로서 룰라 2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GDP 규모는 2조3,230억 헤알(약 1조660억 달러, 세계 10위)이며 1인당 GDP는 12,437헤알이다.

2007년 GDP 규모는 1조3,100억 달러, 1인당 GDP는 6,930달러로 전년 대비 5.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올 상반기까지 6%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브라질은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하여 올해는 5%대의 경제성장이 전망된다.

2) 금리

룰라 정부는 2003년 6월부터 콜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했으나 물가 불안에 따라 2004년 9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콜금리 인상을 추진하였다. 이후 인플레이 안정에는 성공하였으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둔화세가 지속됨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금리 인하 정책을 실시, 2008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과열됨에 따라 2008년 초 금리를 11.7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브라질에 진출한 외국 투자자들의 갑작스런 자금 회수로 인하여 달러화의 가치가 폭등하게 되자 브라질 중앙은행은 9월 둘째 주에 금리를 13.75%까지 인상 조치하였다.

중앙은행 Selic 금리 추이

(단위: %)

해당월	'01.1	'02.2	'03.1	6	8	9	10	11	12	'04.3	4
Selic	15.75	18.75	25.5	26.0	22.0	20.0	19.0	17.5	16.5	16.25	16.00
해당월	9	10	11	12	'05.1	2	3	4	5	6	7
Selic	16.25	16.75	17.25	17.75	18.25	18.75	19.25	19.50	19.75	19.75	19.75
해당월	8	9	10	11	12	'06.1	2	3	4	5	8
Selic	19.75	19.50	19.00	18.5	18.50	17.68	17.25	16.69	16.22	15.25	14.75
해당월	9	10	11	12	'07.1	3	4	6	7	9	12
Selic	14.25	13.75	13.25	13.25	13.00	12.75	12.5	12.0	11.50	11.25	11.25
해당월	'08.1	4	5	6	7	9					
Selic	11.25	11.48	11.75	12.18	12.88	13.75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3) 환 율

2003년 룰라 정부 취임 이후 안정적인 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대외신뢰도 향상과 수출 호조, 외국인 투자 확대 등에 따라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들면서부터 전년 대비 낮은 환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연초에는 미국 경기 변동의 여파로 소폭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세를 지속했다. 2007년 12월 말 기준 환율은 1.80헤알이었으며, 2008년 들어서도 헤알화 초강세 현상이 가속화되어 2008년 8월중순에는 1.54헤알까지 기록하였다. 이후 미국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외국자본이 빠져 나가면서 환율이 잠시 반등하여 2008년 9월 22일 기준 1달러=1.80헤알 수준이다.

최근 환율추이 (월말 기준)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환율	3.53	3.56	3.35	2.89	2.96	2.87	2.96	2.96	2.92	2.85	2.94	2.90
2004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환율	2.94	2.91	2.91	2.94	3.13	3.11	3.03	2.93	2.86	2.86	2.73	2.65
2005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환율	2.62	2.59	2.67	2.53	2.40	2.35	2.39	2.37	2.36	2.33	2.25	2.32
2006	1	2	3	4	5	6	8	9	10	11	12	1
환율	2.26	2.11	2.13	2.11	2.27	2.24	2.14	2.2	2.14	2.16	2.14	2.13
2007	2	3	4	5	6	7	10	11	12	1	2	3
환율	2.11	2.04	2.03	1.92	1.92	1.90	1.81	1.75	1.80	1.76	1.68	1.75
2008	4	5	6	7	8	9						
환율	1.68	1.65	1.59	1.56	1.62	1.80						

주: 기준 U\$1= R\$_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4) 물가

2005에는 정부 예상치 5.6%를 소폭 상회하는 5.69%로 마감했다. 브라질 경제조사기관들은 2006년 물가상승률을 3.1%, 2007년 4.5%로 집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국내 경기 활황으로 인플레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4.5%로 잡고 있으나 경기호황으로 인플레이가 우려되며, 이에 따라 2005년 9월 이래 실시한 금리인하 정책에서 다소 우회하여 금리를 상향조정하여 2008년 9월에는 13.75로 금리를 인상 조정하였다.

물가상승률(IPCA) 추이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물가상승률	7.7	12.5	9.3	7.6	5.69	3.1	4.5	4.48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5) 외국인 직접투자

2006년 10월 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5년에 전년 대비 11단계 추락한 27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이며, 브라질은 전 세계 국가들 중 14위를 차지해 2004년 10위

보다 4단계 하락했다. 이는 신흥개발도상국 가운데 중국,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보다도 뒤지는 수치이다. 브라질은 세계 직접투자 총액 중 2003년 1.8%, 2004년 2.6%, 2005년 1.6%를 차지함으로써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금리, 인플레이션 안정, 국가위험도 하락 등 투자환경 호전 요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둔화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2006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87억 달러, 2007년은 346억 달러를 기록했고 2008년 8월까지 246억 달러가 유입됐다. 부문별로는 금융서비스가 15.4%를 차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금속(10.3%), 자동차(7.2%) 등이 뒤를 이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직접투자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올해 FDI 유치 목표액인 320억 달러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경제의 펀더멘털의 개선, 물가안정과 함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세계 신용평가기관들의 우호적 평가에 따른 국가위험도 하락 등으로 외국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초 브라질이 투자적정등급으로 신용평가가 한 단계 상승함에 따라 대 브라질 외국자본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최근 미국 경기 침체에 따른 세계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 급팽창세에 따라 생산,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대 브라질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금 액	327.8	224.6	165.9	101.4	181.7	151.9	187.8	346	246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BCB)

바. 향후 전망

브라질 정부는 최근 에너지 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브라질 경제는 2007년 경제성장을 5.4%를 이루었고 올해 성장 전망을 4.5~5%까지로 하고 있어 성장 기반 만 제대로 조성될 경우 브라질 정부가 목표로 하는 5% 달성 지속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브라질 은행들은 미국 시장 진출이 적은 관계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브라질 경제에 미칠 여파는 아주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세계적인 침체로 인하여 브라질산 원자재, 광물 등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브라질의 경제 성장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브라질이 유럽지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도 향후 브라질 경제의 성장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정부는 현재 유럽연합(EU)과의 전략협력을 통해 메르코수르-EU 간 자유무역협상을 진행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이 성공할 경우 브라질로서는 거대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2. 주요 산업 동향

브라질은 1940년대부터 추진해 온 수입대체 산업화를 통해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튼튼하고 다양한 제조업 기반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취해진 수입개방 정책으로 수입품과의 경쟁에 밀려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탈 산업화 과정이 가속화 되기도 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를 비롯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바 있으며 2002년에는 IMF의 구제 금융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몇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브라질의 산업 구조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농업 및 광산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에 따라 기존의 1차 산업을 유지하면서 자동차와 항공기 등 제조업, 석유 및 석유 화학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 산업, 바이오 에너지 산업 외에도 서비스업, IT, BT, 나노 등 첨단 기술 산업, 금융업 등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브라질 부문별 GDP 성장률(%)

부문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계	1.15	5.72	3.16	3.75	5.42
농축산업	5.61	2.32	0.30	4.16	5.30
공업	1.28	7.90	2.08	2.91	4.86
광산채굴업	4.68	4.29	9.32	5.68	2.97
가공업	1.85	8.47	1.25	1.97	5.06
토목건축	-3.28	6.58	1.77	4.62	4.88
공업서비스	3.96	8.44	3.04	3.29	5.03
서비스업	0.76	5.00	3.67	3.78	4.73
상업	-0.46	7.53	3.52	5.13	7.56
수송	-3.10	5.88	3.49	3.16	4.82
통신	4.43	5.50	4.01	2.48	7.97
은행	-4.78	3.89	5.26	6.17	13.03
기타	0.67	5.42	5.17	3.13	2.26
임대	3.35	3.86	4.71	2.34	3.50
공공서비스	2.96	3.78	1.08	3.68	0.91

자료: IBGE(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

최근 9년간 브라질 산업구조(GDP 대비 비중)의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 축산업	5.5	5.6	6.0	6.6	7.4	6.9	5.7	5.2	5.5
공업	25.9	27.7	26.9	27.1	27.8	30.1	29.3	30.1	28.7
광업	1.0	1.6	1.5	1.6	1.7	1.9	2.5	2.6	2.0
가공업	16.1	17.2	17.1	16.9	18.0	19.2	18.1	18.3	17.8
건설업	5.6	5.5	5.3	5.3	4.7	5.1	4.9	5.2	5.3
전기, 가스, 수도	3.2	3.4	3.0	3.3	3.4	3.9	3.8	4.0	3.7
서비스	68.6	66.7	67.1	66.3	64.8	63.0	65.0	64.7	65.8
상업	10.0	10.6	10.7	10.2	10.6	11.0	11.2	10.8	10.9
교통, 보관업, 우편	4.2	4.9	5.0	4.8	4.7	4.7	5.0	5.3	5.5
정보 서비스	1.6	3.6	3.5	3.6	3.6	3.8	4.0	3.9	3.9
부동산	12.2	11.3	10.7	10.2	9.6	9.1	9.0	8.8	8.8
교육, 보건	15.2	14.9	15.5	15.5	15.1	14.7	15.0	14.7	15.0
기타	25.3	21.4	21.7	22.0	21.1	19.7	20.9	21.2	21.7

자료: 브라질 통상개발상공부(MDIC)

농·목축업 및 공업(광업+제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1세기 초까지 계속되던 서비스 산업의 약화는 무엇보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오랜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농·목축업 및 광업, 그리고 제조업의 위상은 1999년 이후 브라질 헤알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힘입은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수출이 급증하면서 다시 높아졌다.

하지만 2004년 이후 헤알화 대비 달러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매년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동시에 브라질 산업구조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 국내에서 생산 되던 중간소비재 제품이 수입품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원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생산하는 경우 및 가공까지 다 마친 최종 완성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 기술 산업의 경우,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1997년 8%까지 떨어졌던 농·목축업 부문의 위상은 2004년에 10%로 높아졌으며 1998년 20%까지 떨어졌던 제조업의 위상도 24%로 상승했다. 특히 광업 부문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졌다. 1998년까지 1% 미만이었던 광업 부문의 위상은 생산 및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04년에 4.2%, 2005년에는 9.8%까지 증대되었다.

2007년의 경우 브라질 농·목축업은 5.5% 성장하였으며, 곡물 및 육류 등 1차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올해도 작년에 이어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경기 침체 등을 비롯한 다수의 외부요인에 의해 올해는 전년보다 다소 낮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제 원자재 수요 증가에 따라 철강산업을 비롯한 광업 분야는 올해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심해 유전 발견으로 브라질 석유 에너지 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탄력을 받고 있다.

가. 농·축산업

브라질은 세계의 곡물창고라는 명성에 걸맞은 식량자원의 보고이다. 생산량에서 설탕, 오렌지 주스, 커피 등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두와 쇠고기 생산은 세계 2위, 닭고기, 담배, 옥수수 생산은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량에서는 커피, 오렌지 주스, 설탕, 대두, 커피, 쇠고기, 담배 등이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으며 대두박, 대두유, 닭고기 생산은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1차 상품 가격 상승 및 인근 남미 국가 및 유럽, 아시아 지역으로 브라질 산 식품 수출 대폭 증가에 힘입어 브라질 농업분야는 497 억 헤알의 무역 수지 흑자를 남겼다.

2007년 한해 동안 브라질 산 육류 판매는 전년 대비 30.7% 증가한 112 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아시아 및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공하지 않은) 쇠고기 가격은 6%, 닭고기는 24%, 돼지고기 가격은 2.9%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류 독감으로 대규모의 닭을 도살 처분한 바 있는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44.3% 늘어난 42 억 달러 상당의 브라질산 닭고기를 수입하였다.

한편, 브라질 수출 상위 품목 중 하나인 대두는 작년 113 억 달러를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였으며, 옥수수 수출은 전년 대비 178% 나 상승한 109 억 톤을 수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별 브라질 산 농산물 수출 (2007)

지역	수출액(달러)
EU	208 억
아시아	112 억
Nafta	73 억
중동	47 억
아프리카	38 억
남미(메르코술 제외)	26 억
메르코술	17 억

자료: IEA, SECEX/MDIC

나. 광업·에너지 산업

1) 광업

브라질은 세계 광물의 보고로 총 70종의 광물(비금속 광물 45종, 금속 광물 20종, 에너지 광물 4종 등)을 생산하고 있다.

브라질 광물 에너지 부문은 개발 잠재력이 엄청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특히 아마존 지역은 철광석, 마그네슘, 알루미늄(보크사이트), 금, 주석 이외에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광물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브라질에는 다수의 광물 개발 업체가 활동 중이지만, 일부 유망 광물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개발 가능한 기타 광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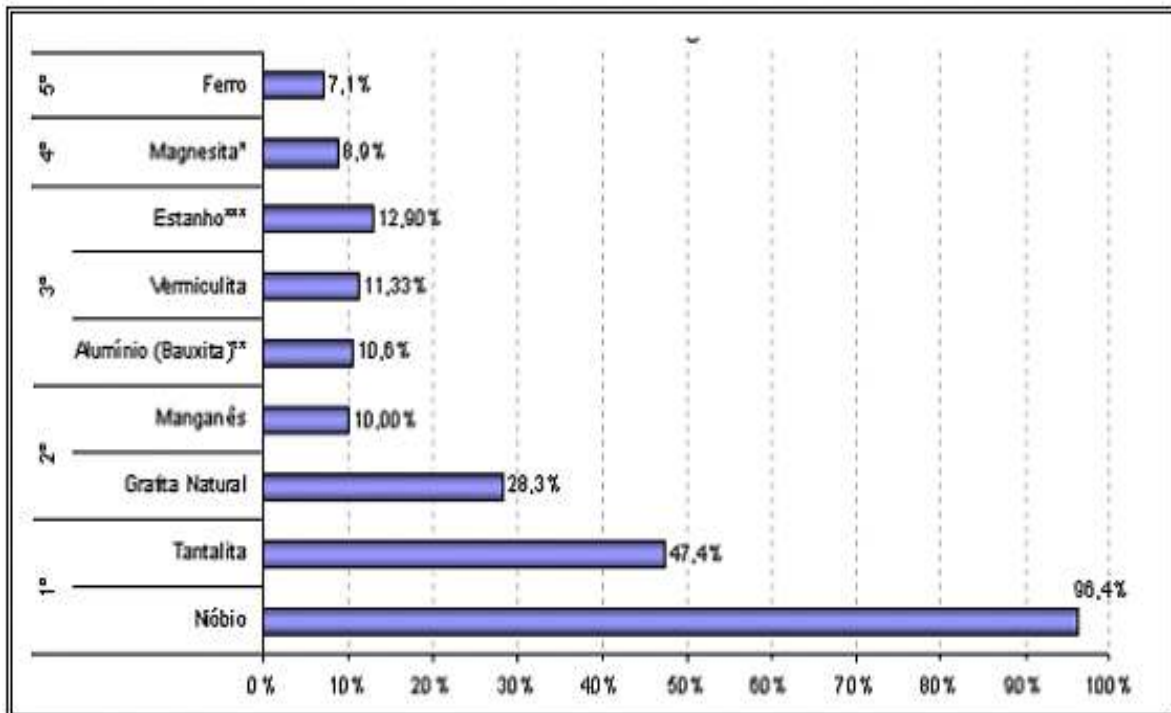
2006년 기준, 매장량 면에서 브라질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광물은 니오븀과 탄탈석이다. 다음으로 흑연 및 망간 매장량이 세계 2위, 질석, 주석 및 알루미늄 매장량은 세계 3위,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 4위, 철 매장량은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 광물매장량 세계 순위(2006년 기준)

매장량 기준		
순위	광종	비중(%)
1위	니오븀	96.4
	탄탈석	47.4
2위	흑연	26.3
	망간	10.0
3위	알루미늄(보크사이트)	10.6
	질석	11.3
	주석	12.9
4위	마그네사이트	8.9
5위	철	7.1

주: 비중- 세계 매장량 대비 비중, 2008년 9월 현재까지 2007년 자료 미 발표

자료: Ministerio de Minas e Energia, Departamento Nacional de Producao Mineral, Sumario Mineral 2007



□ 생산량

브라질은 8,500만m²라는 방대한 면적을 보유한 국가답게 다양한 광물자원을 갖추고 있어, 미국, 러시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남아공과 함께 세계 주요 광물 생산국 중 하나이다.

브라질은 대부분의 주요 광물을 자급자족하고 있고, 철, 니오븀 등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석유, 석회, 탄탈라이트, 보크사이트, 흑 등을 다량 생산하고 있다. 반면, 경유, 석탄, 아연을 비롯한 비금속 제품용 원자재의 경우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면에서 브라질은 세계 5대 광물 생산국 중 하나이다. 2008년 기준 세계 1위 생산 광물은 철, 니오븀, 망간 등이며 제2위 생산 광물은 알루미늄(보크사이트), 제3위 광물은 흑연, 4위는 장석, 석면, 마그네사이트 5위가 고령토이다.

최근 주요 광물의 국제 수요 증가 및 국내 수요 급증에 따라, 2006년 브라질 광업은 전년 대비 6% 성장하였으며, 특히 철강 산업은 약 10.9% 나 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질 광산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철광석은 2007년 3억7000만 톤이 생산되었다. 중국은 철 생산국이지만, 자국산 철의 품질이 낮아 브라질 산 철광석을 다량 수입하고 있다.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광업 및 에너지 개발 산업(석유 및 천연가스 포함)의 위상은 최근 10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업·에너지 분야의 2002년 GDP는 전체의 11.58%라는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적도 있었으나,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 2005년에는 다시 9.78%로 상승하였다. 2006년의 경우 광업·에너지 산업 GDP는 전체의 5.95%, 2007년은 5%를 차지했다.

광물·에너지 GDP 비중 및 성장률

연도	GDP 비중(%)	평균 가동률(%)	광산업 규모(단위: R\$ 백만)
2000	9.09	94.38	16,271
2001	2.22	94.38	16,454
2002	11.58	94.90	20,419
2003	4.68	95.69	25,249
2004	4.29	95.06	31,997
2005	9.78	95.69	48,012
2006	5.95	93.89	58,689
2007	5%	-	-

자료: Sumario Mineral 2007, 에너지 자원부 장관 인터뷰 (2008년 5월)

브라질의 자원 개발 분야는 지난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가 주도의 독점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체 상태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1995년 자원 개발 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하는 한편 국영광업회사인 발레 도 리오 도세(CVRD)를 민영화 하면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03년 초 룰라 정부가 들어서면서 광물뿐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바이오 디젤, 알코올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 및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브라질 광산업 분야는 국제 광물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힘입어 전에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또한 미국 부동산 경기 불황 등 각종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2007년 한해 동안 브라질 광산업체들의 주가는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하반기 주요 광산업체 주가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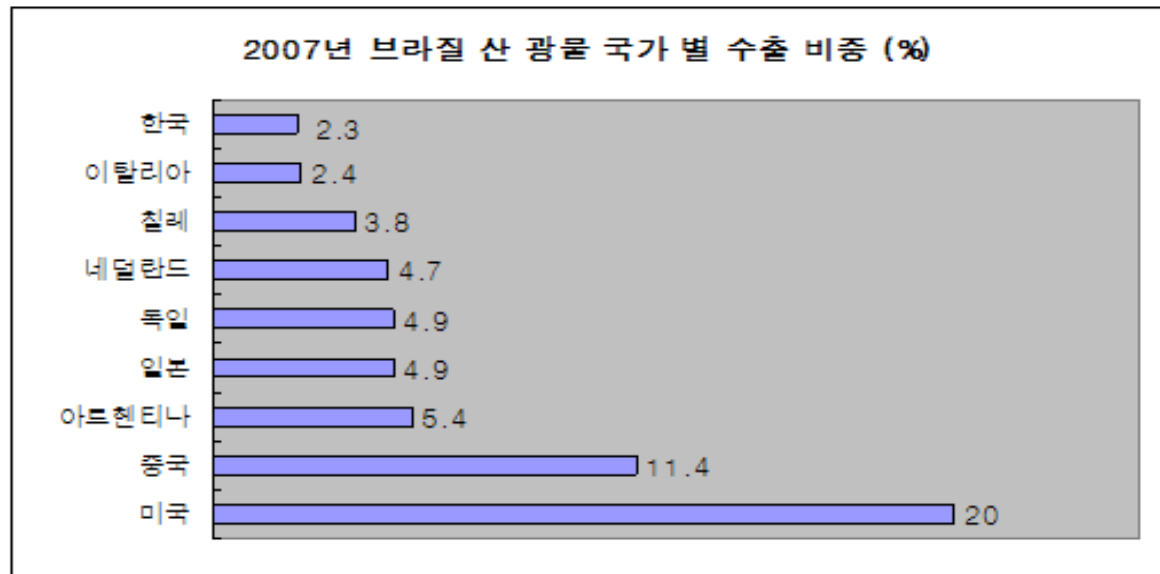
업체	주가 상승률(%)
MMX	83.4
Petrobras	74.5
CSN	61.1
Magnesita	49.5
Fosfertil	42.7
Vale	41.1

자료: DIDEM - Informe Mineral 2008 상반기 보고서

□ 수출량

2000년 120억 달러에 불과했던 광물·에너지 수출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4년에는 두 배인 23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401억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수출액의 29.1%를 점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 등이다. 동기간 광물 수입액은 283억이며, 주요 수입 광물은 구리, 칼륨, 아연 등이다.

2007년 브라질 광물·에너지 수출액은 469억 달러이며, 수입은 379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對 한국 광물 수출은 전체의 2.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물·에너지 분야는 최근 브라질 무역 수지 흑자 액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광물·에너지 분야 무역수지 흑자 액은 118 달러이며, 2007년 흑자는 89억 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고 수출 품목은 철(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2007년 광물 원자재 수출 총액 223억 달러의 4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유가 39.9%, 구리가 4.6%, 장식석이 전체 수출의 3.9%, 고령토 1.4%, 기타 광물이 각각 3 %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의 광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브라질에 특수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철광석의 경우 2003년 對 중국 수출량이 1억4,000만t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0년경에는 1억8,00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7년 브라질 산 광물 원자재 對 중국 수출량은 47억 달러로 중국이 전체 수출량의 21.2%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미국(18.1%, 40억 달러), 3위는 독일(6.3%, 14억 달러) 순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광업규제 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들어 지속되고 있는 광물자원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세수입도 늘리려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완화를 검토 중인 규제에는 현행법 상 금지되어있는 인디오 주거 지역 내 광산 채굴과 브라질 국경 지대에서 외국기업의 광업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브라질 현행법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국경지대로부터 150킬로미터 이내에 외국기업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광산 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Ibram(브라질 광업협회)는 브라질 광산업체들이 2012년까지 전년 투자액 320억 달러 대비 47% 증가한 47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 투자액 중 59%에 해당하는 278억 달러가 철광석 개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연도별 광물 조사 투자액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54.3	127.4	293.6	313.0	375.9

자료: DNPM (브라질 광물 생산국)

2) 석유·가스 산업

브라질의 석유 매장량은 2007년 기준 144억 배럴로 세계에서 15위, 중남미 지역에서는 베네수엘라,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이다.

브라질의 석유 생산량은 1985년 해양시추를 통해 석유생산을 시작한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해 1997년에는 세계에서 17번째로 1일 100만 배럴 생산국 반열에 들어섰다. 브라질은 현재 세계 15대 석유 생산국으로 2007년 생산량은 6억 3800만 배럴이다.

또한 브라질은 세계 6대 석유 소비국으로 1일 석유 소비량은 180만 배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부족한 석유에 대해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2006년 4월 21일 캄포스 유전 P-50 광구 개발을 계기로 역사적 인 석유자급자족을 선언하여 고공비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 유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한 경제 안정을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P-50 광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유전으로 일일 18만 배럴 생산이 가능하다. 브라질 석유공사 ANP는 2010년까지 1일 석유 생산이 23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브라질에는 현재 14개 정유공장이 있으며 이중 11개가 브라질 국영석유회사인 Petrobras 소유다. 정유공장은 모두 수입 원유 처리를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중질의 국산 원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 규모의 설비확충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브라질 석유공사(ANP)는 점증 하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1일 정제능력 20만 배럴의 정제공장을 최소 2개 이상 건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베네수엘라와 공동으로 페르낭부코(Pernambuco) 지역에 정유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추가로 마라냐웅(Maranhão)과 세아라(Ceará)지역에도 대규모 정유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1990년대 브라질은 Petrobras와 전력공사(Eletrobras)를 부분적으로 민영화했다. 이후 석유 산업을 감독할 국영 석유공사(ANP)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할 국가 에너지 정책 위원회(CNPE)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외 민간기업의 에너지 부문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3년에 Royal Dutch / Shell사가 Petrobras와 합작으로 브라질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현재는 다양한 외국 기업이 Petrobras와 합작 형태로 석유를 개발하고 있다.

한편 BP Amoco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6 보고서에 의하면 브라질의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2005년 기준, 세계 매장량의 0.2%인 3,063억m³에 불과하고 생산량 역시 세계 비중 0.4%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브라질은 신규 천연가스매장 발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지질 조사국(USGS)은 브라질의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이 남미 전체 미 발견 매장량의 40%에 이르는 5조m³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천연가스는 앞으로 브라질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전망이다. 1999년 2.5%에 불과했던 천연가스 소비량(총 에너지 소비)은 2010년 10%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부족한 천연가스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볼리비아, 2000년부터는 아르헨티나로부터 가스 수송관을 통해 가스를 수입해 오고 있다.

기존 공급 망 외에도 날로 증가하는 가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출발해 브라질 남북을 종단하여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까지 이르는 총 길이 9,283 km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브라질의 경우, 1일 평균 65만 boe(석유와 가스양을 측정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로 1boe=1배럴과 같은 양이다)의 가스가 공급될 예정인데, 이 가스를 모두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했을 경우 2006년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인 이타이푸(Itaipu)댐의 1일 전력 생산량의 3배인 30,0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기준 천연가스 생산량은 177만 m³이다.

한편 브라질 국영 석유공사인 ANP는 1999년부터 매년 'Brasil Round'라는 석유광구 개발 국제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에 제7차 입찰에는 에너지 분야 세계 유명 기업 및 한국 기업 SK의 참가, 낙찰에 성공하는 쾌거를 올렸다. 페트로브라스(Petrobras)는 작년 11월 8일 약 50억~80억 배럴로 추정되는 매장량을 가진 새로운 대형 유전이 산토스 만 해저층에서 발견되었음을 발표하였다.

투피(Tupi)라는 임시 명칭이 붙은 이 유전으로 브라질의 석유 매장량은 현재의 144억 배럴에서 약 50%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석유 생산은 2013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Petrobras는 “이번에 발견된 것과 유사한 대형 유전이 적어도 8개 이상 깊은 해저층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면서 “이제 브라질도 평범한 산유국에서 석유 수출국으로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Tupi 유전의 석유 매장량이 50억~80억 배럴로 최종 확인될 경우, 브라질은 현재 석유 보유량 기준 세계 15위에서 8~12위 수준으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8년 초에 브라질 국영 석유공사 ANP는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Pão de Açúcar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 동 유전 발견 사실과 관련 브라질 정부의 공식 확인은 없었지만, 추정 매장량이 무려 300억 배럴이나 되어 벌써부터 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Pão de Açúcar 유전 발견 소식은 국내외 석유시장을 뒤흔드는 한편, Petrobras 사의 주가 폭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을 정도로 그 여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 유전의 규모 및 석유의 품질 등을 가늠하는 테스트는 진행 중이며, 향후 수개월 이내에 보다 상세한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같이 거대 유전의 발견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브라질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브라질이 석유 수출국이 되어 세계적인 자원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대체 에너지

□ 브라질의 대체에너지 현황

브라질은 바이오 디젤, 에탄올 등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체 에너지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브라질의 바이오 에너지산업은 브라질 국내에서의 연료알코올 수요 급증과 국제적 수요 특히 미국의 수요를 배경으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알코올과 가솔린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이중연료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의 브라질 에탄올 시장 투자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 에탄올 생산량은 269억 리터(일부 기관은 224억 리터라고 발표함)로 브라질 정부는 2010년까지 280억 리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설탕가격이 알코올 가격보다 높았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설탕 생산공장들이 알코올보다는 설탕 생산에 주력하였으나 최근에는 대등한 비율로 알코올과 설탕을 생산하고 있다.

브라질 북동부 지역이 전통적인 설탕 대량생산 지역이지만 현재는 상파울루 주를 중심으로 하는 중남부 지역이 최대 생산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상파울루 주가 200여 개의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최대 생산지역이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설탕이 전국의 4분의 3, 알코올은 3분의 2를 담당하고 있다. 브라질 전체에는 2007년 말 기준 400여 개의 연료용 알코올 공장 (국가석유공사 ANP에 등록 기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내 알코올 생산공장의 평균 생산성은 사탕수수 1t당 알코올 70~85ℓ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높은 생산성은 부단한 기술 개발에 기인하는 것으로, 특히 Dedini, Zanini, Codistil와 같은 기계 설비 생산 업체들이 상파울루 주 피라시카바(Piracicaba) 시와 리베이랑 프레토(Ribeirao Preto) 시의 산업단지에 주로 밀집되어 있다.

브라질 주(州) 별 알코올 생산시설 현황(2007. 12월)

주(州)	알코올 생산시설 수	주(州)	알코올 생산시설 수
Alagoas	21	Paraiba	8
Amazonas	1	Paraiba	8
Alagoas	21	Pernambuco	23
Bahia	4	Piaui	1
Ceara	1	Parana	33
Espirito Santo	6	Rio de Janeiro	7
Goiias	20	Rio Grande do Norte	3
Maranhao	4	Rio Grande do Sul	1
Mato Grosso	11	Sergipe	4
Mato Grosso do Sul	11	Sao Paulo	207
Minas Gerais	32	Tocantins	1
Para	1	Total	400

주: 주별 알코올 생산시설 수는 브라질 석유공사 ANP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표로, 생산 중인 업체와 휴업 중인 업체 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자료: ANP

브라질의 알코올 산업 통계

항목별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생산(억 리터)	105	115	126	148	154	159	177	224③
수성 알코올①	49	51	56	89	71	82	94	143
무수 알코올②	56	64	70	59	83	77	83	81
중서부-남부	90	102	111	131	136	143	160	203
북부-동북부	15	13	15	17	18	16	17	21

주1: Flex 자동차용 연료로써 사용됨

주2: 가솔린의 혼합용 연료로써 사용됨

주3: 기관에 따라 알코올 생산량에 다소 차이가 남에 유의

자료: UNICA (상파울루 주 사탕수수 농공업연맹)

지역 별 알코올 생산 동향

(단위: m³)

주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아크레(AC)	0	0	0	0	0	0
혼도니아(RO)	0	0	0	0	0	0
아마조나스(AM)	3,889	4,375	4,671	6,009	5,650	8,264
파라(PA)	26,426	35,012	48,405	42,725	51,818	35,804
토칸티스(TO)	0	0	0	4,218	11,567	0
마라냥(MA)	83,579	89,865	95,905	138,848	128,469	170,164
피아우이(PI)	22,831	22,373	19,453	35,083	50,501	36,169
세아라(CE)	976	317	153	1,022	1,002	571
리오그란데 도노르테(RN)	99,015	94,870	89,463	73,649	77,833	49,244
파라이바 (PB)	240,367	277,763	337,947	267,578	315,114	337,216
페르남부코(PE)	306,974	378,261	414,843	328,059	318,938	453,823
알라고아스(AL)	567,868	725,516	687,165	546,046	604,177	852,907
세르지페(SE)	61,325	62,066	64,285	47,940	53,833	48,693
바이아(BA)	57,891	49,650	63,023	103,275	93,962	140,535
미нас 제라이스(MG)	635,816	799,252	803,575	958,902	1,291,445	1,776,760
에스피리토 산토(ES)	202,559	183,959	237,774	234,960	173,192	252,270
리우데자네이루(RJ)	109,042	107,934	162,874	135,536	87,455	120,274
상파울루(SP)	7,690,689	8,828,353	9,107,457	9,985,276	10,910,013	13,345,207
파라나(PR)	980,472	1,224,010	1,209,668	1,039,832	1,318,904	1,859,346
산타카타리나(SC)	0	0	0	0	0	0
히우 그란데 도 술(RS)	6,411	6,045	4,823	3,338	5,686	6,818
마토 그로수(MT)	653,919	792,169	814,667	770,572	757,251	894,378
마토 그로수 도 술(MS)	418,052	480,571	533,580	495,591	640,843	876,773
고이아스(GO)	455,124	646,344	716,937	728,535	821,556	1,213,733
중서부 Total	11,152,084	13,068,637	13,591,355	14,352,542	16,006,345	20,345,559
북부 및 북동부Total	1,471,141	1,740,068	1,825,313	1,594,452	1,712,864	2,133,390
브라질 전체 Total	12,623,225	14,808,705	15,416,668	15,946,994	17,719,209	22,478,949

자료: UNICA

다.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브라질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브라질은 1950년대 이미 44층의 건물을 건축했으며 1970년대에 지하철을 건설하고, 연장 14km의 연 육교를 자체 엔지니어링으로 세울 정도의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를 설계하고 유엔본부의 건물을 설계한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오스카르 니에메예르(Oscar Niemeyer)는 브라질 건축기술의 상징이기도 하다.

브라질 건설업체들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기준 브라질 국내에 등록된 건설업체만 15만 개에 달한다. 브라질 건설업체들은 이미 전 세계 50개국에 진출해 석유 플랫폼, 지하철, 가스관 및 공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브라질 건설업체들의 높은 경쟁력과 자국산업 보호정책으로 외국 기업의 브라질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점유율은 매출 기준으로 5%에 불과한 실정이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로는 Odebrecht와 Andrade Gutierrez 등을 들 수 있다. Odebrecht의 사업영역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 화학 및 석유화학, 인프라, 공공 서비스, 석유 및 가스, 관광, 펄프생산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남미, 중미, 북미, 아프리카, 유럽 등 세계 전역에 진출해 있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이기도 하다.

Andrade Gutierrez는 중남미 최대 민간그룹 중 하나이다. 1948년 미나스 제라이스 벨로 오리존테에서 작은 건설회사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브라질은 물론 해외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는 건설 및 엔지니어링, 통신 부문이다.

브라질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은 2000~2004년 5년간 연평균 4.9% 성장을 기록했다. 이 결과 브라질 건설 엔지니어링 시장 규모는 2000년 183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221억 달러로 증가했다.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가 공개하고 있는 가장 최근 자료) 2005년 기준 건설 분야 GDP성장률은 전년 대비 3.3%이며, 전체GDP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07년 3년간 브라질 건설시장은 더욱더 큰 폭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2007년에는 전에 없는 경기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건설 시장 동향을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시멘트의 경우, 그간의 침체를 완전히 벗어나 2006년부터 연간 4,000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작년보다 11% 증가한 4,900만~5,0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시장 성장의 주 원인으로는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한 저 이자 장기 할부 금융 상품이 많아진 점을 지목할 수 있다.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대폭 늘어나면서 다수의 주택, 아파트 등이 건설되고 있다. 또한 미국 발 국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건설경기 호황을 타고 건설업체들의 주가가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브라질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은 크게 토목과 비 주거용 건설 부문으로 대별되는데 이중 토목 부문의 비중이 67.6%(2004년 기준으로 입수 가능한 가장 최신자료)에 달한다.

건축비의 경우 2008년 4월 기준 1m² 당 R\$ 618.36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356.63헤알은 자재비, 나머지 261.73헤알은 인건비로 나타났다. 또한 남동부 지방 및 남부 지방 건축비가 다소 높은 반면 북부, 북동부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6년간 브라질의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은 연평균 4.4%(전 세계 평균 성장률 3.9%) 성장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시장 규모도 2009년에는 275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브라질 지역 별 건축비 증감 동향

지역	평균 건축비 (R\$/m ²)	1998년12월 평균 건축비를 100으로 가정할 때 증감 지수	변동률		
			월간	연간	최근12개월
브라질	618,36	218,62	0,37	2,09	6,48
북부	606,09	210,76	0,32	1,78	7,16
Rondônia(RO)	562,01	213,33	0,58	2,21	7,26
Acre(AC)	609,73	223,76	0,58	1,67	9,99
Amazonas(AM)	632,18	201,03	0,24	0,93	6,50
Roraima(RR)	721,82	216,09	0,60	3,07	4,60
Pará(PA)	591,77	211,34	0,29	2,16	7,67
Amapá(AP)	607,55	223,52	0,22	3,54	6,84
Tocantins(TO)	624,91	217,59	0,07	0,57	6,81
북동부	583,60	228,00	0,30	2,58	6,58
Maranhão(MA)	596,77	230,25	0,17	1,29	7,74
Piauí(PI)	550,95	240,25	0,09	4,71	9,62
Ceará(CE)	565,93	223,79	0,11	1,99	4,87
Rio Grande do Norte(RN)	551,56	218,49	0,32	0,92	6,22
Paraíba(PB)	570,78	231,41	0,71	3,71	6,87
Pernambuco(PE)	568,44	233,33	0,60	1,62	6,47
Alagoas(AL)	608,80	214,83	0,27	1,12	5,76
Sergipe(SE)	554,41	241,56	0,32	1,64	8,24
Bahia(BA)	614,60	227,34	0,22	3,96	6,64
남동부	656,46	218,93	0,34	2,26	6,44
Minas Gerais(MG)	601,32	242,41	0,23	1,93	8,43
Espírito Santo(ES)	540,52	240,25	0,31	1,24	6,71
Rio de Janeiro(RJ)	709,00	228,08	0,66	5,70	7,69
São Paulo(SP)	675,13	208,27	0,29	1,56	5,40
남부	603,79	204,65	0,59	1,32	5,57
Paraná(PR)	608,08	206,15	0,69	1,13	5,36
Santa Catarina(SC)	602,06	204,16	0,74	1,79	7,92
Rio Grande do Sul (RS)	600,60	203,48	0,40	1,23	4,40
중서부	603,79	204,65	0,59	1,32	5,57
Mato Grosso do Sul(MS)	587,70	223,49	0,37	1,39	7,22
Mato Grosso(MT)	590,77	218,69	0,34	1,48	7,64
Goiás(GO)	587,07	231,29	0,29	1,14	8,43
Distrito Federal(DF)	571,07	223,66	0,45	1,51	6,56

자료: IBGE(2008년 4월 기준)

라. 항공 산업

일반적으로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은 미국의 라이트 형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항공 전문가들이나 과학사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제작의 시조로 브라질의 산토스 두몽(Alberto Santos Dumont)을 꼽는다. 브라질은 항공 분야에서 오랜 기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4대 항공기 제조 국으로 발돋움했다. 브라질은 110인승 이하 중형 여객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미국, 유럽국가 등이 주요 고객이다. 항공기는 브라질의 최대 수출품의 하나로 지금까지 약 3,900대가 판매되어 전 세계 65개국 영공을 누비고 있다.

브라질은 1910년부터 일찍이 항공산업 육성책을 실시했다. 브라질 정부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1969년에는 정부출자 89%의 브라질 국영항공사 EMBRAER를 설립했다. 이후 발전을 거듭해 오던 EMBRAER는 1990년 이후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1994년 12월 EMBRAER의 과감한 민영화를 단행했다. 민영화 이후 EMBRAER는 생산비용 감축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구조개혁에 힘입어 지난 수년간의 적자에서 벗어나 1998년부터는 흑자기조로 전환하였다.

EMBRAER는 현재 상업용 항공기, 비즈니스용 항공기, 군수용 항공기, 기타 부품 등 4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상업용 항공기는 전체 매출의 78%(2004년 기준)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MBRAER는 1996년에 37~50인승의 ERJ-145기종을 생산했다. 2006년 기준 EMBRAER의 대표적인 생산 기종인 ERJ-145는 비록 경쟁업체인 캐나다의 Bombardier보다 4년 늦게 출시되었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39%에 달하고 있다. ERJ-145 모델의 성공은 △미국에서 지역 항공기에 대한 수요 대폭 증가 △EMBRAER의 기술 축적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의 결과였다.

한편 EMBRAER는 1999년 6월 EMBRAER-170/195 기종을 출시, 새로운 틈새시장 분야 개척을 시도했다. 새롭게 개발된 EMBRAER 시리즈 기종은 70~108명의 탑승이 가능하다. EMBRAER-170/175 기종에서는 캐나다 Bombardier가 최대 경쟁자이며 보다 큰 EMBRAER-190/195 기종에서는 Airbus와 Boeng이 대표적인 경쟁업체이다. Embraer 생산하고 있는 30~60 인승 제트기의 경우 세계 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70~90 승 제트기는 32%, 90~120 인승 제트기는 60%를 각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MBRAER의 항공기 주요 생산 기종

모델 기종	용도
EMB-120	지역 수송기 (30인 승)
AMX	전술전투기
EMB-312 Tucano	터보프롭 군용 훈련기
EMB-145	지역 수송기
CBA-123	지역 수송기(아르헨티나 FMA와 공동개발, 1994년 중단)
EMB-202 Ipanema	농업용 항공기
ERJ-135	지역 수송기(37인 승)
ERJ-140	지역 수송기(44인 승)
ERJ-145	지역 수송기(55인 승)
EMBRAER-170	지역 수송기(70인 승)
EMBRAER-175	지역 수송기(78인 승)
EMBRAER-190	지역 수송기(99인 승)
EMBRAER-195	지역 수송기(108인 승)

자료: EMBRAER 홈페이지(www.embraer.com)

EMBRAER는 브라질 최대 수출업체 중 하나이다. 1999~2001년에 EMBRAER는 브라질 최대 수출업체 자리를 차지한 바 있다.

2005년의 경우, EMBRAER는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인 Petrobras, 철강업체 CVRD에 이어 브라질의 제3대 수출업체의 위치를 차지했다. 2005년 EMBRAER의 수출 규모는 32억 9,100만 달러로 총 판매액 97.2% 비중을 차지했다.

2007년 Embraer 은 브라질 전체 수출업체 중 1위 Petrobras (136억 달러), 2위 CVRD (79억 달러)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44.4%가 증가한 47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해외 시장으로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MBRAER는 국영 석유회사인 Petrobras,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인 Odebrecht, 철강회사인 CVRD 등과 더불어 브라질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주요 진출 대상국은 미국과 중국 등이다. 특히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Embraer Aircraft Corporation은 1979년에 설립되어 북미, 중미 및 카리브, 영국, 스칸디나비아, 아태 지역 판매 및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브라질 항공산업은 엠브라에르를 브라질 항공산업의 기술 및 생산의 핵심으로 하고 그 하위에 영세 및 중소기업들이 동 기업에 속해 납품하는 복잡한 사슬구조로 얹혀있다. 이 분야의 영세 중소기업 매출의 70~80%가 엠브라에르사의 수요로부터 창출된다. 80년대 이러한 영세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공급망은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되었으나 2002년에는 국내 공급자 수가 절반 이하인 40여 개사로 크게 감소하였다. 브라질 항공 우주산업 협회에 따르면 동 산업분야 비즈니스 기회는 2010년까지 연간 68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며 약 2만5,000명 직접 고용효과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엠브라에르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단·중거리 비행 전용 제트기(Commercial Jets) 생산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엠브라에르의 경우, 동분야 시장 규모를 약 18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고, 향후 20년 내에 30~120인승 제트기를 연간 8,000 대까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주로 중소형 민간 항공기와 비즈니스 제트기 생산에만 주력해 왔으나, 점차 군용기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브라질에는 엠브라에르사를 제외하고도, Eurocopter사와 브라질 주정부의 합작으로 설립된 헬리콥터 생산 업체 Helibra 가 브라질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중남미지역으로 헬기 수출을 하고 있다. 초경량 및 경량 항공기 생산 업체인 Aeromot, 로켓, 발사대 전문 업체인 Avibras 등의 업체가 항공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Embraer 사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간 매출	2,927	2,526	2,144	3,441	3,830	3,760	5,245
고용(명)	11,048	12,227	12,941	14,658	16,953	19,265	23,734

자료: AIAB, Embraer, 매출액 중 평균 96.4% 수출

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1) 개요

브라질 자동차 시장은 최근 3~4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2006년 기준 약 411억 달러로 전체 GDP의 약 14.5%를 점유하고 있다. (주: 2007년 자료 미발표)

자동차 산업협회 ANFEV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생산된 총 자동차 대수는 297만818 대로, 승용차가 238만8,402대, 승합차가 40만6,277개, 트럭이 13 만7,052대, 버스가 3만9,087대이며, 이 중 플렉스 연료 차량이 200만여 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 승용차만 기준으로 할 경우 플렉스 연료 차량 생산 비중은 83% 이상)

브라질은 2007년 자동차 생산량 부문에서 스페인과 프랑스를 제치고 일본(약 1,100만 대), 미국(약 1,100만 대), 중국(700만 대 이상), 독일(500만 대 이상), 한국(약 400만 대)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하였으며, 동 기간 브라질은 자동차 판매량 세계 8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브라질에는 17개의 다국적 기업이 현지 생산을 하고 있으며, 총 39개의 생산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فول크스바겐이 5개 공장을 보유해 가장 많은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 순수 자본으로 설립한 기업 아그랄레(Agrale), GM과 포드가 각각 4개 공장, 르노와 피아트가 각각 3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 차체나 트럭을 생산하는 업체는 총 8개사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Marcopolo, Busscar, Comil, Ciferal사 등이 있다.

2) 생산 동향

2007년 브라질 자동차 시장은 역대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한 가운데, 자동차 제조 업체협회(ANFAVEA)는 작년 브라질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13.9% 증가, 판매량은 27.8%, 수출은 8.7% 성장했다고 발표하였다.



성장의 주원인으로는 금리 인하·장기 할부판매·경제안정·소비자 소득 증가 등으로 분석되며, 차종 중에는 승용차 및 트럭 생산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라질 자동차 산업 협회 ANFAVEA 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년 1 월 ~ 8 월까
지 누적 판매 기준, 일반 승용차 및 승합차 부분에서 폴크스바겐사의 골(Gol)은 총 191,071
대가 판매되어 1 위를 차지하였으며, 피아트의 팔리오(Palio)가 2 위, GM 의 셀타(Celta)가 3
위, 역시 GM 의 코르사 세단(Corsa Sedan)이 각각 4 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순위	제조업체	차량 모델	판매량(대)
1	VW	Gol	197.071
2	Fiat	Palio	148.713
3	Chevrolet	Celta	97.170
4	Chevrolet	Corsa Sedan	94.403
5	Fiat	Mille	93.110
6	VW	Fox/Cross Fox	82.667
7	Fiat	Siena	68.998
8	Fiat	Strada	46.574
9	Ford	Ka	42.976
10	Honda	Civic	41.217

자료: Fenabrave (2008 년 1~8 월까지 누적 판매량)

3) 자동차 부품 시장

- 브라질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2006 년 기준 총 500 여 개사가 법인 등록돼 있었으며,
약 19 만 9000 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브라질 전역에 자동차 부품관
련 유통업체는 약 250 개사, 소매상은 3 만 개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달러 가치 하락으로 자동차 부품 수입 업체는 값싼 중국산 부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는 수입산 부품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부품 중 많은 부분이 수입제품으로, 달러 하락
과 함께 국산 제품보다 10~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중국산 또는 다른 국적의 수입산
제품 구입이 가능하다.
- 브라질 자동차 부품 시장 2006 년 매출액은 648 억 헤알(약 298 억 달러)이며 2007 년
의 경우 전년대비 약 14.4% 성장하여 약 341 억 달러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 브라질에는 2006 년 260 만 대 2007 년에는 280 만 대의 차량이 생산됐으며, 올해는
310 만 대가 생산될 전망이어서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공급이 미쳐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는 형편이다.
-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 따라 부품 수요도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사후 시장(After Market)용 부품 수입량은 달러 약세에 힘을 받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엔진·변속기·트랜스미션 부분 등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핵심 부품의 경우는 주로
유명 다국적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부품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의존
도가 매우 높은 중소기업이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브라질 현지 기업이다.

- 브라질 자동차 부품 무역수지의 경우, 2004 년에는 각각 60 억 6,000 만 달러와 55 억 9,000 만 달러를 달성해 약 4 억 7,000 만 달러의 흑자를 냈으며, 2005 년 수출액은 74 억 8,620 만 달러, 수입액은 66 억 5,440 만 달러로 8 억 3,180 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06 년의 경우, 수입은 67 억 7,920 만 달러, 수출은 8 억 6,400 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139%나 증가한 19 억 8,480 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면서 한해를 마감하였다.
- 2006 년 한 해 동안 브라질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의 대부분인 61.5%가 자동차 조립 업체에게 판매됐으며, 12%는 사후 서비스 시장용, 19% 는 수출용, 7.5% 기타 용 도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브라질 전국의 자동차 수리 및 정비 전문 업체(카센터) 수는 현재 9 만 2,448 개로 조사됐으며, 연간 1,974 만 헤알(1 달러=1.95 헤알)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상파울루 주의 경우 1 만 5,742 개의 카센터가 영업 중으로, 경차(輕車) 수 938 만 대를 기준으로 하면 593 대당 1 개의 카센터가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수리 및 정비 시장 매출액은 78 억 헤알로, 자동차 시장 전체 매출액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큰 분야이다.
-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 진출 전망
 - 고이아스 주에 현대차 공장이 브라질 기업 CAO A 에 의해 설립돼 가동 중이므로 물류 비용 및 Just-In-Time 시스템 공급방식 등을 고려하면 인근 지역에 생산 공장을 마련하는 것이 유망하며, 현지 부품 업체·모듈업체·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통망을 활용해 브라질 시장에 조금씩 단계적으로 브라질 시장에 진출, 시장사정에 익숙해진 후에 현지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진출 전략이다.
 - 유명 부품 업체와 최고급품으로 경쟁하거나 중국·인도의 저가 부품과 경쟁하기보다는 우수한 품질과 적절한 가격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A/S 시장용 부품보다는 신차 모델 조립용 부품이 더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에는 완성차 업체도 상황에 따라 본사로부터 수입한 정품 부품 대신에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유사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완성차 조립 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 최근에 발표된 현대 자동차 브라질 공장 설립 프로젝트에 따라, 현대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 다수가 브라질 시장 동반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 브라질 자동차 시장 특징

- 플렉스 연료 차량 증가
 - 조만간 석유자원 고갈이 예상되고 있어 대체 에너지 확보 문제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환경오염도 나날이 극심해져 가는 가운데, 가솔린 또는 알코올 단독 사용, 혹은 가솔린과 알코올 혼합사용이 가능한 Flex 차량은 브라질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 특히 브라질은 알코올의 주원료인 사탕수수 경작지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알코올 공급이 원활하며, 경쟁력 있는 가격을 확보할 수 있어 Flex 차량 수는 더욱 더 증가할 전망이다.
 - 폭스바겐은 현재 브라질에서 유통되고 있는 Flex 차량 전체의 31.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3 년 3 월 브라질 최초 Flex 자동차 모델인 Gol 1.6 Flex 를 선보인 이래 현재까지 100 만 대 이상의 Flex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날로 더해가는 Flex 차량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 대부분이 Flex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무려 83.5%가 가솔린과 알코올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Flex 차량이다.
- 국민차 인기 지속
 - 브라질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보이는 자동차 모델로는 골(Gol)·팔리오(Palio)·셀타(Celta)·우노밀레(Uno Mille) 폭스(Fox) 등으로 조사됐는데, 이 차량은 모두 국민차 수준의 소형 차량이다.
 - 배기량 1.0~2.0 까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브라질 정부의 지속적인 공산품세(IPI) 감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배기량 1.0 이하의 국민차가 브라질 자동차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원산지 차량 다수
 - Autoinforme 조사에 의하면 브라질에서 주행하는 수입차 2 대 중 1 대는 아르헨티나가 원산지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원인은 브라질이 자동차에 대해 쌍무특혜관세협정을 맺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경우 무관세로 브라질에 수출할 수 있는 장점에 브라질 현지에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아르헨티나나 멕시코에서 제조, 브라질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 브라질은 현재 아르헨티나가 수출하는 차량의 70%를 수입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판매되는 수입차 모델 10 개 중 6 개의 원산지가 아르헨티나로 아르헨티나산 수입차는 수입차 시장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
- 발달된 자동차 유통 시스템
 - 브라질에서는 1920 년부터 국내에서 자동차 조립 생산이 시작됐으며, 그 결과 일찌감치 자동차 유통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었다.
 -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공식 판매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형태의 대리점이 등장했으며, 이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판매 대리점 형태의 영업을 권장, 현재 제조사별로 전국 규모의 전문 대리점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 현재 브라질에서 자동차 판매 대리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는 자동차 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메이커 자동차 제품만을 취급하고 있다. 일례로 GM 의 경우 브라질 전역에 500 여 개 이상의 전문 대리점이 있으며 여타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도 수백 여 개의 전문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 자동차 대리점 대부분이 신차와 중고차 모두의 판매 및 A/S 를 담당하며, 관련 자동차 제조사는 운영 및 영업 일체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영업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대리점 모두에서 전문적인 A/S 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재 브라질에는 특정 브랜드의 차량만 취급하는 4,937 개의 전문 대리점 (Concessionaria)이 영업 중에 있으며, 일반 승용차·승합차·트럭·버스·모토사이클·농업용 차량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정 브랜드 전문 대리점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을 동시에 취급하는 판매점도 다수 영업 중이다.

5) 한국산 자동차 진출 동향

- 아시아 브랜드 자동차 시장점유율 증가
 - 현재 브라질에는 일본·한국·중국·인도 등 4 개국 10 개의 아시아 자동차 브랜드가 유통 중이거나 유통 준비 중이며, 브라질 시장 내 점유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 아시아 자동차 업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onda·Mitsubishi·Nissan·Subaru·Toyota 등 일본 업체 5 개사, 쌍용·기아·현대 등 한국 업체 3 개, 중국업체 1 개사(Chana), 인도 업체 1 개사(Mahindra) 가 브라질 시장에 진출해 있다.
 - 2007 년의 경우 아시아 업체가 제조 또는 수입한 자동차의 브라질 시장 점유율은 9%로, 점유율 5.7%였던 2000 년에 비해 3.3%포인트 상승하였다. 10 년 전인 1997 년의 경우 아시아 자동차 브라질 시장 점유율은 2%밖에 되지 않았다.
 - 지난 10 여 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온 아시아 자동차 시장점유율은 미국·EU 에 비하면 아직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브라질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아시아 자동차 브랜드는 SUV 차량으로, 비록 판매량은 적지만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차종으로 알려져 있다.
 - 일본·한국·중국·인도 등 아시아 자동차 브랜드는 작년 22 만 3,400 대가 판매돼 브라질 전체 판매량인 248 만 6,000 대의 약 9%를 차지하였다.
- 일본 브랜드 자동차 시장 점유율 및 현황
- 5 년간 침묵을 지키던 일본 자동차업체 Suzuki 가 다시 브라질 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신규 공장 건설 프로젝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입차만을 판매했던 Suzuki 는 2003 년 달러 가치 폭등으로 수입을 중단했으나 최근 3~4 년 지속되는 헤알 강세 현상에 따라 수입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 들려오고 있다.
 - Honda 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Civic·Fit 브랜드 등 8 만 5,700 대의 자동차를 판매했으며, 이 중 1 만 8,000 대만이 수입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7 만 2,000 대의 차량을 판매했던 Toyota 는 이미 제 2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을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다.
- 한국 자동차 판매 및 생산 동향
- 현대 자동차의 경우 2007 년 2 만 2,800 대의 차량을 브라질 시장에서 판매, 아시아 자동차 브랜드 중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 현대자동차의 트럭 HR 은 브라질 업체 CAO A 와 투자 건설한 고이아스 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올해는 생산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1 만 5,700 대가 판매되었으며, 최근에는 매월 1000 대 이상이 판매되고 있는 Tucsan 의 경우 브라질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현재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CAO A 에 의해 현지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 주로 SUV 타입의 중·대형 차량을 중심으로 생산하게 될 CAO A 와는 별도로, 현대 자동차가 최근 상파울루 주에 현지 공장 설립을 결정하였으며, 2010 년부터 배기량이 낮은 소형 Flex 차량 모델 생산을 시작으로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 전망이다.

6) 시사점

- 브라질 자동차 산업은 2008 년에 전년 대비 판매량 증가율 17.5%(289 만 5,000 대 생산 목표), 생산량 증가율 8.9%(324 만 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헤알화 대비 달러 가치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수출의 경우 오히려 -56.1%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 수입차의 경우 2006 년 대비 43.6%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작년 판매 신기록을 세운 도요타를 비롯해 폭스바겐·피아트 등이 늘어난 자동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 시설 증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자동차 산업 발전은 플라스틱 제품산업·철강업·타이어 산업 등 관련 분야 다수의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7 년의 경우 자동차 산업 호황과 함께 여타 관련 산업도 덩달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브라질에는 배기량 1.0 의 소형 국민차 판매가 압도적이며,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고 있다. 국민차 시장은 폴크스바겐, 피아트, GM, 포드 등 4 대 자동차 업체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 신규 업체의 진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규 자동차 업체는 국민차 시장보다는 SUV 차량·승합차 등 판매량은 적어도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그간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해 왔던 브라질 자동차 업체는 차츰 내수시장 영업 비중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특별히 커다란 변화 없이 1~2 년째 같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 때문에 소비자도 이제는 구매하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으며, 이 사실을 입증하듯 자동차 판매량은 매월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 헤알화 대비 달러 가치 하락세에 힘입어 브라질은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부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도산 부품은 작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92.5%나 수입량이 증가했으며, 중국산도 56.7%나 늘어나 국내 부품 제조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도·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산 자동차 부품은 주로 신차에 조립되는 경우보다 중고차 부품 교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호황을 누리고 있는 브라질 자동차 시장 분위기에 따라 부품 수요도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교체용 부품 수입량은 달러 약세에 힘을 받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IT산업

브라질 IT 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그 규모도 세계적이다. 2007년 기준 브라질 IT 시장 규모는 약 207억 달러로 세계 IT 시장의 1.6%, 남미 IT 시장의 43.4%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인도와 중국에 버금간다. 2007년 기준 브라질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시장 규모는 111억 달러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소프트웨어 시장 부분만은 42억 달러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브라질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전체의 33.6%로 국내 생산비중이 27%였던 2004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0년까지 약 40%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7년 브라질 IT 시장은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IT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세(PIS/Cofins) 면제, 국민 PC 시판, 장기 신용 할부 판매, IT 업체들의 생산시설 확충, IT 제품 가격하락으로 인한 구매자 수 증가 등이 IT 시장 성장을 이끌어낸 주요인이다.

특히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한 부품 수입가 하락은 전반적인 IT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저소득층 소비자의 PC 구매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브라질 정부는 2005년 10월 "MP do Bem"으로 불리는 수출업체 및 저가 컴퓨터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우대 조치를 발표하였는데, 2,500 헤알 미만의 PC 생산업체에게 사회보장세(Pis Cofins)를 9.25%를 면제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저가 PC 생산이 활성화되는 한편, 기존 PC 업체들은 저가 PC에게 시장을 잠식 당하지 않기 위해 가격 조정, 판매조건 개선, 기본 기능만 유지하여 생산비용 절감 등 영업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컨설팅 업체 IDC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브라질의 PC 판매량은 1,070만 대로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오르는데 성공하였으며, 2010년까지 3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세계 PC 판매 순위 1위는 연간 6,400만 대를 판매한 미국이며, 2위는 중국 (3,600만 대), 3위는 일본(1,00만 대), 4위는 영국(1,120만 대)으로 나타났다.

2007년 브라질 PC 판매량(데스크톱과 노트북을 모두 합산한 경우)은 전년 대비 38%나 증가하였다. 작년 한해 동안 총 910만 대의 데스크톱 컴퓨터가 판매되어 전년 대비 26% 판매율이 상승하였으며, 동 기간 노트북은 150만 대가 팔려 전년 대비 153%나 증가하였다. 데스크톱 컴퓨터 구매자의 경우 대부분 LCD 모니터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상반기 PC 판매량은 570만대로 이중 데스크톱 제품이 390만대, 노트북이 180만대 팔렸으며, 전년동기 대비 데스크톱 제품이 5%밖에 성장하지 않은 것에 비해 노트북 판매는 186%나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알화 대비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 컴퓨터 부품 수입가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 가격 차이도 갈수록 좁아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조만간 노트북 판매가 데스크톱 컴퓨터 판매를 앞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08년 상반기 기준 데스크톱 컴퓨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 하락한 반면, 노트북은 2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통신 시장 전문 조사업체인 IT Data는 올해 컴퓨터 판매량을 약 1300만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예상량 1100만 대보다 200만 대가 초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2년 연속 엄청난 판매 기록을 세운 컴퓨터 시장은 올해의 경우 작년과 같은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브라질은 남미 전체 PC 보유량의 47%를 점유하고 있으며, 2위인 멕시코는 19.5%로 브라질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라질 PC 제조업체 중 판매 순위 1위인 Positivo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138만여 대의 PC를 판매하여 국내 최초 연간 PC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한 업체로 기록된 바 있다.

PC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로는 헤알화 대비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한 부품 수입가 하락, 컴퓨터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감면 혜택, 대량생산체제 강화, 소매업체들의 장기 할부 판매 전략 확대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컴퓨터 가격이 과거에 비해 대폭 감소된데다 최고 24개월까지 장기할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컴퓨터를 장만하지 못했던 저소득층(C 및 D 계층)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동통신업체들은 휴대전화 구입 시 초고속 인터넷 사용 기능을 추가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이 점 또한 PC 판매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트북 판매의 경우 브라질은 지난해 153%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 PC 판매 점유율은 15% 안팎으로 세계 평균인 30%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4년간 컴퓨터 판매가 과거에 비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브라질 컴퓨터 평균 보급률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저소득층(C계층)의 경우는 20%만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 아직도 향후 수년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컴퓨터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C 계층에 속한 소비자의 경우 비록 소득 수준은 낮지만 구매 의지는 높은 경우가 많으며, 최근 가격 하락과 장기할부 등 구입 조건이 과거에 비해 수월하여 컴퓨터 구매가 가능한 소비자 층으로 평가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업체들의 주요 공략 타겟이 되고 있다.

브라질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불법복제이다. IDC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64%가 불법이며, 이로 인한 손실은 2005년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 기준으로 7억 6,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2007년의 경우 암시장(Grey Market)을 통해 불법 유통된 PC 제품이 전체 시장의 46.4%를 차지, 최초로 불법제품 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져 정품 PC가 점차 국내 시장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또한 중남미 최대 인터넷 시장이자 세계 9대 인터넷 시장이다. 브라질 인터넷 시장 규모는 2004년 176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211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인터넷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 직장, 공공기관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 브라질 인터넷 이용자는 4,400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	2005	2006	2007
인터넷 사용자 수 (단위: 100만 명)	32,1	35,3	44,9

자료: TELECO

2006년 발표한 IBOPE//NetRatings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사람들의 월 인터넷 사용시간은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 11개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20시간 27분에 달했으며, 월 최소 1회 이상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용자 수는 2000년보다 약168%가 증가한 1,360 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현재 2,000만 명 수준이며, 지난해 1~10월에만 450 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월 기준 초고속 인터넷은 1,923개 도시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브라질은 e-banking 시스템이나 e-government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 브라질 e-banking은 국내 최대 민간은행인 Bradesco의 적극적인 Home-banking 시스템 구축 노력에 의해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르게 되었다. 브라질에서 인터넷 혁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e-government의 구현이다. 브라질 사람들은 1996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납세신고를 해오고 있다. 2003년에는 전체 개인납세자의 95%가 인터넷을 통해 납세신고를 했으며 2004년에는 모든 법인세 신고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통신시장이기도 하다. 시장 규모는 2004년 34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38억 달러로 증가했다. 브라질 통신장비 수입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은 미국, 한국, 중국,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등이다.

1990년대 통신산업의 민영화 이후 이 부문에 전례 없던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총 투자액은 270억 달러에 달했다. 2002년에는 브라질 통신청 (Anatel)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유무선 전화 부문에만 총 34억 달러의 신규투자가 유치되었다. 2003/2004년 기간에는 GSM 서비스 개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46억 달러의 투자가 개시되었다. Anatel에 따르면 브라질 통신 시장에 대한 향후 투자 규모는 53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중 47%는 유선전화 서비스 부문에, 19%는 대중통신 서비스 부문에 투자될 전망이다.

Teleco에 따르면 2008년 8월 기준 브라질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약 1억 3,800만 명으로 유선전화 가입자 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브라질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대 이동전화 보유국이다. 이미 1억만 명 가입을 돌파한 브라질 휴대전화 시장은 단말기를 처음 구매하려는 소비자 보다는 각자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 차별화된 기능을 보유한 단말기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브라질 휴대전화 시장에는 요즘 저가 다기능 단말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B.B.: Bom, Bonito, Barato (우수한 품질, 세련된 디자인, 저렴한 가격)'라는 저가 다기능 휴대전화를 일컫는 표현에 걸맞는 모델이 잇따라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250~300 헤알 선이면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녹음,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최대 12회까지 할부 구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저소득층 소비자들도 이 같은 첨단 기능 단말기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디지털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가 폭발적인 인기를 끈 반면, 2006년에는 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더욱더 많은 기능이 추가된 모델들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2007년 및 2008 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출시되는 휴대전화의 경우 디지털 카메라는 기본이며 MP3 플레이어, 인터넷에 접속해 이 메일 검색이 가능한 스마트 폰 기능, 음악 파일 다운로드 기능까지 다양한 첨단 기능을 갖춘 모델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3G 기능을 가진 휴대 전화 단말기도 출시되었으며 애플사의 i-Phone 도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다.

2006~2007년 최근 1~2년 사이 이동전화 업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유통 체계가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주로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의 매장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단말기가 유통되었던 것과는 달리, 작년부터 가전제품 전문 대형 마켓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대전화를 구입 하기 위해서는 Vivo, Tim, Claro 등의 이동통신 업체 매장에 가야 했지만 작년부터 가전제품 양판점인 Ponto Frio, Casas Bahia, Carrefour, Extra 등에서 구입하여 바로 개통하는 사례가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CDMA 방식만을 고집해 왔던 브라질 내 최대 이동통신 업체 Vivo가 GSM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또한 제3세대 이동통신 3G 기술 도입으로 조만간 이동전화를 통한 데이터 전송 속도가 크게 빨라져 화상 통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브라질 국민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전체 인구를 이동 전화 가입자 수로 나누었을 경우)약 70%로, 선진국 수준인 90%보다는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많은 양의 휴대전화 판매가 가능한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시장 매출액이 GDP의 5.4%를 차지하는 브라질의 경우, GDP의 7.9%를 차지하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이동통신사들은 향후 매출액 증가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동통신 업체 Vivo가 지난해 발표한 “브라질 이동통신 시장 지표”에 의하면, 7~13세 사이의 아동 및 51세 이상의 중장년층 소비자의 휴대전화 구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51세 이상의 중장년층 소비자의 휴대전화 구입률이 전년 대비 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13세 아동 사용자 비중도 33%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가입자 기준, 연령별 휴대전화 보유율은 14~30세가 50%, 31~50세가 38%, 51세 이상이 12%로 각각 나타났다.

브라질 정보통신국 ANATEL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가입자 중 약 60%가 중하층 및 저소득층 소비자(브라질 기준으로는 C 및 D 클래스로 분류됨), 나머지 40%가 중상층 및 고소득층(A 와 B 클래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중상층 및 고소득층 소비자들의 휴대폰 보유율은 약 80%이며, 중하층 및 저소득층은 45%의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대전화 가입자의 대부분인 64%가 월 소득 480 헤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481~1,199헤알이 26%, 1,200 헤알 이상이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보유자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37%가 초등교육 이수, 49%가 고등교육 이수, 14% 만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9월 현재, 브라질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81.1%는 선불 제 단말기이며, GSM 기술의 단말기가 86.13%, CDMA 가 10.88%, TDMA 기술이 1.91% 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GSM 단말기 사용자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CDMA 나 여타 방식의 단말기 사용자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 통신사 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Vivo가 30.12%로 1위, Tim 이 25.09%로 2위, Claro 가 25.09%로 3위, Oi 가 15.62%로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주요 이동 통신사 순위 및 시장 점유율

순위	이동통신사	사용자 수(명)	시장점유율(%)
1	Vivo	41.690	30,12
2	Tim	34.726	25,09
3	Claro	34.732	25,09
4	Oi	21.624	15,62
5	BrT Móvel	5.146	3,72
6	CTBC	430	0,31
7	Sercomtel	72	0,05
8	Aeíou	1	0,00

자료: Telecom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최신 동향

1995년 말 시작된 Mercosul-EU FTA 체결 노력은 수 차례 협상 끝에 실패하다 2005년부터 협상이 재개됐으며, 2006년 11월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협상을 가졌다. 양측의 주요 쟁점은 메르코술의 경우 농산물 시장 개방을 들 수 있고, EU측은 자동차 산업과 통신 등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들 수 있다. 양 블록간 협상은 의견 차이로 교착 상태에 있으나 양 블록은 다른 때보다 협상에 보다 적극적인 상태이다.

또한 2006년 9월 인도-브라질-남아공(IBSA) 등 3개국 정상들이 모여 3개국을 하나로 묶는 FTA 체결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FTA 체결을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사 포럼이 개최되었다. 동 포럼은 지난 2003년 창설된 이래 3개국에 걸쳐 각료회담 형식으로 열렸으며, 3개국 간 통상, 투자, 과학기술,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기구 역할을 해왔다. 이 3개 지역이 FTA를 체결할 경우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메르코술 5개국과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등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5개국, 인도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거대한 자유무역 지대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르코술은 최근 2년여 간 협상을 진행해 오던 이스라엘과 자유 무역협정(FTA)을 2007년 12월 18일 체결했다. 메르코술 국가들의 대 이스라엘 무역량은 전체 무역량의 1% 밖에 차지하지 않아 FTA 체결로 인한 무역량 증가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메르코술이 중남미 역외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FTA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메르코술은 이스라엘과의 협정체결을 시작으로 인도-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및 걸프 협력회의(GCC) 등과의 FTA 체결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며, EU와도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나. Mercosul(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술은 1985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이과수(Iguaçu) 선언으로부터 출발하여 1991년 아순시온 조약을 통해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까지 참여한 가운데 FTA로 출범하였다.

1994년 12월 오우루 뵘레투(Ouro Preto) 의정서를 체결하여 무관세 거래에 합의(일부 품목 제외)하였고, 1995년 1월 메르코술 관세동맹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1996년 10월 칠레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97년 3월 볼리비아, 2003년 12월 페루가 각각 준회원국이 됐다.

메르코술은 중남미 전체 면적의 71%, 인구 51%(2억 2,000만 명), 경제 규모 1조 달러에 달하는 중남미 최대의 경제통합체로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메르코술 입장에서 한국은 신흥시장인 동시에 동아시아 거대 경제권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 양국 산업 구조의 상호보완성이 커 양측 모두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

참고로 Mercosul은 포르투갈어로 Mercado Comum do Sul의 약자로 남미 공동 시장이란 뜻이다. 회원국 중 유일하게 브라질만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브라질에서는 Mercosu로 표기하고, 이외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똑 같은 의미지만 철자만 다르게 Mercosur로 표기가 된다.

다. Unasul(남미국가 연합)

Unasul은 2004년 12월 8일 페루의 Cuzco라는 도시에서 개최된 제3차 남미국가 정상회담에서 Cuzco 선언을 통해서 출발한 CASA(남미국가 공동체)를 그 모태로 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르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가이아나, 수리남, 베네주엘라 등 남미대륙에 위치한 12개국이 Unasul의 회원국으로 남미 국가들 간의 경제, 정치, 사회적 통합이 Unasul의 목표이다.

2008년 5월 23일 12개국 대표들이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에서 모여 정식으로 Unasul이 출범 협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드디어 국제기구로 정식 인증을 받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통합에 대한 절차는 아직 협의되지 못한 상태이고 동 출범 협약은 각 국 국회의 비준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Unasul 회원국의 경제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GDP 3조9천억불 규모이고, 4억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이 완료될 경우 세계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현안이 산적한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다. 브라질의 무역협정체결 현황표

대상국	협상 타결일자	추진현황
자유무역협정(FTA)		
이스라엘	07.12.18	기체결
페루	05.12.30	기체결
CAN	04.10.18	기체결
볼리비아	96.12.17	플라스틱, 광물 등 주요 협상 분야
칠레	96.6.25	다품목
기본 협력협정(Framework Agreements)		
인도	04.1.25	기본협력협정
SACU	04.12.16	특혜무역협정
CAN	02.12.06	기본협력협정(ACE 56)
멕시코	02.9.27	자동차분야 협정(ACE 55)
멕시코	02.6.5	기본협력협정(ACE 54)
진행 중인 FTA 및 향후 예상되는 FTA		
FTAA	-	2005.12월 아르헨티나 Mar del Plata 정상회의 이후 중단됨.
GCC	-	현재 협상 재개 준비 중임.
EU	-	2004년 10월 이후 DDA 협상과 연계되어 사실상 협상이 중단되고 있으며 양자간 협상 재개를 위한 접촉을 진행 중임.
SCU, 인도	-	2007년 10월 제 2차 인도-브라질-남아공 정상회의 시 룰라 대통령이 제안함.
기타		
브라질-멕시코	02.7.3	부문별 특혜협정(식품, 의류, 광물 등)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제 3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할 수 없으나 ALADI 회원국과는 양자협정 체결 가능함)

주1: CAN: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주2: SACU: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주3: GCC: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등 6개국

자료: 개발상공부

라. 룰라 정부의 대외정책

룰라 대통령은 중남미 통합이라는 목표를 향한 역내 지도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술)의 양적·질적 성장과 기능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지난해 베네수엘라에 이어 올해는 볼리비아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남미와 아프리카 인도, 나아가 중국까지 포함하는 '남남(南南)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외에도 제 3세계권에서 신규시장을 개척하려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연도별 수출입 추이

브라질에서 수출은 오랜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의 영향 때문에 경제정책의 후 순위로 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다. 1990년대 들어서도 무역자유화 정책의 실시로 수입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데 반해 수출은 정체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1999년 헤알화 평가 절하 이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신 수출시장 개척 등 각종 수출 진흥책도 한 몫을 했다. 특히 최근 불고 있는 전 세계적인 원자재 확보전도 전통적인 원자재 수출강국인 브라질의 수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 결과 최근 3년 연속 수출이 평균 20%대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기록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2003~2004년 각각 21%, 3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에 이어 2005년 들어서도 전년 대비 23% 증가한 1,183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에 반해 수입은 같은 기간 17% 증가한 735억 달러에 그쳤다. 2005년 무역수지는 44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06년의 경우 수출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1,37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24.3%나 증가한 913억 달러에 이르렀다.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13억 달러 증가한 460억 달러로 나타났다. 수출 부문에서의 거듭되는 기록 경신으로 브라질 정부는 연이어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2003년 출범한 룰라 정부는 당초 임기 말인 2006년까지 1,0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브라질 정부는 2005년 수출 목표를 1,120억 달러로 늘려 잡았으나 이마저도 기한 전에 초과 달성하였으며 총 1,183억 달러 수출로 2005년을 마감했다.

2006년에 접어들어서 달러 가치 하락 현상은 더욱 심화 되었고 다수의 기업이 수출을 포기하는 사태마저 빚었다. 수출보다는 내수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 브라질 기업들의 변화와 함께 값싼 수입품이 브라질에 대량 반입되었다. 2006년 수출은 전년 대비 16.2%밖에 증가하지 않은 반면 수입은 24.3% 증가하였다. 2007년 브라질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한 1,606억 달러, 수입은 32% 증가한 1,20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 400억 달러 규모이다. 브라질 시장에서는 헤알화 초강세로 인한 수입 급증과 수출 감소로 정부 및 산업계의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브라질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98	51,140	-3.5	57,763	-3.4	-6,624
1999	48,011	-6.1	49,295	-14.7	-1,283
2000	55,086	14.7	55,839	13.3	-753
2001	58,223	5.7	55,572	-0.4	2,651
2002	60,362	3.7	47,216	-15.0	13,143
2003	73,084	21.1	48,253	2.2	24,831
2004	96,475	32.0	62,779	30.0	33,696
2005	118,309	22.6	73,545	17.1	44,785
2006	137,470	16.2	91,396	24.3	46,074
2007	160,649	16.9	120,621	32.0	40,028
2008(1-8월)	130,843	27.73	113,936	51.99	16,907

자료: WTA

나. 품목별 수출입

1) 품목별 수출

브라질은 광물, 농수산물 등 세계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흔히들 1차 상품 수출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브라질은 개도국 중에서는 비교적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1차 상품보다는 제조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에서 1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반제품의 비중은 14%, 제조품의 비중은 55%에 달했다.

2005년에는 기본 소비재, 공산품 및 반제품의 수출량이 각각 21.8%, 23%, 18.8% 증가하였으며, 특히 완제품 수출은 전체 수출량의 5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기존 메르코술 국가로의 수출 이외에도, 또한 대 동부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수출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기본 소비재, 반제품 및 공산품 수출 증가율이 대폭 상승하였는데, 공산품이 전년 대비 15.6%, 반제품이 23.3%, 기본 소비재가 각각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산품은 수출 전체의 54.3%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9월 기준HS 2단위 기준으로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최대 수출상품은 광물성 연료와 철광석이 1~2위를 놓고 경합을 벌이는 형국이다. 또한 최근 브라질에 진출한 주요 자동차 메이저 업체들의 제3국 수출전략에 힘입어 자동차 수출의도 증가세를 유지하여 수출 품목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의 하나인 항공기는 2008년 9월까지 9위에 위치해 있다.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1~8월)			
	수출액	점유율	증감	수출액	점유율	증감	수출액	점유율	증감	순위
광물성연료(27)	10,590	7.7	49.2	13,297	8.3	25.6	12,783	9.77	63.19	1
철광석(26)	9,757	7.1	21.6	12,026	7.5	23.3	11,678	8.93	50.73	2
수송기계(87)	12,326	9.0	6.9	13,354	8.3	8.3	9,627	7.36	14.99	3
곡물(12)	5,753	4.2	6.1	6,819	4.2	18.5	8,982	6.87	76.34	4
철강(72)	8,793	6.4	2.9	9,534	5.9	8.4	8,636	6.6	35.31	5
육류(02)	7,341	5.3	2.3	9,613	6.0	31.0	8,400	6.42	38.54	6
기계류(84)	10,873	7.9	11.8	11,467	7.1	5.5	8,372	6.4	11.64	7
전기기기(85)	6,341	4.6	16.8	6,293	3.9	-0.8	4,577	3.5	13.92	8
항공기(88)	3,442	2.5	4.2	5,068	3.2	47.2	3,606	2.76	40.52	9
설탕(17)	6,347	4.62	54.73	5,284	3.29	-16	3,297	2.52	-5.6	10
총 수출	137,470	100	16.2	160,649	100	16.9	52,748	100	13.6	11

자료: World Trade Atlas(HS 2단위)

2) 품목별 수입

천연자원 강국인 브라질의 경우 당연히 1차 상품 보다는 제조품의 수입 비중이 높다. 2004년 기준으로 총 수입에서 1차 상품의 수입 비중이 19%에 불과한데 반해 완전 제조 품의 비중은 77%에 달했다. 2006년에 접어들어 생산적인 투자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자본재 수입은 전년 대비 23.9%, 원자재 및 중간 자재 수입은 20.8% 증가하였다. 자본재 와 원자재 /중간자재는 전체 수입의 71%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브라질은 석유 수출국이자 수입국이기도 하다. 2004~5년 브라질의 1~2위 수입품목은 석유 및 석유조제품(총 14% 비중)이 차지했다. 지난 2년간 3~6위 수입품목은 자동차 부품, 전자 집적 회로, 무선송신기기, 의약품 등이 차지했다. 2006년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1위는 석유 및 석유 제품, 2위는 기계류, 3위는 전기기기, 4위가 자동차, 5위가 유기 화약품 순위로 나타났다. 2007~2008년에도 유사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1~8월)			
	수입액	점유율	증감	수입액	점유율	증감	수입액	점유율	증감	순위
광물성연료(27)	17,170	18.8	27.4	22,320	18.5	30.0	23,399	20.54	75.56	1
기계류(84)	13,727	15.0	18.2	18,468	15.3	34.5	17,004	14.72	46.04	2
전기기기(85)	12,913	14.1	23.4	14,825	12.3	14.8	13,368	11.73	42.23	3
자동차(87)	5,672	6.2	33.7	8,264	6.9	45.7	8,222	7.22	70.65	4
비료(31)	2,355	2.58	17.93	4,528	3.75	92.26	6,255	5.49	132.98	5
유기화약품(29)	4,801	5.3	10.7	6,377	5.3	32.8	5,310	4.66	32.64	6
광학정밀기기(90)	3,504	3.8	21.3	4,564	3.8	30.3	3,973	3.49	37.87	7
플라스틱제품(39)	3,409	3.7	17.9	4,224	3.5	23.9	3,722	3.27	39.48	8
의료용품(30)	2,609	2.9	28.1	3,522	2.9	34.9	2,754	2.42	20.53	9
고무(40)	1,190	2.03	15.50	1,497	2.0	25.83	2,118	1.86	41.47	10
총계	91,396	100	24.3	120,621	100	32.0	113,936	100	51.99	-

자료: World Trade Atlas(HS 2단위 기준)

다. 지역 및 국가별 수출입 추이

1) 지역 및 국가별 수출 추이

국가별로는 미국이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2006년 12월 기준으로 미국의 수출 비중은 제 2대 수출 시장인 아르헨티나의 2배인 18%를 상회했다.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이 2004~2006년 연속 3대 수출시장의 위치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 1~5위의 수출 순위는 변동이 별로 없는 반면에 7~10위 사이의 수출 시장에서는 멕시코, 칠레, 일본이 근소한 차이로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08년 8월 기준, 브라질의 1위 수출 대상국은 미국, 2위는 아르헨티나, 3위는 중국, 4위는 네덜란드, 5위는 독일, 6위는 일본, 7위는 이탈리아, 8위는 러시아, 9위는 베네수엘라, 10위는 칠레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17위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10대 수출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명	2006			2007			2008(1-8)			
	수출액	비중	증감	수출액	비중	증감	수출액	비중	증감	순위
미국	24,431	17.8	8.7	25,065	15.6	2.6	18,236	13.94	12.67	1
아르헨티나	11,714	8.5	18.1	14,417	9.0	23.1	12,052	9.21	33.41	2
중국	8,400	6.1	22.9	10,749	6.7	28.0	11,919	9.11	65.75	3
네덜란드	5,744	4.2	8.7	8,841	5.5	53.9	7,176	5.49	41.93	4
독일	5,675	4.1	13.0	7,211	4.5	27.1	5,598	4.28	22.73	5
일본	3,884	2.8	11.7	4,321	2.7	11.3	3,815	2.92	32.47	6
이탈리아	3,829	2.8	18.8	4,464	2.8	16.6	3,310	2.53	13.97	7
러시아	3,443	2.51	18.02	3,741	2.33	8.66	3,265	2.50	42.03	8
베네수엘라	3,555	2.6	60.4	4,724	2.9	32.9	3,141	2.40	11.79	9
칠레	3,896	2.8	7.9	4,264	2.7	9.5	3,050	2.33	10.0	10
한국*	1,962	1.4	3.5	2,047	1.3	4.3	1,887	1.44	49.53	17
World	137,470	100	16.2	160,649	100	16.9	130,842	100	27.73	-

자료: WTA(* 브라질 관세청 통계로서 한국의 KOTIS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2) 국가별 수입

2008년 8월까지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3.2%로서 전년 동기 대비 70.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 10대 수입국 중 중국이 전년 대비 68.89% 증가하여 점유율 11.24%로 수입시장 점유율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아르헨티나 7.44%, 독일 7.03%, 나이지리아가 4.0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시장점유율 11위(2.2%)에서 2004년 10위(2.8%), 2005년 9위(3.2%)로 상승세를 유지해 오다, 2006년에 접어들어 순위는 8위로 1단계 상승하였고, 2008년에는 70.53%의 신장률을 보여 전체 시장의 3.2%를 점유하고 있다. 2003년 시장 점유율 4위(5.2%)였던 일본은 점차 하락세를 보여 현재는 5위(4.2%)에 머문 후 중국은 2003년 5위(4.5%)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7년 들어서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2위(11.24%)로 부상하였다.

브라질의 10대 수입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명	2006			2007			2008(1-8월)			
	수입액	점유율	증감	수입액	점유율	증감	수입액	점유율	증감	순위
미국	14,689	16.1	16.0	18,722	15.5	27.5	16,436	14.43	36.78	1
중국	7,989	8.7	49.2	12,618	10.5	57.9	12,806	11.24	68.89	2
아르헨티나	8,057	8.8	29.1	10,410	8.6	29.2	8,481	7.44	30.06	3
독일	6,503	7.1	5.8	8,675	7.2	33.4	8,004	7.03	43.25	4
나이지리아	3,885	4.3	46.5	5,273	4.4	35.8	4,616	4.05	60.16	5
일본	3,839	4.2	12.7	4,610	3.8	20.1	4,376	3.84	47.87	6
한국	3,106	3.4	33.5	3,391	2.8	9.2	3,643	3.20	70.53	7
프랑스	2,837	3.1	5.1	3,525	2.9	24.3	3,090	2.71	36.23	8
이탈리아	2,570	2.8	12.9	3,347	2.8	30.3	3,057	2.68	45.47	9
칠레	2,908	3.2	71.1	3,483	2.9	19.8	2,811	2.47	21.99	10
World	91,396	100	24.3	120,621	100	32.0	113,946	100	51.99	-

자료: WTA(**브라질관세청 자료이므로 한국의 KOTIS와는 다소 차이 있음 주의)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 추이

브라질은 1990년대 들어 경제안정 및 수입개방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시장으로 성장했다. 2004년 기준 브라질은 한국의 제27대 수출 대상국(2003년 32대)으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에 이은 제2대 수출 대상국이었으며, 우리나라는 브라질의 10대 수입 대상국이며 16대 수출 대상국이었다.

2005년 우리 나라의 대 브라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24억 1,100만 달러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한 25억 100만 달러를 기록하여 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06년 12월 기준, 30억 6,300만 달러 수출로 전년 동기 대비 27.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동기간 수입은 27억 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2007년 1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한 35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2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94	844	88.2	1,019	30.6	-175	1,863
1995	1,519	79.9	1,388	36.2	131	2,907
1996	1,497	-1.4	1,325	-4.6	172	2,822
1997	1,711	14.3	1,239	-6.5	472	2,950
1998	1,792	4.7	693	-44.0	1,099	2,485
1999	1,209	-32.5	909	31.2	299	2,118
2000	1,724	42.6	935	2.8	789	2,659
2001	1,611	-6.5	1,126	20.4	486	2,737
2002	1,247	-22.6	1,248	10.9	-1	2,495
2003	1,137	-8.8	1,619	29.8	-482	2,756
2004	1,785	56.9	2,195	35.6	-410	3,980
2005	2,411	35.1	2,501	13.9	-90	4,912
2006	3,063	27.1	2,707	8.2	357	5,770
2007	3,487	13.8	2,794	3.2	693	6,281
2008(1-8월)	4,176	95.8	2,670	55.70	1,506	6,846

자료: KOTIS

나. 품목별 수출 현황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은 일부 품목, 특히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출 편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2004년 기준으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출 편중도는 68%에 달했으며 2005년 들어서는 69%로 확대되었다.

대 브라질 최대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제품은 무선통신기기, 전자관, 영상기기, 컴퓨터 수출 확대에 힘입어 2003년부터 증가세로 반전, 2004년에는 전년 대비 68%, 2005년 1~10월에는 33%의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브라질 최대 수출품목인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004년에 90% 증가한 데 이어 2005년에도 36%의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 전자관, 컴퓨터, 영상기기 등도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기계류 수출은 브라질 경기침체로 2003년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4년부터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 전기·전자제품에 이은 제2대 수출품목으로 다시 부상했다. 기계류 수출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와 건설광산기계의 수출이 두드러졌다.

자동차 수출은 2004년 122% 증가한 데 이어 2005년에도 63% 증가하는 등 급신장세를 보였으며 2006년에는 무려 147.1%나 증가했다. 건설광산기계 수출 또한 브라질 현지의 광산개발 붐에 편승해 2004년부터 100%이상의 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화학공업제품의 수출도 합성수지 및 유리제품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200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05년에는 특히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제품의 수출 증가세가 현저했다.

2004년 일시적인 증가세로 돌아섰던 석유류 수출은 2005년 들어 주종 수출품인 인조섬유 장 섬유사와 인조 장 섬유 직물의 수출 감소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2008년 8월 기준 수출호조품목은 광물성연료(284,520.3%), 자동차(205.7%), 정밀 화학제품(130.1%) 등이다. 반면 수출 부진 품목은 직물(8%) 등이다.

한국의 대 브라질 월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월	234.7	44.1	204	-13.0	399	95.4
2월	243.1	81.3	214	-12.0	467	118.3
3월	310.4	93.8	263	-15.4	411	56.5
4월	287.9	36.9	256	-11.0	482	88.2
5월	309.7	46.0	283	-8.6	616	117.8
6월	274.9	24.9	284	3.2	510	79.7
7월	282.0	30.0	324	14.7	547	68.9
8월	243.9	-0.1	305	25.2	744	143.6
9월	237.7	6.6	305	28.4		
10월	239.0	12.9	378	58.1		
11월	206.5	-6.2	395	91.1		
12월	193.1	-1.0	277	43.6		
누계	3,063.4	27.1	3,487	13.8		

자료: KOTIS

한국의 대 브라질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

MTI	품목명	2006		2007		2008(1-8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순위
81	산업용전자제품	1,304	11.7	1,136	-12.9	999	27.4	1
74	수송기계	285	244.6	589	106.5	808	201.1	2
13	광물성연료	0	180.4	0	62.1	574	284,520.3	3
83	전자부품	368	29.0	457	24.3	419	49.4	4
82	가정용전자제품	317	83.1	291	-8.4	275	53.8	5
72	산업기계	107	50.8	192	79.5	274	154	6
21	석유화학제품	172	3.6	157	-8.6	163	77.6	7
61	철강제품	66	108.3	100	50.8	109	108.3	8
22	정밀화학제품	58	16.7	73	27.6	83	130.1	9
43	직물	62	-18.7	110	77.3	64	-11.4	10
741	자동차	126	147.1	522	315.2	762	205.7	*
3203	타이어	41	87.9	40	-0.9	48	79.8	*

주: 자동차 (MTI 3단위), 타이어(MTI 4단위)

자료: KOTIS (MTI 2단위 기준)

다. 한국의 대 브라질 수입추이

전통적으로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자재 공급국이었다. 2004년 기준 브라질은 한국의 22대(2003년 24대) 수입 대상국이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제1의 대상국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브라질로부터 수입은 1999년 이후 해알화 평가 절하에 따른 브라질산 제품의 가격 인하, 2000년 이후 국내 원자재 수요급증 등에 힘입어 커다란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2004년에도 對 브라질 수입은 철광 및 곡물 수입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이 결과, 한국의 총수입대비 비중은 2000년 0.6%에서 2004년에는 1.0%로 증가했다. 브라질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0%에서 2004년 1.5%로 증가했다. 2005년 들어서도 브라질로부터 수입은 광산물, 고무 및 가죽제품 수입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해왔다.

2005년 한국의 브라질 제품 수입액은 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9% 증가, 2006년은 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다. 2008년 3월 기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5.1%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라.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대 브라질 수입품목은 광산물, 철강금속 제품, 농수산물 등 1차 산품이 전체의 약 85%에 달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수입품목 구성을 살펴보면 농수산물(32.1%), 광산물(31.4%), 철강·금속제품(21.7%) 등 3개 제품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사이 광산물과 농수산물이 제1위 수입품목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광산물은 철광 및 원유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2005년 들어 다시 최대수입 품목으로 부상했다. 또한 브라질로부터의 농산물, 제지원료 등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 브라질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

MTI	품목명	2006		2007		2008(1-8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순위
11	금속광물	831	3.3	910	9.5	1,108	75.7	1
61	철강제품	498	-17.1	522	4.7	747	150.2	2
01	농산물	598	2.7	812	35.9	613	36.6	3
25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	132	67.7	115	-12.4	89	17.6	4
62	비철금속제품	25	154.6	62	146.8	41	59.5	6
02	축산물	44	118.2	56	28.5	45	23.9	5
33	가죽 및 모피제품	43	0.4	43	0.6	21	-37.7	7
03	임산물	9	-2.0	35	277.4	20	-18.8	8
71	기초산업기계	20	119.4	10	-49.7	18	187.5	9
22	정밀화학제품	20	20.7	16	-18.6	11	-4	10
총계		2,707	8.2	2,794	3.2	2,670	55.7	-

자료: KOTIS

마. 무역수지 현황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2002~2004년 3년간 일시적인 적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해오고 있다. 대 브라질 무역흑자는 1998년 한때 11억 달러에 달해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으로 대두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한국이 일시적인 적자를 기록한 것은 브라질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와 브라질로부터 철광, 대두 등 1차 농산품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KOTIS 통계에 따르면 대 브라질 무역적자는 2002년 100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약 5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04년에도 4억 달러를 상회했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대 브라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6억9,300만 달러 흑자, 2008년 8월 기준 15억 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허가

수입 허가서(I/L)는 SISCOMEX를 통해 발급되는데 수입 희망 품목에 따라 발급 필요 여부가 달라진다.

1) 자동발급 수입허가(Licenciamento Automatico)

사전 통제 또는 특별 수입규제 품목이 아닌 대부분의 제품은 수입신고 시 자동으로 수입 허가서가 발급된다. 수입자는 수입품목의 사양, HS 코드, 수량, 가격, 운송료 등 SISCOMEX (무역서류 전산화 시스템)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수입허가 자동발급대상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입허가 자동발급 품목에 속하더라도 일부 제품의 경우는 통관 전 특별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주로 위생이나 환경 관련 제품이 그 대상이다.

○ 특별허가 요망 품목

- 육류, 해산물, 식품, 우유, 낙농가공품, 달걀, 꿀, 과일, 야채 등: 농림부 허가
- 천연 고무나 인조 고무: 환경부 허가
- 비료, 화장품, 약품, 향수: 보사부 등 유관 기관에 사전 등록 필요

2) 자동발급 불가 수입허가(Licenciamento Não-Automático)

수입 허가를 자동 발급할 수 없는 품목들은 선적 전에 또는 수입 신고에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SISCOMEX 행정조치표”에 열거되어 있으며 Drawback, BEFIEX, CNPq, ZFM 제도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도 모두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 선적 전

SECEX의 특별관리를 받는 제품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중고품, 수입세 감면 상품, 무가 상품(샘플, 기부품, 일시적 체류, 인체 및 동물 연구용품, 정신질환 치료제, 군수품, 방사능 물질, 원유, 원유 가공품, 환경 유해 물질, 항공기 등)

□ 세관 통관 전

Drawback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제품, 자유무역지대로 들어가는 물품, CNPq를 통해 들어오는 물품 등

나. 수입금지 품목

과거에는 자유 수입, 사전 수입 승인, 수입금지 품목 등으로 구분했으나 2006년을 기준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이 분류하지 않는다. 단 정부 승인이 필요한 품목의 리스트는 DECEX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 무역 관세집(Tarifa Externa Comum: TEC)에는 해당 품목 옆에 "E"라는 표시와 함께 하단에 관련 법규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또한 수입 금지 품목에는 품목 옆에 "P"라고 표시했다.

수입 금지는 주로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취하는 조치이며 2006년 기준 수입금지 품목 수는 많지 않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중고품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중고차, 의류 등의 국내 반입은 거의 불가능하나, 일부 중고 기계의 경우 타당성이 인정되면 수입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브라질 정부는 마나우스 자유 무역지대로 수입되는 중고 기계나 설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다. 관세·비관세장벽

브라질은 1990년 시장개방을 선언한 이래 관세, 비관세장벽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타 무역국가에 비해서 관세율이나 비관세 장벽의 벽은 아직도 높은 편이다. 주요 무역장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입 관세율이 아직 높음

브라질의 관세품목은 총 8자리 숫자에 대해 10,000여 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관세율은 0~35%까지 분포해 있다. 모든 관세는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s)이며 일부 통신제품을 제외하고는 CIF가격에 대해 부과된다. 2008년 9월 기준 브라질의 평균관세는 8.3%로 과거 (1990년 32%)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다. 관세율의 적용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원자 재(8~9%)나 반가공품(11.9%)은 완성품(평균 15.8%)에 대해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 무역서류 전산화 시스템(SISCOMEX)은 아직 비 효율적이고 비용이 높음

1997.1월 대외무역국(SECEX)은 무역서류 전산화 시스템(SIS COMEX)을 도입하여 수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상당히 많은 품목이 수입자동 허가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SISCOMEX의 설치에 일반인에게는 아주 불편하다고 할 수 있다. 수입업체가 수입규제 규정을 알아보려면 SISCOMEX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는 등록된 수입 업체만이 가능하다.

3)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에 대한 행정규제

1998.10월부터는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에 대해 여러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위생 요건, 품질요건, 안전요건 등의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일련의 행정조치가 발표되고 있다.

4) 통관지연

1998년부터는 Under-Invoicing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자동수입허가 불가 제품에 대해 따로 허가를 받게 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범위를 넓혔다. 비록, 자동수입허가(Licença Automática)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자동수입허가 불가 품목이 더 많다. Under-invoicing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관은 통관심사를 강화했는데 의심이 가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산정될 때까지 통관을 지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 보건부의 제품등록기간

건강용품, 의약품, 음료 등은 보건부에 제품등록을 해야 수입 또는 판매가 가능한데 등록을 위한 자격 심사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라. 수입쿼터

브라질의 경우 무역보호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1988년부터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무역 보호 제도를 사용하려는 국내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 덤핑 행위에 대한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부터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 및 긴급 수입제한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4월 기준, 총 63건의 무역보호조치가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은 현재까지 총 5건의 덤핑조사가 있었는데, 이중 3건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2건은 덤핑판정을 받았다. 이중 무혐의 판정을 받은 인조 섬유건은 현지 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나일론의 경우 미흡한 대응으로 덤핑판정을 받게 되었다. 브라질에서 무역 구제 소송의 경우 현지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나일론 6번사가 유일한 수입규제 품목이었으나 2006.6.28일부로 반덤핑규제가 종료되었다.

2008년 8월 28일엔 한국(중국산 포함) PVC에 대한 최종 덤핑 판정이 내려져 PVC에 대한 수입규제 중인 상황이다. 현재 시행중인 PVC 덤핑 판결은 지난 9월 21일, 브라질의 Braskem 사가 중국산 및 한국산 PVC를 덤핑 혐의로 제소하였고,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2008년 8월 28일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

브라질 정부는 장난감 수입에 대해 2004. 12. 15.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했는데 2005. 12. 31 까지는 현행 수입관세(20%)에 9%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고, 2006.6.30까지는 8%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바 있다. 동 조치는 중국산 장난감을 겨냥한 것으로 한국은 동 조치의 적용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2007년 4월 중국산 의류 및 신발류 수입관세를 20%에서 35%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브라질 정부는 지난 6월 중국산 다리미와 탁상용 선풍기 수입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중국산 제품이 저가에 다량 수입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브라질 현지 제조업체들의 제소가 끊이지 않자 브라질 무역위원회(Camex)에서 마침내 반덤핑 조치 적용을 확정된 것으로, 동 조치는 향후 5년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리미의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입세 20% 외에 1개당 4.27달러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고 탁상용 선풍기의 경우는, 올해 안에 해제될 예정이었던 반덤핑 조치(수입세 45.24%)가 연장 실시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4~5년 사이 중국산 원단 수입량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자, 브라질 섬유 업계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2006년 중국정부와 섬유 수입 쿼터 적용 관련 합의를 도출해 냈다.

“중국산 섬유 (완제품 포함) 수입 증가율은 품목에 따라 연간 8~12.5%(2006년), 9~15%(2007년), 10~25%(2008년) 범위 내로 규제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상은 8개 분야 70 여 개 품목이 해당된다.

품목	기준시점	2006		2007		2008	
		증가량(톤)	증가율	증가량(톤)	증가율	증가량(톤)	증가율
실크제품	07/04~06/05	60	8%	65	9%	72	10%
폴리에스터 섬유	10/04~09/05	18,431	12.5%	21,196	15%	25,435	20%
인조섬유	10/04~09/05	48,321	12.5%	55,569	15%	66,683	20%
벨로아 제품	10/04~09/05	504	12.5%	580	15%	695	20%
메리야스원단셔츠	10/04~09/05	1,872	12.5%	2,153	15%	2,691	25%
스웨터	07/04~06/05	1,170	8%	1,275	9%	1,403	10%
재킷	10/04~09/05	6,852	12.5%	7,880	15%	9,456	20%
자수제품	10/04~09/05	276	12.5%	317	15%	397	25%

브라질 유형별 비관세 장벽

유형	내용
기술장벽(6)	- 중고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헌 옷 등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예외 인정) - 전기 전자 및 IT 제품 통관 시 브라질 지적재산권협회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등록과정에서 수입제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지나쳐 영업비밀 침해가 우려됨. - 브라질 도량형 및 품질 관리기관인 INMETRO 를 통해 독자적인 자동차 타이어 인증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국제표준을 받은 자동차 타이어 업체 및 수입업체에게 부담을 줌. - 유사상품 존재 시 수입승인을 못 받는 등 IT 제품에 대한 장벽 - 국제표준과 동떨어진 비합리적인 기준 적용, 자국만의 인증을 요구, 인증비용 과도 책정 등 불필요한 비용 유발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자국산 원자재 사용을 강요함으로써 품질이 떨어지는 원자재를 사용해 전반적 품질 저하 초래(일정 비율 이상의 국산부품 이용법: PPB 존재)
통관절차(2)	- 통관 규정 강화와 잦은 변경, 복잡한 절차 - 최저 가격제도의 빈번한 실시(섬유, 타이어, 장난감, 기타 등)
수입허가(2)	- 아시아산 수입직물에 대한 수입쿼터제 - 수입허가제도의 까다로운 적용 - 대외무역 등록조건에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등 수입업체 등록 및 수입허가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규정
위생검역(3)	- 농산물, 식물, 과일류에 대한 수입검역 강화 - 포장용 나무상자를 이용한 선적품에 위생증명 요구 - 생명공학 이용 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 유통 엄격 규제
투자장벽(3)	- 주재원 파견 및 지사설립에 관한 제한 -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 - 기타 투자 및 진입관련 비관세장벽 -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금융 및 외환 등
기타(5)	- 과다한 수수료와 내국세 부과 - 수출보조금 지급으로 내국산업 보호 추진 - 정부구매 분야에 대한 규제 -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미비 - 각종 서비스 분야 진입 장벽(통신, 영상, 보험, 금융 등)

자료: 무역관 종합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브라질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08년 8월 28일 기준으로 한국(중국산 포함) PVC에 대한 최종 덤핑 판정이 내려져 PVC에 대한 수입규제 중인 상황이다. 현재 시행중인 PVC 덤핑 판결은 지난 9월 21일, 브라질의 Braskem 사가 중국산 및 한국산 PVC를 덤핑 혐의로 제소하였고,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2008년 8월 28일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

또한 2005년 하반기에는 브라질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타이어에 대해 최저가격제를 적용해 한동안 대 브라질 타이어 수출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었다. 2006년 6월까지 반덤핑 1건(나일론 6사)이 있었는데, 중국산 범람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잦으므로 우리 수출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나. 2008 년 수입규제 전망

1) 개요

2007 년 룰라 2 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성장을 제고에 최우선을 두고 금리인하, 수출 확대,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 2007 년 경제성장률은 5.4%이며 2008 년은 이보다 다소 낮은 4.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브라질 경제는 최고 호황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해알화 강세 현상 지속으로 수출에 불리하고 수입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룰라 2 기 정부는 환율정책 및 수출 촉진 정책, 수입 증가에 대한 대책 위주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고 늘어나는 수입과 중국산 범람에 대해 정부 및 산업계의 경계령이 강화되고 있다.

2) 통상정책 방향

1998 년부터 강화된 수출 촉진 정책은 룰라 정권이 더욱 탄력을 받았으며 올해 룰라 2 기 정부 출범에 따라 이러한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브라질은 2005 년 수출 1,000 억 달러 목표를 달성했으며 2007 년에도 이미 수출 1000 억 달러를 무난히 초과 달성했다.

룰라의 2 기 정부 대선 공약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장려(수출장려 강조), BNDES, Proex, 수출보험 등을 통한 수출 장려책 확대, APEX(브라질투역투자진흥기관)의 해외지사 확대, 외국제품의 범람에 대응한 특정분야에 조치를 취할 것 등 수출 장려 및 수입 증가세에 대한 대책 등이 나와 향후에도 수입 증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수입규제 조치 증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룰라 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은 미국 등 선진국과의 협력보다는 남남협력 및 대 중남미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5. 관세제도

가. 개요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Mercosul)의 일원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외 무역 공동 관세(Tarifa Externa Comum: TEC)를 사용한다. HS 코드와 마찬가지로 Mercosul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HS코드)은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절한 분류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통관사 또는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1) 대외무역공동관세 과세 기준

- 특별세율(Aliquota Especifica): 관세법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경우
- 종가세율(Aliquota "Ad Valorem"): 수입할 당시 자유경쟁의 조건 하에 팔릴 수 있는 정상 가격에 부과 되는 세율로, 보통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가격이 많다.
- 압수 또는 유기된 상품: 이러한 수입 상품들은 경매 처분되는데 그에 대한 과세 기준은 경매 시의 낙찰 가격이다.

2) 대외 무역 기관

모든 대외거래를 총괄하는 최고기관은 국가통화위원회(CMN)이며, 개발부, 재무부, 중앙 은행의 대표가 모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CMN을 중심으로 수입허가, 통관, 외환관리 등 수입과 관련된 행정사무는 개발 상공부 (MDIC) 산하 대외무역국(Secretaria de Comercio Exterior, SECEX), 재무부 산하 연방 세무국 (Secretaria da Receita Federal, SRF), 중앙 은행(Banco Central do Brasil, BCB)이 각각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통상개발상공부는 대외무역에 관한 정부 주무부서가 되며 그 산하 대외무역국(SECEX)이 재화나 서비스의 대외거래를 총 관장하는 정책 실무를 담당한다. 그래서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는 SECEX에 무역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중앙은행은 대외 거래에 관한 모든 금융활동을 감독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 개발상공부(Ministerio de Desenvolvimento, Industria e Comercio Exterior): <http://www.mdic.gov.br>
- 재무부(Ministerio da Fazenda – Receita Federal): <http://www.receita.fazenda.gov.br>
- 대외무역국(SECEX): <http://www.desenvolvimento.gov.br/sitio/secex/secex/competencia.php>
-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 <http://www.bcb.gov.br>

나. 관세율의 종류

기본적으로 수입 통관 시에 부과되는 기본적인 세금은 수입세(Imposto de Importacao: I.I.), 공업제품세(Imposto sobre Produto Industrializado: I.P.I.), 주 유통세(Imposto sobre Circulação de Mercadorias e Serviços: I.C.M.S.)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2004.5.1부터 수입품에 대한 사회기여세(Programa de Integração Social: PIS – Importação/ Contribuição Social para o Financiamento da Seguridade Social: Cofins – Importação) 부가가 실시되고 있다.

1) 수입 관세(I.I.)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 특별세로, 남미 공동시장 형성 후 대외공동관세율에 적용되고 있다. 브라질의 수입 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되어 있다. 2007년 기준 브라질의 평균 수입 관세는 11.46%로 과거(1990년 32%)에 비해서 대폭 낮아졌다. 관세율의 적용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원자재 (평균 8~9%)나 반가공품 (평균 11.9%)은 완제품 (평균 15.8%)에 대해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회원국으로서 대외공동관세를 취하고 있는데 메르코수르 평균 대외공동 관세율은 13.6%이며 0에서 20%까지 분포되어 있다. 브라질은 현재 100개의 예외품목을 가지고 있다.

2) 공업제품세(I.P.I.)

공업제품세도 연방세이며 대부분의 국내 생산품과 외국 수입품에 대해 적용된다. 공산품 세는 국내 생산품의 경우 제조업체의 판매 시, 수입품의 경우 통관 시에 적용된다. 하지만 수입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공업 제품세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 가 높은 품목은 공업 제품세도 높으며, 수출업체의 경우 동 세금이 면제된다.

연방정부는 금융과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데 IPI를 많이 사용한다. 그 이유는 다른 조세와 달리 IPI세율은 연방정부가 행정부령(Decreto Executivo; Executive Decree)을 통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의회와 개입여지가 없으며, 행정부령을 발표함과 동시에 바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IPI 과세율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현재까지 0~365.6%까지 다양하다. 예컨대 담배나 향수의 경우처럼 국민생활 필수품이 아닌 경우는 과세율이 높고 생필품은 과세율이 낮다. 그리고 수출품은 경쟁력제고를 위해 IPI를 면제하고 있으며,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로 판매하는 경우도 IPI를 면제받는다.

3) 주 유통세(I.C.M.S.)

주 유통세는 국산품이나 수입품에 모두 적용하는 주(州) 부가가치세이다. ICMS는 IP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품의 경우 공장에서 출하되거나 수입품이 통관될 때 과세되며, 수입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주 유통세는 1965년 제정되어 연방의 각 주와 브라질리아 연방 특구가 징세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가장 큰 세수원이다. 동 세금 상품의 유통, 서비스 제공, 주간(州間) 운송 시에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 유통세는 일반적으로 주에 따라 7%, 12%, 또는 18% 가 부과되며 상파 울루 주의 경우 통상 18%가 부과되지만 품목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아 13% 또는 9% 정도인 경우도 있다.

4) 사회기여세(PIS/Cofins)

사회통합기여금(PIS)은 연방 보완법(Lei Complementar 07/1970)으로 시행된 사회 통합기여세(PIS)는 모든 법인에 대해 부과되며, 예외적으로 SIMPLES의 적용을 받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만 면제 혜택을 준다. (SIMPLES는 법률 제9317호(Lei 9317/96)로 제정된 영세기업을 위한 조세통합법이다. 세율은 법률 제10637호(Lei 10637/2002)에 따른 경우 2002.12.1.부터 1.65%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사회복지기여금(Cofins)은 모든 법인에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SIMPLES(Lei 9317/96)의 적용을 받는 영세 기업은 예외다. 일부 예외가 있으나 기준세율은 7.6%(지난 2001. 2.1부터)이고 과세기준은 PIS와 같다.

다. 관세율 계산법

*** CIF 가격 100달러, 수입세 14%, 공업 제품세 15%의 제품이 상파울루 주에서 유통되는 경우(주 유통세 18%), 관세 포함 최종가를 계산하는 법

브라질 관세체계

브라질은 남미 공동시장 회원국으로서 대외 공동관세를 사용하며 수입 관세, 공업 제품세, 유통세, 사회 보장세가 누진 적용된다.		
유통세의 경우 주마다 유통세율이 상이하며 상파울루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18%가 적용되며 최종 소비 자에게 전가되며, 사회보장세의 경우 수입자가 내게 된다.		
아래 계산은 귀사 제품을 100달러로 가정하고 세금을 누진 적용하여 최종가격을 참고로 알려주기 위한 것 이며 실제 세금적용 시 주유통세, 사회 보장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IF 가격	100	USD
수입관세(I.I)	14	%
공업세(IIPI)	15	%
유통세(ICMS)	18	%
사회 보장세(PIS/Cofins)	9.25	%
Example)		
CIF 가격	100.00	USD
수입관세(I.I)	14.00	%
수입관세 산정가격	14.00	USD
공업세 산정기준(CIF+I.I)	114.00	USD
공업 제품세(IIPI)	15.00	%
공업 제품세 산정가격	17.10	USD
유통세 산정기준(CIF+I.I+IIPI)	131.10	USD
새로운 유통세 산정기준 $[(CIF+I.I+IIPI)*100]/(100-ICMS)$	159.88	USD
유통세(ICMS)	18.00	%
유통세 산정가격	28.78	USD
사회 보장세 산정기준(CIF+I.I+IIPI+ICMS)	188.66	USD
사회 보장세(PIS/Cofins)	9.25	%
사회 보장세 산정가격(수입자 부담)	17.45	USD
최종가격	177.33	USD

6. 주요인증제도

가. 인증기관

1) 브라질 기술표준협회(ABNT: Associação Brasileira de Normas Técnicas)

1940년에 설립된 브라질 국립 기술표준 협회로 국내 각종 기술 분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계 규격을 갖추도록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ISO, IEC, COPANT, AMN 등 세계적인 인증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어 동 기관을 통해 자격 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COPANT-Comissão Panamericana de Normas Técnica
	AMN-Associação Mercosul de Normalização

2) 국립 산업품질 도량형 연구소(INMETRO : 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Normalizacao e Qualidade Industrial)

브라질 연방 정부의 개발산업무역부 소속 기관으로 ABNT/ISO의 심사 기준에 의거하며 실제로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 각종 산업 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INMETRO는 인증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전문 부서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 품질시스템인증기관(OCS)

ABNT ISO 9001, 9002 e 9003의 규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 이러한 인증서 발급 기관의 허가 기관으로 INMETRO는 ABNT ISO/IEC Guide 62와 이러한 규범에 대한 IAF와 IAAC의 해석을 따름. 이러한 기관들은 QS 9000의 기준에 따라 발급기관에 신청 가능 (** 인증 ISO 9001, 9002, 9003 등)

□ 제품인증기관(OCP)

국내/지역/국제 규범에 따라 강제검사 분야 또는 임의검사 분야의 제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임. INMETRO는 이러한 제품인증서 발급기관에 대한 허가 기준으로 ABNT ISO/IEC Guide 65와 IAF 와 IAAC의 해석을 적용

□ 환경 통제제도 인증기관(OCA)

NBR ISO 14001, 14004, 14010, 14011과 14012의 규범을 적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 INMETRO는 이러한 발급기관의 선택기준으로 ABNT ISO/IEC Guia 62와 IAF, IAAC의 해석을 적용 (** 인증: ISO 14001, 14004, 14101, 14011, 14012 등)

□ 인력증 기관(OPC)

SBC(Sistema Brasileiro de Certificacao) 기관의 허가기준으로 ABNT ISO/IEC Guia 62, na EN 45013 e nas orientacoes da IATCA e IAAC를 적용

□ 훈련 기관(OTC)

훈련기관은 인력양성(훈련)을 하는 기관에 대한 INMETRO의 인증임. INMETRO는 이러한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EN 45013와 IATCA e IAAC의 지침 참조

나. 인증서 발급

인증서의 발급은 INMETRO가 허가한 인증서 발급기관(OCC)이 수행한다. 그 방식은 규격/인증서를 발급 하거나 브라질 인증제도의 확인마크(Marca de Conformidade do Sistema Brasileiro de Certificação SBC)를 발급하는 것으로 INMETRO는 인증기관, 검사기관, 테스트기관 등의 활동허가 및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브라질 인증마크인 SBC의 사용을 국내외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독립과 공정의 원칙에 따라 OCC는 자신의 회사나 관련 협력회사의 검사/규격/인증 행위를 할 수 없다. 브라질의 SBC 인증마크는 브라질 인증위원회(Comitê Brasileiro de Certificação CBC)가 결정한다.

강제인증(certificação compulsoria)의 경우 SBC 인증마크의 부착은 의무적이며, 임의인증(certificação voluntária)의 경우 OCC는 자신의 판단으로 SBC 인증마크의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소비자로부터 자사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용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SBC 인증마크를 획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증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데 강제인증의 경우 그 비용은 국제기준에 따르되 브라질 현실에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INMETRO가 국제가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INMETRO를 통해 강제인증의 경우 SBC의 국제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OCC의 경우는 국제협력, 협회, 하청 등을 통해 브라질 인증시스템인 SBC의 국제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WTO의 규정에 준해 강제인증을 받아야 하는 외국제품에 대한 대우는 유사한 국내 제품에 대한 대우와 같다.

다. 인증형태

인증방식은 규격/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브라질 인증제도의 확인마크인 SBC 마크(Marca de Conformidade do Sistema Brasileiro de Certificação: SBC)를 발급하는 것이다. 강제인증은 INMETRO 심볼 우측에 인증기관 (OCC)의 마크를 부착하는 것으로 의무적이다. 임의인증의 경우 인증서 부착 여부는 기업의 재량이다.

라. 임의 인증(Certificacao Voluntaria)

임의 인증은 신청자가 자신의 제품, 공정, 서비스의 질을 공인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다. 임의 인증도 SINMETRO 제도 내에서 인정된 기관이 만든 규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SBC 시스템 하에서 임의 인증은 OCC가 담당하게 된다. 기업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공인 받기 위해 임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마. 강제인증(Certificacao Compulsoria)

강제인증행위는 강제인증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ISO/ CASCO로 표시된 모델을 참조한다. 규범의 우선적용 순위는 국내/지역/국제규범의 순이다.

강제인증은 안전, 국익, 시민의 이익이 문제되는 분야를 우선으로 하고 짐승, 야채, 보건, 환경 등에 관한 문제 등을 포괄하며, 상업화 또는 적용을 위해서는 연방기관이 채택한 인가/승인/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제품, 공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연방기관이 요청할 시 SBC에 포함할 수 있다.

강제인증은 SBC의 규정에 따라 OCC가 해야 하며, 감시는 INMETRO와 협정이 체결된 주 감시기관이 할 수 있는데, 주로 IPEM이 수행한다. 외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 공정, 서비스의 경우 강제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브라질의 해당품과 같은 규범의 적용을 받는다.

강제 인증에는 외국기관의 참여도 가능하다. 즉 해당기관을 승인한 제도와 INMETRO의 허가제도 간에 상호 인정협정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어떠한 상황에서건 SBC제도에서 강제 인증의 책임은 OCC가 진다. 현재 브라질에서 강제인증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서비스는 59개 항목이다. (2008년 8월 발표 기준, 가장 최신 변경 자료)

강제 인증 요구 품목 (2008년 8월 기준)	
강철봉 및 강철사	교류형 안전장치(stabilizer)-250V, 3KVA 이하
전기 흡수기	소화기- 제조 및 수입 과정
아동용 자전거- 안전 여부 검사	디젤 오일용 필터
장난감- 안전 여부검사	안전성냥
PVC 케이블(0.6 /1KV)	퓨즈
PVC 케이블(750V 이하)	가정용 아날로그 방식 전류 차단기(440V 이하)
모토 사이클 용 헬멧	우유(이유식) 병
버스 차체*규격 검사	가정용 LPG 가스용 PVC 호스
차량용 메탄가스 저장용 철제 실린더 (불합하지 않은 모델)	가정용 아날로그 식 플러그 및 콘센트
차량용 고압 메탄가스 저장용 실린더	승용차, 트럭, 버스용 타이어 신제품
주유소용 연료 주입 시스템 부속품	모토 사이클용 타이어 신제품
차량용 천연가스 주입 시스템 부속품	식수 품질 개선 장비
PVC로 감싼 컨덕터 (conductor) (전압: 450/750V)	남성용 콘돔
회로 차단기(Circuit Breaker)	형광등용 전자 스타터(Starter)- 교류식
컨테이너 고정 장치 설치 서비스	튜브 형광등용 스타터(Starter)
차축(Vehicular axle) *제조과정 검사	철제 LPG 가스통
알코올용 플라스틱 포장용기	LPG 가스 압력 조절기(4 kg/h 이하)
안전성냥 육로 수송용 포장용기	주유소용 지하 연료 저장 탱크
위험물 육로 수송용 포장용기	비금속 소재 차량 연료 지하 수송용 튜브
폭발 위험 환경용 전기기기	컨테이너 수송용 차량* 제작 및 설치
전기의료기기	차량용 안전유리
위험 물질 육로 수송용 컨테이너	차량용 아동안전 장비
PROVEM 자동차 강제인증 프로그램	철제 튜브(액체 전도(傳導)시 사용되는 탄소)
플라스틱 의자	플렉시블(Flexible) 철제 연결 부품 - 액체 전도(傳導)시 사용
전자제품용 고무(EPR) 피복 케이블(500V 이하)	전자제품용 PVC 피복 케이블(500V 이하)
컨테이너 고정 장치제조과정	CSP 피복 전선: 300V 까지
플러그용 어댑터	산업용 헬멧
위험물 및 일반화물 수송 차량용 부속 (king pin)	일반용 케이블
공갈 젓꼭지(노리개 젓꼭지)	천연고무/합성고무 소재 수술용 장갑 및 기타 용도로 사용 되는 장갑
Fifth Wheel(위험물 수송 차량용)	-

자료 :INMETRO

- Anatel 이 강제인증을 요구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이 3 개 분야로 분류된다.
 - I: 일반 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전화기 단말기 등
 - II: 통신용 장비의 일부로 I 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등
 - III: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I 과 II 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광 케이블, 다중통신전자시스템(Multiplex), 라우터 (router) 등

○ 강제인증 승인 절차 (INMETRO, IPEM 인증)는 아래와 같다.

- ① 인증 신청 양식지 (formulario 12) 작성
 - OCIPEM (<http://www.ocipem.sp.gov.br/>)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② 증빙서류 [Contrato Social(업체 대표, 재무구조 등을 명시한 서류), CNPJ(사업자 등록증)] 구비
- ③ 업체 대표 서명이 날인된 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OCIPEM 에 우편 송부 또는 직접 제출
- ④ 인증 취득 신청 절차 통보
 - 인증 신청서 검토 후, 인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한해서 OCIPEM 은 인증 취득 신청 절차 및 검사 비용 등을 통보
- ⑤ OCIPEM 은 각종 제품 품질 검사 결과를 종합, 인증 승인 가능성을 판단

바. SBC 시스템에서 인증서의 획득절차

인증 신청을 하는 자는 인증규범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품질시스템을 이미 적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품질 시스템의 운용절차와 그 정책 및 시스템 운용 팀의 책임에 대해서는 품질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인증신청기업은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인증신청 기업은 기업의 품질 정책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이러한 품질관리정책이 기업 전반에 걸쳐 적용/이행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사. 인증신청기업의 권리

1) 인증마크 사용권

인증을 획득하는 기업은 인증기관의 로고를 사용할 권리를 향유한다.

2) 인증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접근권

인증기관은 승인획득 기업에게 승인 시스템의 변경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야 한다.

3) 새로운 규칙에 적응할 기간

승인과 관련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은 기업과 합의하여 그 적응기간을 정한다.

4) 이의신청/불복/분쟁

신청기업이 인증과 관련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증기관에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신청이나 불복을 제기하는 기업 또는 타방 이해 당사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모든 인증기관은 모든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증신청은 이미 인증받은 기업의 숫자나 그 규모 또는 협회원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 인증 받은 기업의 의미

1) 적절한 시스템 유지 의무

인증 받은 기업은 인증의 근거가 되었던 품질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주기적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2) OCC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의무

법적 지위, 설치물, 인력, 장비 등 승인받은 기업의 구조에 상당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인증 기관이 통보해야 한다. 기업의 구조변경은 인증의 근거가 되었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다.

3) 고객에게 상황통보 의무

만일 인증 받은 기업의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될 경우 기업은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고 인증이 포함된 광고물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

4) 인증의 오용

광고물, 명함, 사무용품, 기타 인증마크가 포함된 서류를 준비할 경우 기업은 인증기관에 그 인증마크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증 받은 기업은 인증기관과 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에 그 인증 사실을 기업의 광고문, 서비스 알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인증받은 분야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제한을 받는다.

자. 외국제품의 인증

외국제품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우선 해당제품에 대한 특별규칙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후 적절한 OCP에 인증신청을 한다. 인증신청이나 절차는 국내 제품의 경우와 같다. (동등 대우의 원칙) 만일 공장 검사(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원은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하는데 그 부대비용은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그 비용은 제품, 해외 검사의 필요성 등 검사의 특수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차. 미 이행 시 제제 조치

SINMETRO 시스템의 설치법인 연방법 제 5966호(1973.12.11.)에 따르면 CONMETRO는 도량형, 산업표준화, 공산품의 품질인증과 이에 관련된 규범행위에 관련된 법률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의 적용을 위한 기준과 그 절차를 정할 수 있는(제3조 f) 권한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위반에 대한 벌칙적용 시 INMETRO에 항소가 가능하다(제7조). 동법의 위반이나 CONMETRO가 제정한 규범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제제가 단독 또는 병합 적용된다.

- ① 경고
- ② 벌금: 최대 최저임금의 60배까지
- ③ 정지
- ④ 압류
- ⑤ 취소

7. 지적재산권

가. 개황

브라질은 지적소유권 보호협약인 파리 협약과 문학, 예술작품 보호협약인 베른 협약의 가입국이며, 1967년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WIPO)를 발족시킨 스톡홀름 협약에도 가입했다.

실질적으로 파리협약을 중심으로 기술이전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지적소유권은 문학, 과학, 예술 소유권을 포괄하여 민법상 규율을 받는데 반하여 산업재산권은 상법에 의해, 특히 산업재산권법인 법률 제9279호(1996.5.14)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과 상표권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과거 기술이전 계약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해 왔으며 외국업체와 브라질 정부의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다.

지난 1991년 5월 콜로르(Fernando Collor de Mello) 정부가 종전에 비해 보다 자유화된 "기술사용허가 및 지적재산권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92년5월 브라질의회가 원안의 일부를 수정 통과시켰다. 동 법안은 의약품에 관한 모든 형태의 특허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과 비교할 때 상표권 및 산업재산권 보호를 보다 강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특허와 상표권을 포괄하는 브라질의 산업재산권 보호법은 1997년 5월에 발효되어 지적 재산권 보호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 특허권의 보호기간: 20년
- 실용신안의 보호기간: 15년
- 상표권의 보호기간: 10년
- 저작권의 보호기간: 70년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기간: 50년
- 동일한 국산 Software가 존재하는 한 외국산 Software의 도입은 금지

2001년 공포된 법률 10.196호는 의약품의 특허 신청에 앞서 보건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 공포된 법률 10603호는 수의약품, 비료, 농약 및 관련 특허 상품이 등록 후 2년 내 상용화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등록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브라질에서 산업재산권 보호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허권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일정 비용을 특허청 INPI에 납부해야 하며, 미 납부 시 경고 조치에 이어 (장기 체납의 경우) 특허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나. 기술이전 관련 법규

- 특허청(INPI: INSTITUTO NACIONAL DE PROPIEDAD INDUSTRIAL) 설립 법률: 법률 제5648호
- 산업재산권법(LPI): 법률 제9279호
- INPI규범 제15호: 기술이전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정형조항에 관한 사항 규정
- INPI 규범 제32호: 기술이전 계약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명시
- INPI 결정 제243호: TRADEMARK의 등록이 필요한 상품 분류기준 설정
- 외국인 투자법(법률 제4131호)
- FIERCE 결정 제19 호와 FIERCE 통첩 제37호
- 소득세법: 법령 제85450호
- 재무부 결정 제436호: 기술이전 계약 시 INPI 사전등록에 관한 규정
- ANTITRUST법

다. 특허청(INPI: Instituto Nacional de Propriedade Intelectual)

1) INPI의 역할

기술이전에 관한 등록, 감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에 관련된 정책수립 및 집행을 직접 책임지고 있다.

- 특허신청, TRADEMARK 등록, 양도, 양허 사항 감독
- 특허의 이전 조건 개선
- 기술이전을 원활히 하도록 유도
-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가입과 관련, 정부 보조

2) INPI의 재량권

로열티의 결정, 감세기준, 해외송금 등 외국 특허 양허인의 이익에 직접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망라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재량권을 부여 받고 있다.

- 외국기술도입 여부 결정
- 기술도입계약 조건 심사, 결정
-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도입계약의 등록 거부
- 정부정책, 법률에 위배되는 계약의 수정을 결정
- 도입 및 양수 기술의 양수기업에 의한 습득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요구

3) INPI의 기능

특허와 상표의 등록 및 인정을 실시하며, 특히 외국기술 이전 시 정부정책 및 경제개발의 기여도를 고려, 기술이전의 승인을 결정한다.

기술이전, 특허 및 상표권 허여 시 관계 정부기관과 사전 협의를 가지는데 국세청과는 소득세 중 로열티와 기타 경비의 감면문제를, 중앙은행과는 로열티와 경비의 송금문제를 협의한다.

라. 브라질 가입 국제협약

특허, 상표, 기술이전에 따른 로열티 보호 등 산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중 브라질은 파리협약의 서명국이며, 동 협약의 개정판인 브뤼셀 협약에도 가입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를 발족시킨 1967년의 '스톡홀름'협약에 가입했으며, 문학예술 작품 보호협약인 베른 협약에도 가입했다. 실질적으로는 파리협약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아직까지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과 저작권 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 브라질은 1998년 법률 9610호 및 소프트웨어 법을 공포하였으나 브라질의 저작권 보호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음향 및 영상 상품의 해적판 유통이 상당한 규모로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04년 브라질 무역장벽보고서는 브라질 내에서 유통되는 카세트의 약 75% 정도가 해적판인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최근 브라질 상업연맹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동안 브라질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양의 불법복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품목은 여전히 CD로 나타났다. 이어 2위는 DVD이며, 3위는 각각 6%를 차지한 안경과 시계로 나타났다. 그밖에 의류, 제화, 가방, 장난감 등이 대량 불법 복제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술도입계약 신고

기술이전 계약은 INPI가 발표한 결정 제22호 (1991.2.27)와 규범 제1 호 1991.7.2 발표)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INPI 결정 제22호는 기술이전, 특허권 사용, 상표권 허여 및 기술이전, 기술 및 과학원조에 관한 계약을 열거하고 있다.

기술이전 계약의 INPI 승인은 로열티의 해외송금, 조세감면 등의 목적뿐만 아니라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양수인이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타 기술이전과 조건 등을 증명하는 송장 등의 서류는 INPI 승인을 얻는 데 유효한 자료이다.

바. 특허

WIP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BRICs 국가인 브라질 시장은 최근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건수 4건당 3건이 외국업체일 정도로 브라질 내에서 특허 및 상표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업체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신청 업체의 약 5% 내외만이 특허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PI(Instituto Nacional de Propriedades Intelectuai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약 18,500건의 특허가 신청되었으나 이중 1,000건 만이 특허를 취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 지연의 이유로는 구태의연한 등록 절차(브라질은 약 5-6년 소요, 외국의 경우 평균 2.4년) 및 높은 비용 등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경우 특허 취득 건수는 2,481건(2004년 이전에 신청하여 특허 취득한 경우도 포함), 2005년에는 2,833건, 2006년 2,733건, 2007년은 1,855건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9월 기준 브라질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전세계 특허의 0.09% 밖에 되지 않으며, 특허 신청건수 기준 세계 28위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아직까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DECISÕES FINAIS DE PATENTES						
Anos	Indeferimentos	Arquivamentos	Expedições de Cartas Patentes*	Extinções	Total	D (%)
1997	59	1.604	1.847	34	3.544	-50
1998	341	528	3.197	-	4.066	15
1999	1.740	3.862	3.513	2	9.117	124
2000	2.021	13.530	6.445	6	22.002	141
2001	898	6.858	3.595	893	12.244	-44
2002	1.125	2.218	4.743	4	8.090	-34
2003	1.334	18.735	4.725	-	24.794	206
2004	891	19.448	2.481	1	22.821	-8
2005	1.335	9.114	2.833	1	13.283	-42
2006	1.066	9.232	2.785	178	13.261	0
2007	824	14.611	1.855	37	17.327	31

Fonte: Banco de Dados do INPI

□ INPI 연락처

- 주소: Rua Mayrink Veiga, nº 9 – Centro – Rio de Janeiro/RJ – Cep: 20090-910, Praça Mauá, nº 7 – Centro Cep: 20081-240- Rio de Janeiro/RJ, Brazil
Tel: (55- 21) 2139-3000
- Site: www.inpi.gov.br

8. 통관/운송

가. 통관절차

1) 수입신고

상품이 브라질에 반입되면 브라질 관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내국물품화를 위한 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일단 도착한 화물은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 보세창고에 보관된다.

수입자 또는 통관사는 수입신고(Declaração de Importação: DI)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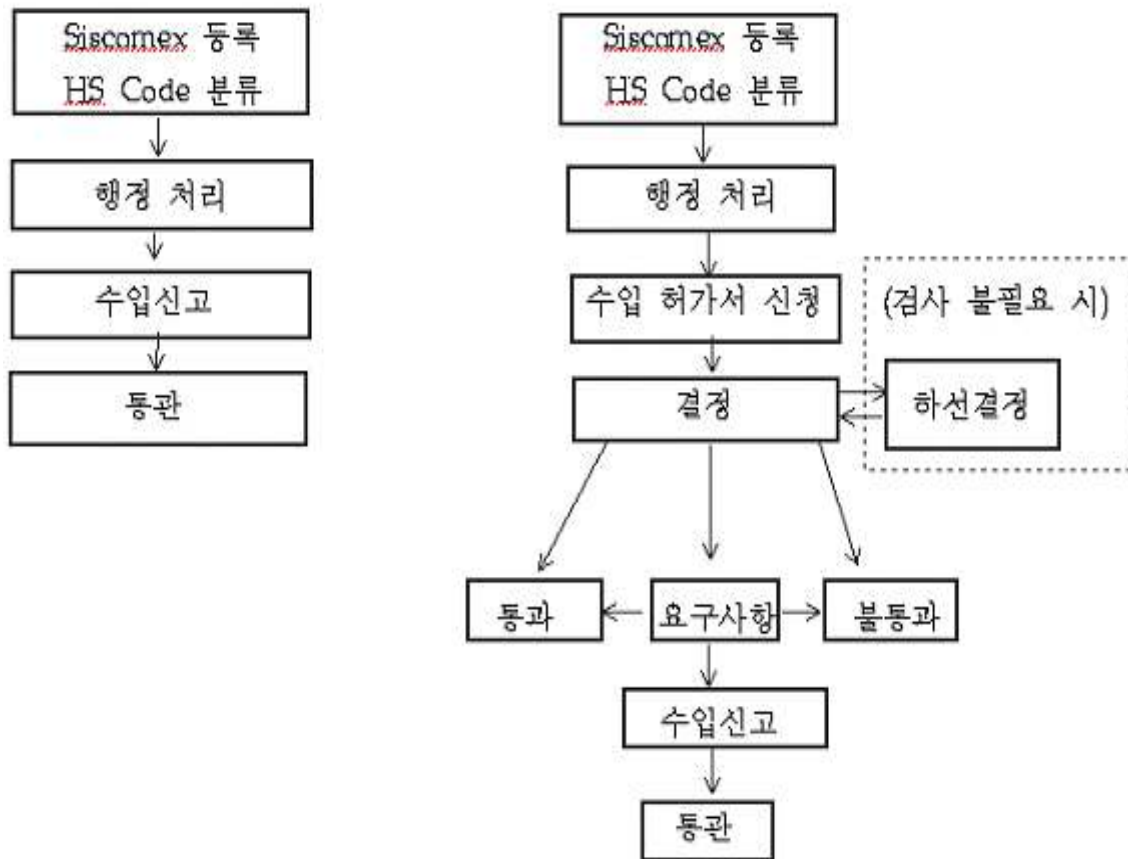
수입신고는 SISCOMEX를 통해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수입세(Imposto de Importação), 공업 제품세(IIPI), SISCOMEX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모든 세금 및 비용 납부가 완료되고 화물 검사 및 확주 확인이 끝나면 연방 세무국은 SISCOMEX를 통해 수입면장 (Comprovante de Importação)을 발급하며, 이것으로 통관이 완료된다.

□ 제출서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입허가증(LI), 선하증권(Conhecimento de Embarque), Commercial Invoice (Fatura Comercial) 및 각 화물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다.

수입허가서(LI)가 필요없는 경우 수입허가서(LI)가 필요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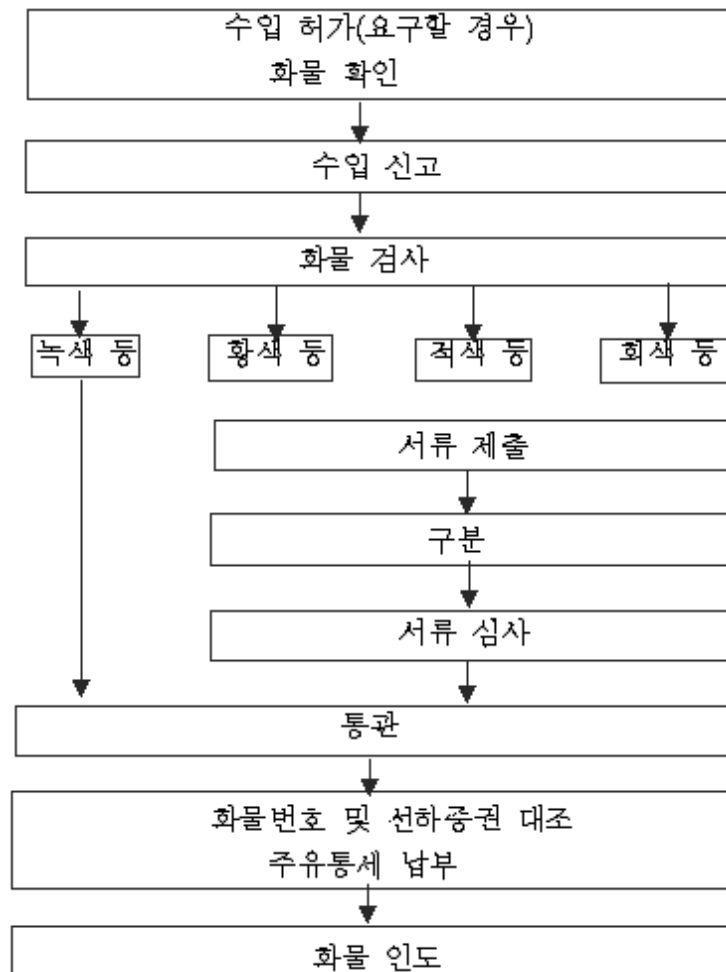
2) 물품 검사

수입신고를 완료하면 SISCOMEX 는 자동적으로 세관반출을 위한 화물검사를 지시한다. 화물검사는 녹색, 황색, 적색, 회색채널의 4가지로 구분한다.

- 녹색: 자동 통관
- 황색: 서류심사 필요
- 적색: 서류 심사 및 화물 검사
- 회색: 서류 및 화물의 정밀 검사

자동통관인 녹색채널을 제외한 기타 세관검사는 수입자가 연방 세무소에 직접 수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브라질은 FTAA 협상국 중 통관절차 및 기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국가로 분류된 적도 있다.



3) 수입 통관 비용

수입세(I.I.), 공업 제품세(I.P.I.), 주유통세(I.C.M.S) 등의 기본 세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통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 창고세: CIF 가격의 0.65%(15일 기준)
- 터미널 사용세
- 상해운세: 해운송비의 25% (항공운송 면제)
- 세관사용인조합 기여금: CIF의 2.2%
- SISCOMEX 사용료
- 화물운송비
- 은행 제비용: FOB 의 2%

나. 관세

1) 주요 관세

- 수입 관세(I.I.):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 특별세로, 남미공동시장 형성 후 대외공동 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공업제품세(I.P.I.): 공업제품세도 연방세이며 대부분의 국내 생산품과 외국 수입품에 대해 적용된다. 공업제품세는 국내 생산품의 경우 제조업체의 판매 시, 수입품의 경우 통관 시에 적용된다.
- 하지만 수입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공업 제품세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가 높은 품목은 공업제품세도 높으며, 수출업체의 경우 동 세금이 면제된다.
- 주 유통세(I.C.M.S.): 주 유통세는 국산품이나 수입품에 모두 적용하는 주(州) 부가가치세이다. ICMS 또한 수입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주 유통세는 1965년 제정되어 연방의 각 주와 브라질리아 연방 특구가 징세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가장 큰 세수원이다. 동 세금 상품의 유통, 서비스 제공, 주간(州間) 운송 시에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주 유통세는 일반적으로 주에 따라 7%, 12%, 또는 18% 가 부과되며 상파울루 주의 경우 통상 18%가 부과되지만 품목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아 13% 또는 9% 정도인 경우도 있다.

2) 관세율 계산법

*** CIF 가격 100달러, 수입세 14%, 공산품세 15%의 제품이 상파울루 주에서 유통되는 경우(주 유통세 18%), 관세 포함 최종가를 계산하는 법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서 대외 공동관세를 사용하며 수입관세, 공업 제품세, 유통세, 사회보장세가 누진 적용된다.		
유통세의 경우 주마다 유통세율이 상이하며 상파울루 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18%가 적용되며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사회보장세의 경우 수입자가 지불하게 된다.		
아래 계산은 귀사 제품을 100달러로 가정하고 세금을 누진 적용하여 최종 가격을 참고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며 실제 세금적용 시 주유통세, 사회보장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IF 가격	100	USD
수입관세(I.I)	14	%
공업제품세(IPI)	15	%
유통세(ICMS)	18	%
사회보장세(PIS/Cofins)	9.25	%
Example)		
CIF 가격	100.00	USD
수입관세(I.I)	14.00	%
수입관세 산정가격	14.00	USD
공업제품세 산정기준(CIF+I.I)	114.00	USD
공업제품세(IPI)	15.00	%
공업제품세 산정가격	17.10	USD
유통세 산정기준(CIF+I.I+IPI)	131.10	USD
새로운 유통세 산정기준 $[(CIF+I.I+IPI)*100]/(100-ICMS)$	159.88	USD
유통세(ICMS)	18.00	%
유통세 산정가격	28.78	USD
사회보장세 산정기준(CIF+I.I+IPI+ICMS)	188.66	USD
사회보장세(PIS/Cofins)	9.25	%
사회보장세 산정가격(수입자 부담)	17.45	USD
최종가격	177.33	USD

다. 주요 무역항

항구명	소속주	위도	경도
Angra dos Reis	RJ	23° 01' S	44° 19' W
Antonina	PR	25° 30,1' S	48° 31' W
Aracaju	SE	-	-
Aratu	BA	12° 45' 30" S	38° 30' 10" W
Areia Branca	RN	04° 49' 06" S	37° 02' 43" W
Barra do Riacho	ES	19° 49' 24" S	40° 04' 20" W
Belém	PA	01° 27' S	48° 30' W
Cabedelo	PB	06° 58' 21" S	34° 50' 18" W
Cubatão	SP	-	-
Forno	RJ	22° 58' 18" S	42° 54' W
Fortaleza	CE	03° 41' 15" S	38° 29' W
Ilhéus	BA	14° 47' S	39° 02' W
Imbituba	SC	28° 17' S	48° 40' W
Itajaí	SC	26° 54' S	48° 39' W
Itaqui/Madeira	MA	02° 34' S	44° 21' W
Macapá	AP	0° 04' N	51° 04' W
Maceió	AL	09° 40' S	35° 44' W
Madre de Deus	BA	-	-
Manaus	AM	03° 09' S	60° 01' W
Natal	RN	05° 47' S	35° 11' W
Niterói	RJ	22° 52' 30" S	42° 08' 30" W
Paranaguá	PR	25° 30' S	48° 31' W
Pecém	CE	03° 25' S	38° 35' W
Pelotas	RS	31° 45' S	52° 25' W
Ponta do Félix	PR	-	-
Porto Alegre	RS	30° 02' S	51° 12' W
Recife	PE	08° 04' S	34° 52' W
Rio Grande	RS	32° 10' S	52° 05' W
Rio Janeiro	RJ	22° 55' S	43° 12' W
Salvador	BA	12° 58' S	38° 30' W
Santarém	PA	02° 25' S	54° 43' W
Santos	SP	23° 56' S	46° 20' W
São Luiz	MA	-	-
São Francisco do Sul	SC	26° 14' S	48° 42' W
São Sebastião	SP	23° 47' 30" S	45° 23' W
Sepetiba	RJ	22° 52' S	43° 52' W
Suape	PE	08° 24' S	34° 57' W
Vila do Conde	PA	01° 32' 42" S	48° 45' W
Vitória/Tubarão	ES	20° 18' S	40° 20' W

라. 브라질 5대 주요 항

브라질의 주요항구는 Santos, Vitortia, Paranaguá, Rio Grande, Rio de Janeiro 등이며, 최근 무역량 급증으로 인해 대부분의 항구가 시설 확충 및 노후 장비 교체 등의 인프라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열악한 항구 인프라 때문에 심지어는 항구까지의 운송비용보다 항구 도착 이후 통관 과정을 거쳐 화물을 찾기까지의 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산토스(Santos) 항



커피 농업의 발달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산토스 항구는 상파울루 주 산토스 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물동량 기준 브라질은 물론 남미 최대 항구다. 산토스 항을 통해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품목은 곡물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 커피, 자동차, 비료, 금속, 육류, 섬유 등 매우 다양하다.

- 접안시설: 전장 11.042m, 깊이 6,6m ~13,5m
- 항만관리업체
 - Companhia de Docas de Sao Paulo (CODESP)
 - 주소: Av. Conselheiro Rodrigues Alves, s/n - Macuco
 - CEP: 11015-900 - Santos (SP)
 - Tel.: (55-13) 3202-6565
 - Fax: (55-13) 3222-3068
 - e-mail: codesp@carrier.com.br
 - Homepage: www.portodesantos.com.br

□ 파라나과(Paranaguá) 항



- 상파울루, 산타카타리나, 마투그로수두술 주 등과 파라과이를 연결하는 국내 주요 항구 중 하나로 산토스 항에 이어 브라질 제2 항구(물동량 기준)다. 동 항구는 브라질 최대 규모의 곡물 수출항으로 다량의 대두가 파라나과 항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각종 곡물, 원유, 농약, 자동차 등이 파라나과 항을 통해서 수출되거나 수입되고 있다.

○ 항만 관리업체

- Administracao dos Portos de Paranagua e Antonin (APPA)
- 주소: BR-277 - Km 0 CEP: 83221-030 - Paranaguá (PR)
- Tel.: (41) 422-0185 e (41) 423-1413
- Telefax: (41) 422-6389 e (41) 422-5324
- E-mail: administ@pr.gov.br

□ 비토리아(Vitoria) 항



- 커피 및 사탕수수 농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겨난 항구로, 에스피리토산토, 리우 데 자네이루, 바이주 등을 연결하는 항구
- www.portodevitoria

□ 리우 그란데(Rio Grande) 항



- 브라질 남부 3주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연결하는 항구
- 항만관리업체
 - Superintendencia do porto de Rio Grande (SUPRG)
 - 주소: Av. Honório Bicalho, s/n – Caixa Postal 198, CEP: 96201-020 – Rio Grande (RS)
 - 전화: (55-53) 231-1366 / (55-53) 231-1996
 - Telefax : (55-53) 231-1857 e 231-1740
 - E-mail: suprg@portoriogrande.com.br

□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



- 세계 3대 미항이자 시설 및 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 항구 중 하나임.
- 항만관리업체
 - Companhia Docas do Rio de Janeiro (CD RJ)
 - 주 소: Rua do Acre, 21 – Centro, CEP: 20081-000 – Rio de Janeiro (RJ)
 - 전 화: (55-21) 296-5151/(55-21) 516-1231, 233-9345 e 233-8137
 - Telefax: (55-21) 253-6811, 203-5228 e 516-2417
 - E-mail: cdrj@portosrio.gov.br

통관서비스 회사 리스트(한인 통관 업체)

상호	분류	대표	전화
(주)조양항공해운	운송, 통관, 해외이사	윤일균	(82-2) 326-2489
NC통관	통관	김형광	(55-11) 3361-8902
C.Hor	통관	박종구	(55-11) 3331-5648
C.L Express	통관	이주엽	(55-11) 3337-4787
GRT	통관	정 Joao	(55-11) 3333-7339
NEW KOBAS	통관	강환철	(55-11) 3311-9540
NON STOP	통관	김광조	(55-11) 3331-7091

www.hanin.com.br의 업소록을 검색하면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한인 통관업체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IV. 투자

1. 투자환경

브라질 시장의 매력은 거대한 국내 소비시장과 이를 기반으로 인접국가로 판매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에 대한 투자규모는 우선 브라질 시장에 맞추고 그 후 인접시장에 대한 수출가능성을 보아가며 투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브라질의 단점으로는 소위 Brazil Cost라는 투자의 장애요인, 즉 과도한 조세부담, 노무관리부담, 과도한 금리, 부족한 인프라 시설 등이 있다. 브라질 정부는 1990년 시장개방정책을 표방한 이래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러한 브라질 코스트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또한 브라질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게 책정한 관세 외에도, 브라질 국산 부품 일정 비율 사용 의무화, 농산품, 의약품, 식품 수입 시 ANVISA(위생감시국)허가 취득 의무화 (발급기간 지연), 까다로운 서류 요구로 정부 조달시장 진입 어려움,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강제인증 취득 의무화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을 설치하여 투자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열악한 투자 환경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브라질 경제 덕분에, 2008년 5월 세계 유명 신용 평가 회사들로부터 투자 적격국으로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대 브라질 외국인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 남미 최대 시장

브라질에 대한 투자장점으로는 우선 거대한 내수시장을 들 수 있다. 인구 약 1억9,0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국토 면적에서뿐만 아니라 GDP 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남미 최대이다. 그래서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앞다퉈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브라질에 본부를 두고 브라질 시장을 중남미 전체 진출 거점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나. 남미 진출 거점

브라질은 남미 대륙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남미 10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최적의 남미 진출 거점으로 꼽히고 있다.

다. 남미경제통합의 중심

브라질은 1995년 1월부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과 메르코수르 관세동맹을 공식 출범시켰고, 멕시코와 800개 품목에 달하는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안데스 공동체(CAN)와도 FTA를 체결했다. 또한 미주 자유무역지대, 메르코수르-EU 자유 무역협정 등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라.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기반 최고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 기반이 가장 발달되어 있어 부품조달이 수월하고 제조업 수준이 크게 떨어진 남미 인근 국가로의 수출이 용이하다.

마.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하지 않다

브라질의 주요 기간산업은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순수한 국내 기업들은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한국 등 외국기업들이 진출해 시장에 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이나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주로 미국, 유럽계 다국적기업들이 주를 이루며 최근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 왜 브라질이 경제적으로 투자 이점이 있는가?

- 정부가 모든 형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견지
- 외국기업이나 자본에 대한 차별이 없고 국유화 가능성 없음.
- 많은 인구로 인해 다양한 상품과 용역의 대규모 판매시장 형성
- 대부분의 남미국가와 접경하고 있어 중남미진출 생산거점지역(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프랑스령 기아나, 기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중남미 최대의 산업기반시설로 투자진출이 용이함.
-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력자원 <= 세계광산
- 전 세계의 경작지 중 22%를 차지함. <= 세계목장 및 대체 에너지자원
- 중남미 최대의 통신, 전력기반 시설 갖추.
- 위성, 항공기 등 첨단산업발달 및 전문 인력의 조달풍부
- 중남미 국가 중 가장 크고 가장 다변화된 산업 기반을 갖추.
- 커피, 오렌지, 사탕수수 세계 최대 생산국
- 수많은 항구를 갖춘 연안망과 강 운송망 보유
- 세계 식량 생산대국 중 하나
- 소비재 생산 대국
- 근대화되고 경쟁력 있는 섬유산업(연간 210 억 달러 규모의 회사 3 만 개 이상 존재)
- 우수한 관광 인프라 보유(연간 5 백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 세계 제일의 지역 제트기 생산국
- 제화 생산 세계 3 위, 가죽 산업 경쟁력 보유
- 소프트 드링크 세계 생산 3 위
- 상업용 항공기 세계 생산 4 위
- 고무 산업 5 위
- 연간 90 억 달러 규모의 판매로 세계 화장품 시장 6 위
- 화학산업 세계 7 위
- 철강 생산 세계 8 위(연간 2700 만 톤)
- 자동차 생산 세계 8~10 위
- 종이 펄프 분야 세계 10 위 규모로 큼.

성공적인 투자진출을 위한 TIP

□ 원자재 공급기지 구축

브라질에서 생산 시설을 가동할 경우 원자재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진출 시 안정된 원자재 공급기지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 현지 업체들과의 제휴

단독으로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현지 업체들과의 제휴를 시도하는 것이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지업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존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어 시장 진입이 훨씬 수월해진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연도별 FDI 유입

1990년대 중반 이후 브라질은 개도국 가운데 중국에 이은 2대 FDI 유치국이자 중남미 지역 최대 FDI 유치국으로 부상했다. FDI 유입액은 1990~1995년 사이 연평균 20억 달러에서 1996~2000년에는 연평균 240억 달러로 증가했다.

2000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990년대 브라질이 주요 FDI 유치국으로 부상한 이유를 ①풍부한 천연자원 ②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내수시장 존재 ③거시경제적 안정과 안전한 감시기관 ④성장성 및 수익성 제고 ⑤자유로운 경영 및 관리 등 5가지로 꼽았다.

그러나 브라질에 대한 FDI는 경기 침체와 경제정책 전망의 불확실성 확대, 민영화 사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200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2001~2004년 연평균 FDI 유입 규모는 168억 달러로 떨어졌다.

2004년에 브라질은 전년보다 약 79.1%가 증가한 181억 달러의 FDI를 유치했다. FDI 증가의 일등 공신은 중남미 최대 맥주 제조업체인 AmBev가 2004년 8월 세계 3대 맥주 제조업체의 하나인 벨기에의 Interbrew와 주식교환을 통해 InBev 그룹을 형성하는 등 전략적 제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 합병 건으로 브라질은 50억 달러의 FDI를 유치했다.

2005년에 들어서는 전년보다 16.4%가 감소한 152억 달러의 FDI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1999년을 고비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FDI 증가세는 2004년에 들어오면서 전년 대비 70.9% 성장으로 반전에 성공했으나 경제 성장 둔화, 사상 유래 없는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2005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마이너스 증가세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보였다.

국가위험도 순위가 하향 조정되고 ‘투자적정’ 단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브라질 경제 진단 결과가 발표되자 이에 고무된 외국인 투자자들은 12월 한 달에만 유망업체의 주식에 15억 달러나 투자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추가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06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비록 둔화 현상을 보였지만, 국가 위험도 하락, 물가 안정 등의 여러 가지 경제 호조 현상으로 인해 전년보다 약 24% 상승한 188억 달러의 FDI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06년에 이어 2007년도 대폭 증가하였다. 남미 시장에 투자되는 FDI는 약 550억 달러, 이중 50% 이상이 브라질 몫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올해 초 전망이었으나, 2007년 말까지 346억 달러가 유입돼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은 브라질에서 민영화가 한창 이루어진 2000년의 327억7,900만 달러였다. 외국 자본 유입이 지속되는 최대 이유는 거시경제가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수년에 걸쳐 브라질 경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계경제의 안정과 선진국 시장보다 높은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신흥국가에 대한 투자에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FDI	16,590	10,144	18,166	15,194	18,783	34,585	24,575
전년대비 증감률	-26.1%	-38.9%	79.1%	-16.4%	23.6%	84.1%	-8%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BCB)

나. 국가별 FDI 유입

전통적으로 브라질에 대한 주요 직접 투자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영국 등이었다. 이 중에서도 미국은 2000년까지 대 브라질 최대 투자국의 확고한 위상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새로운 투자자가 등장하면서 기존 판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의 주요 투자자였던 독일, 일본, 스웨덴, 영국의 위상이 낮아진 반면에 네덜란드의 부상이 특히 두드러졌다. 2007년 외국인직접투자 순위를 보면 네덜란드, 미국, 룩셈부르크, 스페인, 독일의 순서이다.

주요 국가별 브라질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06	순위	국가	2007
1	미국	4,433.7	1	네덜란드	8,116.13
2	네덜란드	3,494.9	2	미국	6,039.2
3	캐이만군도	1,974.4	3	룩셈부르크	2,855.3
4	스위스	1,631.0	4	스페인	2,163.5
5	스페인	1,513.7	5	독일	1,756.8
6	캐나다	1,285.5	6	캐이만군도	1,604.5
7	독일	848.3	7	바레인	1,497.6
8	멕시코	781.7	8	프랑스	1,214.4
9	룩셈부르크	745.1	9	영국	1,003.5
10	프랑스	744.6	10	스위스	858.6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다. 분야별 FDI 유입

1990년대 중반 이후 FDI는 통신 및 전력산업 민영화,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에 힘입어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 대한 총 FDI 누계 중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1%에서 2000년에는 64%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감소한 데 반해 제조업 부문과 석유 및 광물 채취 등 1차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2001~2005년 9월까지)간 서비스업의 비중은 55%로 떨어졌다. 그에 반해 제조업 비중은 39%, 농목축 및 광물 비중은 6%로 늘었다.

2005년 기준, 주요 FDI 업종은 1차 산업의 경우 석유화학, 2차 산업은 자동차, 화학제품, 식료품, 전자제품 및 기기 등이고 3차 산업은 통신서비스, 전력 및 가스, 금융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금융 분야 FDI 유치율이 14%, 전기, 가스 분야가 10%, 기초 금속제품 8%, 펄프·제지·종이제품 분야 7%, 상업분야 7%, 부동산 분야 6%, 우편업무 및 통신분야 5%, 화학제품 분야 5%, 기타 분야 38%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농목축광업 분야의 FDI 금액은 약 50억 달러, 각 산업분야로의 유입은 122억 달러였으며 이 중 석유 및 바이오 에너지로의 투자가 16억 달러에 달했다. 서비스 분야로의 유입은 165억 달러에 달했다.

연도 및 산업 별 FDI 유입액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분야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 목축, 광업 분야	637.86	1,487.01	1,072.82	2,194.37	1,363.12	4,982.1
산업 분야	7,555.30	4,506.02	10,707.82	6,402.81	8,743.78	12,166.1
식품	1,872.72	409.35	5,345.48	2,074.83	739.33	1,748.2
섬유제품	97.89	34.56	57.85	126.63	649.02	52.6
의류, 액세서리	5.12	23.20	13.23	12.91	21.74	30.1
석유, 바이오 에너지	5.74	1.21	6.30	8.07	259.98	1,618.7
화학제품	1,573.10	915.68	1,362.96	763.66	1,133.88	587.6
기계 장비	390.72	256.06	313.03	254.97	429.73	431.3
전기제품	371.57	187.46	243.66	163.94	206.19	371.5
의료기기	29.04	25.23	65.88	69.67	100.56	164.4
서비스 분야	10,585.15	6,909.37	8,484.70	12,924.38	12,124.40	16,556.4
Total	18,778.30	12,902.41	20,265.34	21,521.57	22,231.30	33,704.6

자료: 브라질중앙은행

라. 브라질에 대한 투자 선호도

2005년 9월에 발표된 유엔 무역개발 위원회(UNCTAD)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바라본 2005~2006년 브라질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선호도는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에 이어 5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005~2006년 브라질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선호도 순위

전문가 평가			다국적기업 평가		
순위	국가	응답 비율	순위	국가	응답비율
1	중 국	85%	1	중 국	87%
2	미 국	55%	2	인 도	51%
3	인 도	42%	3	미 국	51%
4	브 라 질	24%	4	러시아	33%
5	러 시 아	21%	5	브라질	20%
6	영 국	21%	6	멕시코	16%
7	독 일	12%	7	독 일	13%
8	폴 란 드	9%	8	영 국	13%
9	싱가포르	9%	9	태 국	11%
10	우크라이나	9%	10		

자료: UNCTAD FDI Prospects, 2005-2008, <http://www.unctad.org/fdiprospects>.

2007년 통계자료 미발표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경제대국과 거대 소비시장, 막대한 천연자원과 중남미에서 가장 발달된 제조업 기반 등으로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이들은 중남미 진출 거점 혹은 본부를 브라질에 두고 있다. 최근 들어 브라질이 갖고 있는 천연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브라질 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 일본 및 중국 대 브라질 투자 동향

1) 일본의 브라질 진출현황

아시아의 경우 일본이 1970년대부터 가전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기계, 식품, 화학, 부품 등을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진출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 브라질 경제위기를 계기로 둔화되다가 최근 현지 투자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및 중국 기업 투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관계자들은 브라질 투자 진출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2006년 3월에는 일본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마라냐옹 주 투자 설명회가 열려 많은 브라질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일본 기업이 참가하였다.

100년 이상의 이민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은 한국에 비해 투자규모 및 투자분야가 훨씬 다양하며(아래 표 참조), 전체 FDI의 2.9%를 점유하고 있다. 올해 일본의 브라질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은 브라질에서 대대적인 일본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상파울루, 리오 데 자네이루 주지사 및 기업인들 등 주요인사를 일본으로 초청해 양국 간 무역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에 더욱 힘쓰고 있다.

2007년 8월 발간된 경제 전문지 Exame가 선정한 브라질 500 대 기업 중 총 7개의 일본계 기업이 포함되었다.

주요 일본기업들의 브라질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전체순위 2006	전체순위 2005	업체명	활동분야	지역	자본	2006년 매출액
1	59	51	Toyota	자동차	SP	일본	2,660
2	76	93	Honda Automoveis	자동차	SP	일본	1,862
3	201	194	Bridgestone Firestone	자동차부품	SP	일본	765
4	268	336	Panasonic	전자제품	AM	일본	589
5	303	286	Cenibra	석유화학제품	MG	일본	510
6	325	346	Ajinomoto	소비재	SP	일본	472
7	330	295	Sony Brasil	전자제품	AM	일본	469

주 1: 2006년은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를 반영

주 2: AM(아마조나스) SP(상파울루) MG(미나스 제라이스)

주 3: 2008년 9월 22일 기준, 1달러 = 1.80헤알

자료: Exame 2007년 특별호

2) 중국의 브라질 진출 현황

중국은 브라질을 세계 최대 원자재 공급 국가이자 신흥 수출시장으로 보고 브라질 정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룰라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브라질 방문을 통해 재확인 되었으며, 브라질 정부는 중국에 대해 시장 경제 국가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중국은 브라질의 대두, 철광석 등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CVRD철강회사와 철광석 장기공급계약 체결, 대두농장 매입, 내륙횡단 철도공사 참여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브라질 등 남미시장 공략을 위해 브라질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브라질에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Huawi, Gree, ZTE, SVA 등이 통신 및 가전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향후 브라질에 중국인들이 200만 명 이상 활동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국계가 브라질에 40~50만 명에 달하고 한국교민이 5만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엄청난 규모로 볼 수 있다.

브라질-중국 상공 회의소에 의하면, 현재 브라질에 공식적으로 진출해 있는 중국 기업은 50여 개 안팎이며, 주요 기업으로는 Baosteel, AirChina, Sinopec, Minmetals, Citic, Bank of China, Cosco, Gree, Huawei, ZTE..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은 2007년에 접어들어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브라질 제2위 수입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아직까지 브라질에 직접 투자 진출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Exame지가 2007년 발표한 500대 기업 중 중국계 업체는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중국 자동차 제조 회사 Cher는 對 메르코 술 시장 수출 기지인 우루과이 공장을 통해 생산한 자동차를 2009년 초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브라질에 자동차 조립 공장 설립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주기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산 제품의 밀수가 끊이지 않아 브라질 정부는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다. 브라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복제품의 대다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특히 CD, DVD, 게임용 DVD의 불법 복제품 제작 배후에는 대형 마피아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기나 마약 밀매와 동일한 경로를 통해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막대한 양이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섬유, 제화 제품 등은 브라질 국내 생산 업체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안겨주었으나 워낙 저렴한 가격 때문에 수입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1995년 메르코술 관세동맹 공식 출범 및 시장 확대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투자가 1994년 이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브라질의 경기 회복 현상과 1996년 한국 정상직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투자가 1996년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브라질 방문과 이듬해 룰라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후 대 브라질 투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투자는 브라질 국내 시장 확대와 인근 메르코술 국가 등 남미시장 진출 확대 차원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 발표 이후 BRICs 국가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면서 대 브라질 투자 관심도도 한층 상승하고 있다.

연도별 對 브라질 직접투자 추이(총투자 기준)

(단위: 천 달러, %)

연도	건수	금액
1968~80	2	269
1987	4	1,260
1988	2	350
1989	5	410
1990	0	0
1991	3	219
1994	3	439
1995	4	19,158
1996	14	50,137
1997	10	49,772
1998	12	54,677
1999	9	46,334
2000	8	28,505
2001	19	18,823
2002	12	3,073
2003	20	6,979
2004	18	19,892
2005	52	144,114
2006	52	107,660
2007	55	268,227
2008(1~6월)	24	69,366
누계	330	935,434

수출입은행 자료 기준 2008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투자신고액은 14억 6,822만 달러(206건)이며 투자금액은 9억3,543만 달러(330건)으로 제조업(5억7,362만 달러)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23,780	0	0
오락, 문화 및 운동서비스업	1	1	80	1	4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200	1	2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4	1,371	12	992
운수업	7	6	1,426	10	1,041
사업 서비스업	2	2	7,000	3	1,050
숙박 및 음식점업	5	1	2,000	10	2,000
건설업	11	2	9,052	13	3,495
출판, 방송, 정보통신업	13	6	137,220	11	4,135
도매 및 소매업	33	23	81,763	40	20,216
금융 및 보험업	2	2	45,770	2	45,770
광업	12	1	361,012	69	282,870
제조업	109	49	797,546	158	573,624
Total	205	98	1,468,220	330	935,434

자료: 수출입은행(2008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對 브라질 투자 진출은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정책과 경제 안정화로 인한 내수 확대 및 MERCOSUL 등 지역 경제공동체 출범으로 인한 시장규모 확대 등에 힘입어 1994년 이후 급증했다. 그러나 대 브라질 투자는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여력 저하 및 연이은 브라질 경기 침체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1995년 이후 연간 1,000만 달러대의 수준을 유지해 오던 對 브라질 투자는 2001년 이후 100만 달러 대로 투자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2004년부터 브라질 경기회복을 겨냥해 그 동안 주춤했던 우리 기업의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재개되고 특히 브라질의 자원 개발을 겨냥한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우리 기업의 對 브라질 투자 규모는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특히 2005년 들어 브라질 국내시장 확대와 인근 메르코수스 국가 등 남미시장 진출 확대 차원에서 투자가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BRICs 국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브라질 시장 진출에 대한 국내 업계의 관심들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무역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1차 금속과 조립금속에 편중되어 있다. 주요 진출업체로는 LG전자, 삼성전자, Posco, 삼성전기 등 대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8년 9월에 현대자동차가 브라질 공장 설립을 위해서 투자 MOU를 체결(6억불 규모)함에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들의 현지 진출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기업들의 진출에 비해서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진출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대 브라질 현지투자진출 현황

업체명	투자지역	주요 생산품목
삼성전자	마나우스	컬러 TV, 모니터, 하드디스크
	깜빠나스	핸드폰
삼성SDI	마나우스	브라운관, TV 및 모니터부품(DY), 휴대폰용 LCD모듈
LG전자	마나우스	칼라TV, VCR, 전자레인지, DVD, 에어컨
	따우바테	모니터, 핸드폰, 광저장매체(CDR, CDRW)
POSCO	비도리아	Pallet(CVRD와 합작)
서울전자통신	마나우스	오디오용 트랜스포머, TV용 코일
동국제강	포르탈레자	슬라브
CJ	빠라시까바	라이신
현대자동차	빠라시까바	승용차(2008년 9월 6억불 투자 MOU 체결)

자료: KOTRA 상파울로 무역관

한국 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미 현지에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은 현지 시장에서 시장성이 검증되었거나 유망한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판매 또는 생산품목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TV와 인터넷 등 첨단 기능을 갖춘 냉장고, 나노 세탁기 등 상류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고 MP3와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공급 사양의 휴대폰 제품 출시도 가속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상파울루 시내 모룸비 쇼핑센터 내에 자사 제품 쇼룸 및 체험관인 Samsung Experience를 설치하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LG화학, CJ, 오토닉스, 산업은행 등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휴대폰, 화학, 식품, 무역업, 금융업 등에 신규 진출했다.

▣ 우리 주요 투자기업 리스트

□ 금호 타이어(Kumho Tire Co. INC)

- Add: R.Dr.Luis Migliano,1110, Cj. 801/802, Sao Paulo, SP, CEP 05711-001
- Tel: (55-11) 3773-7993
- Fax: (55-11) 3773-7953
- E-Mail: kumho@terra.com.br
- Home Page: www.kumhotire.com
- Pres: 현민호

□ 다솔(Dasol Ltda.)

- Add: Av. Prof.Manoel Cesar Ribeiro, 2355, Pindamonhangaba,SP, CEP 12411-010
- Tel: (55-12) 3645-2277
- Fax: (55-12) 3643-1094
- E-Mail: iksung@dasol.com
- Home Page: N.A.
- Pres: 성인경

□ 대우 인터내셔널(Daewoo Do Brasil Imp. E Exp. Ltda.)

- Add: Av. Paulista 777, 13 ANDAR CJ131/132, Sao Paulo CEP 01311-100
- Te: (55-11)3285-5699
- Fax: (55-11)3266-4125
- E-Mail: shheo@daewootrade.com.br
- Home Page: N.A.
- Pres: 김흥렬

□ 대우 일렉트로닉스(Daewoo Electronics Co., Ltd.)

- Add: R. Jose Getulio, 579 , Sao Paulo
- Tel: (55-11) 2167-5833
- Fax: (55-11) 3207-3563
- E-Mail: shchoi2@dwe.co.kr
- Home Page: N.A.
- Pres: 송병도

□ 동국제강

- Add: Praia de Botafogo, 440 - 21andar - Botafogo
- Rio de Janeiro - RJ - 22250-908
- Tel: (55-21) 2169-8988
- Fax: (55-21) 2169-8951 / 2169-8952
- E-mail: m.chu@cearasteel.com.br
- Home Page: www.cearasteel.com.br
- Pres: 미정

□ 디에이티(DAT Sao Paulo Comercio Eletronicos Ltda)

- Add: Av. Paulista, 2073, Cj. 923, Horsa I, Cerq. Cesar, Sao Paulo, SP
- Tel: (55-11) 3285-0776
- Fax: (55-11) 3284-4124
- E-Mail: pierson@datkor.com
- Home Page: www.datkor.com
- Pres: 박형근

□ 메디슨(Medison Do Brasil)

- Add: R. Apiacas 910, Perdizes, Sao Paulo, SP, CEP 05017-020
- Tel: (55-11) 3879-8109
- Fax: (55-11) 3879-8137
- E-Mail: viannes@medison.com.br
- Home Page: www.medison.com.br
- Pres: 박지원

□ 브라질 외환은행(Banco KEB Do Brasil S/A)

- Add: Av. Dr. Chucri Zardan, 940, Torre 2, Cj.181, Sao Paulo, SP, CEP 04583-110
- Tel: (55-11) 5188-1123
- Fax: (55-11) 5188-1120
- E-Mail: victorko@keb.co.kr
- Home Page: www.keb.co.kr/br
- Pres: 이성천

□ 삼성물산(Samsung Do Brasil S/C Ltda)

- Add: Av. das Nacoes Unidas, 12901, Torre Oeste, 6andar, Sao Paulo, SP, CEP04578-910
- Tel: (55-11) 5105-5000
- Fax: (55-11) 5105-5012
- E-Mail: santiago@samsung.com
- Home Page: www.samsung.com
- Pres: 김선영

□ 삼성전자(Samsung Eletronica Da Amazonia Ltda.)

- Add: Av.das Nacoes Unidas, 12901, 9 andar,Torre Oeste, Sao Paulo, SP, CEP04578-000
- Tel: (55-11) 5644-6440
- Fax: (55-11) 5644-2788
- E-Mail: dyyoo@samsung.com
- Home Page: www.samsung.com.br
- Pres: 유두영

□ 삼성 SDI(Samsung SDI Brasil Ltda)

- Add: Av. Eixo Norte/Sul, S/N, Dist. Industrial, Manaus, AM, CEP 69088-480
- Tel: (55-92) 2121-6010
- Fax: (55-92) 2121-6022
- E-Mail: keunbae.lee@samsung.com
- Home Page: www.samsungsdi.com.br
- Pres: 하형철

□ 삼성 SDS

- Add: Av. das Nacoes Unidas, 12901, 9 andar, Torre Oeste, Sao Paulo, SP, CEP04578-000
- Tel: (55-11) 5644-6411
- Fax: (55-11) 5644-2777
- E-Mail: samkim@samsung.com
- Home Page: www.samsung.com
- Pres: 김상만

□ 삼성전기(Samsung Electromechanicos Do Brasil Ltd.)

- Add: Av. das Nacoes Unidas, 12901, 9 andar, Torre Oeste, Sao Paulo, SP, CEP 04578-000
- Tel: (55-11) 5105-5353
- Fax: (55-11) 5105-5356
- E-Mail: swpark97@samsung.com
- Home Page: www.samsung.com
- Pres: 박성원

□ 서울 전자통신(SET do Brasil Ltda)

- Add: Av. Ibiurana, 62 - Distrito Industrial, Manaus, AM
- Tel: (55-92) 3615-2423, 2443
- Fax: (55-92) 3615-2475
- E-Mail: setbrasil@setbrasil.com.br
- Home Page: www.seoulset.com
- Pres: 지석열

□ 썬스타 산업봉제기계(Sunstar do Brasil)

- Add: R. da Graca, 668, Bom Retiro, SP, CEP 01125-000
- Tel: (55-11) 3362-3434
- Fax: (55-11) 3362-3444
- E-Mail: jack@sunstar.com.br
- Home Page: www.sunstar.com.br
- Pres: 임상

□ 세라젠크(Ceragem do Brasil Ltda)

- Add: R. Quintana, 887, cj.124, Brooklin, Sao Paulo, SP, CEP 04569-011
- Tel: (55-11) 5505-3000
- Fax: (55-11) 5505-1010
- E-Mail: ceragembrasil@hotmail.com
- Home Page: www.ceragembrasil.com.br
- Pres: 허영춘

□ 씨제이(CJ do Brasil Ltda.)

- Add: R. Samuel Morse, 74, Cj.102/103, Cidade MOncoes, Sao Paulo, SP, CEP 04576-060
- Tel: (55-11) 5501-2075
- Fax: (55-11) 5501-2070
- E-Mail: harryjang@cj.net
- Home Page: www.cj.net
- Pres: 유재훈

□ 심플라인 브라질(Simple Line Brasil)

- Add: R. Joao Teodoro, 1300, Bras, Sao Paulo, SP, CEP 03009-000
- Tel: (55-11) 3326-4167
- Fax: (55-11) 3313-6083
- E-Mail: oscarparky@hotmail.com
- Home Page: www.simpleline.com.br
- Pres: 박영훈

□ STX Pan Ocean

- Add: Rua Sao Bento 87, 12nd Fl., Rio de Janeiro CEP 20090-010
- Tel: (55-21) 3849-5864
- Fax: (55-21) 2518-2287
- E-Mail: panrio@lachmann.com.br
- Home Page: www.stxpanocean.com.
- Pres: 문택환

□ LG 상사(LG Do Brasil Ltd.)

- Add: Av. Dr. Chucri Zaidan, 940 - 18 andar, Sao Paulo, SP CEP 04583-110
- Tel: (55-11) 2104-0075
- Fax: (55-11) 2104-0080
- E-Mail: john@lgi.co.kr
- Home Page: www.lgi.co.kr
- Pres: 최준호

□ LG전자(LG Electronics De Sao Paulo Ltda.)

- Add: Av. Dr. Chucri Zaidan, 940, 3 andar, Sao Paulo, SP, CEP 04584-110
- Tel: (55-11) 2162-5658
- Fax: (55-11) 2162-5600
- E-Mail: ywoh@lge.com
- Home Page: www.lge.com.br
- Pres: 변경훈

□ LG 화학(LG Chem Brasil Ltda.)

- Add: Av. das Nacoes Unidas, 12551, Cj. 2207, Sao Paulo, SP, CEP 04578-000
- Tel: (55-11) 2159-7100
- Fax: (55-11) 2159-7110
- E-Mail: hsseoc@lgchem.com
- Home Page: www.lgchem.com
- Pres: 서호식

□ 오토닉스(Autonics do Brasil Ltda)

- Add: Av. Engenheiro Luiz Carlos Berrini, 936 – cj. 31/32. São Paulo, CEP
- Tel: (55-11) 3055-1660
- Fax: (55-11) 3055-1661
- E-Mail: vendas01@autonics.com.br
- Home Page: www.autonics.com.br
- Pres: 권범수

□ 온게임(Ongame Entretenimento S.A.)

- Add: R.portugal, 72, Santana de Parnaiba, SP, CEP 06502-370
Av. Angelica, 927, 5andar, Sao Paulo, SP, CEP 01227-000
- Tel: (55-11) 6014-9999
- Fax: (55-11) 3661-8681
- E-Mail: henrique@ongame.com.br
- Home Page: www.ongame.com.br
- Pres: 신중현

□ 유코 카 캐리어스(Eukor Car Carriers)

- Add: R.Tabapua, 111, cj 21/22, Itaim Bibi, Sao Paulo, SP, CEP 04533-010,
- Tel: (55-11) 3168-9276
- Fax: (55-11) 3168-9276
- E-Mail: jclim@eukor.com
- Home Page: www.eukor21.com
- Pres: 임종철

□ 중소기업진흥공단(Small Business Corporation)

- Add: Al.Santos, 1827, cj.82, Sao Paulo, Sao Paulo, SP, CEP 01419-002
- Tel: (55-11) 3142-9009
- Fax: (55-11) 3142-9096
- E-Mail: lijoo@sbc.or.kr
- Home Page: N.A.
- Pres: 정장식

□ 제본(Jebon do Brasil Ltda)

- Add: R. Tabapua, 1123, cj 54, Sao Paulo, SP, CEP 04533-014
- Tel: (55-11) 3078-6872
- Fax: (55-11) 3978-1226
- E-Mail: thomasyyoo@jebon.co.kr
- Home Page: www.jebon.co.kr
- Pres: 유향근

□ POSCO(Posco do Brasil Ltda)

- Add: Av. das Americas, 3434, Bloco 4, S/306, Barra da Tijuca, RJ, CEP 22640-102
- Tel: (55-21) 3431-3496
- Fax: (55-21) 3431-3497
- E-Mail: jhma@posco.co.kr
- Home Page: www.posco.co.kr
- Pres:

□ 한국산업은행(Korea Industrial Bank)

- Add: Av. Brig.Faria Lima, 3400, Cj.152, Sao Paulo, SP, CEP 04538-132
- Tel: (55-11) 2138-0000
- Fax: (55-11) 2138-0150
- E-Mail: kdbbrasil@kdb.co.kr
- Home Page: N.A.
- Pres: 박병철

□ 한국수출보험공사(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Sao Paulo Rep. Office)

- Add: Av. Paulista, 453, CJ 21, Paraiso, Sao Paulo Cep 01311-000
- Tel: (55-11) 3284-1105
- Fax: (55-11) 3284-4081
- E-Mail: keicsp@hotmail.com.br
- Home Page: www.keic.co.kr
- Pres: 김영수

□ 한국 수출입 은행(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 Add: Av. Paulista, 1439, cj142, C.Cesar, Sao Paulo, SP, CEP 01311-200
- Tel: (55-11) 3283-3021
- Fax: (55-11) 3285-3575
- E-Mail: exspaulo@dialdata.com.br
- Home Page: N.A
- Pres: 이해청

□ 한국 타이어(Hankook Tire Do Brasil Com. Ltda.)

- Add: R.Funchal, 473, Cj.43/44, V.Olimpia, Sao Paulo, SP, CEP 04551-060
- Tel: (55-11) 3045-0544
- Fax: (55-11) 3045-2119
- E-Mail: leonardo@hanta.co.kr
- Home Page: www.hankook.com.br
- Pres: 전성일

□ **한국무역협회(KITA)**

- Add: Al. Santos 700, 8 andar Ed. Trianon Corporate, C.Cesar, CEP01418-100, Sao Paulo
- Tel: (55-11) 3175-3036
- Fax: (55-11) 3175-3031
- E-Mail: dasarang@kita.net
- Home Page: www.kita.net
- Pres: 심준석

□ **한진해운(Hanjin Senator Lines do Brasil Ltda.)**

- Add: Av.Senador Feijo, 14, Cj.91,Centro, Santos, SP, CEP 11015-500
- Tel: (55-13) 3228-1730
- Fax: (55-13)
- E-Mail: wsjeong@hanjin.com
- Home Page: www.hanjin.com
- Pres: 임영준

□ **효성(Hyosung Do Brasil)**

- Add: Av. Paulista, 1439, Conj. 154, Cerqueira Cesar, Sao Paulo CEP 01311-200
- Tel: (55-11) 3284-6466
- Fax: (55-11) 3285-1957
- E-Mail: hohi@hyosung.com
- Home Page: www.hyosung.co.kr
- Pres: 양상훈

□ **두산인프라코어(Doosan Infracore do Brasil)**

- Add: Alameda Santos 2224, Sala 52, 5 andar, C. Cesar, Sao Paulo, CEP 01418-200
- Tel: (55-11) 3061-3227
- Fax: (55-11) 3061-2731
- E-Mail: seil.kwon@doosan.com
- Home Page: www.doosan.com
- Pres: 권세일

□ **세화 P&C (Sewha do Brasil Cosméticos Ltda)**

- Add: Rua Dr. Rafael Barros, 232, 1 andar, Paraíso, Cep 04003-041, Sao Paulo
- Tel: (55-11) 3171-2628
- Fax:(55-11) 3171-1764
- E-Mail: hklee@sewha.co.kr
- Home Page:
- Pres: 이훈구

□ 대한항공(Korean Air)

- Add: Av. Paulista 949, Edificio Torre Paulista 19 andar CJ 191 Cep 01311-100 Sao Paulo
- Tel: (55-11) 3151-3922
- Fax:(55-11) 3284-7173
- E-Mail: chyoo@koreanair.com
- Home Page: www.koreanair.com
- Pres: 유춘호

□ 현대모비스(Mobis Parts Brazil)

- Add: Av. Sao Luiz, 165, 7 Andar, Conj 7A1, Centro Sao Paulo, Cep 01046-001
- Tel: (55-11) 3057-0682
- Fax:(55-11) 3057-0682
- E-Mail: jameskang@mobismiami.com
- Home Page: www.mobis.co.kr
- Pres: 강재구

□ 범한해운(Pantos do Brasil Logistica Ltda)

- Add : Av. Paulista 777 6 Andar Conj 61-A, C. Cesar, Sao Paulo, Cep 01311-914
- Tel: (55-11) 3151-3922
- Fax:(55-11) 3534-8015
- E-Mail: albert@pantos.co.kr
- Home Page: www.pantos.co.kr
- Pres: 조민행

□ 미래에셋(Dirae Asset do Brasil)

- Add: 2008년 9월 기준, 법인 설립 진행 중
- Tel: (55-11) 3818-8986
- E-Mail: edwardoh@miraeasset.com
- Pres: 오인석

□ 현대종합상사(Hyundai)

- Add: 2008년 9월 기준, 개설 준비 중
- E-Mail: gskim@hyundaicorp.com
- Pres: 김기섭

□ 우리은행 상파울루사무소(Wooribank do Brasil)

- Add: 2008년 9월 기준, 개설 준비 중
- E-Mail: mkr4140@wooribank.com
- Pres: 노문균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법 개요

1) 외국인 투자 관련 브라질 정부의 입장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투자에 있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모든 투자유치 정책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이유는 브라질이 원래 이민국가여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는 이유 외에도 연방국가의 특성상 주(州)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제도의 특성상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별로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책 및 법규 차이가 있어 각 단계별 혜택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브라질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연방정부의 투자 인센티브가 자신의 투자대상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여 가급적 연방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다음에 주정부에서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비교 검토하여 입주해야 할 주(州)를 확정해야 한다. 주가 확정되면 실제로 회사 또는 공장이 입주할 시(市)와 지역은 주정부를 통해 선정·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브라질에는 통신, 전력, 항만, 기본위생 분야 사업의 외국인 투자 허용이 1995 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는 석유 및 천연가스 분야, 전력 및 수력발전소 건설에 외국인 투자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고, PPP(Parceria Publico-Privada: 민관 합동 프로젝트)과 같은 정부 조달 사업을 통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 투자 관련 법령

연방헌법과 외자법은 외국자본과 내국자본과의 동등대우를 명문화했다. 즉, 동등대우원칙에 따라 법규정에서 외자의 참여제한이나 특정요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특히 브라질은 건국 이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하등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1971 년에 제정된 외국인 법에는 브라질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50 MODULE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 시 면적의 1/4 이상을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동일국가의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면적의 40 %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목적의 외국인 법인체는 국가의 허가를 받고 구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으로서 브라질에 거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산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법률 제4131호(1962년)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Article 1 of Law 4.131/62 – Goods, machinery and equipment entering Brazil without an initial outlay of foreign exchange, for use in producing goods or services, as well as financial or monetary resources brought into the country for investment in economic

activities, provided that in both cases they belong to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resident, domiciled or having an office abroad”.

법률 제4131조는 외자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라는 용어대신 “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별도의 법이 없는 브라질의 경우 외자법에서 언급하는 외자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의미로 사용된다.

법률 제4131호 제1조는 3가지 형태의 외자 도입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업소유권 이전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외자의 도입형태는 4가지이며 이에 따른 4가지 형태의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 자본재(capital goods), 기계(machinery), 설비(equipment)를 통한 직접투자
- 금융, 통화자금을 이용한 직접투자
- 차관 및 기타 자본시장을 이용한 간접투자
- 산업소유권 이전을 통한 투자

나. 투자장려 제한 금지 분야

1) 투자장려 분야

투자장려는 마나우스나 북동부 지역 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역투자 인센티브와 정보 산업 등 연방차원에서 특정 산업분야의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특정산업 인센티브가 있다. 이러한 투자인센티브는 주정부와 시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정보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산업법에 따라 공업제품세 우대조치 등을 부여하고 있다. 1991년 법률 제8248호에서 제정되고, 2001년 법률 제8248호(정보법)에서 개정된 정보 통신법에서는 브라질에서 제조된 정보 기기에 소요되는 공업제품세(IPI)의 면제 또는 삭감을 정하고 있다. 단 브라질 남부·남동부의 기업과 중서부·북부·북동부의 기업에서 공업 제품세의 삭감률에 차이를 두고 있다.

브라질 남부와 남동부에 본사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정보통신법은 아래의 비율에 따라서 공업제품세를 감면하는 특전을 정하고 있다. 2002년 90%, 2003년 85%, 2004/14년 80%, 2015년 75%, 2016년 1월 1일부터 감세가 중지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70%이다.

2) 투자제한 분야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연방헌법 경과규정의 제52조에 의거하여 국익과 관련 되는 경우 브라질 정부의 사전허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브라질 내 외국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허용되며, 외국은행은 현지 투자은행의 지분을 3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신문, 잡지 및 기타 간행물과 라디오, TV방송국의 소유 및 운영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 에 는 제한이 있다. 연방헌법의 제36차 수정을 통해 2002년부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에 대 한 외국인 지분투자를 30% 상한까지 허용하였다.

통신, 내륙 및 연근해 해상운송, 천연가스 보급 및 석유산업, 전기배전사업 등은 공기업 민영화와 함께 규제를 해제하고 있다. 어업의 경우 외자비율 40%, 항공업은 2/3 이하, 해운업 50% 이하, 금융업 30% 이하 등을 정하고 규제하고 있다.

3) 투자금지 분야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으로는 원자력 에너지 관련 개발분야, 보건서비스, 국경지역에서의 거래와 토지소유, 우편 및 전신서비스, 국내선 항공, 항공우주산업 등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 할지라도 브라질 정부의 국산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산화 사용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금면제혜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외자의 참여가 금지 또는 제한된 분야		
분야	내용	기타
지하자원, 광산, 기타 광물 자원 및 수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 투자를 위해서는 자원에너지부(Ministério das Minas e Energia)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브라질 기업은 외국인의 통제하에 있다 하더라도 광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광산업은 외국인 투자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허용됨.
석유자원과 천연 가스의 탐사와 개발	연방정부의 독점사업분야임.	연방정부의 독점사업권을 유지하고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양허를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
항공·우주산업	연방헌법상 외자 참여금지	
핵 에너지개발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권 조항(제21조 23항)에 포함되어 있음.	외자 참여 금지
연안수상운송업	브라질에서 건조되어 브라질 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 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이 75% 이상을 브라질 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함.	Sunamam이나 해당기업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항만 관리청(Capitania dos Portos)의 사전허가필요.
언론 분야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잡지 또는 기타 발행물	소유나 경영에 대한 연방 헌법(제222조 1항)상의 제약이 있음. (신문, 잡지 등) 언론사와 라디오 방송사 자본과 의결 주식의 최소 70%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브라질 출생자 또는 10년 이상 된 브라질 귀화인에 속해야 함.	즉, 외자의 참여는 총자본과 총의결주의 30%까지만 가능하되 브라질 현지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 사의 경영과 출판물 제작에 대한 책임직은 브라질인 또는 귀화한 지 10년 이상 된 사람만 맡을 수 있음.
케이블 TV		외자는 의결권의 49%까지만.
농목업이나 산림소유 및 국경지대	외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여 관련 토지를 소유할 경우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관련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법률 제5709호 (1971.10.7.)	동 규정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지방부동산(imóvel rural)을 취득할 경우 적용 되는데 기업간 합병이나 투자가의 변동, 이러한 결과로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도 적용된다.
국내 항공운송업	제한규정	국내항공사에 대한 외자 참여는 의결권주식의 25%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됨. 임원의 3분의 2이상이 브라질 시민이어야 함.
육상화물운송 (road cargo transportation)	육상화물 운송회사에 대한 외자 참여는 투표권 있는 자본의 1/5를 넘어서는 안 됨.	회사는 주식회사(SA)의 형태여야 함.
금융업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함.	브라질은행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가진 국가에 본점을 둔 은행, 금융 기관은 브라질은행과 금융 기관의 의결주(voting shares)의 30%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다.(법률 제4131호/1962년, 제51조)
우편·전보서비스	연방헌법에(헌법 제21조 X) 연방정부의 독점사업으로 규정	
보험	보험분야(health plans)는 투자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외국인 투자가 허가됨.	보험감독원(SUSEPE)의 사전 허가 필요. 주요 미국 보험 회사들이 J/V 형태로 브라질의 보험업계에 진출함
보건서비스 분야	연방헌법(제199조 3항)에서 외국 자본이나 외국기업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4) 투자허가

□ 수속절차

- 유망업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여부를 확인한다.
- 신규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을 인수한다.
- 차후 과실송금을 위해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한다.
-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한다.
-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경규제 저촉여부를 검토한다.
- 인력충원을 위한 노동부 허가를 받는다

다. 투자인센티브

브라질 정부는 광활한 국토개발과 지역별 균등발전, 국제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 그리고 이민국가의 특성상 국내경제에 외자의 존재를 이질적으로 보지 않으며 특별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반면 국내에서도 지역, 산업마다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하기 때문에 굳이 외국기업의 투자와 내국기업의 투자를 구별하여 외국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다. 따라서 브라질에서 말하는 투자유치와 투자 인센티브는 국내외 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자본의 유치는 지방정부의 주(州)나 시(市)보다는 연방정부에서 더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장래를 위한 전략산업의 선정과 육성이 아무래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수립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산업육성에는 외국자본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전략산업의 육성과 정책이 정해지면 그러한 전략산업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투자 인센티브와 지방정부의 인센티브를 국내외 기업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브라질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은 자신의 산업이 브라질 연방정부의 산업육성 인센티브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확인한 후 자신에게 맞는 주정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입지할 시는 주가 정해지면 주정부의 도움을 받아 선정을 할 수 있다.

브라질 연방정부는 신기술 도입, 농축산업 개발, 수출증대,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를 가장 환대해 왔다. 북동지역(ADENE), 아마존지역(ADA)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을 연방정부가 가장 우대하는 이유도 전통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근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 인센티브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연방차원의 조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유형별 인센티브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크게 수출기업, 특별 장려산업, 저개발지역 투자 등의 경우에 제공된다.

- 일반적인 투자 인센티브
 - 하이테크 분야, 정보통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기업이 연구개발에 수익의 5% 이상 투자하면 이를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고, 기술개발 관련 기자재 구매 시 공산품 세(IPI)를 면제해 주는 등의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산업별 투자 인센티브
 - 브라질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 우선산업은 농업, 중공업, 제철, 조선, 화학, 제지, 어업, 임업, 관광업 등이며, 정보통신업종은 정보산업진흥법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 투자 인센티브를 수혜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북부 아마존지역, 북동부 저개발지역,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수출가공무역지대(ZPE)로, 연방소득세를 10 년간 면제해 주거나, 주(州) 유통세(ICMS) 일부를 융자해 주기도 한다. 투자 장려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브라질 북동부은행(BNB) 등 지역개발은행의 중장기 금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우선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국가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으로부터도 차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저개발지역으로 고급인력이 거의 없어 단순조립 산업 등에만 적합하다.
- 수출 장려 인센티브
 - 수출가공무역지대(ZPE)에 입주한 기업은 수입관세, 공업제품세, 사회보장기금세, 금융거래세, 상인해상운송개혁세 등을 면제 받고, 원부자재를 수입 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정보산업진흥법(Informatic Law) 개요

- 2006 년 9 월 대통령령 제 5906 호로 시행령이 발표되었으며, 적용대상 품목은 IT 제품 전반이며, 브라질 전역에 적용된다.
- 조세혜택 기간: 2019 년까지
- 목적: 과학기술부가 IT 기술이나 제품의 국내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포함된다.
- 주요내용
 - 정보, 자동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또는 생산하는 기업이 총 매출액의 5%를 브라질에서 정보기술(IT)의 연구 및 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 인센티브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연방정부의 공업생산물세(IPI)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해 준다.
 - 이러한 조세감면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데, 경제적 낙후지역인 북부, 북동부, 중서부 지역(여기에 마나우스 지역은 제외됨)에 투자하는 IT 기업은 2014 년까지 IPI 를 100% 면제 받고 나머지 지역은 95%까지 감면 받는다.
 - 한편 기존의 법 규정이 R&D 투자액의 산정기준을 수혜기업 총매출액의 5%로 했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조세혜택을 받는 해당 정보제품 판매액의 5%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비용절감이 될 수 있다.
 - 신법은 브라질에서 PPB 를 이행하여 생산하는 제품 중 제품개발도 브라질에서 하는 경우 조세 수혜 폭을 더 넓힌다. 즉 남부지역에서 생산하는 경우 IPI 감면은 80%, 북부에서 생산하는 경우 95%로, 남부지역에서 개발하는 경우 IPI 감면은 95%, 북부에서 개발하는 경우 100% 완전 감면하도록 조치한다. 이러한 감면율은 2014 년까지는 그대로 지속되고 그 이후부터 2019 년 완전 해제될 때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 브라질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제품과 외국에서 개발하여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제품 간에 조세 특전의 차별을 두어 브라질에서의 제품개발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는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R&D 연구소를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경향이 있어 IT 인센티브를 통해 이러한 연구기관을 브라질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 문화산업 인센티브

상파울루 주정부가 실시하는 문화사업 지원 프로그램인 PAC(Programa de Apoio Cultural) 참가 기업에 상품 유통세(ICMS) 감면 혜택을 통해 지원 금액의 일부를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다.

2006년 초 제정한 법령 12.268에 따르면 PAC가 주관하는 미술, 음악,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상품 유통세를 기준으로 0.06~3%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법령은 2006년 8월부터 발효 중이다.

ICMC 감면율	전년도 납세액(1달러=1.65 헤알)
3%	R\$ 9,999 이하
2%	R\$ 10,000~R\$ 99,999
1%	R\$ 100,000~R\$ 999,999
0.25%	R\$ 1,000,000~R\$ 49,999,999
0.20%	R\$ 50,000,000~R\$ 149,999,999
0.16%	R\$ 150,000,000~R\$ 299,999,999
0.13%	R\$ 300,000,000~R\$ 499,999,999
0.11%	R\$ 500,000,000~R\$ 999,999,999
0.08%	R\$ 1,000,000,000~R\$ 1,999,999,999
0.06%	R\$ 2,000,000,000 이상

2006년의 경우 기업들에게 돌아갈 인센티브 액수는 약 2,000만 헤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들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심사 절차가 복잡한데다 상파울루 주정부가 연간 거둬들이는 ICMS 총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애로사항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PAC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우선 재무부에 등록하여 참가 자격을 부여 받아야 하며, 매달 온라인상으로 등록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세금 체납과 같은 세무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업체만이 PAC에 참가 가능하며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각 업체는 세금 공제율 및 공제 가능 금액을 통보 받게 된다. 단, 공제액 산정 시 공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 지원한 문화행사를 근거로 한다.

상파울루 주와는 별도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문화” 인센티브(Lei Rouanet)도 있으며, 상파울루 주의 규정보다 단순한 것으로 알려진다. 연방정부가 주는 인센티브의 경우, 문화부에 등록된 문화 프로젝트 지원 업체는 법인소득세(IRPJ) 납부액의 최대 4%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산업 지원 업체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브라질 정부의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 유통세(ICMS) 납부 시 적게는 0.06% 많게는 3%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문화행사 지원을 기업 홍보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자격 심사에 합격할 경우 세제 감면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상파울루 주정부 문화국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www.cultura.sp.gov.br/portal/site/SEC>)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법인

현재까지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법적 형태를 보면 대부분 현지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브라질법 상 사무소나 지점의 설치와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립된 현지법인이 내용상 지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법률형태는 본사와 법적으로 독립된 현지투자 법인이 된다.

현지법인은 브라질 기업이기 때문에 브라질법의 적용을 받으며 노동법과 외국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브라질 외국인 법은 제99조에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브라질 법인의 경영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사 파견직원이 현지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 즉, 본사 파견직원이 영주권이 없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를 현지 법인의 대표로 임명하여 대리운영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부는 영주권 부여조건으로 다양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브라질의 노동법(CLT)은 제3 편(노동보호에 관한 특별 규범 편)의 제 2 장(노동의 국산화)에서 내국인의 의무고용에 관한 규정하고 있다.

제352조는 피고용인이 3인 또는 그 이상인 기업의 경우 브라질인의 고용비율을 동법에서 설정하는 비율 이하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소위 2/3비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유한책임회사(Sociedade Limitada)

2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각각 투자한 부분에 비례하여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유한책임회사(LTDA)는 주식회사(S.A.)와 함께 브라질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이다.

우선 유한책임회사(LTDA)는 자본 출자자들의 개성이 회사구성과 운영에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색채가 짙다. 따라서 회사 중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원칙적으로 전원 합의제가 적용된다.

또한 유한책임회사(LTDA)는 자본 출자자의 책임은 자신이 출자하기로 약속한 출자금에 대해서만 한정되고, 출자자는 출자액에 비례하여 지분(Quota)을 분배 받는다.

유한책임회사(LTDA)는 회사설립정관(Contrato Social/ Bylaws)의 등기, 즉 본점의 주소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설립을 완료하고 법인격을 취득한다. LTDA는 외국기업이 현지에 전액출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ies)를 원할 때, 소수 투자가 간의 사업을 원할 때, 회사경영의 대외노출을 꺼릴 때, 초기 운영자금에 대한 제한이 있을 때 등 주로 투자자들 간에 긴밀한 투자·경영관계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LTDA)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회사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브라질 법이 1인 회사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인이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은 100% 단독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1)둘 또는 그 이상의 법인, (2)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법인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인투자가 (3)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투자자로 지주구성이 가능하다.

브라질의 외국인 법상 회사운영은 브라질 거주인(영주권자 이상)이 담당해야 한다는 법적 제약 때문에 만일 외국투자기업에서 유한책임회사(LTDA)경영인을 파견하려면 파견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자를 경영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LTDA) 설립을 위한 법정 최저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만일 한국 기업이 본사직원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을 운영하려면 영주권을 소지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연방이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소 5만 달러 또는 최소 20만 달러 이상을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금으로 등록해야 한다.

회사경영인은 유한책임회사(LTDA) 설립 시 꼭 지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브라질 거주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주경영인이 회사경영을 대리 경영할 경우에는 가급적 별도의 위임장을 통해 대리경영인을 선임하도록 정관상에 조치하는 것이 좋다.

유한책임회사(LTDA)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와 같이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할 수 있다. 지주들의 총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첫 4개월 내에 최소 1년에 1번은 개최 해야 함. 총회에서는 전년도 회계결산보고를 검토, 승인해야 하고 필요 시 이사 선임을 해야 한다.

□ 주식회사(Sociedade Anonima 또는 S.A.)

주식회사는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법인으로 투자한 주식만큼 회사경영에 책임 의무를 가지는 형태이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법인 법률 제6404호 (1976.12.12.)에 의해 규율되는데 동 법은 법률 제9457호 (1997.6.5.) 및 법률 제10303호 (2001.10.31.)에 의해 부분 개정되었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에 비교하여 기업 활동, 경영진과 주주 간의 관계, 재정적인 유연성, 경영의 투명성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으며, 유한책임회사에 비해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한편, 주식회사는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외부 투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식회사는 매년 회계결산(annual accounts)과 주주총회 회의록(minutes of shareholder's meetings)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또한 주식회사는 회사 수익의 5%를 법정적립금(legal reserve)으로 비축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유한책임 회사(LTDA)에는 없다.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Corporation) 간 법인 형태의 전환은 절차가 간단하고 큰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외국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둔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필요하며, 발기인은 창립주주로서 응모 자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1) 법인설립절차

□ 필요서류 및 절차

외국 투자기업 대부분이 선호하는 법인 형태는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로 두 경우 모두 해당 지역의 아래의 과정을 거쳐 설립 가능하다.

- 주(州)상업 등기소(Junta Comercial)- 법인설립 등기, 법인등록 번호
- 연방 세무국(Receita Federal)- 법인납세인 등록,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구좌 개설
- 중앙은행- 외자등록
- 주(州)세무국(Secretaria da Fazenda)
- 시청(Prefeitura Municipal)
- 노동부- 주재원 비자신청

현지법인을 본사 파견 직원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고 동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 설립자본금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설립법인 등록, 중앙은행에 외국인투자 등록, 노동부에 영주비자 신청은 현지법인 운영을 위해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설립과정이 된다.

유한책임회사 설립단계

단계	설립절차	준비 서류	예상소요일 및 비용
한국에서의 준비서류			
1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Certificate of Good Standing)과 변호사위임장준비	위임장(예문) 본사 등기부 등본 또는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예문)	Day 1 (공증서의 서명공증과 브 라질영사관의 영사인증필요)
브라질에서의 준비			
2	○ 상호조회현지설립법인의 대표 경영인의 선정 및 주소 선정 ○ 현지 법인의 설립 정관 작성	상업등기소 시청에 주소 조회	당일 (회사주주는 최소 2인. 대표 는 브라질영주권자이상)
3	○ 변호사 위임장과 회사 등 기 증을 현지 변호사에 전달 ○ 위임장 공인번역과 문서 등기소에 등록 ○ 외국 개인 투자가는 브라질 은행에 CPF, 외국법인 투자 가는 중앙은행 CNPJ 신청	위임장 본사등기부등본 또는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 개인납세등록(CPF) 법인납세등록(CNPJ)	Up to day 20
4	현지법인의 설립정관 최종확정	현지법인의 설립정관 (예문)	Up to day 25
5	○ 연방세무국에 해외투자자의 법인납세인등록 신청 - 개인투자가는 CPF, 법인 투자가는 CNPJ신청	○ 소정의 신청서 ○ 회사증명서 ○ 공인 번역된 회사 서류 ○ 위임장	Up to Day 25
6	현지법인의 설립정관을 주상 업등기소(Junta Comercial)에 등기하고 등기번호(NIRE)받음	○ 소정의 신청서 ○ 설립정관 3 부 ○ 경영 책임자 영주권과 ("RG" 또는 "RNE") 개인납세등록증("CPF") ○ 위임장	Day 26 (등기번호가 나오면 회사 설립됨)
7	연방세무국에 설립법인의 법인 납세등록 "CNPJ" 신청	소정의 신청서 주상업 등기소에 등기된 현지 설립 법인의 정관 지분 권자 위임장	Up to Day 43 (CNP 가 있어야 구좌개설, 구 매, 임대계약 등 경제활동가능)
8	은행구좌개설	CNPJ 교부 후	Depend on the bank
9	중앙은행에 전자 등록(RDE) 신청	○ 소정의 신청서 ○ 주상업등기소에 등 기된 현지 설립 법 인의 정관 ○ 지분권자 위임장 ○ 주상업등기소에 증명서	Up to Day 46 (RDE번호가 있어야 투자금 의 송금이 가능)

10	현지법인의 송금등록	○ 소정의 신청서 ○ 환전계약서	Up to Day 49 (중앙은행에 투자금을 등록) (여기까지 대략 2~4천 달러 소요)
11	○ 시, 주, 연방기관 등록 - 시정부: CCM - 소방국 안정검사 - 주등록: Inscrição Estadual - 사회복지국: INSS - 피고용인 실직기금: FGTS	○ 소정의 신청서 ○ CNPJ ○ 정관	Up to Day 60 (업체의 활동목적이나 범위에 따라 허가·등록에 차이가 있음. 일괄처리유리) 대략 1천 달러 소요
12	SISCOMEX/RADAR(무역업신고)	연방 세무국에 신청	수출입 등 무역업에 필요함. (2~4개월 소요) 대략 500~1,000달러 소요
13	회계사 정하기		현지설립법인 회계장부의 상업등기소 등기확인
14	현지설립법인 피고용인들의 연방세무국 신고(적용 시)		
15	주재원파견의 경우 비자발급 신청(연방노동부 이민국)		(1~2개월 소요) 대략 1,500~2,000달러 소요
16	외국인거주등록증RNE(Registry of Individuals)을 신청하고 CPF(개인납세자 등록증)를 신청		주재원이 비자를 받아 브라질에 도착하면 법무부 산하 연방경찰에 신고, 대략 500달러 소요

주1: 외국에서 작성되는 모든 서류는 공증 및 브라질 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함.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브라질에서 공인번역사의 번역을 받아야만 유효

주2: 비용은 전문가의 인건비(fees)를 말하며 여기에 비용(expenses)이 더 들어감. 비용(expenses)으로 대략 1,000~1,500달러 정도 소요됨. 변호사 사무실은 통상 시간당 보수(an hourly basis-대략 100~350달러 사이)를 사용하는데, 이를 경험상 합산하면 limitada 설립에 변호사비로 약 4,000달러 정도 예상됨. 비용(Expenses)에는 telecommunications, official translations, reproduction, travel, lodging, translation 등이 있는 통상 번역비와 등록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 상세 절차

□ 한국에서의 서류준비: 위임장과 법인등기부등본

- 브라질 현지법인명을 확정하고 상업등기소에 기존에 등록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것
- 브라질 현지법인의 설립정관을 작성할 것
- 브라질 현지법인에 출자하는 설립지주를 확정할 것(법인명, 주소, 대표자 성명)
- 브라질 현지법인을 관리할 대표자(directors or officers)를 선정할 것

브라질 법상 브라질 법인의 관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파견되는 대표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임시대표를 지정해야 한다.

- 설립지주의 브라질 대리인의 지정
 - 브라질 현지법인의 설립지주가 외국기업이나 해외거주 개인일 경우 반드시 브라질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대리인이 부재지주를 대리하여 설립정관에 서명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변호사나 회계사를 통해 법인설립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주의 현지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 설립주주가 해외에 있는 기업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브라질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외국법인이 설립지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의 투자 법인이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위임장(procuração/ powers of attorneys): 설립주주가 해외에 있는 소위 부재주주(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회사설립을 맡은 브라질 대리인(변호사)에게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줘야 한다. 위임장에는 등기소, 연방 국세청, 중앙은행 등 관계기관에서 설립주주를 위해 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대리권을 명시해야 한다.
- 한국에서 작성된 대리장은 공증사무소(Notary Public)에서 서명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명공증을 받은 후 (notarization) 브라질 영사관에서 영사인증(legalization by the Brazilian consulate)을 받아야 한다.
- 공증사무소에서는 위임장에 서명한 개인 또는 법인대표의 서명확인을 해주고, 영사관에서는 이러한 공증인의 서명을 확인하는 영사인증을 한다.
- 주의해야 할 점은 위임장에 서명하는 법인대표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법인대표여야 하며, 회사정관에 회사를 대표하여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공증인은 위임장에 서명하는 자가 법인대표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법인등기부 등본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quotaholder): 브라질 현지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설립지에 등기된 법인등기부의 사본. 영문으로 발급받는 것이 나중에 브라질에서 번역하기가 수월하다.

□ 브라질 현지법인의 임시대표 선임 및 주소 선정

회사설립 전에 회사주소와 임시대표를 선정해야 한다. 회사주소는 회사설립을 대행해 주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의 주소를 임시로 사용하고 나중에 사무실 매입 또는 임대차를 통해 사무실을 구한 후 주소 이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 CETESB의 환경허가

제조업체의 경우는 통상 환경허가(Licenciamento Ambiental)의 대상이 됨. (법률 제997 /76 호) 환경허가에는 사전허가(Licença Prévia, LP), 설치허가(Licença de Instalação, LI), 운영허가(Licença de Operação, LO)가 있다.

□ 소방서 안전검사(Vistoria do Im vel)

상파울로 주에 소재한 모든 건축물은 소방서(Corpo de Bombeiros)의 안전검사를 통과해야만 입주허가서(Habite-se)를 발급 받는다. 소방서는 우선 건축프로젝트를 통해 안전, 방화 시설, 탈출시설, 방화 장비, 화재 탐지시설 등을 심사하여 건축을 허가하며, 건축물이 완공되면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사전 허가된 건축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를 점검한다.

□ 회사명의 확정

유한책임회사(Ltda. 또는 Limitada)는 회사명에 반드시 Ltda. 또는 Limitada를 붙여야 한다.

브라질의 경우 회사등록은 주(州)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등록된 회사 명칭은 해당 주에서만 보호를 받는데, 만일 회사가 회사 명칭을 브라질 전역에서 보호받고자 한다면 특허청(INPI)에 상호(Marca; Mark)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호결정 이전에 유사 상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설립정관의 작성

정관은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 또는 검토해야 한다. 정관은 반드시 변호사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세 기업은 이러한 의무가 면제된다.

변호사 및 증인, 투자자 전원이 서명한 계약서(회사 정관: Contrato Social) 3부를 준비한다.

- 서류 전체에 걸쳐 각 장마다 증인 및 투자자 전원이 기재된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는 표시로 약식 서명
- 설립정관은 경우에 따라서 주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에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지방위원회(Conselho Regional)의 허가(averbação)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건설회사는 지방건축위원회(Crea)의 허가를 받아야 주 상업등기소에 등록이 가능하다.

□ 주 상업등기소에 법인등록(NIRE)

회사설립을 위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주(州)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에 설립정관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소에 제출하는 설립정관은 4부이며 모든 면에 약식서명(rúbrica)을 하고 마지막 면에 주주, 증인, 변호사가 정식서명을 함. 주 상업등기소에 등록하여 법인 등기 번호(NIRE)를 받으면 회사가 법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 법인 등록 서류(Cadastro Modelo 1) 2부 작성
 - 법인 등록 서류(Cadastro Modelo 2) 법인 구성원 1인당 2부씩 작성
 - 상업등기소 등록 요청 서류(Requerimento Padrao da Junta) 작성
 - 소속 그룹(초소기업(Microempresa) 또는 소기업(Pequena Empresa) 결정 후 등록 해당 그룹 등록 신청서 3부 작성
 - 법인 구성원 전원(Cadastro Modelo 2에 기재된 모든 출자자)의 개인 납세 번호(CPF)와 주민등록증(RG)의 공증 사본
 - 투자자 전원의 거주지 증명 서류 공증 사본
 - 법인 본부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토지세(IPTU) 납부 서류 공증 사본
 - 수수료(Guia GARE codigo 370-0 및 DARF codigo 6621) 납부

□ 연방 세무국에 법인납세등록 신청(CNPJ)

브라질의 모든 법인은 연방세무국(Receita Federal)에 법인납세등록(Cadastro Nacional da Pessoa Jurídica, CNPJ)을 하여 납세번호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납세번호(CNPJ)가 있어야

회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회사이름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은행구좌도 개설할 수 있으며 임대계약도 맺을 수 있고 자동차도 구입할 수 있다.

○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 법인납세번호(CNPJ)등록 신청서(Documento Basico de Entrada: DBE) 2부 작성.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후 공증
- 연방 세무국 법인 등록과 관련된 각종 서류 작성 후 디스켓에 저장. 서류 양식은 연방 세무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대리인이 등록신청서(DBE)를 작성할 경우, 위임장 원본 및 공증사본 첨부 필요. 이 경우 FCPJ 서류는 법인 대표의 개인납세번호(CPF)를 기재함
- 투자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위임장 원본 및 공증사본 첨부. 주재국 내 브라질 영사관의 날인 필요. 공증 번역사가 번역한 서류만 인정
- 해당 지역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에 등록한 계약서(회사 정관: Contrato Social) 원본 또는 공증사본
- 법인 구성원 전부의 개인납세번호(CPF) 및 주민등록증(RG) 공증 사본
- 법인 구성원 전원의 거주지 증명 서류 공증 사본
- 법인 본부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토지세(IPTU) 납부 서류 공증 사본
- 법인 구성원 전원의 최근 5년간 납부한 소득세(Declaracoes de Imposto de Renda) 내역. 신고대상이 아닐 경우, 소득세 면제서류(Declaracao de Isencao) 제출
- 수수료(Guia DARF Codigo 6621) 납부

□ 은행 계좌 개설

설립법인이 법인납세번호(CNPJ)가 있으면 법인명으로 은행구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현재 상파울루에는 한국외환은행이 외국환 거래업무를 하고 있다.

□ 중앙은행에 전자등록(RDE)

외국인 투자 등록은 인터넷을 통해 중앙은행(BACEN)에 직접 해야 한다. 동 제도를 외국인 직접투자 전자등록(RDE-IED: registro declaratório eletrônico dos investimentos externos diretos: the Electronic Declaratory Registry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이라고 한다. 법정 등록기간은 30일로 환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화폐 유입의 경우 국내화로 환전 되는 날, 또는 주식이나 지분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기타의 경우 회사의결 행 위가 행해진 날로부터 기산된다.

□ 연방세무국에 외국투자자의 법인납세등록 신청(CNPJ)

브라질에 재산이 있거나 브라질에 투자한 외국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모두 브라질 국세청에 개인납세인등록(Individual Taxpayers Registry, CPF)이나 법인납세인등록(General Taxpayers Registry, CNPJ)을 해야 한다. (연방 국세청 명령 제 568호, Instrução Normativa No.568, 2005.9.8일) 달리 말하면 CNPJ나 CPF가 없으면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등록을 할 수 없다

□ 투자금의 송금과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금 등록

□ 주(州)세무국에 등록(ICMS)

설립되는 회사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 유통세(ICMS)를 내야 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인 주세무국(Secretaria da Fazenda)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출서류에 회사 회계장부를 책임지는 회계사(contabilista)의 지방회계사협회(CRC, Conselho Regional de Contabilidade)의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 시(市) 등록(CCM)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회사가 주소를 두고 있는 시청 재무국(Secretaria das Finanças)에 납세인 등록(CCM, Cadastro de Contribuintes Mobiliários)을 해야 한다. 등록비용은 없으며 회사가 활동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야 한다.

3) 투자이민에 대한 영주권 부여규정

연방이민위원회 규범(Resolução Normativa; Normative Resolution) 제 60호(2004.10.6.)에 따라 브라질에 투자이민 하려는 외국인인은 영주권을 소지해야 한다. 영주권은 최소 미화 5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화를 투자하는 경우에 부여되며, 동 투자는 신설회사 또는 기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투자금액이 미화5만 달러에 미달되는 경우에 향후 5년 내에 최소 10명 이상의 브라질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 창출계획이 있는 경우에 CNI는 영주권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CNI가 영주권 부여를 결정하면 노동부는 외무부에 비자를 허여하도록 통보한다. 투자 이민의 경우 최초 발급되는 영주권 신분증(Cédula de Identidade)에 외국인 투자자 및 5년 유효기간을 명시해 준다. 연방 경찰국(법무부 산하)은 투자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영주권의 갱신을 금할 수 있다.

4) 현지법인 관리직에 대한 영주권 부여 규정

법인투자 규정 내 연방이민위원회 규범(Resolução Normativa; Normative Resolution) 제 62호 (2004.12.8.)에 따라 최고경영자, 이사, 부장 등 회사의 경영권을 부여 받는 직위로 오는 외국인인은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 관리직에 대한 영주권 부여는 그 직위와 권한을 결정한 회사결정문서(주주의결서, 정관)가 관계기관에 적절히 등록된 경우에 부여한다.

외국인을 초청하는 브라질 기업은 초청하는 관리직 1인당 현금, 기술이전 또는 자본재를 5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 설립 또는 관리자 입국 후 2년 내에 10개의 신규 고용창출이 있어야 한다. 또는 상기 고용창출의 의무를 벗어나려면 미화 20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해야 한다.

최초에 발급되는 외국인 신분증(Cédula de Identidade do Estrangeiro)에 그 직위를 명기하며 계약기간 또는 주주 합의록에 기재된 기간에 따른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영주권 연장 시 동일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관리직에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9년 기간의 영주권을 발급해 준다.

영주권자가 초청기업의 동의 하에 퇴사하거나 계열기업과 관계없는 기업으로 옮기려는 경우 노동부의 의견을 받아 법무부가 그 허락 여부를 결정한다. 영주권자가 관리직을 떠나는 경우 초청회사는 노동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만 후임자 초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비자 취득관련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절차
 - 법인설립
 - 자본금 유입
 - 비자 관련 업무 보는 변호사 계약하여 비자 신청
- 구비서류
 - 법인 설립 후 자본금 유입증명서
 - 재직/전근 증명서
 - 소득 명세서 (한국에서의 수익 및 브라질에서의 예상수익)
 - 무범죄 증명서

법인형태의 비교(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법규정	민법- 법률 제10406/02호	주식회사법- 법률 제6404/76호
설립정관	설립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Contrato Social	설립정관 By-laws, Estatuto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 규정 없음. 현금 또는 자산	최소자본금 규정 없음 주식종류 다양 - 보통주, 특별주, etc. 납입 - 현금 또는 자본
영주권 발급	1인당 5-20만불	1인당 5-20만불
책임	주주책임은 응모자본에 한하여 유한 책임. 납입되지 않은 자본에 대해 주주는 공동책임. 경영자는 회사경영에 대한 책임.	주주책임-응모하여 납입한 주식에 한함.
증권발생	발행금지	회사채, 증권 등
경영	경영이사 Executive officers(1인 또는 복수) - 브라질 거주인 이사회구성 - 의무사항 아님	경영이사회 Board of Officers(최소 2인 이상) - 브라질거주인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결정	원칙 - 과반수 예외(법규정) - 정관변경, 회사매각, 분리, 해산, 종료시 3/4 의결정족수.	원칙 - 대부분의 경우 과반수 + 1

나. 지 사

지사 설치에 필요한 2대 필수요구사항은 첫째, 지사의 대표는 브라질의 영주권을 가진 자로 지사 고유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본사로부터 위임 받은 자여야 할 것, 둘째, 본사는 지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운영자금을 지원해주어야 할 것 등이다. 기본적인 신청서류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본사의 설립정관 (2) 주주명부 (3) 본사의 대차대조표 (4) 지사 설립의 결정을 증빙하는 회사결정서(예, 주주결의문)

이미 언급한대로 지사 설치의 경우에는 브라질연방정부, 즉 주무부서인 상공개발부(the Ministry of Development, Industry and Foreign Trade)에 신청하면 국가 상업 등기과(DNRC - the National Department of Registry of Trade Activities)가 심사한다. 지사 설치허가가 나오면 대통령령으로 聯邦官報(Federal Official Gazette: DOU)를 통해 공시된다.

그리고 지사가 소재한 해당 주(州)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 Commercial Registry)에 외국법인의 지사 또는 자회사의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회사의 지사는 그 명칭 끝에 "do Brasil" 또는 "para o Brasil"이라는 접미사를 달아야 한다. 상업등기소에 등록하고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법인 납세인 번호를 받은 후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 본사로부터 지사 또는 자회사의 자본을 납입해야 한다. 브라질 법은 지사나 자회사를 해외본사의 연장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브라질에 있는 지점이나 자회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본사도 책임을 지도록 한다.

1) 지사 설립은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함.

2) 지사는 어떤 영업활동도 불가함.

거래선 상담, 시장조사, 중개업 등은 현지에서 영업으로 간주함.

3) 지사일 경우 본사에서 발생하는 내역들을 현지에 신문 공고하여야 함.

이는 영사확인, 공인 번역비 및 공증비가 상당히 높아 오히려 부담이 더하기 때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현지에서는 유한회사로 설립되어 있다.

○ 설립절차

- 브라질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점설치의 허가는 대통령이 한다. 연방정부의 허가는 연방관보를 통해 공시되며 이와 동시에 합법적인 지사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 이러한 연방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지사가 소재한 해당 주 상업등기소에 신고, 등록할 수 있다.

법인형태의 비교(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지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지사
설립 시 특별한 정부허가 불 필요	설립 시 특별한 정부허가 불 필요. 단, 설립정관의 일간지 공고 의무	설립 시 연방정부의 특별 허가 및 설립문서를 일간지에 공고 의무
특별한 설립비용 없음. 일반적으로 외국어 서류의 공 인 번역 및 공증비용	일간지 공고비용이 추가됨.	일간지 공고비용이 추가됨.
등록기간은 3-10일 소요.	약 15일	약 3~6개월
자본금은 QUOTAS로 분류 됨. (별도의 지분증서 없음)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주식증서 발행가능)	해당무
지분양도 시 회사정관의 개정 필요	주식양도는 회사장부에 기록됨.	해당무
회사설립 시 최저납입금 납입 의무 없음.	회사설립 시 설립자본금의 최소 10%를 현금납입 의무	해당무
증권거래소 등록 불필요	증권거래소 등록	증권거래소 등록 불필요
법정 유보금 불필요	5%의 법정 유보금 적립 필요	적용 안 됨.
최저배당 의무 없음.	최저 배당은 순이익의 25% 요구됨.	적용 안 됨
감자, 해산 등 특별한 경우에만 공고	재무제표와 주주 회의록의 일간지 공고	재무제표의 일간지 공고
브라질 국적기업	브라질 국적기업	모기업의 국적
지주회의록 작성의무	주주회의록, 경영진회의록 등 기업 장부의 작성의무	별도의 기업장부 불필요

다. 합작투자

합작투자는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경영구조 및 비밀유지 등을 고려하여 유한책임회사 또는 비공개 주식회사의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는 구조를 가진다.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계획하는 사업투자 및 그 구조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당사자들의 예비적 합의를 양해 각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이는 배타적 협상 및 실사조사로 이어진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완결되면 합작투자회사가 설립된다. 당사자 간의 관계는 합작투자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규제되지만,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주/지주합의서 형식으로 그러한 관계를 규정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합작투자 수단이 외국 자본기업일 경우, 법적으로 필요한 기업문서는 포르투갈어로 작성하여 완성하고 브라질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른 합작투자 관련 문서에도 같은 요건이 반드시 적용되지는 아니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서는 그러한 문서도 적격한 브라질 변호사가 포르투갈어로 작성하여 완성하고, 브라질 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브라질 법원 또는 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 번역가가 포르투갈어로 번역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단독투자

단독투자는 다국적 기업이 주로 선호하는 방식으로 현지경영에 대한 자신감과 기술력의 공개기피 및 세계경영의 필요성 등에 기인한다. 투자규모가 클 경우에는 브라질에서 능력과 경험이 있는 현지경영인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들의 노하우를 통한 시장개척이 수월하기 때문에 합작투자의 장점을 상쇄할 수 있다.

한편 단독투자는 기업설립부터 경영, 판매, 고객관리에 이르기까지 투자기업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크다. 외국기업의 예를 볼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모기업의 경영 전략과 현지 경영전략의 상충으로 초기에 그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는 점이다. 다국적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브라질 경영층의 노하우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데 유효하다.

마. 프랜차이징을 통한 진출

1990년대 들어서 급성장한 진출방식이다. 주로 미국의 패스트푸드산업과 도매서비스 업종에 의해 선도되고 있다. 프랜차이즈를 통한 진출은 헬스클럽, 언어학원, 문구류 등 전산업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전자 제품의 대리점 방식도 시험 도입단계에 있다.

바. 합병과 인수

합병과 인수거래는 매매조건, 진술 및 보증, 겸업금지 및 면책조항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예비협상에서 시작되며 그 내용은 배타적 협상과 실사조사로 이어지는 양해각서에 반영된다. 일차적으로 중요한 논의 사항은 거래 당사자가 이를 자산 또는 주식인수를 통해서 이행할지 여부인데 실사조사의 결과가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 공장설립

브라질은 국토도 넓고 기후도 다양하다. 공업발전이나 소비인구는 주로 남부와 남동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특색이 있다.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브라질 전체를 놓고 볼 때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산업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에컨대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는 기계, 제철, 광산업이 강하고 쏘타 까따리나 주는 세라믹 공업, 빠라나 주는 제지와 펄프, 리오그란데 두 술 주는 제화와 포도주 산업이 왕성하다. 또한 북쪽의 바이아 주는 석유화학이 발달되었고 최근에는 제지업과 섬유산업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마나우스 지역으로는 경공업과 가전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반면 GDP의 37%가 집중되어 있는 상파울루 주는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특색이 있다.

법인설립은 임시 주소로 하고 설립 후 법인명으로 임대하는 것이 경비 절감 효과도 있고 유리하다. 임대비로 장소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임대 시 보증인, 보증 보험 혹은 3개월 임대료 개런티를 요구할 수 있다.

건물 건설 시 건설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건설계획은 주정부의 건설조례와 상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주정부의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제한되고 있지 않으나 국경에서 150Km는 벗어나야 한다. 주정부에 따라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제한하거나 목축업 등을 위한 토지취득만을 허용하므로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 환경오염 범죄에 대해서는 최장 1년의 실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책 금융기관들도 사업심사 시 환경평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주에 따라서는 산업구역, 환경구역 등의 세부설정을 통해 환경 오염을 규제하고 있으며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등에서는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도 한다.

토지관할권

	관 할	규 제
연방	국경지대와 국가안보지대, 국립공원, 환경보호, 멸종위기 자연 자원보호, 인디언 보호 등	일반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의 규제는 거의 없다. 단, 국경지대에서 공장시설물이 필요하거나 산림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 주의를 요한다.
주	관할환경보호, 수력자원 등 규제	연방헌법은 각 주로 하여금 환경보호에 관한 입법을 하고 시행토록 규정한다. 주 환경법은 그 필요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공장입주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시	도시토지사용, 교통정리, 소음, 진동, 공해문제 등	각 시는 연방법에 따라 지역편제에 관한 입법을 해야 하며 모든 토지는 용도에 따른 구분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시가 이러한 연방 정부의 규율을 지키지 않고 사전확인을 요한다. 연방 정부의 토지편제는 용도별로 Z-1, Z-2 등으로 구분하는데 대부분의 시도 이러한 연방편제를 따르고 있다.

자료: 브라질 비즈니스 진출 안내책서

상파울루 주의 토지 편제

ZUPI 1	산업용도지역으로 공장부지 크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
ZUPI 2	산업용도지역이지만 공장부지 크기에 제한이 있다. 총 건축 면적이 10,000m ² 이하로 제한
ZUPI 3	용도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산업시설물의 경우 그 규모는 2,500m ² 이하로 제한

자료: 브라질 비즈니스 진출 안내책서

상파울루 주에서 시행하려는 산업프로젝트는 상파울루 주의 환경기준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심사를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주 환경국에 제출하고 주 환경기술 공사(CETESB)의 환경기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장부지설정과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매매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보통 거래액의 5~10%이며 일반적으로 매각인이 지불한다.

아. 투자관련 주요 기관 연락처

1) 투자 관련 정부기관

□ 브라질 무역 투자진흥청: APEX

- Agência de Promoção de Exportações e Investimentos (Brazil Export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위치: SBN Quadra 1, Bloco B, 10º andar – Ed. CNC, Brasília – DF / Brasil, 70041-902
- 전화/팩스: +55 61 3426 0202/+ 55 61 3426 0263
- 홈페이지: www.apex.org.br

□ 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 국가 통화 위원회의 규범시행, 금 보유 및 외환보유, 모든 형태의 신용통제, 외자통제, 수표지불 등이 주요 업무이다.
- 연락처 정보
- 위치: SBS, Quadra 3, Bloco B, 70074-900, Brasília, DF, Brasil
- 전화/팩스: 55-61)3414-1414/3414-2553
- 홈페이지: www.bacen.gov.br

2) 투자 상담 서비스 기관

□ Demarest & Almeida Advogados

- 담당변호사: 조희문 변호사
- 주 소: Av. Pedroso de Moraes, 1201, Centro Cultural Ohtake, Sao Paulo, SP, Brasil
- 전화/팩스: 55-11)2245-1800 / 2245-1700
- 이메일: hmoon@demarest.com.br, hmoon@hufs.ac.kr
- 홈페이지: www.demarest.com.br
- * 참고: 조희문 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중남미국제법 교수로 재직 중임.

□ Tozzini Freire Teixeira e Silva Advogados

- 담당변호사: 김신재 변호사
- 주 소: Rua Borges Lagoa 1328, 04038-904, São Paulo SP Brasil
- 전화/팩스: 55-11)5086-5000 / 5086-5555
- 이메일: skim@tozzini.com.br
- 홈페이지: www.tozzini.com.br

□ Machado, Meyer, Sendacz e Opice Advogados

- 담당변호사: 조인희 변호사
- 주 소: Rua da Consolação, 247, 4 andar, 01301-903, São Paulo, SP
- 전화/팩스: 55-11)3150-7000/3150-7071
- 이메일: mmso@mmso.com.br
- 홈페이지: www.mmso.com.br

□ Pinheiro Neto Advogados

- 담당변호사: 김윤정 변호사
- 주소: Rua Boa Vista 254, 9 andar, 01014-907, São Paulo, SP
- 전화/팩스: 55-11)3247-8400/3247-8600
- 이메일: yoonkim@pinheironeto.com.br
- 홈페이지: www.pinheironeto.com.br

□ Veirano Advogados

- 주소: Av. das Nações Unidas, 12995, 18 andar, 04578-000, São Paulo
- 전화/팩스: 55-11)5505-4001/5505-3990
- 이메일: spoffice@veirano.com.br
- 홈페이지: www.veirano.com.br

세계 5대 대형 회계법인인 Deloitte Touche Tohmatsu, KPMG, Ernst & Young, Andersen, PricewaterhouseCoopers(PwC)는 모두 브라질에 진출해 있고 브라질 토종 회계법인인 Trevisan을 포함하여 브라질의 6대 회계 법인이라 한다. 한편, Wintec은 한국교포가 운영 하고 있어 소규모의 법인이 이용하기 좋다.

□ Deloitte Touche Tohmatsu

- 담당자: Mr. Willian Malfatti
- 이메일: wmalfatti@deloitte.com.br
- 주소: Rua José Guerra, 127 Cep:04719-030 São Paulo SP
- Tel/Fax: 55 11 5186-1000/ 5181-2911
- 홈페이지: www.deloitte.com

□ KPMG – Peat Marwick

- Mr. Gilmar Farias
- 이메일: gfarias@kpmg.com.br
- 주소: Rua Dr. Renato P. de Barros, 33, Itaim BibiCep:04530-904 – São Paulo – SP,
- Tel: (55-11)3067-1512
- 홈페이지: www.kpmg.com.br

❑ **Ernest & Young Auditores Independentes S/C Contábil e Empresarial S/C Ltda.**

- 담당자: Mr. Adilson Galdeano
- 이메일: adilson.galdeano@br.ey.com
- 주소: Av Pres Jucelino Kubitschek, 1830/5, 04543-900 – São Paulo – SP Bairro: Itaim Bibi
- Tel: 11- 3841-5200

❑ **Pricewaterhouse Auditores Independentes**

- 담당자: Mr. Wilson Marques
- 이메일: primeiro.contato@br.pwc.com
- 주소: Av. Francisco Matarazzo, 1400 Cep:05001-903 – São Paulo/SP Torre Torino – Água Branca
- Tel/Fax: 55-11) 3674-2000/ 3674-2077
- 홈페이지: www.pwc.com

❑ **Allianz Consultoria Tributária e Empresarial**

- 담당자: Mr. José Carlos Lima Barbosa
- e-mail: jurídico@allianz.com.br
- 주소: Av. Brigadeiro Faria Lima, 2.355, 9º andar, conj 913 São Paulo/SP – CEP 01452-000
- Tel/Fax: (11) 4183-3693
- 홈페이지: www.consultordetributos.com.br

❑ **CSE Contábil – Accounting Services**

- 담당자: Mr. João Pedro Gomes Neto
- 이메일: joaopedro@csecontabil.com.br
- 주소: Rua dos Buritis, 128 Sala 301 Bloco b – Jabaquara/SP
- Tel/Fax: 55 11) 5017-0937
- 홈페이지: www.csecontabil.com.br

❑ **NK Assessoria Contabil e Fiscal Ltda**

- 담당자: Mr. Wander Mitsushima
- 이메일: legal@nkcontabilidade.com.br
- 주소: Rua Frei Eusébio da Soledade, 60 Vila Mariana Cep: 04106-030 São Paulo – SP
- Tel/Fax: 55-11) 5080-3300/ 5080-3310
- 홈페이지: www.nkcontabilidade.com.br
-

❑ **Wintec Servicos Contabeis SC Ltda.**

- 담당자: 김산옥 회계사
- 주소: Rua Domingo Lopes da Silva 890, Vila Suzana, Morumbi, Sao Paulo, SP, Brasil
- 전화: 55-11) 2597-0630
- 팩스: 55-11)2597-0635
- 이메일: sanokkim21@hotmail.com

3) 유관기관

□ 공공기관

- 駐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Av. das Nacoes, Lote 14, Zip 70436-900, Brazilia DF, Brazil
 - 전화: (5561)3321-2500
 - 팩스: (5561)3321-2508
- 상파울루 총영사관
 - 주소: Av. Paulista, 37, 9 andar,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3141-1278
 - 팩스: (5511)3141-1279
- 중소기업진흥공단
 - 주소: Al. Santos, 1827,cj.82, Sao Paulo, Sao Paulo, SP, CEP 01419-002
 - 전화: (5511)3142-9009
 - 팩스: (5511)3142-9096
- 한국수출보험공사
 - 주소: Av. Paulista, 453, CJ 21, Paraiso, Sao Paulo Cep 01311-000
 - 전화: (5511)3284-1105
 - 팩스: (5511)3284-4081
- 한국수출입은행
 - 주소: Av. Paulista,1439, cj142, C.Cesar, Sao Paulo,SP, CEP 01311-200
 - 전화: (5511)3283-3021
 - 팩스: (5511)3285-3575
- 한국산업은행
 - 주소: Av. Brig.Faria Lima, 3400, Cj.152, Sao Paulo, SP, CEP 04538-132
 - 전화: (5511)2138-0000
 - 팩스: (5511)2138-0150

□ 교민 단체

- 브라질 한인회
 - 주소: R.dos Parecis, 107, Cambuci Sao Paulo, SP 01527-030
 - 전화: (5511)3209-9042, (5511)3399-2768, (5511)3208-6860
 - 홈페이지: www.haninbrasil.com.br
- 한인 상공회의소
 - 주소: R.Tres Rios, 263, Bom Retiro Sao Paulo, SP01123-000
 - 전화: (5511) 3326-9562
 - 팩스: (5511) 3326-0794
 - 홈페이지: <http://www.kocham.com.br>

- 브라질 한인닷컴
 - 브라질 한인사회 관련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홈페이지: www.hanin.com.br

자. 대 브라질 성공적인 투자진출을 위한 팁

1) 충분한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하라.

시장 진출에 있어 사전 조사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을 포함해 브릭스 국가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으로 불투명한 요소가 많다는 점이다. 법규는 물론 일반 관습이나 제도 등이 우리와는 현격하게 다른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 현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이 한결 같이 말하는 것이 있다. 우리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적응’하라는 것이다. 브라질의 현실에 맞게 우리 자신을 맞 추라는 말이다. 이런 점들은 단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조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생활방식이나 소비성향, 상관습 등에 대한 포괄적인 숙지가 필요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시장조사는 가능한 많은 부분에 대한 정보습득 차원에서 폭넓게 이루어질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2) 특히, 브라질의 노동법 및 세제 등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의 노동법은 세계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본문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런 요소들은 브라질의 국가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조세제도 또한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에게 없는 세금 항목을 많이 볼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는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노동법과 관련된 민사 소송의 경우 회사 측이 패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간혹 회사 측이 기업 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정도로 막대한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브라질에 진출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브라질의 노동법과 조세제도 체계에 대한 사전 정보 습득 및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인 사항이다.

3) 시장조사는 철저히 하되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상기와 같이 사전 시장조사가 이루어지고 브라질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당연한 설명일 수 있으나 브라질 정부는 단순히 내수시장 판매를 노려 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 기업보다는 현지투자를 실 시하는 외국 기업을 선호한다.

브라질에는 에너지, 식량, 인프라 등 일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생산 부문이 취약하다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다. 시장 진출 초기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판로 개척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시장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반드시 현지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4) 현지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6 개월~1 년 정도 직접 브라질에 직원을 파견해 진출 분야별 브라질의 사업 관행 등 현장경험을 거치는 것이 좋다. 선발팀이 일정 기간 이상 현지에 주재하며 사업 환경을 익힌 뒤 본 팀이 합류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는 사전 시장조사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부분이다. 시장조사가 이루어지고 투자가 결정된 이후라도 브라질 시장 적응 차원에서 한꺼번에 진출하기 보다는 일종의 선발진을 이용해 더욱 정확하게 시장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 체계를 숙지 했더라도 직접 현지 거래선을 접촉하고 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장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현지진출 이후 철수하는 상황을 맞게 되더라도 사후조치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5) 기업 차원의 철저한 준비 외에 필요할 경우 현지 로펌 또는 전문 컨설팅 회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진출 이후 브라질의 법 체계나 상관습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에 서와는 다른 경우를 만나게 된다. 이 때 시초가 잘못되면 기업활동에 계속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다소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로펌이나 전문 컨설팅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6) 당초의 진출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다른 장애요인이 생길 경우(반드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를 대비해 다양한 차선택을 사전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투자 및 진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정부의 법 규정 변경 또는 기업활동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드시 장애요인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브라질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외국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규정이나 제도가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다. 로펌이나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 변화에 대비하면서 초기 투자, 진출 계획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7) 중소기업의 경우 일단 시장 진출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현지공장 설립 등 투자 진출로 전환해 가는 것이 좋다.

브라질은 현지투자를 통해 생산시설을 갖추고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경우 적지 않은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중요한 관건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향후 브라질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문제까지 감안해 시장 진출 이후에는 현지공장 설립을 염두에 두는 것이 유리하다.

8) 각종 행정절차 및 업무 패턴 상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접근 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키 포인트다.

브라질에서는 관료주의적 관행이 강해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 브라질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처럼 ‘원스톱 서비스’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정부기관뿐 아니라 일반 기업이나 금융 기관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라틴 계통 민족 특유의 느긋함에서 오는 여유까지 더해지고 있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거나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9) 원자재 공급 기지를 구축하라: 브라질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할 경우 원자재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원자재 공급 기지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브라질은 일반적으로 원자재 자체는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원자재를 적기에 확보하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가능하면 1 차, 2 차, 3 차 원자재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0) 브라질 정부는 완제품 수출업체보다 현지 투자업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지 투자를 통한 브라질 및 남미 시장 공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브라질 정부는 해외 직접투자 유치 차원에서 완제품 수출업체 보다는 현지 투자업체가 진출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 투자 진출을 통해 신규시장 창출을 공개적으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현지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투자를 통해 생산시설 부지 매입, 상하수도 등 인프라 확보가 가능하다. 또 브라질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인접 남미 국가에 수출할 경우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내수시장과 남미 국가 수출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업체는 현지투자를 실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11) IT, 디지털 가전, 인프라 투자 등 전략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브라질은 경제성장 촉진 요인 가운데 하나를 내수시장 수요 증가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 확대 등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IT 및 전기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 분야는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또 국가적 성장을 위해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은 브라질에 대한 투자 고려 시 전략적인 판단 요소가 된다.

12) 브라질 시장에 단독 진출하는 것보다는 현지 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하는 것이 초기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어 시장 진입이 훨씬 수월해진다.

브라질은 시장의 가변성으로 인해 단독진출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내 유통망을 몇 개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삼성, LG 등도 유통망 확보를 위해 현지 유력 기업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현지 업체와 제휴하는 것은 유통망 확보 외에도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부담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13) 자유무역지대인 마나우스나 상파울루 인근 소도시를 벗어나 북동부 및 남부 지역 등의 지방 상권 개척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남미 대륙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답게 브라질은 각 지역별로 유력 상권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 내 한 컨설팅 회사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상파울루 주에서는 인다이투바, 수마레, 따우바떼, 상 까를루스, 리오데자네이로 주에서는 헤젠데,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서는 세피 라고아스, 포수스 지 까우다스, 빠라나 주에서는 상 조제 두스 캄부스, 캄부라르구, 히우 그란지 두 술 주에서는 그라바타이 등이 꼽혔다. 주요 도시별 투자 여건과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다이투바

- 철도 및 공항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생산능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지투자 기업에 재산세 면세 또는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 도요타 생산 공장이 입주해 있다.

○ 따우바떼

- 산토스 및 상 세바스티안 항구가 가까워 물류가 편리하며, 브라질 우주 항공산업의 상징인 ITA 대학 출신의 우수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폭스바겐, 포드, LG 등이 입주해 있다.

- 상 조제 두스 핑야이스
 - 파라나 주의 주도인 쿠리티바와 가까우며, 파라나과 항구 및 아폰소 페나 공항과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다. 브라질 내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 하는 곳이기도 하다. 르노, 폭스바겐 등이 입주해 있다.
- 그라바타이
 - GM 왕국이라고 불릴 만큼 GM의 영향력이 크며, 자동차 부품산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 히우 그란지 두술 주의 주도인 뽀르두 알레그리와 가깝고 공항, 철도, 항만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크라이슬러, BMW 등도 입주해 있다.
- 세찌 라고아스
 - 미나스 제라이스 주도인 벨로 오리존테에서 가까운 도시로, 소형 트럭 생산 및 수출이 주력산업이다. 피아트가 진출해 있다.
- 상 카를루스
 - 상파울루 주립대학과 상 카를로스 연방대학이 위치해 우수한 인력 확보가 장점이다. 브라질 내 도시 가운데 박사급 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산학협력 사업과 인큐베이터 창업이 활발하다. 폭스바겐 등이 진출해 있다.
- 헤젠데
 -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가까우며 브라질 최대의 소비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수출 전략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
- 수마레
 - 교육 및 산업도시인 캄피나스와 인접하며, 브라질에서 가장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캄피나스의 영향을 받아 외국기업의 현지투자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혼다 등이 진출해 있다.
- 포수스 데 까우다스
 - 최근 공항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새로운 투자 적격지로 떠오르는 곳이다.

6. 투자입지여건

가. 주요 지역별 입지조건

□ 브라질 투자 유망 7대 도시

- 상파울루 주(São Paulo): 인다이아투바(Indaiatuba-SP), 수마레(Sumaré-SP), 따우바테(Taubaté-SP), 상 카를로스(São Carlos-SP)
- 미나스 제라이스 주(Minas Gerais): 뽀수스 지 까우다스(Poços de Caldas-MG)
- 파라나 주(Paraná): 상 조제 두스 핑야이스(São Jose dos Pinhais-PR)
- 히우 그란지 두 술 주(Rio Grande do Sul): 그라바타이(Gravataí-RS)

위의 각 도시들은 각 주의 주도(州都) 또는 대도시와 인접한 위성도시로, 교통 요충지나 물류시설이 들어서기 쉬운 전략적인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질의 산업 인프라는 물론

높은 생활수준을 가진 인구 5만~35 만 명 정도의 도시 중에서 선정하였다. 이미 브라질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과 전문 컨설팅 기관인 Simonsen Associados의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수년간 투자 유치 실적이 우수한 도시를 선정하였다.

투자 유망 지역으로 선정된 도시들은 대부분 상업 활동이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접 지역에 위치하여 상당한 정도의 산업 인프라가 이미 형성돼 있는 데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고 기계 수리 및 관리, 수송, 보안을 담당하는 각종 서비스 업체가 주변에 많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투자 유망 도시에는 Toyota, Audi, Renault, GM, Chrysler, Volkswagen, Fiat 등 주로 자동차 생산업체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산업이 투자 유망 도시 선정 기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인다이아뚜바(Indaiatuba)

경제중심지인 상파울루 시에서 9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구 12만 명의 도시이다. 철도를 이용한 물자 수송이 가능하며 항공 화물의 80%가 거쳐가는 비라코푸스 Viracopos 공항이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을 연결하는 국내 주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브라질내에서 산업생산능력과 기술개발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이다. 현지 투자 기업에 대해 재산세(IPTU) 면세 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투자한 사례로는 Toyota를 들 수가 있는데 Toyota는 1998년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자동차 생산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시로부터 10년간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직원이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따우바떼(Taubaté)

상파울루 시에서 134km 떨어진 인구 22 만의 도시로, 상파울루와 리우데 자네이루를 연결하는 Dutra 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1993년 현지투자 유치방침에 따라 26개 생산 공장 설립을 허가했으며, 이후 시가 조성한 2개 산업단지에 32개 업체가 추가로 들어섰다.

산토스 항구 또는 상 세바스티아우 항구에서 불과 45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수송이 편리하다. 국내 주요 공업지역 중 하나인 발레 도 빠라이바(Vale do Paraíba) 지역의 중심 도시인 상 조제 도스 캄보스(São Jose dos Campos)에 인접한 도시이다. 우주 공학으로 유명한 ITA 대학 출신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한 것이 장점이다. 따우바떼에는 LG, Volkswagen, Ford 등이 대표적인 현지투자 기업이다. LG전자의 경우 기존의 모니터 생산 공장 외에도 2005년 7월 휴대폰 생산 공장을 개설하였으며 새로운 공장 설립으로 인하여 500명의 직접 고용과 450명의 간접고용 효과를 내고 있다.

3) 쌍 주제 두스 빠냐이스(Sao Jose dos Pinhais)

빠라나 주의 주도인 꾸리치바(Curitiba) 시에서 가까우며 17만 인구가 거주하는 이 도시는 주로 독일, 폴란드, 우크라이나 계통의 이민이 많은 도시이다.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을 위해 중요한 수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빠라나과(Paranaguá) 항구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아폰소 페나(Afonso Pena) 공항은 연간 4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한다. 브라질내에서 인구규모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0대 도시의 하나로 꼽힌다. Renault, Nissan, Volks/Audi의 주요 생산지역 중 하나이다.

4) 그라바타이(Gravatá)

리오 그란데 도 술 주의 주도인 뽀르또 알레그레(Porto Alegre) 시에서 34km 정도 떨어진 그라바타이 지역은 "GM 왕국"이라고 불릴 만큼 General Motors사의 영향력이 큰 도시이다. GM은 메르코수르 시장 공략을 위해 6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12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1,000 여 개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가 시의 주력산업이 되고 있으며 시와 가까운 곳에 공항, 철도, 항만 시설이 형성되어 있어 수송이 편리하며 인구는 21만 명 가량이다. 투자사례로는 GM, Albarus, Suloy, Maxiona-CEV, Moas Weber, Pirelli Pneus, Tinatas Renner 등이 있다.

5) 상 카를로스(São Carlos)

상파울루 시로부터 24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파울루 대학(USP)과 상카를로스 연방대학(UFSC)이 근교에 위치해 우수한 인력확보가 용이한 '고급 두뇌 도시'로 꼽힌다. 국내 5,000여개 도시 중 가장 많은 수의 박사 학위 소유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선정되었다. 고급 두뇌들이 많이 모인 도시답게 산학협력이 활발하며 창업 인큐베이터 관련 기업인 Parqtec가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는 18만 명 정도이다. 투자 사례로는 Volkswagen, Parqtec가 있다.

6) 수마레(Sumaré)

상파울루 시에서 1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구 17만 명의 도시로 교육 및 산업도시인 캄페나스(Campinas) 시와 인접해 있다. 최근 브라질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 캄페나스 시의 영향을 받아 외국기업의 현지 투자를 크게 환영한다. 투자사례로는 Honda, Villares, Fortilit가 있다.

7) 뽀수스 데 까우다스(Poços de Caldas)

Minas Gerais주의 주도인 Belo Horizonte 시에서 450km 떨어져 있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할 정도의 시설을 갖춘 공항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최근 들어 이 도시에 대한 투자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구는 약 13만 명이다.

투자사례로는 Alcoa, Fertilizantes Mitsui, Cia. Brasileira de Alumínio, Ferrero Rocher, Rhodia, LPC-Danone가 있다.

나. 산업단지

1) 마나우스 산업단지

□ 개요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가 위치한 서부 아마존 지역은 아마조나스(Amazonas), 아끄레(Acre), 혼도니아(Rondonia), 호라이마(Roraima) 등의 4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의 수도는 마나우스(Manaus), 히우 브랑꾸(Rio Branco), 뽀르뚜 벨류(Porto Velho), 보아 비스타(Boa Vista)인데, 이 중 마나우스는 동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법령 nº 356/68 와 법령 8.387/91을 통해 아마조나스 주 마나우스 시에 설치된 자유 무역 지대는 1990년 시장개방 이전까지만 해도 브라질의 최대 공업지대였으나, 원거리에 따른 물류비용과 경기둔화로 한동안 침체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경기 회복과 함께 마나우스 지역 투자도 활기를 띠기 시작, 2002년 총 매출액 91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105억3,000만 달러로 16% 증가한 이후, 2004년에는 139억 달러, 2005년은 190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 현황도 199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5년 말 기준 총 근로자 수는 10만3,000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는 공업, 농축산업, 상업 등 3개의 대형 전문 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업 단지의 경우 현재 각종 첨단 기술을 보유한 45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마나우스 지역(ZFM)에는 수입관세 및 공업세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기전자, 오토바이, 생활용품 등 관련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으며, 다수의 정보통신제품 업체도 입주해 있다.

브라질 최대 수출자유무역지대인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의 조세특혜 제도는 그동안 두 번의 기한 연장을 거쳐 당초 종료 시기였던 2013년 보다 10년이 늘어난 2023년까지 발효될 예정이다.

□ 주요 혜택

ZFM 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는 SUFRAMA 와 SUDAM 을 통한 연방인센티브와 마나우스 주 상공관광국(SIC)을 통한 주정부의 인센티브 및 마나우스 시의 인센티브로 나뉘지며 감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면세를 적용한다.

1) 연방인센티브

연방인센티브는 수입관세 (II), 공산품세 (IPI), 소득세, 수출세(IE)의 감면으로 구성된다.

- 수입세(Imposto sobre Importação - I.I.)의 감면
 - 자본재를 포함한 외국산 상품이 내부소비를 위해 ZFM 에 유입될 경우 II 면제
 - Amazônia Ocidental 로 유입되는 합동부처령 (Portaria Interministerial) 제 300 호 (1996.12.20.)에 열거된 외산 제품에 대해 II 면제
 - 국내 판매를 위해 ZFM 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중간재, 포장재 등의 수입시 88% 수입세 감면
 - 일정요건을 갖추는 정보재의 생산 시 수입관세의 감면
 - 일정요건을 갖추는 자동차생산의 경우 수입관세의 감면
- 공산품세(IPI-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Industrialised Product Tax)의 감면
 - ZFM 생산품에 대한 IPI 면제
 - ZFM 에서 소모하는 외산품 (자본재 포함)의 경우 I.P.I. 면제
 - Portaria Interministerial nº 300/96 에 열거된 외산품으로서 Amazônia Ocidental 에서 소모되는 제품에 대해 I.P.I. 면제
 - ZFM 와 기타 Amazônia Ocidental 에 유입되는 국산품에 대해 I.P.I.면제
 - Amazônia Ocidental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목원자재와 식물추출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I.P.I. 면제

- 법인소득세(IR- Imposto de Renda; Income Tax)의 감면
 - 법인소득세에 대해 최대 75%까지 감면. 그러나 이득에 대한 사회기여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은 이러한 조세감면을 자본유보(capital reserve)로 장부 기입해야 하며 배당금(dividends)으로 사용할 수 없다.
- PIS(SOCIAL INTEGRATION PROGRAM)와 COFINS(SOCIAL SECURITY FINANCING CONTRIBUTION)의 감면: 수입품과 기업간 내부거래의 경우에는 PIS/COFINS 면제. 역외지역에 완제품을 판매할 경우 3.65%(예외 있음) 적용한다.
- 수출세(Imposto sobre Exportação- I.E.)의 면제
 - ZFM 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에 대해 수출세의 면제

2) 주 인센티브

주에서 부여하는 조세 인센티브는 주유통세(ICMS- State Service Tax)를 경우에 따라 55-100% 환급(tax credits)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조세 환급의 대가로 일정액의 교육 관광 진흥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 타주에서 ZFM 로 보내는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ICMS 의 면제
- 국산 공산품의 구매 시 아마존 주는 ICMS 세액공제(tax credit)
- 공산품에 대해 아마존주가 다음 형태의 ICMS 보전:
 - a) 최종 소비재- 45%
 - b) 자본재, 식품, 의류, 신발, 자동차등에 사용되는 소비재- 55~100%
 - c) 중간재, 농목업재, 주의 원자재를 이용한 재화- 최대 100%
 - d) 정보재, 주의 의약식물을 이용한 약품, 어업산품, 주 내에서 생산된 제품- 최대 100%
 - e) ZFM 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산 제품의 주와 주간 유통 시 적용되는 ICMS(6%)에 대해 50%의 추정 공제
- 원자재의 수입 시 ICMS 지불 연기
- 기업 자산 이전 시 ICMS 면제

3) 시 인센티브

- 10 년간 건물.토지세(IPTU- Imposto sobre a Propriedade Predial e Territorial Urbana) 면제
- 10 년간 도시정화 및 공공물 보존료 면제
- 10 년간 사업 허가료 면제

□ 신규 IT 단지

브라질 시장에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IT 업체의 경우,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등 브라질 주요 대도시의 그간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철회하거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구사하여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지가 아닌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벨로 오리존테(Belo Horizonte), 헤시페(Recife) 등의 신규 IT 단지들도 이미 많은 업체가 입주해 있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쿠리티바(Curitiba), 쿠이아바(Cuiaba), 나탈(Natal), 포르탈레자(Fortaleza), 상 루이스(São Luis) 등이 새로운 브라질판 실리콘 밸리로 부상하고 있다.

IT 기업을 유치할 경우 시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 증가, 시민 평균소득 증가, 첨단기술 보유로 인한 도시 이미지 제고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일정 수준의 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다수의 도시가 국내 및 해외투자 업체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 노무관리

브라질에서 모든 피고용인은 노동수첩을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수첩에는 노동법에서 정하는 모든 고용관계를 기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고용인은 채용한 모든 피고용인들에 관한 신상카드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록부는 반드시 노동부 산하 지역 노동부 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노동 기록부에는 모든 노동자들의 명단과 외국인 고용자, 미성년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브라질의 노동법은 약자로 전제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고용주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많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례가 많다. 또한 노동법전 이외에도 각 노조 합의 사항도 노동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아주 철저하게 노무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 고용조건

한번 체결한 고용조건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나 다음 사항은 노사 간의 상호 합의 여하를 불구하고 준수되어야 한다.

1) 근무지 이동 및 직책 변경

피고용인은 종전의 위치를 되찾는 조건 하에서만 책임직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 정상적인 경우, 고용인은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거주지 이동을 필요로 하는 근무지 이동을 발령할 수 없다. 단 피고용인의 동의가 있거나, 회사가 장소이동을 할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나 피고용인이 책임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용인이 근무지 이동을 명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근무지 이동이 일시적 성격일 경우에는 봉급의 25%에 해당하는 근무지 이동 수당 및 이전에 필요한 모든 부대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2) 복직

피고용인이 군복무 또는 시민의 의무이행을 위해 직장을 떠날 경우에 피고용인은 의무이행이 종료되면 다시 복직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피고용인은 부재기간 동안 그가 도달할 수 있었을 직위에 상당하는 혜택과 함께 전 직위에 복직할 수 있다. 피고용인은 외부활동이 종료된 후 30일 내에 복직 의사를 고용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건강사유로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피고용인은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보상급여를 받게 되며, 건강이 회복될 경우 모든 누적된 혜택과 함께 전 직위에 복직할 수 있다.

3) 미성년자

모든 미성년자는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 노동법상 제조업체 및 수송, 통신, 어업관련 업체의 미성년 견습공 비율은 총 숙련공의 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피고용인들 친척들에게 우선권이 있다.

나. 고용절차

최초 채용되는 피고용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일정기간(고용계약서에 명시)을 수습기간으로 간주하여 이 기간 동안 기본 급여보다 낮게 지급할 수도 있다.

고용계약에 근거, 지역 노동 감독국에서 발행한 노동수첩을 모든 노동자는 항상 지참, 사용하는 노동대장을 비치하여, 매년 감독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노동수첩(carteira de trabalho): 직종, 급여, 채용일, 계약기간, 근무조건 등 명시
- 대장: 노동부 등록내용, 종업원 자격, 초과근무 및 근로시간, 휴가 등
 - 외국기업의 현지법인인 경우, 주재원 1인당 2명의 현지인을 채용하여야 한다. 영주권 소지자로 10년이 경과한 자는 노동법의 적용상 현지인으로 간주한다.

다. 임금

□ 임금 수준

브라질의 임금수준은 남미국가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업체별, 지역별, 직급별로 차이가 큰 편이다. 통상 근로자에 대한 총 지출은 사회보장세, 상여금 등 월 급여의 2배에 달한다.

임금협상의 경우 직종별로 노조가 있으며, 매년 노조에서 결정된 임금 가이드 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브라질의 법정 최저임금은 415헤알(US\$1=R\$1.80)에 달하며 브라질 모든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다.

□ 퇴직금

모든 회사는 직원 월 급여의 8%를 근속연수 보상기금(일명 퇴직수당: FGTS: Fundo de Garantia do Tempo e Serviço)으로 Caixa Economica 국책은행에 적립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 적립금은 직원이 해고 당할 경우 일시불로 찾을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 해고 시에 이 적립금의 50%를 벌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40%는 해고 직원에게 지급, 10%는 다시 정부에게 지불함)

그러나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이 적립금을 퇴직 시에 찾을 수 없으며 회사는 벌금 50%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브라질 노동자들은 퇴사 의사가 있을시 이 FGTS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라도 해고되도록 유도함에 주의해야 한다.

라. 노동 조건

1) 노동 시간

□ 근로시간

정상적인 주 근무시간은 44시간이고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화이트 컬러 층은 대부분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월~금요일 근무한다. 그리고 일일 근무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 최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초과근무

기본임금의 최소 50% 이상 지급한다. 초과근무의 최대시간은 10시간 이내에서 일일 근무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컨대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 48분이라면(주 5일 44시간), 일일 초과 근무시간은 최대 1시간 12분을 초과할 수 없다.

□ 기타

이외에도 근무일을 기준으로 중식대(VR)을 지급해야 하며, 사무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루 5불 정도의 수준이다. 추가로 출퇴근 교통비(공공요금 기준) 경우에 따라서는 주유대를 지원해야 하기도 한다. 참고로 중식대, 교통비 등은 급여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쿠폰, 적립카드 등 노동법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 즉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동 비용들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했을 경우에는 정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2) 휴가

1년 근무 후 연 30일의 유급휴가와 월급 1/3의 휴가보너스 지급 의무가 있다. 출산 시에는 120일의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있으며 임신 사실을 안 이후로 출산 5개월까지 해고가 불가하다. 부인이 출산할 경우 남편은 5일간 유급 출산휴가의 권리가 있다.

2008년 7월 법정 출산휴가 기간이 4개월에서 최근 6개월로 연장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단 아직까지 6개월 출산휴가 실시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6개월 출산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지만, 일단 실시를 하게 되면 향후 모든 직원에게 6개월간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로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회사부담으로 매월 적립되는 사회보장세(INSS)에서 부담을 하며, 6개월간 출산휴가를 실시할 경우 4개월은 사회보장세에서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 2개월 분의 급여는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한다.

3) 해고

해고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를 제외한 회사에서 해고한 경우 그 동안 적립된 FGTS 금액의 40%를 벌금으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복지원에 대한 부담금(INSS: Instituto Nacional do Seguro Social)

INSS는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 실업보험, 노령연금의 역할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다. INSS는 법인, 개인이 징수 대상이며, 매월 고용주가 급여의 20%를 부담 하고 직원은 급여의 8~11%(월 급여 780.79헤알 이상 11%이므로 대부분 이에 해당됨)를 INSS로 납부해야 한다.

2) 연말 상여금(13 sala'rio: 13번째 월급)

직원 본봉의 100%를 통상 11월에 50%, 12월에 50%로 나누어 지급한다. 연말 상여금 개념의 월급이지만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바. 외국기술자 초청

외국인 기술자는 2년 계약으로 초청 가능하며, 2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계약 갱신과 함께 거주비자 신청은 법무부에 하여야 하며, 노동부는 단순히 의견만을 제시한다.

계약 갱신 후 현지거주 비자는 갱신 신청 접수 중 발급일로부터 유효하며, 직계 가족의 현지 거주 초청이 가능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21세 이상의 자녀는 초청이 불가능하나, 부양가족이라는 영사관의 증명이 있을 경우에만 현지 거주 초청이 가능하다.

□ 외국회사의 주재원 교체

주재원이 교체된 경우 신규 채용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교체 사실은 당해 현지회사가 브라질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교체증명은 종전 주재원의 출국확인이 날인된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노동부 신고 즉시 종전 주재원의 비자는 무효화된다.

사. 채용 시 유의사항

채용 면접 시 기혼 또는 미혼 여부와 퇴직 당시 회사의 추천서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노동 수첩 등 고용 관련 서류와 건강진단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근로시간과 관련, 토요일 휴무를 위한 보충노동 시간 결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근무개시 48시간 이내에 관련 기관 및 조합에 등록시켜야 한다.

1) 임신부

여성 노동자가 임신한 경우, 임신 사실이 통보된 때부터 출산 후 5개월까지는 해고가 불가능하다.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가 합석하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합 대표의 확인이 없는 경우, 임신부를 재고용 하거나, 퇴직 보상을 하여야 한다. 출산 후에는 근무개시와 동시에 건강 진단서를 청구해 두어야 한다.

2) 미성년자(14~18세)

취업, 경고, 해고, 급여 또는 가불 등의 지불 등 여하한 경우에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참석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화된다.

3) 건강진단서(EXAME MEDICO)

종업원의 건강에 커다란 문제가 예상되지 않는 소규모의 회사는 매 2년마다 건강진단서를 청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18세 미만과 45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매년 청구, 보관하여야 하며, 취업 및 퇴직 시에도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청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3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결근한 노동자가 재 출근할 때에도 건강진단서를 청구, 보관하여야 한다.

사후 직원이 업무로 인한 건강악화 등을 사유로 회사에 대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사무환경 및 직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사무실의 위험 노출도 점검 및 인증이 필요하고, 매년 1회씩 직원들의 건강진단서(의사 소견서)를 발부 받아 보유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4) 환자 확인(ATESTADO MEDICO)

피고용인이 환자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처(개인 또는 공립병원 의사 여부), 병원 진료 및 입원 기간과 1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에는 국제공용표기로 된 이유와 병명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병명이 기재된 환자확인서를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결근일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족 또는 친지의 병환으로 인해 결근을 하였을 경우에도 급여 공제가 가능하다.

아. 노동통계

직업별 임금 수준

직업	최저(R\$)	최고(R\$)	평균(R\$)	전월 대비 증감률
사무/ 판매/ 금융 분야				
카운터 업무	618	1.888	923	0
구매직				
초보 직원	1.012	3.228	2.174	1.1
숙련된 직원	1.760	5.801	3.075	0.1
장기근무 노련한 직원	2.120	7.161	4.421	0.2
안내직				
병원	727	2.496	1.119	0.9
호텔	925	1.908	1.414	0
일반 건물	471	1.823	962	0.8
비서직				
사장 비서 (외국어 사용)	2.190	5.167	3.250	0
사장 비서 (포어)	1.305	5.587	2.530	0.7
과장 비서 (포어)	1.696	4.345	2.125	0
비서 보조	1.104	2.987	2.036	0.1
회장 비서 (포어)	3.212	7.560	5.118	0.1
판매직				
기술 전문	742	4.815	3.015	0
소매	615	1.736	746	0
일반 판매	475	5.650	1.072	0.2

고위 관리직				
재무/경영	6.909	29.425	17.443	
경영	5.021	32.513	17.013	0
상무	5.670	28.619	17.126	0.2
재무	5.670	30.462	18.065	0
공장 관리	10.777	34.127	20.624	0
법무 관리	18.388	19.969	18.997	0
회장(사장)	14.420	49.041	29.330	0
인력관리	9.875	22.154	16.293	0
판매	12.080	29.657	18.713	0
중간 관리직				
인력 관리	5.505	9.497	8.119	0.6
판매 관리	2.824	13.584	8.457	0
재무 관리	2.167	14.744	6.559	0.4
경영 담당	2.275	19.449	6.180	0.3
감사 업무	3.027	13.387	5.875	0
판매 담당	3.002	17.741	7.491	0.1
구매 담당	2.290	13.387	8.142	0.7
생산 원가 관리	5.631	17.340	10.109	0
회계 담당	3.529	20.780	9.750	0.1
출납 담당	5.919	7.643	6.935	0
품질 관리	3.392	16.052	7.495	0
자금 조달 및 수금 담당	2.438	13.780	5.104	0.2
신제품 개발	7.866	13.288	10.097	2.4
인력 개발	3.359	7.646	5.954	0.8
시스템 개발	7.303	12.363	8.550	0
유통 및 운송	3.068	15.370	6.615	0
프로젝트 담당	7.952	16.204	11.187	0
제조 담당	3.651	10.765	4.487	0.9
판매 지정 관리	2.191	7.470	3.265	0
금융 담당	2.280	12.743	4.989	0.5
제품 그룹 관리	5.108	13.387	7.230	0
물류 및 공급	4.296	14.970	7.654	0
유지 보수	4.196	14.152	7.426	0.2
마케팅	3.168	15.433	7.095	0.1
국내영업	10.427	16.730	13.440	2.1
조사/ 개발 업무	7.680	19.460	14.252	0
생산 기획	9.440	11.561	10.285	0
정보 처리	4.855	9.995	7.205	0
생산	3.988	15.142	7.660	0.4
제품	5.300	13.900	9.080	0
프로젝트	6.243	13.110	9.154	0

기타 (중간 수준 임금 직종)				
컴퓨터				
컴퓨터 오퍼레이터	728	2.143	1.038	0
컴퓨터 시스템 오퍼레이터	670	3.895	1.435	0.3
텔레마케팅	475	1.834	833	0
프로그래머				
초보	746	2.846	1.920	0
중견	1.519	4.189	2.990	0.9
고참	2.283	5.926	2.321	0
기술직				
품질 관리	825	2.773	1.742	0
빌딩 건축	1.855	3.280	2.826	0.2
전기 분야	1.000	3.243	2.360	0
전자 분야	1.225	4.548	2.412	0.3
간호사	839	2.484	1.988	0.1
실험실	618	4.242	1.774	1.6
방사선 촬영	561	2.184	1.121	0.6
기타 (고임금 직종)				
변호사				
초보	1.519	4.159	2.718	0
중견	3.131	6.278	4.213	0
고참	3.738	9.890	5.338	0.7
건축설계사	1.817	9.147	3.861	0.7
감사 업무				
초보	1.098	2.675	2.181	0
중견	2.862	4.524	3.792	0
고참	3.758	7.571	5.669	0
도서관 사서	1.649	3.958	2.504	0.4
산업 디자이너	1.947	4.838	3.229	0.2
간호사 수장	3.582	11.887	5.151	2.6
병원 간호사	2.608	5.814	3.125	0.5
직장 상주 간호사	2.862	5.453	3.905	1.8
엔지니어				
건축 (초보)	1.961	4.435	3.111	0
건축 (중견)	3.348	8.708	4.550	0
건축 (고참)	6.475	10.580	8.526	0
약사	1.803	5.301	3.053	2.4
물리 치료사	1.205	2.876	1.949	0.5
일반 의사	2.975	5.721	3.571	0.7
산업 재해 전문의	1.799	6.551	4.443	0
영양사	1.100	6.358	2.627	1.3
심리 치료사	1.664	6.530	2.370	0.7
화학자	1.658	5.697	3.135	0.2
웹 디자이너	1.310	4.203	2.824	0

기타 직종				
호텔 여급	733	1.009	777	0
엘리베이터 근무	602	781	722	2.4
요리사	642	2.221	1.167	0.7
포장코너 근무	494	988	603	0
청소부	450	1.514	631	0
웨이터	662	2.058	971	0
정원사	450	1.344	733	0.2
자동차 세척	642	902	785	0
주차원	618	1.520	1.111	0.4
오토바이 운전	615	2.072	876	0
운전사				
트럭	814	2.120	1.139	0
사장 차량 운전	1.030	2.913	1.644	0
개인 운전사	741	2.727	1.230	0.2
경비	450	1.930	873	1.5
소방수	852	2.484	1.338	0.4
타이어 재생	783	1.337	976	0
목수	748	2.484	895	0
재봉사	567	1.184	698	2
전기 기술자				
자동차	783	1.605	1.199	0
설치	735	3.044	1.229	0
유지 보수	747	3.698	1.699	0
파이프 공	783	2.061	1.300	0.1
인쇄공				
off-set	1.203	3.253	1.765	0.3
기계공				
자동차	783	1.926	1.550	0
냉동기기	752	2.514	1.253	0.1
공사 감독	1.821	7.450	3.742	0
조립공	734	3.665	1.323	0
기계 작동				
히터	872	2.331	1.443	0.8
수작 드릴	1.080	3.007	2.455	0
인젝터	671	1.717	770	0
선반	829	1.942	1.036	0
벽돌 공				
공사 현장	783	1.615	921	0
보수	800	2.290	1.262	0.6
페인트 공				
보수	851	1.852	919	0
제품 도장	738	2.153	1.016	0.1
연마공	640	1.163	947	0
프레스 작동	739	1.863	1.212	0
기계 세팅	952	4.276	2.693	0
톱질	990	2.403	1.652	0
땜질	811	2.959	1.374	0
선반공				
기계 작동	1.222	3.761	2.603	0
보수/생산	1.231	2.961	1.915	0

주: 2008년 9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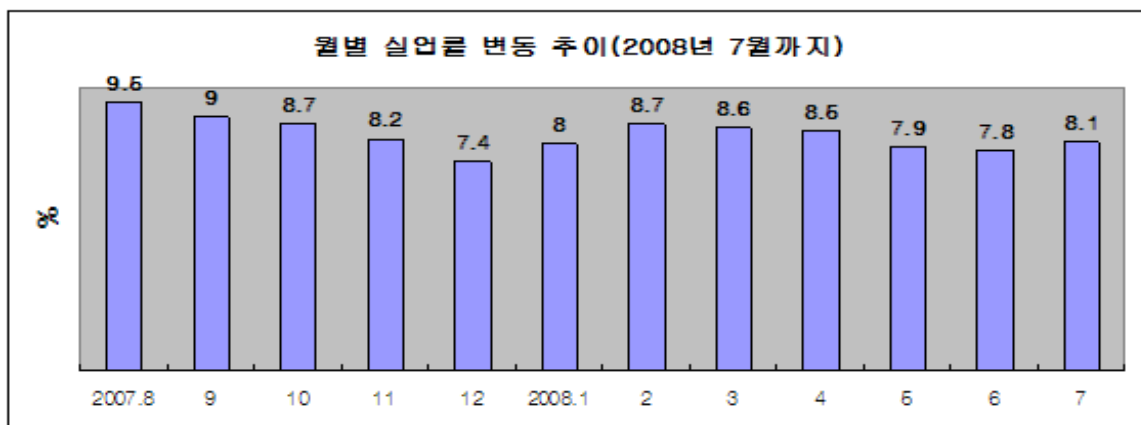
자료: 통계업체 Datafolha

연도별 최저 임금 (연방 정부 기준)

(단위: 헤알)

2000. 01	136,00	2001. 01	151,00	2002. 01	180,00
2000. 02	136,00	2001. 02	151,00	2002. 02	180,00
2000. 03	136,00	2001. 03	151,00	2002. 03	180,00
2000. 04	151,00	2001. 04	180,00	2002. 04	200,00
2000. 05	151,00	2001. 05	180,00	2002. 05	200,00
2000. 06	151,00	2001. 06	180,00	2002. 06	200,00
2000. 07	151,00	2001. 07	180,00	2002. 07	200,00
2000. 08	151,00	2001. 08	180,00	2002. 08	200,00
2000. 09	151,00	2001. 09	180,00	2002. 09	200,00
2000. 10	151,00	2001. 10	180,00	2002. 10	200,00
2000. 11	151,00	2001. 11	180,00	2002. 11	200,00
2000. 12	151,00	2001. 12	180,00	2002. 12	200,00
2003. 01	200,00	2004. 01	240,00	2005. 01	260,00
2003. 02	200,00	2004. 02	240,00	2005. 02	260,00
2003. 03	200,00	2004. 03	240,00	2005. 03	260,00
2003. 04	240,00	2004. 04	240,00	2005. 04	260,00
2003. 05	240,00	2004. 05	260,00	2005. 05	300,00
2003. 06	240,00	2004. 06	260,00	2005. 06	300,00
2003. 07	240,00	2004. 07	260,00	2005. 07	300,00
2003. 08	240,00	2004. 08	260,00	2005. 08	300,00
2003. 09	240,00	2004. 09	260,00	2005. 09	300,00
2003. 10	240,00	2004. 10	260,00	2005. 10	300,00
2003. 11	240,00	2004. 11	260,00	2005. 11	300,00
2003. 12	240,00	2004. 12	260,00	2005. 12	300,00
2006. 01	300,00	2007. 01	350,00	2008. 01	380,00
2006. 02	300,00	2007. 02	350,00	2008. 02	380,00
2006. 03	300,00	2007. 03	350,00	2008. 03	415,00
2006. 04	350,00	2007. 04	380,00	2008. 04	415,00
2006. 05	350,00	2007. 05	380,00	2008. 05	415,00
2006. 06	350,00	2007. 06	380,00		
2006. 07	350,00	2007. 07	380,00		
2006. 08	350,00	2007. 08	380,00		
2006. 09	350,00	2007. 09	380,00		
2006. 10	350,00	2007. 10	380,00		
2006. 11	350,00	2007. 11	380,00		
2006. 12	350,00	2007. 12	380,00		

자료: BACEN



자료: Suma Economica

대학 전공별 평균 임금

순위	직종	평균 임금
1	의과(석사 또는 박사)	8,966.07
2	경영학과(석사 또는 박사)	8,012.10
3	법률학과(석사 또는 박사)	7,540.79
4	경제학과(석사 또는 박사)	7,085.24
5	공학과(석사 또는 박사)	6,938.39
6	의과(학사)	6,705.82
7	기타 공학과(학사)	6,141.05
8	기계 공학과(학사)	5,576.49
9	건축공학과(학사)	5,476.85
10	기타 전공(석사 또는 박사)	5,439.32
11	기술 과학전공(석사 또는 박사)	5,349.96
12	지리학과(학사)	5,285.77
13	전기·전자 공학과 (학사)	5,231.07
14	군인	5,039.14
15	농학과(석사)	5,028.37
16	자연과학과(석사 또는 박사)	4,947.44
17	화공학/산업공학과(학사)	4,844.92
18	인문사회과학 전공(석사 또는 박사)	4,677.14
19	법학과(학사)	4,649.63
20	경제학과(학사)	4,644.67
21	농학(학사)	4,356.56
22	광고/마케팅학과(학사)	4,199.05
23	치의학과(학사)	4,075.63
24	경영학과(학사)	4,006.61
25	기타 과학 기술과 전공(학사)	3,949.86
26	석사 또는 박사학위 이수 중	3,928.07
27	문과/미술과(석사 또는 박사)	3,864.82
28	통계학과(학사)	3,846.21
29	건축학과/도시환경학과(학사)	3,835.08
30	수의학과(학사)	3,758.94
31	물리학과(학사)	3,516.52
32	화학과(학사)	3,516.52
33	사회정보학과(학사)	3,435.09
34	사범교육과(학사)	3,408.60
35	약학과(학사)	3,381.98
36	컴퓨터 공학과(학사)	3,325.40
37	기타 농업관련학과(학사)	3,278.04
38	교육학과(석사 또는 박사)	3,219.14
39	회계학과(학사)	3,105.60
40	기타인문사회학과(학사)	3,099.10

자료: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통계

8. 조세제도

가. 조세 구조

브라질의 조세체계는 연방, 주, 시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세금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연방세: 수출세(IE), 수입세(II), 농지소유세(ITR), 소득세(IR), 공산품세(IPI), 금융 거래세(IOF), 사회보장세, 수표세
- 주세(州稅): 상품유통서비스세(ICMS), 자동차보유세(IPVA), 상속 및 증여세
- 시세(市稅): 토지가목세(IPTU), 서비스세(ISS), 유류세 등
- 사회부담금

나. 조세 행정

연방세의 관리와 징수는 재무부의 관할 하에 있으며, 관세를 포함하여 브라질의 모든 국세의 행정은 세법과 관련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책임이 있는 국세청을 통해 수행된다. 연방정부는 사회 및 국민경제 이익에 관련된 주세 혹은 시세를 면제할 수 있다.

재무부는 연방국세청을 통해 법인과 개인에게 납세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는 CPF(Cadastro de Pessoas Físicas), 법인의 경우는 CNPJ(Cadastro de Pessoas Jurídicas) 번호라고 하며, 이러한 납세번호가 있어야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브라질의 세금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브라질 헌법에서는 「보족법」이 행정 기관(주, 연방 직할구, 시)의 사이에 있어 과세권(課稅權)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또한 각종 세금의 과세 한도, 각각의 세법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한다. 징수를 시행하는 단체는 연방, 주, 시이고, 이로 인해 세금은 연방세, 주세, 시세로 분류할 수 있다.

다. 세제의 대원칙과 법체계

브라질에 있어 세제의 대원칙은 아래와 같다. (연방, 주, 시 모두 적용)

- 조세법률의 원칙: 법률의 규정 없이 增稅 또는 세무강제의 금지
- 공평의 원칙: 동일한 조건하의 납세자에 대해, 격차를 두는 것을 금지
- 적용소급 금지: 과세나 증세를 제정한 법률의 발효이전에 발생한 稅源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의 금지
- 공포 연도 적용금지: 새로운 세금이나 기존 세금의 세율인상이 발령되었을 때, 그 동일한 연도에 同 법의 적용을 시행하는 것의 금지

각종 세금의 과세한도, 각각의 세법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하는 보족법이나, 조세에 관한 기본 규칙을 설정하는 조세법이 있다. 보족법이 정한 내용에 대한 각각의 변경은 법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령」이나 「세칙」으로서 나와 있다.

또한 대통령만이 내리는 잠정 조치령에 따라, 발령된 내용은 발령 후 30일 이내에 국회가 승인해서 법률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령 후 인정한 법률의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동일 내용을 발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라. 세 제

연방세(聯邦稅)인 수입세(輸入稅, II- Imposto de Importação), 소득세(所得稅, IR- Imposto de Renda), 공업제품세(工業製品稅, IPI - Imposto de Produtos Industrializados), 금융거래세(IOF), 수표세(CPMF -Contribuição Provisória sobre Movimentação ou Transmissão de Valores e de Créditos e Direitos de Natureza Financeira) 등의 외에, 주세(州稅)인 상품유통 서비스세(ICMS -Imposto sobre Circulação de Mercadorias e Prestação de Serviços), 시세(市稅)인 서비스세(ISS-Imposto sobre Serviço de Qualquer Natureza) 등이 있다. 이 외에 각종 사회부담금(PIS-COFINS)이 존재한다.

1) 연방세

- 소득세(IR): 실질이익에 따라, 세율은 15%
- 법인세(IRPJ): 실질이익에 따라 월액 2만 헤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
- 공업제품세(IPI): 수입공업제품의 통관, 제조시설 및 제조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로부터 공업 제품의 반출에 대해 과세. IPI 세율표에 의한다.
- 수입세(II): 수입 시 과세
- 수출세(IE): 어떤 상품이 국내에서 공급부족이 발생했을 때 과세
- 농지소유세(ITR): 시가지 외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
- 금융거래세(IOF): 금융기관/보험회사에 의해서 행해진 신용거래, 외환거래 등에 관계된다. 같은 기업 그룹 또는 다른 기업간, 법인과 자연인 사이에서 체결된 대부금 계약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2) 주세

- 상품유통 서비스세(ICMS): 일종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것으로 각 주에 따라 징수되고, 상품의 유통이나 통신, 운수서비스 등에도 적용된다. 상파울루 경우 일반적으로 18~25%가 적용된다.
- 자동차보유세(IPVA)

3) 시세

- 도시부동산 소유세(IPTU): 부동산의 시가에 대해 산정
- 부동산 양도세(ITBI): 생존자간의 부동산 양도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 누진적으로 과세된다.
- 서비스세(ISS): 역무(노동력을 요하는 작업) 제공을 행하는 법인이나 개인의 受取 대가에 대해서 부과된다.

4) 사회부담금

사회부담금(PIS-COFINS)은 국민의 건강이나 연금 및 약자구제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고용주, 노동자,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복권 등의 부담자에 의해서 재원이 확보된다. 세액이 법인의 매출액이나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고, 징수는 연방 국세청이 시행하기 때문에 세금에 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금, 부담금 외에 공공요금도 헌법에 조세의 일종으로서 규정되어 있다.

- 사회보험 융자부담(COFINS): 모든 서비스나 상품의 총 매출액을 대상으로 3%이며 수출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 사회통합계획(PIS): 매출액과 제공된 서비스에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0.65%. 수출 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 공무원 후생연금(PASEP)
- 잠정 금융거래 부담(CPMF): 현금 및 수표의 발행, 자금운용 등 당좌 예금으로부터의 인출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과세된다.
- 사회기부금(CSLL): 국내에 주소를 소유하는 모든 법인과 법인지위의 대우를 받는 자에게 부담의무. 부담금 표준액은, 법인세 공제하기 전 이익에 몇 가지 加算 항목, 減算 항목에 대해서 조정을 행한 금액으로 한다.

마. 기타 주요 부담금

1) 사회복지원(INSS)에 대한 부담금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 실업보험, 노령연금의 역할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다. INSS는 법인, 개인이 징수 대상이고, 개인의 경우, 급여에 대응해서 비율이 결정되고 있고, 고용주(법인)의 경우, 일반기업과 금융·보험회사에서 부담율이 다르다.

2) 근속연수 보상기금(FGTS)

각 종업원의 급여지급액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과세되고(8.5%), 그 금액은 종업원 명의 FGTS 전용구좌로 예금된다. 종업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해당구좌의 FGTS잔고에 40% 가산한 금액을 고용주가 지급해야 한다.

바. 유의사항

투자결정 때에도 본사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투자 후 기업을 운영할 때 가장 곤란한 문제점의 하나가 브라질의 조세제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브라질에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고 담세율이 너무 높다. 2007년 기준 브라질 전체 GDP의 38%를 정부가 직·간접세로 거둬들이기 때문에 국민이나 기업은 정부를 쳐다보며 살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브라질의 우수한 두뇌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에 몰려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것이 개도국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조세제도의 문제점은 과도한 담세율 외에도 과세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이 약간만 부주의 해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탈세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과세기준에 여러 가지 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려면 소위 세무 관리 비용이 너무 높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예 탈세하는 것이 세무 관리에 더 유리하다는 말도 있다.

정부가 조세개혁을 위해 지난 14년간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조세의 종류를 줄이려는 노력이 없는 한 근본적인 조세개혁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기업의 세무관리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어 곪아터지기 때문에 기업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세무 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하여 관련 담당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기업 내 세무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주요 세금 종류 및 세율 구분

세금명	약자	세율	내용	구분
Imposto de Renda da Pessoa Fisica	IRPF	1,257.12헤알까지 면제 1,257.13~2,512.08 헤알: 15% 2,512.08헤알 이상: 27.5%	개인소득세	연방
Imposto de Renda da Pessoa Juridica	IRPJ	15%	법인세	연방
Contribuicao ao Instituto Naacionalde SeguridadeSocial	INSS	노동자 급여 공제 11%, 고용 주부담 20%	사회복지원에 대한 부담금	연방
Imposto Predial de Territorial Urbano	IPTU	평균 1~3%	가옥세(재산세)	시
Impostosobre Proriedade de VeiculosAutomotores	IPVA	평균 1~6% 차종과 연도에 따라 다르며 예외가 있음	자동차세	주
Impostosobre Opercoes Financeiras	IOF	금융투자및신용거래: 1.5% 외환 및 보험 등: 25%	금융거래세일종 의신용거래세로서 대출, 보험, 회환, 채권등금융상품 투자과관련된세금	연방
Impostosobre Circulacao de Merca dorias e Servicos	ICMS	평균 14%(주마다 다르고 품목마다 예외가 있음. 상파울루주의경우통상18%)	주유통세	주
Imposto sobre Pro dutos Industrializados	IPI	평균 4%(품목마다 다름)	공산품세	연방
Imposto sobre Servi- Cos de Qualquer Natu reza	ISS또는 ISQN	평균 1.5%~5%(서비스의 종 류와 시에 따라 다름)	서비스세	시
Contribuicao Social sobre o Lucro	CSSL	9%	기업의 연간이윤 에 관한 세금	연방
Salario-Educacao	-	2.5%	교육세. 직원의 급 여 중 회사가 지 불하는 세금	연방
Sistema“S” (Sesc,Sesi, Senai, Senac, Sebrae, etc)	-	1~2.8% (기업활동에 따라 다름)	직원의 급여 중 회 사가 지불하는 세금	연방

자료: Almanaque 2007

기업의 세율 계산

과세 전 소득	100만 헤알	1000만 헤알
사회기여세(9%)	9만 헤알	90만 헤알
과세 대상 소득	100만 헤알	1000만 헤알
연방 소득세		
총 과세 대상 소득의 15%	15만 헤알	150만 헤알
2만 헤알 이상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10%의 초과세 (surtax)	9만 8천헤알	99만 8천헤알
연방 소득세 합계	24만 8천 헤알	249만 8천 헤알
조세부담 총계	33만 8천 헤알	229만 8천 헤알
총 조세부담률	33.8%	34%
과세 후 소득	66만 2천 헤알	660만 2천 헤알

주: 2006년 월 1백~1천만 헤알 사이의 소득을 얻는 기업의 소득세 계산 사례

자료: EIU(2007년 기준 미발표)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관리

국내통화발행 및 유통 통화금액은 중앙은행만이 관리할 수 있다. 외환시장은 1999년 2월에 무역, 금융외환시장으로 결합되어 있다.

1) 통화관리

브라질 중앙은행이 지표금리와 인플레이션 목표에 기초해서 국내통화발행 및 유통통화 금액을 관리한다. 통화의 국외로의 유출입에 대한 컨트롤은 국내통화의 유통규정(모든 채무는 국내 통화만으로 정산)에 따라, 중앙은행만이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브라질 내에서 외국통화의 유통은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있지 않다.

브라질의 외환시장은 무역·금융외환시장(무역거래, 브라질 국내에서 외화기준 투자, 브라질 거주자에 대한 외화기준 대부 등) 및 관광외환시장(당초 관광산업용으로 설치, 후에 다른 거래도 커버하기 위해 쓰여짐)의 2종류가 있었지만, 1999년 2월에 무역·금융외환 시장으로 통합되었다.

환율은 공정 환율(Cambio comercial), 암시장 환율(Cambio Paralelo) 등으로 구분되며 2008년 9월 22일 기준 달러 대 헤알화 환율은 1달러=1.80헤알이다. 미국 경제 위기 등으로 전 세계적인 약달러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브라질에서는 외국자본의 철수로 인한 수요 증대로 달러화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미국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조만간 달러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것이 현지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2) 자본도입을 위한 기본제도

브라질에 대한 외국자본도입은 기본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투자 형태로 시행할 수 있다. 직접투자로는 브라질 국내 기업에 대해서 투자되는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유한회사, 주식회사, 기타). 간접투자는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이고 국내에 회사를 설립할 필요는 없다. 브라질에 대한 간접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외국투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아래는 주요한 사례이다.

□ AnnexIV

이 메커니즘은 외국에 설립되어 있는 기관투자자로 증권거래위원회(CVM)에 등록되어 있고, 브라질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시행하는 자가 대상이다. 본 메커니즘에서 발생한 자본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고 있다. 단, 외국자본이 Tax heaven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에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7년 3월 20일 중앙은행 決議 1289호)

□ CC5(Carta Circular N-5 중앙은행 通達 5 번에 의한 비거주자용 회계)를 개입시켜 투자

비거주자용 고정수익증권 및 변동수익증권에 대한 금융투자. 이와 관련해서, 상기 2종류의 투자(AnnexIV 및 CC5)는 중앙은행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3) 자본의 등록

외국자본은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록함으로써 등록증명이 발행된다. 이 등록증명은 이익의 국외송금, 자금 상환, 재투자자의 등록, 무역·금융의 환산을 설정을 위해 필요하다. 투자는 항상 실제 투자가 행해진 외국통화기준으로 등록된다.

4) 재투자

외자법에서 재투자라는 것은 브라질에 설립된 기업이 취득해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귀속하는 이익을, 동일 기업 또는 국내의 다른 경제부문에 재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의 투자자가 이익을 송금하는 대신 재투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액을 최초의 투자와 함께 외국자본으로 등록할 수 있다.

5) 자본의 본국 상환

중앙은행에 등록된 외국자본은 언제라도 사전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본국으로 회수할 수 있다. 등록을 필한 금액을 초과하는 송금은 외국 투자자의 자본이익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로서 15%가 징수된다.

6) 조세협약

브라질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나라들과 조세협약을 맺고 있다.

일반적으로 브라질은 브라질 법이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 및 시민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소득세에 관한 공제를 허용한다.

□ 이중과세 방지 조세 협약국

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중국,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덴마크, 에콰도르,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인도,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남아공, 필리핀, 멕시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나. 자금조달

해외 시장에 투자 진출한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기업 자본금과 차입금을 1:2의 비율로 구성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관례다. 이때 차입금에는 현지 금융을 활용하는 방법과 해외 금융을 활용하는 방법 2가지로 구분된다.

브라질의 경우, 신용도가 높은 초 우량 기업에게 연 12~13%의 금리를 적용하여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며, 브라질 개발은행(BNDES)의 경우 연 10% 이하의 저리 융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게 융자금을 대출할 경우 보통 연 15~20%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2008년 9월 기준, 기준금리(Selic)는 13.75%로 브라질은 터키 다음으로 금리가 높다.

다. 은행구좌 개설

브라질은 수표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고 치안 불안으로 인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수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기앞수표 개념과 다른 개인 당좌수표가 대부분이며 수표 사용 시에는 현장에서 수표에 서명 날인하여 발행한다.

따라서 현지화 당좌계좌 개설은 필수적이며, ID 등이 발급된 후 정식으로 계좌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지화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주로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달러화 계좌는 Citi bank, Bank Boston(Itaú 은행이 브라질 Bank Boston을 인수함) 등 외국계 은행뿐만 아니라 Real 은행 등 브라질 은행에서도 개설이 가능하나 송금 및 달러 인출 시 수수료가 비싸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브라질 시장 특성

1) 시장 규모

브라질의 2007년 GDP는 1조3,100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해당하며 남미 전체 GDP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남미 최대 경제 대국이다.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다. 반면, 1인당 국민소득은 6,930달러로 한국에 비하면 한참 뒤지는 수준이다. 브라질의 인구는 약 1억 9,000만 명으로 세계 5위이며, 면적도 851만㎢로 세계 5위이다.

2) 내수중심 시장

브라질은 막대한 천연자원과 인구로 인해 수출 촉진보다는 내수중심시장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 1998년부터 수출촉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이미 수출 1000억불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최근의 세계경제의 브라질 원자재 수요로 인해 해알화 강세 현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 시장개방 역사가 짧다

브라질은 1990년부터 시장개방이 시작됐으나 전문 수입상이 많지 않고 수입상들도 무역 실무에 밝지 않은 경우가 많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대외개방도가 낮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며 무역의존도도 한국처럼 높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와는 달리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수입상품의 대량 반입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달러 가치 하락으로 수출시장을 포기한 채 존폐 위기에 시달리는 업체도 있어 무역동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4)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커

브라질은 세계 500대 기업 중 450개 이상의 기업이 브라질에 현지 투자를 하고 있거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

반면 다국적 기업들의 기술이전 기피와 과거 브라질 정부의 고 이자율 정책 및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 추진으로 중소기업이 발달되지 않는 상강 하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5)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한 소비구조 이분화

브라질은 빈부격차가 심하여 부유층의 경우 선진국의 유명브랜드, 고가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나 중산층 이하의 경우 저가제품,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6) 완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 적용

브라질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현지 생산이 부족한 부품 및 원자재의 경우 영세율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7)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 기반 최고

브라질은 세계적인 자동차, 항공기, 철강 생산국으로서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 기반이 가장 발달했다.

8) 지역별로 특성 달라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파울루의 경우 이탈리아계와 함께 독일계, 시리아 및 레바논계, 유대계, 일본계, 중국계, 한국계들이 주로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빠라나 주, 산타카타리나 주, 리우그란지두술 주 등 남부지역의 경우 독일계와 이탈리아계가 다수를 차지한다. 북동부의 바이아 주의 경우 포르투갈계와 흑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해당 민족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나. 한국상품 인지도

브라질에서 한국인 브라질 이민은 45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여성 의류업 종사에 따른 고급 이미지가 확대되었으며, 한국산에 대한 호감도도 형성되었다.

또한, 한국 가전업체 생산기반 구축에 따라 일류 이미지로 급부상했다. 삼성전자, LG 전자의 “브라질을 통한 중남미 전략”에 따른 현지 투자 진출로 진정한 한류가 브라질 내에 도입

되었고, 한국의 세계 일류 Image를 확대 시키는 견인차로 부상했고, 최근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진출 발표로 한국 기업 및 상품 인지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투자 진출 기업(삼성 전자, LG 전자)은 축구 중주국의 중심지인 상파울루 최고의 프로 축구단을 후원하면서 한국 우호 세력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LG와 삼성의 가전제품, 휴대폰 등은 브라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상위를 차지해 어느 곳을 가든 쉽게 접할 수 있다.

브라질인들에게 비춰지는 브라질 한인 사회의 이미지에는 ‘근면, 성실함, 절약 정신, 추진력, 창의력을 가진 민족’과 같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종업원을 착취하는 업주’, ‘유럽 및 미국 디자인을 모방한 후 염가에 판매해 브라질 의류업계에 타격을 입힘’ 등의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 양면성을 보인다.

그러나 삼성, LG 등의 기업들이 브라질 내에서 성공적인 운영을 함에 따라 “한국=첨단 제품이 발달한 나라, 자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해 자기네 나라보다 단기간에 앞서게 된 나라” 등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축구 강국이어서 한국의 2002년 월드컵 개최와 함께 한국을 기억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은 편이다.

다. 유통채널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이 판매를 리드하여 점유율 54%를 차지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은 전통적인 소매, 잡화점, 빵집, 정육점 등이 판매의 67%를 차지한다. 브라질의 이러한 특징은 고인플레이션 시절 문화의 영향에서 유래, 대규모 유통체인이 항상 더 나은 가격으로 물품 제공 가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브라질 유통구조는 크게 재래식 시장과 현대식 시장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재래식 시장의 경우 중산층, 저소득층,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시장으로서 철저한 가격 경쟁 중심, 비공식적 유통구조, 조세회피 현상이 극심하다.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보다는 가격 경쟁력에 따른 영업망 확보와 달러 베이스 거래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자제품 시장인 Santa Ifigenia, 장신구 및 잡화 시장 25 de Marco, 중저가 의류 시장 Bom Retiro 와 Bras, 가구 및 악기 시장 Teodoro Sampaio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재래 시장은 막대한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도매시장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현대식 시장은 고소득층, 중산층을 중심으로한 고객층을 갖고 있는데 품질, 디자인이 주요 소비 요인이 되고 있고, 경쟁적이며 공식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조세 회피가 적다.

□ 브라질 유통망 구축방안

브라질에서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브라질 최대 소비지역인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리우 데 자네이루, 꾸리찌바, 브라질리아 등 상권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 즉, 아래와 같은 순서로 판매망을 늘려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 1 개: Sao Paulo
- 2 개: Sao Paulo, Rio de Janeiro
- 3 개: Sao Paulo, Rio de Janeiro, Curitiba
- 4 개: Sao Paulo, Rio de Janeiro, Curitiba, Brasilia
- 5 개: Sao Paulo, Rio de Janeiro, Curitiba, Brasilia, Salvador

현지 유통업체들이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상을 통해 주로 구매하고 주로 저가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제품 공급업체가 주로 수입상이므로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유통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수입상을 물색하여 수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분야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품을 직접 홍보하는 한편, 현지 전문 유통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맺어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정보 및 유통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브라질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해 세계 11위를 차지하므로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고 신문, 전문지 광고를 활발히 하면서 언론 홍보사를 운영하는 등 홍보 전략도 중요하다.

라. 유망상품

브라질 수출유망품목

연번	품목명	선정 사유
1	비디오 도어폰	- 브라질에서는 치안불안에 따라 보안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비데오 도어폰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비데오 도어폰의 경우 현지 생산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2	컴퓨터 주변기기	- 브라질 정부의 국민 PC 정책 및 국민 laptop 정책 등으로 PC 및 주변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3	DVR	- 브라질의 치안불안에 따른 보안장비 수요증가와 업체 간 경쟁 치열로 DVR(Digital Video Recorder)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증가세에 있음.
4	인쇄회로기판(PCB)	-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로서 소비재 전 제품, 통신제품, 자동차제품, 자동차산업 발달로 이들 분야에 기본 부품으로 사용되는 인쇄회로기판(PCB)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큼.
5	ADSL/무선 인터넷	- 브라질의 인터넷 사용자 급증과 초고속 인터넷 장비업체 간 경쟁 치열에 따라 ADSL을 비롯한 초고속 인터넷 장비 수요가 급증 - 브라질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현재 주로 공항, 커피숍, 대학 등에 설치되어 시험서비스 단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며 본격적인 시장확대가 예상
6	GPS	- 브라질의 치안불안에 따른 차량 도난 사건 증가로 위치추정 시스템(GPS)에 대한 수요가 2001년부터 급속히 성장함. 최근에는 GPS 기능을 갖춘 무선 통신기기의 보급 확대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전망이다.
7	셋톱 박스	- 디지털 TV 일본방식을 채택하고 향후 몇 년 내에 대폭 보급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TV 소유자들은 셋톱 박스 설치가 필요함. 이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기대됨.
8	전선 및 케이블	- 브라질의 늘어나는 전력수요, 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미루어 볼 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정이며 브라질 국내 업체는 이러한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가지 못해 수입이 증가 하고 있음.
9	온라인 게임	-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라그나로크, 프리스톤데일이 독점 중
10	의료기기	- 브라질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서는 브라질 보건 위생 당국(ANVISA)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하는 제약 조건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은 중남미 최대 규모여서 우리 기업의 진출전망이 밝으며, 특히 초음파 진단기, CT 촬영기 등 첨단 의료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2. 물가 정보

가. 상파울루(브라질) 기초 통계 자료

	2003	2004	2005	2006	2007
명목 1인당 GDP (USD)	2,789	3,417	4,321	5,705	6,930
명목 물가상승률 (%)	9.3	7.6	5.7	3.1	4.5
명목 임금상승률 (%)	-	1.7	-	4.9	-
미화 대비 연평균 환율	3.08	2.93	2.43	2.18	1.95

나. 상파울루(브라질) 물가정보(1 USD = 1.6377 BRL)

번호	항 목	가격(USD)
1. 식재료		
1.1	쌀 1kg	1.37
1.2	밀가루 1kg	1.28
1.3	백설탕 1kg	0.72
1.4	스파게티 면(엔젤헤어) 1kg	2.15
1.5	계란 12 개	2.32
1.6	햄 1kg	8.34
1.7	베이컨 1kg	3.30
2. 육류		
2.1	쇠고기 등심 1kg	9.01
2.2	쇠고기 안심 1kg	15.87
2.3	돼지고기 목살 1kg	7.63
2.4	돼지고기 등심 1kg	4.49
2.5	닭고기 가슴살 1kg	5.57
3. 어패류		
3.1	냉동새우(중간크기) 1kg	9.10
3.2	대합조개 1kg	5.26
3.3	연어(생) 1kg	10.26
3.4	냉동참치 1kg	6.72
4. 낙농품		
4.1	우유 500ml	1.05
4.2	요거트 150g	0.60
4.3	치즈(슬라이스) 500g	3.43
4.4	버터 500g	1.58
4.5	마가린 500g	1.56
4.6	바닐라 아이스크림 473ml	6.66
5. 유지		
5.1	식용유 1L	2.00
5.2	올리브오일 1L	9.71
6. 과일		
6.1	사과 1kg	4.12
6.2	오렌지 1kg	1.34
6.3	레몬 1kg	0.85
6.4	바나나 1kg	1.37

7. 채소		
7.1	양배추 1kg	1.10
7.2	양상추 1kg	1.48
7.3	당근 1kg	1.01
7.4	양송이 버섯 1kg	4.31
7.5	감자 2kg	1.94
7.6	양파 1kg	1.40
7.7	토마토 1kg	2.58
8. 과자 및 당류식품		
8.1	스낵과자 130g	1.16
8.2	초콜릿 100g	1.95
8.3	씨리얼(콘플레이크) 375g	3.43
9. 음료		
9.1	탄산음료 250ml 캔 6 팩	9.38
9.2	생수 1L	1.04
9.3	오렌지쥬스(100%) 1L	2.72
9.4	아메리카노 커피(전문점)	2.75
9.5	카페라떼 커피(전문점)	3.36
9.6	인스턴트커피 125g	3.47
9.7	Ground 커피 500g	11.37
9.8	홍차 티백 25bags	0.97
9.9	코코아 250g	3.61
10. 주류		
10.1	맥주 355ml 캔 6 팩	7.58
10.2	스카치 위스키(750ml) 1 병	122.12
10.3	와인 750ml	48.79
11. 담배		
11.1	담배 1 갑	1.98
12. 패스트푸드		
12.1	햄버거 1 개	4.58
12.2	치킨 런치세트 1 개	5.43
12.3	치즈피자 라지 1 판	17.65
13. 잡화		
13.1	치약 150g 1 개	1.01
13.2	샴푸 400ml	3.68

13.3	칫솔 1 개	3.36
13.4	화장비누 1 개	0.44
13.5	면도기 1 개	3.36
13.6	전기 면도기	182.57
13.7	건전지 AA size 4 개 1 세트	6.71
13.8	미용용 화장지 1 통	1.56
13.9	화장실 롤 티슈 12 롤	2.50
13.10	세탁용 세제 3L	6.06
13.11	섬유 유연제 1L	3.41
13.12	주방용 세제 750ml	0.59
13.13	살충제(스프레이 식) 330g	4.95
13.14	전구 60W 2 개(백열등)	1.01
14. 의류 및 신발		
14.1	남자정장	4,878.69
14.2	여자정장	1,892.86
14.3	여성핸드백	1,666.94
14.4	아동복	183.18
14.5	청바지	244.24
14.6	남자코트	1,343.32
14.7	여자코트	1,526.50
14.8	티셔츠	122.12
14.9	신사화	604.49
14.10	숙녀화	769.36
14.11	드라이크리닝(정장 한 벌)	18.32
15. 가구		
15.1	소파 3 인용(패브릭)	140.38
15.2	침대 쿤 사이즈 매트리스	408.49
16. 의료비		
16.1	의료보험료 4 인가족 1 년	793.78
16.2	병원진료비(의료보험 X)	91.59
16.3	병원진료비(의료보험 O)	무료
16.4	진통제 10 정	2.39
16.5	해열제 100 정	6.00
16.6	흉부 x-ray 비용 1 회	91.59
16.7	치과 방문 1 회(스켈링 1 회)	109.91
16.8	제왕절개수술	4,884.80
17. 자동차 및 차량유지		
17.1	경승용차 900-1299cc	16,904.46
17.2	소형승용차 1300-1799cc	30,758.98
17.3	중형승용차 1800-2499cc	42,103.92
17.4	대형승용차 2500-3500cc	88,253.07
17.5	초대형 3500cc 이상	94,643.00
17.6	무연휘발유 1L	1.65
17.7	LPG(단위파워 당)	0.77
17.8	경유 1L	1.13
17.9	자동차 등록비(2000cc 신차)	31.02
17.1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 신차)	51.63

17.11	자동차보험료 임의(2000cc 신차)	1,826.14
17.12	엔진 오일 1 회 교체 비용	15.81
18. 교통비		
18.1	도심 1 시간 주차료	4.88
18.2	지하철 기본요금(1 구간)	1.47
18.3	시내버스 기본요금	1.40
18.4	택시 기본요금	1.95
18.5	택시 1km 당 추가요금	1.10
18.6	철도이용료(100km)	1.53
19. 통신이용료		
19.1	전화개통비 1 회선	66.65
19.2	전화사용료 월 기본요금	23.69
19.3	전화요금(시내) 3 분	0.18
19.4	국제전화 3 분	4.52
19.5	휴대전화개통비	-
19.6	휴대전화사용료 월표준 1 분	-
19.7	인터넷가설비 (최소 DSL)	무료
19.8	인터넷 월사용료 (최소 DSL)	48.79
19.9	국내우편 일반편지 1 통	0.55
19.10	국제우편 일반편지 1 통 (현지~서울)	1.22
19.11	특급우편 1kg 이하(현지~서울)	43.35
20. 주택환경 및 공공요금		
20.1	아파트 월 임차비용 150 m ²	1,404.38
20.2	단독주택 월 임차비용 150 m ²	1,526.50
20.3	중개수수료 월 임차료의 % (단독주택)	100%
20.4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의 % (단독주택)	400%
20.5	가정용 전기요금 kWh	0.15
20.6	가정용 가스요금 m ³	0.62
20.7	가정용 수도요금 m ³	0.45
20.8	케이블 TV 1 달(기본)	39.63
21. 가전제품		
21.1	LCD TV 40 인치	2,259.22
21.2	DVD Player 범용형	115.40
21.3	냉장고 600 리터 급	3,662.99
21.4	세탁기 10kg (드럼형)	3,663.06
21.5	전자렌지 20 리터급	304.69
21.6	에어컨	915.29
21.7	토스터기 1 개	60.45
21.8	식기세척기 24 인치(폭)	1,892.25
21.9	데스크탑 본체	1,215.09
21.10	노트북	3,657.49
21.11	컴퓨터 프린터기	115.40
22. 문화서비스 및 도서		
22.1	복사용지 1 권 250 매 (A4 또는 Letter Size)	7.63

22.2	개봉극장 입장료 1 회 (성인)	10.01
22.3	DVD 타이틀 1 개 (신작)	18.26
22.4	공연 best seat (유지컬, 대형극장)	82.43
22.5	도서 1 권 (신작 소설)	34.50
22.6	CD 앨범 1 장 (대중음악 신작 앨범)	17.34
22.7	해당국 유력 일간 신문 1 년 구독료	315.99
23. 교육		
23.1	유치원 수업료 1 년(사립)	4,865.26
23.2	초등학교 수업료 1 년(사립)	5,495.40
23.3	중학교 수업료 1 년(사립)	6,264.76
23.4	고등학교 수업료 1 년(사립)	8,712.04
23.5	국공립 대학교	무료
23.6	사립 대학교	671.66
23.7	전문대학	732.72
23.8	외국인 학교 초등 수업료 1 년	23,190.59
23.9	외국인 학교 중등 수업료 1 년	23,190.59
23.10	외국인 학교 고등 수업료 1 년	27,081.33
24. 외식 및 숙박		
24.1	패밀리레스토랑 4 인	213.71
24.2	특급 호텔(5성급) 1 박	164.86
24.3	중급 호텔(3성급) 1 박	97.70
24.4	특급 호텔(5성급) 조식	21.37
24.5	중급 호텔(3성급) 조식	9.16
25. 스포츠		
25.1	골프장 그린피(퍼블릭)	112.96
25.2	골프공 1 다스(12 개)	70.22
25.3	피트니스 클럽 1 년 이용료	1,343.32
26. 임금		
26.1	사무직 일반 초임 (대졸)	735.30
26.2	사무직 비서 초임 (대졸)	1,906.67
26.3	생산직 일반 초임 (학력무관)	1,145.43
26.4	가정부 시간 당 임금 (주중)	30.53
26.5	베이비시터 시간 당 임금 (주중)	48.85
27. 미용 서비스		
27.1	여성 헤어컷 1 회	24.42
27.2	남성 헤어컷 1 회	21.37
28. 화장품		
28.1	바디로션	4.82
28.2	영양크림	138.00
28.3	스킨로션	72.05
28.4	밀크로션	133.72
29. 관공서 요금		
29.1	여권 발급 비용	95.30
29.2	신규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비용	14.99
30. 노동환경		
30.1	주당 법정근무시간	44 시간
30.2	출산휴가일수	180 일

30.3	연간 국경일수	12 일
------	---------	------

* 비교

2.3	허리고기
3.1	400g
3.2	400g(작은 조갯살 기준)
4.1	1L
4.2	170ml
4.3	8 장
4.4	200g
4.6	1L
5.1	750ml
5.2	500ml
7.2	1 개
7.4	200g
7.5	1Kg
8.3	240g
9.1	350ml 12 캔
9.2	1.5L
9.6	200g
9.8	12bags
9.9	400g
13.1	90g
13.2	250ml
13.5	2 개
13.9	4 롤 기준
13.10	1.9kg
13.11	2L
13.12	500ml
13.13	300ml
16.4	4 정
16.5	30 정
16.8	병실 포함. 의료진 비용별도.
19.6	50 분 무료통화 패키지 \$30.53
20.4	일반적으로는 보증금 없이 보증인 활용
23.6	월 기준
28.1	유사제품
28.2	유사제품
28.3	유사제품
28.4	유사제품
30.3	주 및 시 마다 달라짐

3. 바이어 발굴

가.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무역관련 사이트 활용

국내외 무역사이트에 수없이 많은 buying offer가 등록되어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용이 편리하며, 관심 바이어를 찾아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사용하여 접촉을 시도해 본 뒤 업체가 관심을 보일 경우 카탈로그 및 제품 샘플을 보낸다.

- 국내 무역 관련 사이트
 - www.kotra.or.kr
 - www.kita.net,
 - www.alibaba.com
 - www.ec21.com,
 - www.thomasregister.com
 - www.ecplaza.net
 - www.silkroad21.co.kr

2) 브라질 산업협회 사이트 활용

포르투갈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브라질 산업 연맹 및 산업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확한 시장 정보 확보 및 바이어를 발굴하는 방법도 있다. 일부 사이트는 영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접속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대부분의 협회 사이트에는 회원 명단이 분야별로 등록되어 있어 관심 바이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관심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고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바이어와 접촉한다.

- 상파울루 경제인 연합회
 - FIESP(Federação das Indústrias do Estado de São Paulo)
 - www.fiesp.org.br

■ 산업별 협회 및 단체 리스트

1) 설탕 및 알코올

- COPERSUCAR(Cooperativa de Produtores de Cana, Açúcar e Alcool do Estado de São Paulo Ltda.: 상파울루 주 사탕수수, 설탕, 알코올 생산업 협동조합)
 - Tel.: (55-19) 3404.5113/5268
 - Fax: (55-19) 3451.1914
 - Site: www.copersucar.com.br
- 사탕수수 산업협회(UNICA-União da Indústria de Cana-de-Açúcar)
 - 주소: Av Brig Faria Lima 2179 9ºandar Cep 01452 000 São Paulo SP Brasil
 - Tel: (55 -11) 3093- 4949
 - Fax (55- 11) 3812 1416
 - Site: www.unica.com.br

- 바이오에너지 생산협회(UDOP-União dos Produtores de Bioenergia)
 - 주소: Praça João Pessoa, 26, CEP16010-450 Araçatuba, SP, Brasil
 - Tel: (55-18) 2103-0528
 - Site: www.udop.com.br

2) 비료

- AMA-BRASIL- Associação dos Misturadores de Adubos do Brasil(브라질 비료혼합업 협회)
 - Tel.: (55-11) 3214-4272
 - Fax: (55-11)3214-4948
 - Site: www.amabrasil.agr.br
- ANDA- Associação Nacional para Difusão de Adubos(비료보급협회)
 - Tel.: (55-11) 3255-9277
 - Fax: (55-11) 3214-2831
 - Site: www.anda.org.br

3) 우주항공

- AIAB- Associação das Indústrias Aeroespaciais do Brasil(브라질 우주항공산업협회)
 - Tel.: (55-12) 3931-2721
 - Fax: (55-12) 3933-0657
 - E-mail: presidencia@aiab.org.br
 - Site: www.aiab.org.br
- INPE- Instituto Nacional de Pesquisas Espaciais(우주연구원)
 - Tel: (55-12) 3945-6000
 - Site: www.inpe.br
- CTA- Centro Técnico Aeroespacial(우주항공 기술센터)
 - Tel: (55-12) 3947-6654/6682/6655
 - Fax (55-12) 3941-3700
 - Site: www.cta.br

4) 식품

- ABECITRUS- Associação Brasileira dos Exportadores de Cítricos(오렌지과 과일 수출협회)
 - Tel.: (55-16) 620-5766
 - Fax: (55-16) 620-7036
 - Site: www.abecitrus.com.br
- ABEF- Associação Brasileira dos Produtores e Exportadores de Frangos(브라질 닭고기 생산·수출업체 협회)
 - Tel.: (55-21) 2493-5007
 - Fax: (55-21) 2493-5007
 - Site: www.abef.com.br

- ABIA- Associação Brasileira das Indústrias de Alimentação(브라질 식품산업협회)
 - Tel.: (55-11) 3038-1353
 - Fax: (55-11) 3814-6688
 - Site: www.abia.org.br
- ABICAB-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de Chocolate, Cacau, Balas e Derivados(브라질 초콜릿, 카카오, 사탕 생산 업체 협회)
 - Tel.: (55-11) 3266.4366 Fax: (55-11) 3266.4366
 - Site: www.abicab.org.br
- ABIEC- Associação Brasileira das Indústrias Exportadoras de Carnes Industrializadas(브라질 가공육 수출업 협회)
 - Tel.: (55-11) 3813-1277
 - Fax: (55-11) 3032-5997
 - Site: www.abiec.com.br
- ABIMA- Associação Brasileira das Indústrias de Massas Alimentícias(브라질 파스타 생산협회)
 - Tel.: (55-11) 3815-3233
 - Fax: (55-11) 3815-3233 ramal 117
 - Site: www.abima.com.br
- ABIP-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de Panificação e Confeitaria(브라질 제과제빵 협회)
 - Tel.: (55-31) 3335-4998
 - Fax: (55-31) 3335-4998
 - Site: www.abip.org.br
- ABITRIGO-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do Trigo(브라질 밀 생산협회)
 - Tel.: (55-21) 2262-6436/3118
 - Fax: (55-21) 2262-7161
 - Site: www.abitrigo.com.br

5) 자동차

- ABEIVA- Associação Brasileira das Empresas Importadoras de Veículos(브라질 자동차 수입업체협회)
 - Tel.: (55-11) 3078-3989
 - Fax: (55-11) 3168-2348
 - Site: www.abeiva.com.br
- AEA- Associação Brasileira de Engenharia Automotiva(브라질 자동차공학협회)
 - Tel.: (55-11) 5575-9043
 - Fax: (55-11) 5571-4590
 - Site: www.aea.org.br

- ANFAVEA- Associação Nacional dos Fabricantes de Veículos Automotores(브라질 자동차 생산협회)
 - Tel.: (55-11) 5051-4044
 - Fax: (55-11) 5051-4044, ramal 225
 - Site: www.anfavea.com.br
- FABUS- Associação Nacional dos Fabricantes de Carrocerias para Ônibus(버스 차체 생산협회)
 - Tel.: (55-11) 3361-8034
 - Fax: (55-11) 223-9384
 - Site: www.fabus.com.br
- FENABRAVE- Federação Nacional da Distribuição de Veículos Automotores(자동차 유통업연맹)
 - Tel.: (55-11) 5582-0000
 - Fax: (55-11) 5582-0070
 - Site: www.fenabreve.org.br
- SINDIPEÇAS- Sindicato Nac. da Indústria de Componentes para Veículos Automotores(자동차 부품 산업조합)
 - Tel.: (55-11) 3848-4848
 - Fax: (55-11) 3848-4848
 - Site: www.sindipecas.org.br

6) 음료

- ABINAM- Associação da Indústria de Águas Minerais(브라질 미네랄워터 산업협회)
 - Tel.: (55-11) 3167-2008
 - Fax: (55-11) 3167-2008
 - Site: www.abinam.com.br
- ABIR- Associação Brasileira das Indústrias de Refrigerantes(브라질 청량음료 산업협회)
 - Tel.: (55-21) 2262-3426
 - Fax: (55-21) 2526-1065
 - Site: www.abir.org.br
- ABRABE- Associação Brasileira de Bebidas(브라질 음료수 생산협회)
 - Tel.: (55-11) 3079-6144
 - Fax: (55-11) 3067-6381
 - Site: www.abrabe.org.br
- AGAVI- Associação Gaúcha de Vinicultores(히오 그란지 두 술 주 포도주 생산협회)
 - Tel.: (55-54) 292-1184
 - Fax: (55-54) 292-1184;
 - Site: www.agavi.com.br

- ABC- Associação Brasileira da Cachaça(까샤샤 산업협회)
 - Tel.: (55-81) 3523-8031, 3513-8014
 - Fax: (55-81) 3523-0332
 - Site: www.pitu.com.br *Cachaca: 브라질 전통 증류주
- SINDICERV- Sindicato Nacional da Indústria da Cerveja(맥주 산업조합)
 - Tel.: (55-11) 3071-3478
 - Fax: (55-11) 3168-5830
 - Site: www.sindicerv.com.br

7) 자본재

- ABDIB-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fra-Estrutura e Indústrias de Base(브라질 기초산업협회)
 - Tel.: (55-11) 3094-1950
 - Fax: (55-11) 3094-1949
 - Site: www.abdib.org.br
- ABIMAQ-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de Máquinas e Equipamentos(브라질 기계장비산업협회)
 - Tel.: (55-11) 5582-6311, 6428
 - Fax: (55-11) 5582-6312
 - Site: www.abimaq.org.br
- SIMEFRE- Sindicato Interestadual da Indústria de Materiais e Equipamentos Ferroviários e Rodoviários(도로 및 철로장비산업조합)
 - Tel.: (55-11) 289-9166
 - Fax: (55-11) 289 5823
 - Site: www.simefre.org.br

8) 이륜차

- ABRACICLO -Associação Brasileira de Fabricantes de Motocicletas, Ciclomotores, Motonetas e Bicicletas(브라질 이륜차 생산협회)
 - Tel.: (55-11) 5041-0766
 - Fax: (55-11) 5041-0766
 - Site: www.abraciclo.com.br

9) 장난감

- ABRINQ- Associação Brasileira dos Fabricantes de Brinquedo(브라질 장난감 산업협회)
 - Tel.: (55-11) 3816-3644
 - Fax: (55-11) 3031-0226
 - Site: www.abrinq.com.br

10) 커피

- ABIC-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de Café(커피 산업협회)
 - Tel.: (55-21) 2516-8595
 - Fax: (55-21) 2263-0398
 - Site: www.abic.com.br
- ABICS- Associação Brasileira das Indústrias de Café Solúvel(브라질 인스턴트 커피 산업협회)
 - Tel.: (55-11) 288-0893
 - Fax: (55-11) 3284-1702
 - E-mail: abics@telnet.com.br

11) 펄프 제지

- ABTCP- Associação Brasileira Técnica de Celulose e Papel(브라질 제지 펄프 산업 기술협회)
 - Tel.: (55-11) 3874-2700
 - Fax: (55-11) 3874-2730
 - Site: www.abtcp.com.br
- BRACELPA- Associação Brasileira de Celulose e Papel(브라질 제지 펄프 산업협회)
 - Tel.: (55-11) 3885-1845
 - Fax: (55-11) 3885-3689
 - Site: www.bracelpa.org.br

12) 전기·조명

- SINDICEL- Sindicato da Indústria de Condutores Elétricos, Trefilação e Laminação (조명·전기산업조합)
- de Metais Não-Ferrosos do Estado de São Paulo
 - Tel.: (55-11) 3846-4828
 - Fax: (55-11) 3846-4828
 - Site: www.sindicelabc.org.br

13) 건축

- ABCP- Associação Brasileira de Cimento Portland (브라질 portland시멘트 생산협회)
 - Tel.: (55-11) 3760-5300
 - Fax: (55-11) 3760-5310
 - Site: www.abcp.org.br
- ABPC- Associação Brasileira dos Produtores de Cal(브라질 석회 생산협회)
 - Tel.: (55-11) 3258-5366
 - Fax: (55-11) 3257-4228
 - E-mail: abpc@abpc.org.br
 - Site: www.abpc.org.br

- ANFACER- Associação Nacional dos Fabricantes de Cerâmica para Revestimento (마감재용 세라믹 제품 생산 협회)
 - Tel.: (55-11) 3289-7555
 - Fax: (55-11) 3287-9624
 - Site: www.anfacer.org.br
- ANAMACO- Associação Nacional dos Comerciantes de Material de Construção (브라질 건축자재 생산 협회)
 - Tel.: (55-11) 3896-7300
 - Fax: (55-11) 3896-7303, 07
 - E-mail: publicidade@braudes.com.br
- APEOP- Associação Paulista de Empreiteiros de Obras Públicas(상파울루 공공사업 협회)
 - Tel.: (55-11) 3255.5199
 - Fax: (55-11) 3231.1957
 - E-mail: apeop@apeop.org.br
- ASBEA- Associação Brasileira dos Escritórios de Arquitetura(브라질 건축사무소 협회)
 - Tel.: (55-11) 3167-5650
 - Fax: (55-11) 3167-5650
 - E-mail: luiz.contier@contier.com.br
- ASFAMAS- Associação Brasileira de Fabricas de Materiais e Equip. Para Saneamento (브라질 공중위생 장비 산업 협회)
 - Tel.: (55-11) 3023-2245
 - Fax: (55-11) 3023-2245
 - E-mail: asfamas@asfamas.org.br
- CBIC - Câmara Brasileira da Indústria da Construção(브라질 건설업협회)
 - Tel.: (55-61) 327-1013
 - Fax: 327-1393
 - Site: www.cbic.org.br
- SINDUSCON-SP- Sindicato da Indústria da Construção do Estado de S. Paulo (상파울루 건설협회)
 - Tel.: (55-11) 3224-0566
 - Fax: 3224-8266
 - Site: www.sindusconsp.com.br
- SNIC - Sindicato Nacional da Indústria do Cimento(시멘트 산업조합)
 - Tel.: (55-21) 2531-1314
 - Fax: (55-21) 2531-1469
 - Site: www.snic.org.br
- SINAENCO- Sindicato Nacional das Empresas de Arquitetura e Engenharia Consultiva (엔지니어링·건축업체조합)
 - Tel.: (55-11) 3123-9200
 - Fax: (55-11) 3120.3629

14) 컨설팅

- ABECE– Associação Brasileira de Engenharia e Consultoria Estrutural(건축 공업협회)
 - Tel.: (55-11) 3097-8591
 - Fax: (55-11) 3813-5719
 - Site: www.abece.org.br
- ABEMI– Associação Brasileira de Engenharia Industrial(브라질 공업 엔지니어링 협회)
 - Tel.: (55-11) 251-0333
 - Fax: 3251.0761
 - Site: www.abemi.org.br

15) 화장품

- ABIHPEC–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de Higiene Pessoal, Perfumaria eCosméticos
(브라질 화장품, 개인위생품, 향수 산업 협회)
 - Tel.: (55-11) 251-1999
 - Fax: 3266-5387
 - Site: www.abihpec.org.br

16) 가죽 제화

- ABICALÇADOS– Associação Brasileira das Indústrias de Calçados(브라질 제화 산업협회)
 - Tel.: (55-51) 594-7011
 - Fax: 594-8011
 - Site: www.abicalcados.com.br
- BRAMEQ– Associação Brasileira das Indústrias de Máquinas e Equipamentospa os
Setores do Couro, Calçados e Afins(신발, 가죽제품용 기계장비 산업 협회)
 - Tel.: (55-51) 594-2232
 - Fax: 594-2232
 - Site: www.abrameq.com.br
- ASSINTECAL–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de Componentes para Calçados
(브라질 제화 부품 산업 협회)
 - Tel.: (55-51) 594-2158
 - Fax: (55-51) 594-2283/5845201
 - Site: www.assintecal.org.br
- CICB– Centro das Indústrias de Curtume do Brasil(브라질 가죽 산업 센터)
 - Tel.: (55-61) 224.1867
 - Fax: (55-61) 323-7943
 - Site: www.brazilianleather.com.br

16) 농약

- SINDAG- Sindicato Nacional da Indústria de Defensivos Agrícolas(브라질 농약 생산 조합)
 - Tel.: (55-11) 5094-5533
 - Fax: (55-11) 5094-5534
 - Site: www.sindag.com.br

17) 전기

- ABILUX -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da Iluminação(브라질 조명 산업 협회)
 - Tel.: (55-11) 251-2744
 - Fax: (55-11) 3251-2558
 - Site: www.abilux.com.br

18) 전자

- ABINEE-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Elétrica e Eletrônica(브라질 전기전자산업협회)
 - Tel.: (55-11) 3251-1577
 - Fax: 3285-0607
 - Site: www.abinee.org.br
- ABRACI - Associação Brasileira de Circuitos Impressos(브라질 인쇄회로 생산 협회)
 - Tel.: (55-11) 5539-8066
 - Fax: 5081-6966
 - Site: www.abraci.org.br
- ELETROS- Associação Nacional de Fabricantes de Produtos Eletro eletrônicos (전자제품 생산 협회)
 - Tel.: (55-11) 5181-8821
 - Fax: (55-11) 5181-8821
 - Site: www.eletros.org.br

19) 포장

- ABRE- Associação Brasileira de Embalagens(브라질 포장협회)
 - Tel.: (55-11) 3082-9722
 - Fax: (55-11) 3081-9201
 - Site: www.abre.org.br

20) 에너지

- ABRACE- Associação Brasileira de Grandes Consumidores Industriais de Energia (브라질 산업용 에너지 주요 소비업체 협회)
 - Tel.: (55-11) 3284-4065/3570
 - Fax: (55-11) 288-3882
 - Site: www.abrace.org.br

21) 의약품

- ABIFARMA-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Farmacêutica(브라질 의약품 협회)
 - Tel.: (55-11) 3046-9292
 - Fax: (55-11) 3849-0133
- ABIQUIF-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Farmoquímica(브라질 약품·화학공업 협회)
 - Tel.: (55-21) 2220-3005
 - Fax: (55-21) 2524-6506
 - Site: www.abiquif.org.br
- SINDUSFARM- Sindicato da Indústria de Produtos Farmacêuticos no Estado de São Paulo(상파울루 의약품 조합)
 - Tel.: (55-11) 3849-5944 W
 - Fax: (55-11) 3845-0742

22) 철도

- ABIFER-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Ferroviária(브라질 철도산업 협회)
 - Tel.: (55-11) 289-1667
 - Fax: (55-11) 3171-2286
 - Site: www.abifer.org.br

23) 섬유(파이버)

- ABRAFAS- Associação Brasileira de Produtores de Fibras Artificiais e Sintéticas (브라질 인조·합성섬유 협회)
 - Tel.: (55-11) 3823-6161
 - Fax: (55-11) 3825-0865
 - Site: www.abrafas.org.br

24) 사진

- ABIMF-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de Material Fotográfico(브라질 사진 산업협회)
 - Tel.: (55-11) 5561-4084
 - Fax: (55-11) 5561-5461
 - E-mail: abimf@telnet.com.br

25) 담배

- ABIFUMO-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de Fumo(브라질 담배산업 협회)
 - Tel.: (55-61) 322-1367
 - Fax: 224-6111
 - Site: www.abifumo.org.br

- AFUBRA- Associação dos Fumicultores do Brasil(브라질 담배산업자 협회)
 - Tel.: (55-51) 3713-7700
 - Fax: (55-51) 7789-7710
 - Site: www.afubra.com.br
- SINDIFUMO- Sindicato da Indústria de Fumo no Estado do Rio Grande do Sul(히우 그란지 두 술 주 담배산업 조합)
 - Tel.: (55-51) 3713-1777
 - Fax: (55-51) 3711-2317

26) 보석

- IBGM- Instituto Brasileiro de Gemas e Metais Preciosos(브라질 보석 연구원)
 - Tel.: (55-61) 326-3926
 - Fax: (55-61) 328-6721
 - Site: www.ibgm.com.br

27) 인쇄

- ABIGRAF-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Gráfica(브라질 인쇄업 협회)
 - Tel.: (55-11) 5087-7777
 - Fax: (55-11) 5087-7733
 - Site: www.abigraf.org.br
- BTG- Associação Brasileira de Tecnologia Gráfica(브라질 인쇄기술 협회)
 - Tel.: (55-11) 6693-9535
 - Fax: (55-11) 292-4544
 - Site: www.abtg.org.br

28) 컴퓨터

- ASSESPRO- Associação das Empresas Brasileiras de Software e Serviços de Informática(브라질 정보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협회)
 - Tel.: (55-21) 2507-7181
 - Fax: (55-21) 2507-7181
 - Site: www.assespro.org.br

29) 금속

- ABAL- Associação Brasileira do Alumínio(브라질 알루미늄산업 협회)
 - Tel.: (55-11) 5084-1544
 - Fax: 5549-3159
 - Site: www.abal.org.br
- ABIFA- Associação Brasileira de Fundição(브라질 주조(주물)업 협회)
 - Tel.: (55-11) 3266-7331
 - Fax: (55-11) 3266-5659
 - Site: www.abifa.org.br

- ABITAM–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de Tubos e Acessórios de Metal
(금속제품 및 튜브 산업 협회)
 - Tel.: (55-21) 2262-3882
 - Fax: (55-21) 2533-1872
 - Site: www.abitam.com.br
- ABM– Associação Brasileira de Metalurgia e Metais(브라질 금속공업 협회)
 - Tel.: (55-11) 5536-4333
 - Fax: 5044-4273
 - Site: www.abmbrasil.com.br
- ABRAFE– Associação Brasileira dos Produtos de Ferroligas e de Silício Metálico
(브라질 Ferro-Alloy 산업 협회)
 - Tel.: (55-31) 3274-3185
 - Fax: (55-31) 3274-3151
 - E-mail: abrafe.bhz@zaz.com.br
 - Site: www.abrafe.Indústriabr
- IBS– Instituto Brasileiro de Siderurgia(브라질 제철공업연구원)
 - Tel.: (55-21) 2141-0001
 - Fax: (55-21) 2262-2234
 - Site: www.ibs.org.br
- ICZ– Instituto de Metais Não-Ferrosos(비철금속 개발원)
 - Tel.: (55-11) 3887-2033
 - Fax: (55-11) 3885-8124
- SICETEL– Sindicato Nacional da Indústria de Trefilação e Laminação de Metais
Ferrosos(브라질 철금속 가공산업 조합)
 - Tel.: (55-11) 3285-3522
 - Fax: (55-11) 3251-2864
 - Site: www.sicetel.org.br
- SINDIFORJA– Sindicato Nacional da Indústria de Forjaria(철제공업 조합)
 - Tel.: (55-11) 3022-3188
 - Fax: (55-11) 3022-2194
 - Site: www.sindiforja.org.br

30) 중소기업

- SEBRAE– Serviço Brasileiro de Apoio às Micro e Pequenas Empresas(중소기업지원 서비스센터)
 - Tel.: (55-61) 348-7128
 - Fax: (55-61) 347-3581
 - Site: www.sebrae.org.br

31) 석유 광물

- IBP- Instituto Brasileiro de Petróleo(브라질 석유개발원)
 - Tel.: (55-21) 2532-1610
 - Fax: (55-21) 2220-1596
 - Site: www.ibp.org.br
- IBRAM- Instituto Brasileiro de Mineração(브라질 광업진흥원)
 - Tel.: (55-61) 226-9367
 - Fax: (55-61) 226-9580
 - Site: www.ibram.org.br
- ONIP- Organização Nacional da Indústria do Petróleo(국가 석유산업기구)
 - Tel.: (55-21) 2563-4615
 - Fax: (55-21) 2563-4616
 - E-mail: onip@onip.org.br
 - Site: www.onip.org.br/

32) 목재 가구

- ABIMCI-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da Madeira Processada Mecanicamente
(브라질 가공 목재 생산 협회)
 - Tel.: (55-41) 225-4358
 - Fax: (55-41) 225-4358
 - Site: www.abimci.com.br
- ABIMOVEL- Associação Brasileira das Indústrias do Mobiliário(브라질 가구산업협회)
 - Tel.: (55-11) 3813-7377
 - Fax: (55-11) 3813-1366
 - Site: www.abimovel.org.br
- ABIPA-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de Painéis de Madeira(브라질 목재 패널 생산협회)
 - Tel.: (55-11) 5584-0884
 - Fax: (55-11) 5584-0884
- ABPM- Associação Brasileira de Preservadores de Madeira(브라질 목재보호 협회)
 - Tel.: (55-11) 3714.7738
 - Fax: (55-11) 3767.4614
 - Site: www.abpm.com.br
- AIMEX- Associação das Indústrias Exportadoras de Madeiras do Pará(파라 주 목재 수출업 협회)
 - Tel.: (55-91) 242-7161
 - Fax: (55-91) 242-7342
 - Site: www.aimex.com.br

- MOVERGS- Associação das Indústrias de Móveis do Estado do Rio Grande do Sul(히우 그란지 두 술 주 가구산업 협회)
 - Tel.: (55-4) 452-1024
 - Fax: (55-54) 451-3599
 - Site: www.movergs.com.br
- SINDIMOV- Sindicato das Indústrias do Mobiliário de São Paulo(상파울루 가구산업 조합)
 - Tel.: (55-11) 3255-8011
 - Fax: (55-11) 3255-9563
 - Site: www.sindimov.org.br

33) 조선

- SINAVAL- Sindicato Nacional da Indústria da Construção Naval(조선업체 조합)
 - Tel.: (55-21) 2533-4568
 - Fax: (55-21) 2533-5310
 - E-mail: sinaval@mandic.com.br
- SYNDARMA- Sindicato Nacional das Empresas de Navegação Marítima(해운 업체 조합)
 - Tel.: (55-21) 2223-1202
 - Fax: (55-21) 2233-0230
 - Site: www.syndarma.org.br
 - E-mail: syndarma@syndarma.org.br

34) 기술 규정

- ABIPTI- Associação Brasileira das Instituições de Pesquisa Tecnológica(가솔조사 협회)
 - Tel.: (55-61) 340-3277
 - Fax: (55-61) 273-3600
 - Site: www.abipti.org.br
- ABNT- Associação Brasileira de Normas Técnicas(브라질 기술. 규정 협회)
 - Tel.: (55-21) 3974-2300
 - Fax: (55-21) 2220-1709
 - Site: www.abnt.org.br

35) 식용유

- ABIOVE- Associação Brasileira das Indústrias de Óleos Vegetais(브라질 식용유 산업협회)
 - Tel.: (55-11) 5536-0733
 - Fax: (55-11) 5536-9816
 - Site: www.abiove.com.br

36) 플라스틱

- ABIPLAST -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do Plástico(브라질 플라스틱 산업협회)
 - Tel.: (55-11) 3060-9688
 - Fax: (55-11) 3060-9686
 - Site: www.abiplast.org.br

37) 타이어

- ANIP- Associação Nacional da Indústria de Pneumáticos(브라질 타이어산업 협회)
 - Tel.: (55-11) 3060-9499
 - Fax: (55-11) 3060-9496
 - Site: www.anip.com.br

38) 청소용품

- ABIPLA- Associação Brasileira das Indústrias de Produtos de Limpeza e Afins(브라질 청소용품 생산협회)
 - Tel.: (55-11) 3816-2762/3405
 - Fax: (55-11) 3031-6578
 - Site: www.abipla.org.br

39) 화학품

- ABICLOR-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de Álcalis e Cloro Derivados(알칼리, 클로르 부산물 생산 협회)
 - Tel.: (55-11) 3258-0497, 9527
 - Fax: (55-11) 3231-5993
 - Site: www.abiclor.org.br ou www.clorosur.org
- ABIFINA- Associação Brasileira das Indústrias de Química Fina, Biotecnologia e suas Especialidades(브라질 바이오테크놀로지산업 협회)
 - Tel.: (55-21) 2544-6129
 - Fax: (55-21) 2220-9287
 - Site: www.abifina.org.br
- ABIQUIM-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Química(브라질 화학공업협회)
 - Tel.: (55-11) 3242-1144
 - Fax: (55-11) 3242-0919
 - Site: www.abiquim.org.br
- SIQUIRJ- Sindicato da Indústria de Produtos Químicos para Fins Industriais do Estado do Rio de Janeiro(리오 주 산업용 화학제품 생산업체 조합)
 - Tel.: (55-21) 2220-8424
 - Fax: (55-21) 2240-5490
 - Site: www.siquirj.com.br

40) 냉장

- ABRAVA- Associação Brasileira de Refrigeração, Ar Condicionado, Ventilação e Aquecimento(에어컨, 통풍, 냉난방 협회)
 - Tel.: (55-11) 221-5777
 - Fax: (55-11) 222-4418
 - Site: www.abrava.com.br

41) 비누

- ABISA- Associação Brasileira das Indústrias Saboeiras(비누생산 업체)
- Tel.: (55-21) 2262-3449
- Fax: (55-21) 2262-3449

42) 통신

- ABERIMEST- Associação Brasileira das Empresas Revendedoras, Instaladoras e Mantenedoras de Equipamentos e Sistemas de Telecomunicações (정보 통신기기·시스템 업체 협회)
- Tel.: (55-11) 3825-6533
- Fax: (55-11) 3823-6122
- Site: www.aberimest.org.br
- ABRAFORTE- Associação Brasileira de Fornecedores de Redes Multisserviços em Telecomunicação(다중 서비스 정보통신 업체 협회)
- Tel.: (55-11) 3444-7997
- Fax: (55-11) 3444-7997
- Site: www.abraforte.org.br
- ABTA- Associação Brasileira de Telecomunicações por Assinatura(브라질 케이블 TV협회)
- Tel.: (55-61) 322-0066
- Fax: (55-61) 322-0066
- Site: www.abta.com.br

43) 섬유(방직)

- ABIT-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Têxtil(브라질 섬유산업협회)
- Tel.: (55-11) 3666-0101
- Fax: (55-11) 3667-8209
- Site: www.abit.org.br
- ABRAPA- Associação Brasileira dos Produtores de Algodão(브라질 면화생산협회)
- Site: www.abrapa.com.br
- ABRAVEST- Associação Brasileira do Vestuário(브라질 의류협회)
- Tel.: (55-11) 6909.1054
- Fax: (55-11) 6909-1075
- Site: www.abravest.org.br

44) 페인트

- ABRAFATI- Associação Brasileira dos Fabricantes de Tintas(브라질 페인트 산업협회)
- Tel.: (55-11) 3845-8755
- Fax: (55-11) 3845-8755
- Site: www.abrafati.com

- SITIVESP- Sindicato da Indústria de Tintas e Vernizes do Estado de São Paulo (상파울루 페인트 산업 협회)
 - Tel.: (55-11) 3262-4566
 - Fax: (55-11) 3289-5780
 - Site: www.sitivesp.org.br

45) 애완동물

- SINDAN- Sindicato Nacional da Indústria de Produtos para Saúde Animal(브라질 애완동물용품 산업협회)
 - Tel.: (55-11) 3044-4749
 - Fax: (55-11) 3044-4212
 - Site: www.sindan.com.br

46) 유리

- ABIVIDRO- Associação Técnica Brasileira das Indústrias Automáticas de Vidro (브라질 유리산업협회)
 - Tel.: (55-11) 3255-3033
 - Fax: (55-11) 3255-4457
 - Site: www.abividro.org.br

나.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시장조사 의뢰

KOTRA와 같이 정부 기관이나 믿을 만한 전문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수출 희망 아이টে에 관한 시장조사 대행을 의뢰하면 유력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다. KOTRA의 경우, 본사 고객 지원센터 또는 지방 국내 무역관을 통해 해당 무역관에 조사대행 서비스를 신청하고 시장 조사의 방향과 희망 수집 자료의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조사유형은 시장 동향 조사, 관심 바이어 발굴 조사(7개사 이상), 해외 현장 정보 확인, 해외투자사전 정보 조사, 해외 잠재 투자 파트너 조사 등 희망 유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2) 전시회 참가

국제 전시회는 바이어 발굴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적은 비용으로 커다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다양한 전시회 정보가 KOTRA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브라질 전시회 정보 전문 사이트 UBRAFE, 개발 상공부 홈페이지 등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 전시회 정보 사이트 UBRAFE: www.ubrafe.com.br 영문 서비스
- 개발상공부: www.mdic.gov.br
 - (http://www.desenvolvimento/sdp/calFeirasexposicoes/feiExposicoes_P.php)
- 전시회 전문 업체
 - Reed- Alcantara Machado- www.alcantara.com.br
 - Francal- www.francal.com.br

- CIPA- www.cipanel.com.br
- VNU Business Media- www.vnu.com.br

우리 업체들이 참가 유망한 전시회는 EXPOSEG(중남미 최대 보안장비 전시회로서 매년 5월경 열림), Hospitalar(중남미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로서 매년 6월경 열림) 등이다.

3) 무역 상담회 참가

국내외에서는 끊임없이 무역 상담회가 열린다. 최근에는 서울시 등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KOTRA, 무역협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협력하여 사절단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으며 상담회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 출장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므로, 경비를 줄일 수 있다. 2008년 상파울루 시장 개척단은 약 15개가 예정되어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KOTRA 본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4) 대사관 및 영사관 활용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 수출 희망 분야 관련 정보 또는 유망 바이어 리스트를 구해 줄 것을 부탁해 본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의외로 쉽게 바이어를 발굴할 수도 있다.

5) 카탈로그 활용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라면 카탈로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바이어를 찾을 수 있다. 무역협회 도서관을 이용하면 잠재 바이어들의 카탈로그를 볼 수 있다.

6) 외국기업 및 단체 이용

국내에는 각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외국 경제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 곳에 가면 해당국 경제사정은 물론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명단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7) 외국 유통업체 활용

국내에 진출해 있는 유통업체를 활용하여 자재 등의 공급을 일단 시도해 보는 것도 훗날 바이어 발굴에 많은 도움이 된다.

8) 국제 입찰

산업설비나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라면 국제입찰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산업설비가 아닌 소비재라도 국제입찰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브라질 국제 입찰 정보는 <http://tender.kotra.or.kr>에서 얻을 수 있다.

단, 브라질에서 실시하는 국제입찰의 경우 업체의 재정 및 채무 상태 등을 증빙하는 수십여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해외에 기반을 둔 외국업체가 직접 참가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따른다. 따라서 브라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잘 알고 있는 현지 업체나 입찰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

□ 브라질 비즈니스 시 이것만은 피하자

- 바이어가 보내온 이 메일에 대한 회신을 차일피일 미룬다.
- 생산 능력 이상의 주문을 받는다.
- Pro Forma 작성 이후에 가격 등의 기재 내용을 변경한다.
- 샘플을 약속한 날짜 내에 보내지 않는다.
- 바이어가 요구한 제품보다 저질의 샘플을 보낸다.
- 구비 서류 송부에 누락을 부린다.
- 서류를 미비상태로 송부하고 부족분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는다.
- 생산국 및 생산업체 방문기회를 마련하지 않는다.
- 생산국 또는 브라질과 관련된 험담을 즐겨 한다.
- 바이어가 요구하는 변동사항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용하지 않는다.
- 바이어가 보험가입을 위해 생산업체에게 도움을 청해올 경우 협조하지 않는다.
-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겠다고 우긴다.
- 대금 선불결제만을 주장하며 불신 분위기를 조장한다.
- 신용보험 가입을 강요하며 불신 분위기를 조장한다.
- 브라질 통관 체계 및 관료주의에 대해 지나치게 비난한다.
- 브라질 도시생활 여건을 지나치게 비난한다.
- 브라질 음식문화에 대해 지나치게 비난한다.
- 브라질 치안불안 문제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민감해 한다.
- 자국은 칭찬하는 반면 브라질은 무조건 비난한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에티켓

1) 복장

일반적으로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나 가족기업의 기업인들은 비교적 느슨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한 복장을 선호하나 월급쟁이 비즈니스맨은 대부분 복장에 세심한 신경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통의 브라질 사람들은 남녀 모두가 캐주얼한 차림을 즐기는 편이다. 공식 석상이 아니면 정장을 입지 않는 편이며, 여성의 경우 노출이 심하거나 몸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차림도 흔히 볼 수 있다.

2) 인사

브라질 사람과 비즈니스 만남 시에는 악수하는 것이 정석이며 평소에는 여자와 인사 시 양볼에 키스를 하고 안면이 있는 남자끼리는 어깨나 등을 톡톡 치거나 반포옹을 한다. 또한 처음 본 사람을 낯설어 하는 경우가 없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보면 금새 친근감을 표시하기 때문에 남미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처음 만남 사람과 낯을 가리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고 서로 싫어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어야 하고, 회의가 끝날 때에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져야 한다. 보통, 점심이나 저녁 시간 전에 회의가 끝나는 경우는 브라질 측에서 먼저 식사약속을 하게 되는데, 만일 이러한 약속없이 회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분위기에 따라 식사초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회의 종료 후 먼저 회의를 나서는 말고 상대방의 태도를 관망하는 것이 좋다. 저녁식사의 초대는 상담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식사를 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다.

3) 선물

브라질 비즈니스의 원칙부터 말하자면 첫 만남에 선물을 주는 경우는 없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점심이나 저녁을 초대하는 것은 아주 좋다. 일반적으로 점심은 예의를 의미하고 저녁은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물은 이러한 절차가 지난 후에 상대방의 취향을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회사 로고가 찍힌 선물은 비즈니스 상담 기념으로 아주 좋다. 요즈음은 브라질 기업들도 미리 회사 로고를 찍은 선물을 준비하여 방문객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만일, 회사 로고가 없는 선물일 경우, 그래도 꼭 선물을 주고 싶다면 준비에 세심해야 한다. 우선 턱없이 비싼 선물은 오해를 사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

4) 약속

브라질 사람과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전화를 통해 구두약속을 한 후 가능하면 이메일 등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1~2 주 전 미리 날짜를 약속하는 것이 좋고, 특히 정부 기관과의 면담일 경우 1~2 개월 전에 미리 면담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브라질 사람들은 약속시간 엄수에 철저하지 않은 편이며, 특히 비공식적인 자리일 경우 30 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것에 별로 미안해 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이것을 브라질리언 타임으로 생각하고 한국 측에서도 습관적으로 늦는다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

5) 식사

브라질 사람들은 저녁 식사 시간이 매우 늦은 편이다. 9 시나 10 시 이후에 저녁 식사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으므로, 브라질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경우에는 너무 이른 시간에 초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브라질 사람 중에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즐기는 사람도 늘고 있어 식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식사 중에는 입에 음식을 가득 감은 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먹는 것이 예의다. 특히 국수 등을 먹을 때 “후루룩”하며 소리를 내며 들이 마시지 않아야 하며, 포크로 감아 나이프로 한 입 크기로 적당히 잘라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사 후에 입을 벌리고 이를 쏘시거나, 큰 소리로 트림을 하는 것은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브라질 사람들은 술을 즐겨 마시나 많이 마시지는 않는 편이다. 까이페리냐(Caipirinha)는 사탕수수로 만든 술(약 40 도 가량)에 레몬과 설탕, 얼음을 잔뜩 넣어 으깨어 먹는 술로서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전통주이며 요즘은 레몬 대신 키위, 딸기 등의 여러 과일을 넣어 마시는 것이 유행이다.

술 한잔 시켜놓고 한 두 시간 대화를 즐기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한국식 폭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이며 한국식으로 원샷하거나 술을 강권하는 문화는 처음 몇 잔은 이색체험으로 재미있어 하거나 따라 하지만, 그 이상 계속되면 곤욕스러워 할 수 있다.

나. 문화적 금기사항

한국과 브라질의 문화 및 관습 차이는 가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으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피는 동작은 한국에서는 OK 표시지만, 브라질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시로 이해된다.

엄지 손가락을 둘째와 셋째 사이에 넣어 주먹을 쥐는 행동은 한국에서는 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브라질에서 Figa 라고 불리는 이러한 동작은 '행운을 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브라질 사람이 이러한 동작을 취하면 놀랄 필요 없다.

또한, 브라질은 대국주의적 의식이 강하며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 중 리딩 국가로서의 자긍심이 강하고 미국과도 대등하게 생각하는 자존심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브라질 비하식의 발언 또는 타국과의 비교는 삼가는 게 좋고 Brazil 을 일컬을 때 영어식으로 발음하기 보다는 포르투갈어식으로 Brasil(브라지우)라고 하면 매우 좋아한다.

다.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여유를 가져야

브라질인들에게 한국식으로 독촉할 경우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오해 받기 쉬워 급할 경우에도 느긋하게 축구, 삼바, 기후 등 부드러운 화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2) 대국의식이 강하다

브라질인들은 자국이 중남미 최대 경제대국이란 자부심을 늘 가지고 있어 브라질 인들이나 브라질산 제품을 무시하는 발언은 절대 삼가야 한다.

3) 이민국가라는 점을 잊지 말 것

상파울루에서 상권은 주로 이탈리아계, 독일계, 중동계, 유대계, 스페인계가 주로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상대하는 기업인들도 대부분 이들로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중동계 바이어와 상담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편든다거나 이탈리아계 바이어와 만나면서 이탈리아인들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4) 신뢰관계가 중요

브라질은 이민사회로 구성되어 있고 과거 식민지와 군정시대를 경험하면서 신뢰관계와 인맥을 중시한다. 브라질인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래선을 잘 바꾸려 하지 않는 것도 인간관계와 신뢰의 중요성 때문이다.

5) 외상거래 비중이 높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고 관행적으로 외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 외상거래를 선호한다. 따라서 상담 시 융통성 있는 상담자세가 필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용상태 파악이나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비 정상 상거래 잔존

최근 통관검사 강화로 밀수, 언더밸류 등 비정상 상거래가 많이 축소되었으나 아직도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7) 분쟁 발생 시 해결 어려움

브라질에는 상사 중재원이 없고 상사분쟁관련 국제협정 미 체결 되어 있어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만일의 경우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라. 브라질 국민성향

브라질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혼합 민족 국가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계 후손들이 대다수를 이루지만, 아랍 계통, 유대인, 식민지 시대에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 등의 숫자도 무시할 수 없다. 올해로 이민 역사 100주년을 맞이한 일본인, 비록 소수이지만 브라질 중저가 의류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인, 물밀듯이 밀려 들어 오고 있는 중국인 등 아시아 국가 이민자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브라질의 국민성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브라질 국민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대화하기 쉬운 편이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오래 전에 만난 사람들처럼 쉽게 친해져 농담을 주고받기가 일수다. 처음 만난 사람들 간의 인사도 악수로 시작해서 볼에 가볍게 키스하며 작별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대기업의 CEO도 직원들과 격의 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브라질 사람과의 만남에서 적절한 예절은 반드시 지키되, 지나치게 경직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긴장을 풀고 미소 띤 얼굴로 편안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면 쉽게 브라질 사람을 사귄다. 또한 전 국민이 열광하는 축구 경기, 카니발 등을 주제 삼아 이야기하면 쉽게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다.

브라질은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나라다. 최근에는 대량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유전 발견, 쇠고기, 닭고기 등 육류수출 호황, 친환경 연료 에탄올 개발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껏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인물 펠레를 비롯하여 호나우두, 호나우징뉴, 카카 등 유명 축구 스타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브라질이 대외적으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부분이다.

최근 들어서는 연일 신기록 경신하는 주가지수, 실업률 감소, 내수 경기부활 등 이제껏 유래 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브라질이지만, 아직도 치안 불안, 빈부 격차, 소득 불균형, 교육 불평등, 높은 문맹률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브라질의 약점을 지나치게 언급하거나 비난할 경우, 대화가 힘들어진다. 특히 브라질 정부 기관과 대화할 경우, 이러한 약점 부분을 언급하면 상담은 100% 실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브라질 사람들과 비교적 쉽게 친해지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학원, 취미 강좌, 헬스클럽 등 일정기간 동안 자주 만날 수 있는 단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다. 브라질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얼굴을 익히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금방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적으로 만난 바이어의 경우도 특별한 업무 얘기가 없더라도 가끔씩 메일을 보내 안부를 묻는 등,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할 경우, 브라질 사람들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동시에 안겨줄 수 있다.

브라질에서 인맥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업체나 정부기관 등을 접촉할 때, “OO씨를 통해서 당신 전화번호(또는 이름)를 알게 되었는데...”라는 식으로 나와 상대방이 공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언급하며 대화를 시작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쉽게 대화가 진행되며, 상대방도 성의껏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다.

광활한 영토를 가진 브라질이지만, 지역 간 감정 차이, 갈등 등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척박한 농업 환경을 가진 가난한 북동부지역 사람들을 다소 무시하거나, 바이아(Bahia)주 사람들의 세련되지 못한 태도 등을 비교며 “바이아 사람=촌스러운 사람”으로 약간 비하하는 정도이다.

브라질은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민족 다문화가 공존하는 국가로 문제 시 될 만큼의 심각한 인종차별은 없다. 하지만 식민지시대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의 후손들은 아직까지도 브라질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나 역할을 맡기가 힘든 편이다.

현재 브라질 정계와 재계를 움직이는 주요 인물 중 흑인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며, 흑인이 출세하기 쉬운 유일한 분야는 스포츠이다. 특히 축구 스타로 부상할 경우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도 있다.

신분과 지위와 관련, 브라질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놓고 차별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법으로도 신분이나 지위 차별을 엄금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건물 내에 입주자 전용 엘리베이터와 서비스 전용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가사 도우미, 청소부 등이 입주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탈 경우, 굵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고급식당이나 바 입구에서 차림이 남루한 사람(특히 흑인)의 경우 경비원에게 출입을 제지당하기 일쑤다.

이민자 수가 워낙 많은 혼합 민족 국가 브라질에서는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차별 대우를 하는 등 외국인의 존재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일이 없다. 단, 브라질 지리에 익숙하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며 외국말로 길을 묻거나 하는 사람은 강도, 날치기 등 범행의 대상이 되기 쉬우니 이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한국, 중국 일본인을 비롯한 동양인에 대한 브라질 사람들의 인상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이다. 특히 100년 이민 역사를 가진 일본인의 경우 그들 특유의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브라질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농업 이민으로 처음 브라질 땅에 발을 들여놓은 일본 사람들은 농업 분야는 물론 정계 및 재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회 의원을 배출한 바 있다.

올해는 일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남미 최대 방송사인 Globo에서는 매일 아침 뉴스 프로그램 중 약 5분을 할애하여 브라질 내 일본 이민자의 다양한 생활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 최대 일간지 Folha de Sao Paulo, Estado de Sao Paulo 에서도 주기적으로 일본의 문화, 경제, 사회 등과 관련된 특집 기사를 실고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브라질 사회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소수 민족 중 하나로 일본만큼 크게 주목 받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브라질 중저가 의류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한인 교포 업체들이나, 휴대폰, 가전제품, 컴퓨터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과 LG, SUV 차량 분야 인기 정상을 달리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들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한국의 위상이 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삼성과 LG는 최근 수년 동안 상파울루 최고의 축구팀의 공식 후원업체로 활동하며 브라질 사람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성공하였다.

중국에 대한 브라질 사람의 의견은 그다지 좋은 쪽이라고는 할 수 없다. 중국에서 생산된 조악한 저가 상품, 밀수품, 복제품 등이 최근 4~5년 간 달러 약세를 틈타 물밀듯 밀려들어와 브라질 시장에 각종 사회 및 경제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브라질 정부는 세계경제를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브라질에 거주하는 중국인 수는 수십만 명에 이르며 (공식 통계 20만여 명, 비공식 통계 50만여 명), 과거 일본인들이 많이 살아 '일본촌'이라 불리던 리베르다지 (Liberdade) 에는 현재 중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상품이 아주 많이 진출한 상태로, 조만간 '중국촌'으로 명칭을 바뀌어야 될 정도로 중국인이 넘쳐나고 있다.

□ 브라질 지역별 국민성 사전 파악을 통한 비즈니스 활용 필요

브라질 사람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비슷한 성격과 생활 습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카리오까(Carioca), 미네이루(Mineiro), 가우슈(Gaúcho), 빠울리스타(Paulista) 등은 각각 리우데자네이루, 미나스 제라이스, 히우 그란지 두 술, 상파울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지역별로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비즈니스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 카리오까(Carioca)
 - 리오데자네이루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부분의 경우 성격이 느긋한 편이다.
 - 해변에서 쉬는 것을 좋아하며 생활이 바빠도 삶의 여유를 반드시 찾는 편이다.
 - 유머가 많고 농담을 즐기는 편이다.
- 미네이루(Mineiro)
 -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대부분의 경우 말수가 적고, 시골 분위기가 난다.
 - 좀처럼 진심을 드러내지 않아 생각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
 - 절약 정신이 지나쳐 구두쇠 소리를 듣는 경우도 많다.
- 빠울리스타(Paulista)
 - 상파울루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주로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는 평이 나있다.
 -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시간에 쫓겨 사는 편이다.
 -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바쁜 생활도 감내하며, 막상 여유가 생겨도 제대로 즐길 줄 모르는 편이다.

- 가우슈(Gaúcho)
 - 브라질 최남단 히우 그란지 두 술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대부분이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이민자의 후손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 남성 위주, 가부장적인 모습을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다혈질적인 남성들이 많다.
 - 슈하스코(Churrasco)라는 숯불구이 요리와 쉬마향(Chimarrao)이라는 차를 매우 즐긴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의 중심지로서 거대한 국내시장 규모, 이를 기반으로 한 인근 국가로의 판매시장 확대 가능성, 풍부한 노동력과 발달된 운송망 등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갖는 투자 매력도가 큰 시장임에는 틀림없으나, 이에 못지않게 브라질에서의 기업 활동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사회전반적인 부대비용(Brazil Cost)이 커 투자 지역으로서의 애로사항도 많은 곳 중 하나이다.

브라질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애로사항은 과도하고도 복잡한 조세제도, 부족한 인프라 시설, 노무관리 부담, 과도한 금리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90년 시장개방정책을 표방한 이래 지금까지 이러한 브라질 코스트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외국인 투자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큰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다.

가. 주재국 법적, 제도적 문제점

단일화된 외국인 투자법이 없고 분야별로 법들이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어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법제도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대외무역법의 경우, 브라질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잡다하게 나뉘어 있어 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대한 단일 법률화 움직임이 있긴 하나 언제 완성될 지는 미지수이다.

나. 외국인 투자 관련 WTO 기준 미달 또는 내외국인 불평등 대우

지적재산권 관련 선진국 기준에 미달하여 간혹 선진국과 마찰이 있기도 하며, 내외국불평등 대우가 특별히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정부구매 시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면 브라질 국내 기업들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

다. 현지진출 기업의 운영상 애로점

1) 영주비자 취득

브라질에서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사승인사례가 거의 없다. 따라서 현지사업을 위해서는 현지법인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영주비자를 받아야 현지경영이 가능하며, 영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사 파견 직원 1인당 2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법안이 있었으나 이는 5만 달러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2년 내에 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므로 여전히 어려움은 산재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 법에서는 비자종류 제한이 있어서 현재 ‘주재원 비자’를 별도로 만들 움직임이 있는 상태이다.

2) 현지 직원 고용 의무

브라질 노동법상 외국기업이 현지직원 고용 시, 임금의 총합 또는 직원 총합의 2/3 를 브라질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나머지 1/3 은 외국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2/3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즉, 1 명의 본사직원(외국인) 파견 시 2/3 에 해당하는 2 명의 현지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지 직원이 많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부담이 없으나 현지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3) 법규 및 세제의 복잡함 및 빈번한 개정

- 조세 부담률이 큼.
 - 브라질에는 80 개가 넘는 조세가 있고 담세율이 너무 높다. 브라질 전체 GDP 의 40% 를 정부가 직·간접세로 거두어 들이기 때문에 국민이나 기업은 정부를 쳐다보며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세제상의 복잡성
 - 과세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이 약간만 부주의하여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탈세를 하게 될 수도 있으며, 한 가지 과세기준에 여러 가지 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려면 소위 세무관리비용이 너무 높다. 브라질 정부가 세제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나 큰 진전은 없다.

4) 고용주에 불리한 노동법으로 노무관리가 매우 어려움

- 직원을 고용함에 따른 부가 비용이 매우 크다.
 - 직원 1 명을 고용하게 되면 급여 외에도 각종 사회보장세, 연금, 소득세, 상여금, 휴가비, 정기 급여 인상 등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 해고 시에도 퇴직별금 및 퇴직부대비용이 발생하며 늘 소송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브라질은 노동법 자체가 노동자 위주, 약자 위주로 되어 있으며 소송에 걸릴 경우 노동자가 거의 대부분 승소하게끔 되어 있다.
 - 소송비용(인지대 등)을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 비용까지 내는 게 원칙이나 노동법에는 해당이 안 돼 패소할 경우 노동자가 불리하게 될 사항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해고된 노동자에게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 노동 계약상에서도 당사자 간의 자치주의(합의) 원칙이 제한되어 있어 외국 기업들은 이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라. 기타

- 통관절차 복잡 및 지연
 - 브라질 세관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주에 따라 이중통관제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 통관상의 문제점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 관료주의 및 공무원 파업
 - 브라질은 관료주의가 아주 심하여 소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관료주의가 심하다.

- 또한 세관, 연방경찰 등 중요 공무원들의 파업이 잦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업무 차질이 많이 발생한다.
- 치안 불안
 - 상파울루 및 리오 등 대도시 치안이 불안하여 주재원들이 강도 또는 납치를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현지경영 및 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 외국기업 또는 주택가만이라도 치안 인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브라질이 시장개방을 한 후 발생하고 있는 부족한 인프라 문제와 이에 따른 엄청난 물류비용, 낙후된 부품산업에 기인하는 안정된 부품조달의 문제와 일관성이 없는 정부의 수출입정책 등도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 브라질의 경기지수가 너무 단기적이고 불규칙한 사이클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장기투자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우리나라기업들 중 투자한 지 2~3 년 내에 철수하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경기 불안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처리를 위해 철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기업의 경우는 막대한 초기투자, 현지 전문경영인 고용, 자금력 등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5~6 년씩 버틸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러한 여력이 없다.
 - 그런데 브라질 시장은 이러한 불규칙한 경기 사이클을 예측하기 힘들고 판매망이나 A/S 망의 확보 및 기업의 입맛에 맞는 현지 전문 인력을 키우고 현지상황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3 년의 단기투자로는 성공적인 정착을 하는 것이 어렵다.
- 자국업체 보호를 위해 강력한 수입 규제 정책을 실시하는 품목이 많으며 세이프가드나 반덤핑조치의 위험이 늘 따른다. 때로는 공식적인 조치나 경고 없이 “최소 가격제” 등의 비관세 장벽을 불시에 설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식품을 비롯하여 위생 및 건강과 관련된 제품은 예외 없이 ANVISA 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허가 취득 기간이 길고 절차 및 서류 구비가 까다로워 기업들이 브라질 현지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주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1) 브라질 주재상사 대상 브라질 투자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

상파울루 무역관이 지난 2006 년 12 월에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37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브라질 투자기업 경영실태 분석 보고서(KOTRA 기획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브라질 시장 진출 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조세제도와 세관 및 통관정책,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관행, 고용 및 노무관리, 환율 불안을 들었다.

브라질 내수시장에서 판매활동을 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세금제도와 고관세를 많이 들었다. 이밖에 대금회수 어려움, 가격조건 불리, 물류 및 A/S 고비용 등을 꼽은 기업도 있었다.

브라질 시장 진출 단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브라질의 복잡한 행정체계에 따른 불편과 브라질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을 지적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투자 허가기관 및 파트너의 잦은 태도 변화, 공장부지 선정 및 시공의 어려움, 협력선 물색 및 선정 시의 갈등, 언어 소통 문제 등이 꼽혔다.

브라질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현지 운영자금 조달에 있어 주로 브라질의 높은 이자율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한 서술형 질문에 대해서는 느린 행정 업무로 인한 긴 공백 기간, 간접비용 지출 증가, 현지경영 및 파견자 생활비 과다, 컴퓨터 및 복사기 등 현지 기기 구입가격 고가, 통신비용 과다, 해알화 강제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판매 후 A/S 문제 법정소송 등 비용증가, 협력업체 낙장 대응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브라질 간의 지리적 격차,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이 초기 중소기업의 진출에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투자진출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미비, 브라질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의 어려움을 말한 응답도 있었다.

경영 및 운영 단계에서는 현지인의 고용 및 인사관리 문제와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와 함께 현지 금융 조달과 원·부자재 조달이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이 밖에 한국 기업 간의 경쟁 심화를 지적한 기업도 있었다.

고용관리 상의 애로사항으로는 임금이나 임금 외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과 함께 전문직과 기술직 근로자의 구인난, 해고 근로자들의 주권행사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들었다. 이와 함께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숙련공을 구하기 힘든 점도 지적됐다.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의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점과 안일한 근무 태도, 작업능력 부족, 연장근무 기피 등을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고용 인력의 현지화가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관리직군에서 현지직원의 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고용 직원의 임금 수준은 일부 기업에서 본사 직원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능력이 좋은 매니저급이나 영업직 사원의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 현지의 임금상승 속도를 묻는 질문에는 빠르다는 응답이 대체로 많았다.

브라질 시장에서 경쟁기업의 본사별 소속 국가로는 미국이 다소 많은 가운데 유럽, 일본, 중국, 브라질 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 업종의 브라질 기업과 한국기업 간의 비교평가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현재 두 국가의 기업들을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한국이 약간 우월하다는 의견도 꽤 있었다. 브라질 기업이 이미 우위에 있거나 수년 내에 대등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브라질 시장을 거대한 소비시장이자 향후 중남미 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향후 브라질 내 활동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상 유지를 고수할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기업들은 브라질 시장에 대한 원활한 투자진출 및 운영을 위해 수출 및 투자 지원 확대와 함께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노력과 브라질 진출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브라질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충분한 시장 조사와 함께 선발대가 먼저 현지 적응을 마친 뒤 본 팀이 합류하는 순서를 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현지공장 설립 등 투자진출을 권하는 의견이 많았다.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되 일단 투자 결정이 나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브라질의 노동법 및 조세제도를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현지투자를 결정할 때는 최소한 6 개월에서 1 년 정도 직접 브라질에 직원을 파견하여 진출 분야별 브라질의 사업 관행 등 현장 경험을 거친 뒤 투자를 결정해야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었다. 필요할 경우 현지 로펌 또는 전문 컨설팅 회사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하며,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다른 장애요인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차선택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2) 브라질 내 기업환경 조사: 세계은행 조사 Doing Business no Brasil(2006.07)를 기준

세계은행은 브라질 내 13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기업 활동의 용이도를 비교 평가한 바 있다. 평가 기준은 기업 설립 절차 및 기간, 부동산 취득 절차, 기업 운영자금 대출 제도, 조세제도 정비, 계약 이행의 정도 등 5가지였다.

13개 도시별 기업 활동 용이도 평가

순위	도시명
1	브라질리아 연방특구
2	마나우스(아마조나스 주)
3	벨로 오리존테(미나스 제라이스 주)
4	포르토 벨료(혼도니아 주)
5	상 루이스(마라냥 주)
6	포르토 알레그레(리오 그란데 도 술 주)
7	캄포 그란데(마토 그로소 도 술 주)
8	리우 데 자네이루(리우 데 자네이루 주)
9	플로리아노폴리스(산타 카타리나 주)
10	살바도르(바이아 주)
11	상파울루(상파울루 주)
12	쿠이아바(마토 그로소 주)
13	포르탈레자(세아라 주)

브라질의 주요 주별 소요기간

회사설립 소요기간			등록절차 소요기간			계약이행/채무징수 소요기간		
1	미나스 제라이스	19일	1	마라냥	27일	1	상파울루	546일
2	바이아	25일	2	아마조나스	40일	2	마라냥	690일
3	론도니아	30일	3	마토 그로소	43일	3	브라질리아	730일
4	리오 그란데 도 술	35일	4	상파울루	47일	4	마토 그로소 도 술	755일
5	마토 그로소	41일	5	산타 카타리나	51일	5	론도니아	794일
6	마토 그로소 도 술	41일	6	브라질리아	57일	6	리우 데 자네이루	813일
7	산타 카타리나	44일	7	미나스 제라이스	58일	7	아마조나스	835일
8	세아라	44일	8	세아라	63일	8	바이아	873일
9	마라냥	47일	9	론도니아	69일	9	세아라	942일
10	브라질리아	49일	10	리우 데 자네이루	75일	10	산타 카타리나	1017일
11	아마조나스	68일	11	리오 그란데 도 술	81일	11	미나스 제라이스	1068일
12	리우 데 자네이루	68일	12	마토 그로소 도 술	83일	12	마토 그로소	1157일
13	상파울루	152일	13	바이아	88일	13	리오 그란데 도 술	1473일
호주 2일			노르웨이 1일			튀니지 27일		

시정부가 사업하기에 가장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는 브라질리아이며, 두 번째로는 자유무역지대가 존재하는 마나우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가장 사업하기 힘든 곳은 포르탈레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별 소득 수준은 사업 애로사항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마라냥 주 상 루이스 시의 소득 수준은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낮았지만 13개 도시 가운데 5번째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5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기업 설립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한 결과 상파울루는 149위로 나타났으며, 브라질 내에서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벨로 오리존테는 30위를 차지하였다.

브라질의 조세 제도는 납부액도 많을 뿐 아니라 납세 과정도 매우 복잡한데 특히, 리우 데 자네이루는 조세 제도가 가장 복잡하게 적용되는 도시로 꼽혔다.

기업 활동과 관련된 계약 이행이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도시는 상파울루로 1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캄포 그란데는 4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라질리아를 비롯한 브라질 내 주요 주정부와 시정부들은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온라인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이집트, 뉴질랜드, 스페인 등의 정부가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제도를 받아들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Brazil Cost

‘브라질 코스트’란 신흥 경제대국으로 주목 받고 있는 브라질이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더딘 성장에 머물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요인으로, 관료주의 관행과 함께 복잡한 조세체계와 과도한 세금 부담, 법인 설립에 필요한 과도한 비용, 지나치게 노동자 위주로 이루어진 경직된 노동법에 따른 종업원 고용 및 해고 비용 증가 등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브라질 기업인협의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브라질 내 197개 미국계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브라질에 진출하거나 투자할 때 감수해야 하는 ‘브라질 코스트’ 가운데 관료주의와 세금 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복잡한 세금체계가 단순화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사대상이 된 197개 다국적 기업들은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 내 500대 기업에 포함돼 있으며, 브라질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추가투자 의지를 가진 기업들이다. 따라서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브라질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으로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수는 30여 만 명이며 연간 매출액은 91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브라질 코스트’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관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브라질 정부가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성장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질적인 관료주의 관행은 특히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브라질은 전체 수출 가운데 92%가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항만 시설 현대화 작업이 늦어지는 등 인프라 건설 사업이 국제 수준보다 최소한 5~6개월 이상씩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2005년 전 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 환경 실태 조사에서도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사업하기 가장 힘든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 브라질은 155개국 가운데 119위를 기록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 가운데 가장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브릭스 국가 중에는 러시아가 79위로 사업 환경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91위, 인도는 116위를 차지했다. 브라질은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도 칠레 (25위), 콜롬비아(66위), 멕시코(73위), 아르헨티나(77위), 우루과이(85위), 파라과이(88위), 도미니카 공화국(103위), 에콰도르(107위), 볼리비아(111위) 등에 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은행 조사 결과 브라질은 법인 설립에 평균 152일, 각종 인/허가 취득에 평균 46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법규의 처리속도가 매우 느리고 정부 내에 팽배한 관료주의와 복잡한 조세체계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국제기구나 국제 경영 컨설팅 업체로부터 ‘브라질 코스트’ 개선에 대한 주문이 이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브라질의 경제가 저성장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역시 복잡한 조세체계와 낮은 관료주의 관행, 빈약한 인프라 여건,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브라질 코스트’는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처음 진출 모색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선행 하지 않을 경우 진출 후 사업 전개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잇따라 발생하고, 결국에는 현지 시장 진출 노력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우리 기업 투자 성공 사례

1) LG 전자

기업명	LG전자 브라질 법인(현지법인명: LG Electronics do Brasil)
진출지역	브라질 상파울루시(판매법인), 따우바테시 및 마나우스시(생산공장), 뽀르뚜 알레그리 시(판매법인)
진출연도	1995년
투자형태	단독투자
투자규모	US\$350백만
주요품목	TV, 모니터, 휴대폰, 노트북, 에어컨, DVD, 냉장고 등
종업원 수	약 5,000명
홈페이지	http://br.lge.com/index.do

1995년 브라질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운영 13년째를 맞은 LG 전자 브라질 법인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분야 시장 1위, 휴대폰, 에어컨, 모니터 분야에서 시장 상위를 차지하며 브라질 가전분야를 석권하고 있고 브라질 100대 외국기업 중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브라질 경제중심지 상파울루에 판매법인, 인근 따우바테시 및 아마존 지역 마나우스 시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치밀한 시장조사, 스포츠마케팅 및 프리미엄 마케팅 등의 현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치며 브라질 내수뿐만 아니라 인근국으로의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

LG 전자는 LGEAZ(LG Electronics da Amazonia Ltda.)와 LGESP(LG Electronics de Sao Paulo Ltda.) 등 2개 회사에 7,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995년 설립, 운영하고 있다. LGEAZ는 마나우스(Manaus) 자유무역지대에 생산 기반을 두고 각종 TV, 오디오, DVD, RAC(Room Air Conditioner)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으며, LGESP는 상파울루 시에서 130km 떨어진 따우바테(Taubate)라는 산업도시에 위치해 각종 모니터, 모바일 폰을 생산하면서 전체 브라질의 물류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두 법인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은 시장점유율에서 이미 Top 이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Sony, Panasonic, Toshiba 등 브랜드와 상당한 격차를 유지할 만큼 점유율이 높다.

진입 초기에는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제품 포지셔닝(Positioning)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들의 평가와 반응에 매우 민감한 유통 분야에서는 제품 품질만으로 승부를 걸기에는 한계가 있어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브랜드를 알리고 전국 유통망을 구축하여 제품 판매를 증대해야 하는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했다. LG는 우선 차별화된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정책을 바탕으로 품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구매 잠재력(Purchasing Potential)이 큰 주요 거점 도시들- 남부의 뽀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 상파울루(Sao Paulo),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의 남동부 지역, 북동부의 살바도르(Salvador)-에서 집중적으로 브랜드와 제품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다.

가전제품 전문 판매 매장 내에 LG 디지털 공간(LG Digital Space)을 확보해 첨단 제품을 지속적으로 전시하거나 유통 이벤트, LG 투어(Tour) 대회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했다. 아울러 상파울루(Sao Paulo)를 연고지로 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축구팀 SPFC(Sao Paulo Football Club)를 후원하는 스포츠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상파울루 축구팀은 인기 순위 1~2위를 다투는 팀으로서, 스포츠 마케팅으로 친근하게 다가선 LG를 현지 기업으로 생각하는 브라질인도 많이 있을 정도이다.

또한 브라질 최대의 축제인 카니발 기간에 시발점인 고도(古都) 살바도르(Salvador)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후원하고, 각종 전시회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브라질 국민에게 친숙한 브랜드로 다가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제품 리더십(Product Leadership)을 기반으로 유통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을 통해서 브라질 현지 정서에 맞는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활동을 펼친 것이 오늘날의 성공을 이끌어낸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LG는 인근 국가로의 수출을 통해 노출된 외환리스크를 상쇄시키고 현지 금융 의존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운전 자본금(Working Capital)을 확보했다. 더불어 브라질 내 부품 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현지 부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이용했다. 단계가 매우 복잡하고 가변적이어서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세금 문제의 경우, LG는 현지의 명망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세무 전문회사를 이용해 관련 문제의 해결방법 및 對정부(연방, 주) 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05년 7월 휴대폰 공장 증설 기념식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 및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브라질에서 LG가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LG는 플라즈마 TV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2) 삼성전자

마나우스 현지 생산에 따른 세제혜택을 활용하여 생산 경비를 절감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매출액의 2.7%를 R&D 에 사용하는 등 투자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의무 불이행 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수혜 취소 및 자재 수입 불가 등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중남미 상권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남미공동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주변국가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수출을 시도하였다. 환율 급락과 같은 경영 환경의 급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투자전략으로 맞섰으며, 수출 활성화를 통한 경영 위험 요소를 줄이는 전략을 펼쳤다. 한편, 브라질 정부의 부품 육성 산업 정책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대정부 로비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 무역거래 실패 사례

□ 돈은 미리 받아 챙기고 물품 운송은 함흥차사: 한국 업체의 계약 미 이행 사례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수출하는 국내 A 사는 상파울루 무역관의 조사대행을 통해 브라질 바이어 B 를 알게 되어 거래를 시작했다. 높은 금리로 L/C 개설을 기피하고 외상거래를 선호하는 브라질의 일반적인 상관행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바이어 B 는 첫 거래엔 L/C 로 결제하고, 두 번째 거래에선 계약액의 50%인 10,000 불을 선불로 지급하는 등 거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두 번째 거래에서 발생했는데, 제조업체가 아닌 무역회사였던 한국 A 사는 바이어가 희망하는 제품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한 물품의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바이어 B 뿐만 아니라 무역관과의 연락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다. 많은 양보를 하면서 상호 이익을 위한 좋은 거래를 위해 노력한 브라질 바이어는 무역관이 직접 개입해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해결이 안 될 경우 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겠다고 함으로써 무역관도 난처한 입장에 봉착한 경우가 있었다.

국내 A 사를 만나 어렵게 설득하여 브라질 바이어에게 먼저 받은 대금은 상환하였으나, 바이어 B 는 다시는 한국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고 아는 사람이 한국과 거래한다고 하면 말린다고 할 정도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치유할 수 없는 큰 불신을 갖게 한 적이 있다.

“무역이란 것은 수출자, 수입자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국내 수출업체는 항상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바이어와 의사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세련된 매너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거주지

브라질은 치안이 불안하여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대체로 한정되어 있다. 임대 기간은 쌍방간 계약에 의거하여 결정하나 30개월이 보통 법정 계약기간이다. 계약해지 시에는 계약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로 1~3개월 전 통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다. 기간 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게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계약 후 12개월 경과 시 위약금을 물지 않고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늘고 있다.

상파울루의 경우 Camargo Dias, Coelho da Fonseca 등 여러지역에 다수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업체들이 있으므로 부동산 사무소에 가서 가격, 교육여건, 치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주택을 구하면 된다.

1) 이지에노폴리스(Higienópolis)



상파울루 중심가에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지역으로 대부분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며, 과거에는 대규모 단독주택도 많았으나 지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세기 말 앵글로 색슨계 이민자인 마르띠뉴 부샤르(Martinho Buchard)와 빅토르 노트만(Victor Nothman) 등이 상파울루 시내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부자(주로 상파울루 근교에서 커피 농장을 경영하는 업주들)들을 위해 건설한 대형 주택 단지로, 전망이 수려하고 녹지대가 많아 공기가 깨끗한 것이 장점이다.

20세기 초에 들어서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 등을 갖춘 본격적인 주택 단지가 들어 서기 시작했고, 이어서 병원, 학교, 은행 및 상가 시설도 점차 생겨났으며, 현재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주 전 대통령, TV 토크쇼 진행자인 조 소아레스, TV 진행자이자 모델인 아드리아니 갈리스테우 등이 거주하고 있다.

브라질은 물론 중남미 최대의 경제중심지인 상파울루 시에서 전통적인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한국의 성북동처럼 나름대로 부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부유층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치안 상태가 양호하고 은행, 슈퍼마켓, 쇼핑센터(shopping Center Patio Higienopolis), 학교 등이 많이 들어서 있으며 지역 내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 공간 등을 소개하는 신문과 잡지가 발행되고 있다.

중남미 국가에서 생활여건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치안 상태, 편의시설 현황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거주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꼽힌다. 과거 주거지역 형성 때부터 유대인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유대인 회당이 다수 존재하는 등 독특한 유대인 문화를 많이 볼 수 있다.

생활 환경이 우수하고 치안 상태가 좋은만큼 이지에노폴리스 지역 생활 비용은 타 지역보다 비싸다. 아파트 임대료를 비롯하여, 식품, 생활 잡화, 인건비, 인근 레스토랑 식사비 등도 모두 평균치보다 높은 편이다.

2) 모에마 (Moema)



상파울루 중심가에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흥주택지역으로 대부분 아파트이며 단독주택은 찾아보기 힘들다.

브라질에서는 거의 최초로 주상복합아파트가 선보인 지역이며 수영장, 헬스클럽, 미용실, 약국 등 단지 내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지역이 탄생한 것은 20세기 초이나,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된 시기는 쇼핑센터 이비라뿌에라(Ibirapuera)가 건설된 1970년대 중반이다. 쇼핑센터 주변을 중심으로 레스토랑, 술집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상파울루 시내 최대 규모인 이비라뿌에라 공원에 근접하여 공기가 깨끗하다.

15년 전쯤부터 인근 베히니(Berrini) 지역이 새로운 비즈니스 타운으로 개발되면서 이곳과 가까운 모에마 지역이 주택지역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주로 외국의 상사주재원이나 장, 단기 출장자들이 많이 찾으면서 일반 아파트는 물론 단기임대 아파트도 많이 등장하였다. 베히니(Berrini)거리에는 한국기업의 주재상사(삼성 전자, 삼성 SDI, LG 전자, LG 화학, 외환은행 등)가 다수 밀집해있다.

강남과 같은 신흥부촌으로 부유층들이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편의시설과 레저시설이 많아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 레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아 단지 내에서 수영 또는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많으며 이지에노폴리스보다 상대적으로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도보보다는 주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교통이 복잡하여 출퇴근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내선 공항 근처여서 소음 지수가 매우 높은 편이며, 인근에 지하철 역이 없어 지하철 사용도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3) 모룸비(Morumbi)



상파울루 지역 주재원들의 경우 현지의 치안이 불안하므로 치안상태가 비교적 좋은 모룸비 지역에 주로 거주한다. 외국인학교가 가깝고 주지사궁과 상파울루 축구 경기장이 근처에 있다.

다수의 한국 주재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Portal do Murumbi는 아파트 단지 내에 대형 녹지대와 공원, 수영장, 테니스 장, 간이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엄격한 출입통제로 치안이 매우 안전한 편이다.

모룸비는 나무가 많고 거주환경이 좋아 중상류층이 많이 사는 동네이나 상파울루 중심지와 1시간 이상 걸릴 정도로 멀다는 것이 단점이며, 시내에서 강변도로를 통해야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우천 시에는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하다.

4) 봉헤찌로(Bom Retiro)

봉헤찌로(BOM RETIRO)라는 말은 “좋은 안식처”란 뜻으로 이 지역은 1940년도부터 유대인들의 정착지였다. 한국 교포들이 이곳에 상가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에 3개의 점포가 들어서면서부터이며, 지금까지 약 1,000개의 한인점포가 밀집, 이제는 명실공히 한인상가 타운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브라스(Bras)지역과 함께 소위 남미의 양대 의류공급지역으로 이웃국가인 파라과이,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도 이곳에서 많은 의류를 구입해 가는 국제 시장이다.

한국식당이나 한국식품점, 안경점, 약국, 미용실, 골프연습장 등 한국관련 산업이 가장 발달해 있다. 최근 들어 봉헤찌로는 한인점포들로 인하여 상파울루에서 상업용 임대료 및 땅값 등이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였다. 단 한국기업들이 많이 주재해 있는 빠울리스타 지역이나 주재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모룸비 지역과 거리가 멀고 치안이 불안한 것이 단점이며, 인근에 상가 및 공장지대가 밀집해 있어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

5) 아끌리마싸웅(Aclimação)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로 최근 들어 많은 고급 아파트 건설 및 개발 등으로 인하여 고급 주택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동네이다.

아끌리마싸웅은 상파울루 시의 주요 동네들인 Liberdade, Cambuci, Vila Mariana와 Paraiso 와도 거리상 붙어 있으며 동 지역을 대표하는 곳은 1892년 만들어진 아끌리마싸웅 공원이 다. 총 112평방미터의 이 공원은 각종 식물과 호수 등으로 유명하다.

6) 알파빌리(Alphaville)

상파울루 시에서 약 45분 가량 고속도로로 가다보면 나오는 동네로 특징은 단독주택 콘도미니엄이다. 유럽풍 등 최신식 디자인의 주택들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보안이 가장 철저히 보안되는 곳이다. 상파울루 시의 주택들에 비해 콘도미니엄 안에 주택들은 특별한 담이나 대문 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최고급 주택가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많은 회사, 기업이 이곳에 정착하여 이제는 주택들 외에도 여러 상업용 빌딩 또는 상업 콘도미니엄 등도 많이 생겼으나 상파울루 중심지에서 너무 멀다는 것이 단점이다.

나. 교육



1) 현지 공립학교

브라질 현지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 수준이 사립학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편이며 교육 시설 역시 낙후되어 있다. 학비 및 급식, 책, 교복 등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관계로 공립 학교를 다닐 경우 학비나 기타 비용은 들지 않는다.

정부의 지원 및 관리가 부족한 관계로 교사진이 부족하며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수가 적어 새로 입학할 해야 하는 학생들이나 전학이 필요할 경우, 자리가 나올 때까지 다소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2) 현지 사립학교

현지에는 많은 크고 작은 사립학교들이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만 있는 학교도 있고 유치원 과정부터 대학 과정까지 다 갖춰진 학교도 있다. 학비의 경우, 일 년에 총 12번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매달 등록금 1회 + 학비 11회로 나눠 지불하는 방식이다. 학비는 약 R\$800~R\$1,500 가량이다.

□ 상파울루 시내 유명 사립학교

- Colegio Bandeirantes(www.colband.com.br)
- Colegio Etapa(www.colegioetapa.com.br)
- Colegio Objetivo(www.objetivo.br)
- Colegio Rio Branco(www.crb.g12.br)
- Colegio Mackenzie(www.emack.com.br)
- Colegio Dante Alighier (www.dantealighieri.com.br)
- Colegio Sao Luis(www.saoluis.org)
- Colegio Anglo Latino(www.anglolatino.com.br)
- Escola Barifaldi(www.barifaldi.com.br)

* 모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운영

3) 외국인 학교

□ Graded School- Associacao Escola Graduada de Sao Paulo

- 주소: Av. Prof. Giovanni Gronchi, 4710, Morumbi, Zip 05724-002,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747-4896
- 팩스: (55-11) 3742-9358
- 담당자: Mrs. Lisa Peixoto (Admissions Office)
- 이메일: lpeixoto@graded.br
- 웹사이트: <http://www.graded.br>
- 입학비
 - R\$25,200.00 (약 USD 12,000.00) - 첫 번째 자녀
 - R\$19,125.00 (약 USD 9,107.00) - 두 번째 자녀
- 학비: 월 R\$3,710.00 (약 USD 1,766.00)
- 참고: 등록금의 경우, 3개월 단위로 받기 때문에 만약 3월에 등록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1, 2월 학비도 지불해야 한다. 미국인 학교로 상파울루 외국학교 중 가장 좋은 학교로 꼽히며 입학 시 시험(test)이 엄격하고 빈 자리가 많지 않다.

□ Saint Paul's School- Escola Britanica de Sao Paulo

- 주소: R. Juquia, 166, Jd. Paulistano, Zip 01440-903,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087-3399
- 팩스: (55-11) 3087-9708
- 담당자: Mrs. Sandra
- 이메일: spshead@stpauls.br
- 웹사이트: <http://www.stpauls.br>
- 입학금: R\$10,500.00 (약 USD 5,000.00)
- 학비: 월 R\$2,500.00 (약 USD 1,190.00)
- 참고: 영국계 학교로 엄격한 편이며 입학을 위해서는 Admission Test를 받아야 한다.



□ PACA - Pan American Christian Academy

- 주소: R. Cassio de Campos Nogueira, 393, Zip 04829-310,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5928-9655
- 팩스: (55-11) 5928-9591
- 담당자: Mrs. Linda

- 이메일: linda@paca.com.br
- 웹사이트: <http://www.paca.com.br>
- 등록금: R\$3,500.00 (약 USD 1,666.00)
- 학비: 월 R\$1,450.00 (약 USD 690.00)
- 참고: Pan American Christian Academy는 크리스찬 학교로 Non profit학교이다. 1960년 상파울루에 설립되었다.

□ Chapel School – Escola Maria Imaculada

- 주소: R. Virgilio Jose de Pontes, 200, Alto da Boa Vist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5687-7455
- 팩스: (55-11) 5521-7763
- 담당자: Mrs. Vera Prado
- 이메일: admissions@chapel.g21.br
- 웹사이트: <http://www.chapel.g21.br>
- 등록금: R\$4,470.00 (약 USD 2,128.00)
- 학비: 월 R\$2,909.00 (약 USD 1,385.00)
- 참고: 가톨릭 재단 학교로 1947년 상파울루에 설립되었으며 약 700명 가량의 학생이 있다.



4) 한국학교

한국학교로는 Colegio Polilogos가 있는데 학생은 약 400명 가량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현지에서 거주하는 교포 학생들이며 일부는 브라질 현지인들이다. 오전에는 브라질 학교 정규 수업과정, 오후에는 한국어 과정(또는 보충수업)을 가르치며 학비는 다른 일반 사립학교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 종일반 (정규 학습 과정 + 오후반 과정(선택 가능)): R\$750.00 (1-5학년), R\$ 850.00 (6-9학년), R\$ 720.00 (고등학교 과정)
- 오전반 (정규 학습 과정): R\$550.00~720.00
- 오후반 (한국어 과정 또는 보충 수업 중 택일): R\$200.00
- 점심 및 간식비: R\$170.00

□ Colegio Polilogos (브라질 한국학교)

- 주소: R. Solon, 1018,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224-0044

- 팩스: (55-11) 3337-0906
- 이메일: colegiopolilogos@terra.com.br
- 웹사이트: N/A



다. 전화 및 휴대폰 신청

1) 일반 전화

일반 전화의 경우 과거에는 통화 횟수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했지만, 2007년부터 통화 시간을 기준으로 기본 요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패키지 플랜이 있어 각자의 통화량에 따라 적당한 플랜을 신청하면 된다.

- 절차 및 전화 요금(Telefonica, 상파울루 전화국 기준)
 - 가입비: 전화국 가입 비용인 R\$112.44(2008년 9월 기준)을 납부하면, Telefonica 에서 파견한 기술자가 전화선을 설치함. 설치기간은 신청 후 보통 3일 ~ 1주일 정도 걸림.
 - 기본 요금: Plano Classico를 선택할 경우 200분 통화가 가능하며 매월 R\$ 39.97의 사용료를 지불함. 유선전화에서 상대방의 유선전화로 통화할 경우 분당 0,10 헤알의 요금이 부과됨.
 - 패키지 플랜 요금: 1) 유선->유선, 2)유선->유선 + 유선->무선, 3) 장거리 통화 등 각각의 플랜 종류에 따라 통화 시간 및 분당 사용료가 상이함.

패키지 플랜 요금 (유선전화로 상대방의 유선전화와 통화할 경우)

플랜 종류	가격(R\$)	통화시간(분)	분당 가격(R\$/분)
Plano 250	45,320	250	0.18
Plano 350	55,360	350	0.16
Plano 450	65,250	450	0.15
Plano 550	75,110	550	0.14
Plano 800	99,130	800	0.12
Plano 1200	136,010	1200	0.11

자료: Telefonica 홈페이지(2008년 9월 23일 기준)

2) 휴대폰

휴대폰 가입의 경우, 본인의 ID, CPF(납세자 번호) 및 주소 증명서 사본(전화, 인터넷, 전기세 등 전달 요금지불서 가능)을 전화상에 제출시 즉시 개통할 수 있다.

상파울루에는 VIVO, TIM, CLARO의 3대 주요 휴대폰 회사가 있다. 지불 방법은 2가지로 선불과 후불 방식이 있으며 선불제도의 경우, 입금 가능 금액이 R\$30.00/ 50.00/100.00 단위로 있다. 이 외에 별도의 가입비는 없으므로 전화를 거는 것 보다 받는 것을 더 많이 하는 이용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단, 선불제의 경우 단말기 금액 및 분당 통화료가 후불 제도보다 조금 더 비싼 편이다.

후불방식의 경우, 여러가지의 패키지가 있는 편이며 본인의 통화 시간에 맞게 패키지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Vivo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패키지 플랜 들이 있다.

패키지 상품 종류	통화 시간 (분)	가격	무료 문자메세지(건)
Vivo Economico	35	R\$37	-
Vivo 50	50	R\$49	-
Vivo 90	90	R\$83	50
Vivo 180	180	R\$129	50
Vivo 350	350	R\$193	100
Vivo 650	650	R\$288	100
Vivo 900	900	R\$354	100
Vivo Completo	1400	R\$525	100

주: 사용료 후불제 기준

자료: Vivo 사이트 (2008년 9월 기준, 환율: 1달러=1.81 헤알)

라. 정부 등록



□ 신분증 신청

공무원들의 경우 관용 여권으로 들어와서 현지 외무부에 공용 ID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주재원들의 경우에는 현지 도착 후 영주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ID가 발급되기까지는 주로 1개월 내지 2개월이 소요되며 발급 이후 한국에서 가족을 데려오는 것이 보통이다. 영주비자의 경우에는 1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마. 자동차



1) 자동차 메이커

주요 자동차 메이커로는 Alfa Romeo, Audi, BMW, Chevrolet (General Motors), Chrysler, Citroen, Crosslander, Dodge, Ferrari, Fiat, Ford, Honda, Hyundai, Jaguar, Jeep, Kia, Land Rover, Lexus, Maserati, Mercedes Benz, Mitsubishi, Nissan, Peugeot, Porsche, Renault, Ssangyong, Subaru, Toyota, Troller, Volkswagen, Volvo 등 웬만한 자동차 메이커의 대부분이 브라질 시장에 진출해 있다. 현지에 자동차를 생산하는 GM, Fiat, Volkswagen 등의 경우 대부분의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여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브라질 국민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자동차는 GM의 GOL 시리즈이며, 오토매틱보다는 연료를 적게 소비하는 기계식 차량이 더 많이 팔린다. 최근에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80% 이상이 알코올과 휘발유의 혼용이 가능한 Flex 차량이다.

그동안 수입 차량만이 브라질 시장에서 유통되던 현대 자동차가 최근 브라질 투자 진출을 결정함에 따라, 2010년부터는 브라질 현지에서 생산한 현재 자동차가 선보일 예정이다.

2) 가격대

브라질에는 오토매틱 차량보다는 수동기어 차량이 더 많은 편이며 국산의 경우 약 R\$2만 부터 R\$20만 가량이며 수입차의 경우, R\$6만에서 약 R\$20만 까지 매우 다양한 편이다.

브라질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보이는 자동차 모델로는 골(Gol), 팔리오(Palio), 우노(Uno), 셀타(Celta), 폭스(Fox), 밀레(Mille) 등으로 조사됐는데, 동 차량은 모두 국민차 수준의 소형 차량이다. 배기량 1.0~2.0까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브라질 정부의 지속적인 공산품세(IPI) 감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배기량 1.0 이하의 국민차가 자동차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운전면허 신청



국제운전면허증이 효력이 별로 없으며, 국제운전면허증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교통국(DETRAN)에 정식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주재원으로서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대신 한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 원본을 가지고 현지의 공증번역사(TRANSLADOR JURAMENTADO)에 포어 원문으로 번역 및 공증을 의뢰하고 이를 교통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국에 운전 면허증 신청 시 발급일 까지는 주로 1주일 정도 소요된다. 대행사(Despachante)에 의뢰할 경우 R\$200 정도가 소요되며 직접 교통국에 찾아가는 불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 은행구좌

브라질은 수표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고 치안불안으로 인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수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기앞수표 개념과 다른 개인 당좌수표가 대부분이며, 수표 사용 시에는 현장에서 수표에 서명 날인하여 발행한다.

따라서 현지화 당좌계좌 개설은 필수적이고, ID 등이 발급된 후 정식으로 계좌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지화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주로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달러화 계좌는 Citi bank, Bank Boston 등 외국계 은행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송금 및 달러 인출 시 수수료가 높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직불카드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가전제품 및 IT 제품의 장기 할부 판매가 급증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자도 늘고 있다.

아. 병 원

브라질은 1980년대에 정부차원의 보건시설 확충과 민간 의료부문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민간보건부문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 특히 민간병원들이 상파울루 및 리우데자네이루 등 브라질 남부 및 남동부지역의 도시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농촌지역을 비롯하여 저개발지역인 북부지방은 의사와 간호원의 수가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 민간병원: 치료 및 입원비 등이 고가임.
- 공립병원: 주로 서민, 극빈층이 이용, 일반진료는 무료로 가까움.



□ 상파울루 시내 병원리스트

- Hospital Israelita Albert Einstein (종합)(www.einstein.br)
- Hospital Sao Luiz (종합)(www.saoluiz.com.br)

- Hospital Paulistano (종합)(www.hospitalpaulistano.com.br)
- Hospital Sao Camilo (종합)(www.saocamilo.com)
- Hospital da Beneficencia Portuguesa (종합)(www.beneficencia.org.br)
- Hospital das Clinicas (상파울루 주립대학병원- 종합)(www.hcnet.usp.br)
- Hospital do Cancer (암 전문 병원)(www.hcanc.org.br)
- Hospital Alvorada(www.hospitalalvorada.com.br)
- CEMA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www.cemahospital.com.br)
- Hospital Santa Catarina (종합/출산)(www.hsc.org.br)
- Hospital e Maternidade Santa Joana (출산/산부인과)(www.hmsj.com.br)
- Hospital e Maternidade Pro Matre (출산/산부인과)(www.promatre.com.br)
- Hospital Bandeirantes (종합)(www.hospitalbandeirantes.com.br)
- Hospital Sirio Libanes (종합)(www.hsl.org.br)
- Hospital do Coracao (심장 전문 병원)(www.hcor.com.br)
- Hospital 9 de Julho (종합)(www.h9j.com.br)
- Hospital Alemao Oswaldo Cruz (종합)(www.haoc.com.br),

자. 약 국

시내 도처에 소재하고 있어 약품구입이 용이하며 일반 약품은 가격이 저렴하다. 야간, 휴 일에는 당번제로 운영되며 Onofre처럼 24시간 운영하는 약국도 많이 있다. 일반 소화제, 치 료제 등 간단한 약품은 구입 가능하나 항생제, 마약성 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 입이 가능하다.

차. 인터넷

Speedy, Virtua, Giro (Wi-Fi), A Jato (Wi-Fi/Cable) 등이 있다.

1) 신청절차 및 기본요금 등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서비스 회사를 선택 후, Uol, terra, globo.com 등의 인터넷 서버 업체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비는 R\$19.90~35.00이다. 모뎀 사용시 인터넷 회사에 따라 다르며 모뎀이 필수일 경우도 있으며 케이블 티브이를 이용한 인터넷일 경우 별도로 필요 없다. 임대를 할 경우, 매월 임대료를 사용비와 함께 지불하며 월 약 R\$30.00 가량 이다.

2) 월 사용비

- Speedy: R\$35.00~180.00(200 Kbps - 1M), 모뎀 임대비: R\$17.80
- Giro: 가입비 R\$120.00, 월 사용료-R\$70.00 ~ R\$100.00 + 모뎀 임대료 월 R\$30.00
- Virtua: NET 케이블 티비 가입자만 가능, 모뎀 임대비 없음.
 - 월 R\$30.00 ~ 209.90(150 ~ 1200 Kbps)
- A Jato: 200kbps-모뎀 및 가입비 없음
 - Wi-Fi: TVA 케이블 TV 가입자 - R\$48.00/ TVA 케이블 TV 비 가입자- 월 R\$54.00
 - Cable: TVA 케이블 TV 가입자 - R\$68.80/ TVA 케이블 TV 비 가입자- R\$63.80

카. 보 험

1) 자동차보험

주요 자동차 보험으로는 Porto Seguro, Bradesco, Itau, Unibanco, Real, Maritima, AGF, Generali, Vera Cruz, Tokio Marine, Sul America 등이 있다. 과거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의 10% 정도를 생각하면 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차량의 메이커, 모델, 기능, 운전자의 거주 지역, 성격, 나이, 결혼여부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추세이다. 최소 차량 가격의 3~4%에서 최대 차량 가격의 30%까지 있다.

또 보험 가입자가 오랫동안 한 보험회사와 거래를 했을 시, 차량을 바꾸더라도 이전이 가능하고 가입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었을 시, 보너스가 제공되어 저렴해질 수 있다.

2) 의료보험

□ 주요 의료보험 회사

Sul America, Amil, Bradesco, Medial, Amesp, Avimed, Dix Amico, Green Line, Lumina Saude, Omint Saude, Samcil, Serma Vip System, Unimed Paulistana, Amil Dental (치과), Oral Pro (치과)

Amil사의 가격표(1인 가격 기준 예)

개인 의료 보험											
	Amil	Amil	Amil	Amil	Amil	Amil	Amil	Amil	Amil	Amil	Amil
연령	Next 10	Next 10	Blue I	Blue II	130	Blue Gold	140	140 Plus	160 I	160 II	160 III
0~18	82,55	89,55	95,00	115,00	145,00	165,00	202,00	252,47	350,00	500,00	650,00
19~23	107,32	116,42	123,50	149,50	188,50	214,50	262,60	328,21	455,00	650,00	845,00
24~28	118,05	128,06	135,85	164,45	207,35	235,95	288,86	361,03	500,50	715,00	929,50
29~33	128,67	139,59	148,08	179,25	226,01	257,19	314,86	393,52	545,55	779,35	1.013,16
34~38	141,54	153,55	162,89	197,18	248,61	282,91	346,35	432,87	600,11	857,29	1.114,48
39~43	155,69	168,91	179,18	216,90	273,47	311,20	380,99	476,16	660,12	943,02	1.225,93
44~48	202,24	219,41	232,75	281,75	355,24	404,25	494,91	618,53	857,50	1.224,98	1.592,48
49~53	232,58	252,32	267,66	324,01	408,53	464,89	618,53	711,31	986,13	1.408,73	1.831,35
54~58	290,73	315,40	334,58	405,01	510,66	581,11	711,31	889,14	1.232,66	1.760,91	2.289,19
59세이상	495,30	537,30	570,00	690,00	870,00	990,00	1.212,00	1.514,82	2.100,00	3.000,00	3.900,00
보상액			46,00	46,00	46,00	46,00	46,00	92,00	138,00	230,00	322,00

주: Amil Next 10, Amil Blue I, 130.은 보험 종류로, 보험료 가격에 따라 사용 가능한 병원 및 서비스가 차별됨, 환율: 2008년 9월 23일 기준 1달러=1.81헤알)

자료: Amil

브라질에서는 의료 보험을 소유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병원 및 진료소 등을 이용할 시, 한국과는 달리 진료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 수술의 경우 모든 비용은 보험사 부담이며(중간급 이상의 경우 수술비 및 입원비가 전액 지원됨)입원의 경우, 본인 보험의 레벨에 따라 1인실이나 2인실, 3인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보험의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병원 또는 진료소를 사용할 시,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3)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국내 주요 은행들이나 의료보험회사들이 관리하며 보험금은 약 R\$2,500.00부터 R\$20만(Bradesco Seguro de Vida)이다.

4) 교육보험

개인 교육보험(Seguro Educacional Individual)으로 불리는 이 보험은 학생의 보호자의 사고 및 사망 시 학비를 제공해 주는 보험제도이다. 몇몇 사립 학교에서는 학생의 입학 등록 시, 동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학교들도 있다.

8. 출장 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특성

브라질의 기후는 대략 적도 기후, 열대 기후, 아열대 기후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서로 인접한 지역이라도 환경 조건에 따라 기후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방대한 국토에 지역마다 상이한 환경을 가진 브라질의 기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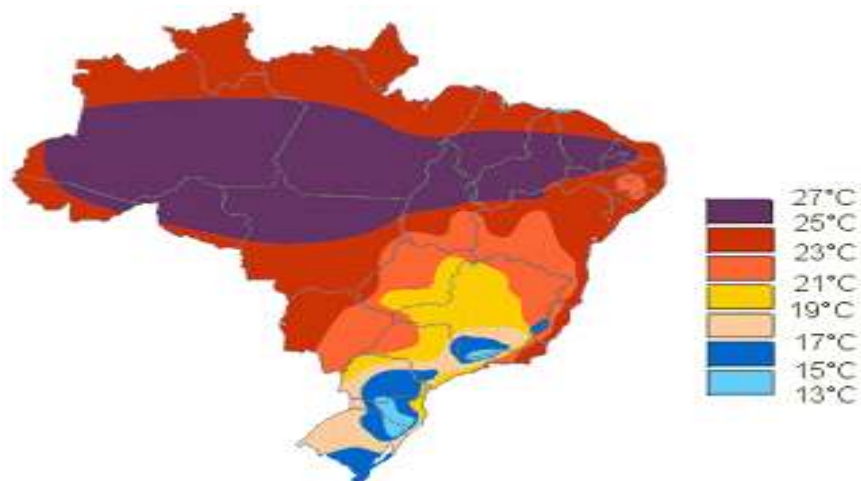
국토의 92% 이상이 남회귀선 (Tropic of Capricorn) 위쪽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는 열대 기후를 가진 국가로 분류되며, 파라나(Paraná), 산타 카타리나(Santa Catarina), 리우그란데 두 술(Rio Grande do Sul)등 남부 3개 주(州)및 상파울루 주 남부 지방만이 온대기후에 속한다.

브라질 기후 분포도 및 특징



Am	- 고온 다습한 기후 - 연 평균 기온 20~22℃ 사이이며, 22℃를 훨씬 웃도는 날도 많음.
Aw	- 여름철에 큰 강우량을 보임. - 고온 다습한 기후 - 연 평균 20℃를 웃도는 기후로 겨울에도 18℃ 정도를 유지함.
Aw	- 고온 다습한 기후 - 여름과 가을철에 큰 강우량을 보이며 연 평균 기온이 20℃ 이상임.
Cwa	- 온대 기후 - 여름철에 매우 덥고 비가 자주 옴. - 겨울 철 최저 기온 20℃ 이하인 경우가 많음.
Cfa	- 온대 기후 - 여름철에 기온이 크게 상승하며 비도 자주 내림. - 겨울철에는 간혹 서리가 내리기도 하며, 평균 기온이 16℃ 정도임. - 여름철에는 30℃ 이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경우도 잦음.
Af	- 연중 고온을 유지하며 연 평균 기온이 20℃ 이상임.
As	- 가을과 겨울철에 비가 잦으며 연평균 기온 20℃ 이상임.
BSh	- 연중 고온이 계속되며 겨울철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음. - 연 평균 기온 22℃ 이상임.
Cwb	- 여름철 기후는 그리 덥지 않고 비가 잦으며, 가을 겨울철에는 간혹 서리가 내림. - 연 평균 기온이 18℃ 정도이며 겨울철 최저 기온이 12℃ 이하인 날도 있음.
Cfb	- 여름철에 그다지 덥지 않으며 비가 자주 내리는 편임. - 겨울에는 서리도 가끔 내리며 한 여름을 제외한 연 평균 기온이 20℃를 상회함. - 겨울철 평균 기온 약 14℃ 정도이며 최저 기온이 8℃ 이하인 날도 자주 있음.

지역 별 연중 평균 기온 분포도



2) 브라질의 삼림

다양한 기후를 가진 브라질은 식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특히 희귀한 식물과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살고 있는 아마존 삼림 지대와 판타날(Pantanal) 늪지대는 브라질 삼림 중 최대의 보고(寶庫)로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아라우까리아(Araucária) 나무 숲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서부 지방에는 가지가 구부러진 중간 크기의 나무가 빼곡히 들어찬 세하두(Cerrado) 숲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숲은 나무 외에는 별다른 종류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시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토양이 품질이 매우 우수하며 가축 사육에도 적절하다.

대서양을 인접한 브라질 해안 지역은 야자수를 비롯한 각종 열대 삼림이 우거져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요 도시 연 평균 기온

도시	평균 기온	평균 기온	도시	평균 기온	평균 기온
Brasília	7월 19,2°C	10월 22,4°C	Macapá	3월 25,7°C	10월 27,9°C
Manaus	2월 26,0°C	10월 27,6°C	Belém	2월 24,5°C	4월 26,7°C
Rio Branco	6월 23,2°C	10월 25,7°C	Porto Velho	6월 23,5°C	10월 25,8°C
Palmas	1월 25,5°C	9월 28,0°C	São Luiz	2월 25,7°C	11월 27,0°C
Teresina	2월 23,6°C	10월 29,0°C	Fortaleza	7월 25,7°C	1월 27,3°C
Natal	7월 24,4°C	2월 27,7°C	João Pessoa	7월 23,7°C	10월 27,7°C
Recife	8월 23,9°C	1월 26,6°C	Maceió	8월 23,5°C	1월 26,3°C
Aracaju	8월 24,5°C	3월 27,2°C	Salvador	7월 23,6°C	3월 23,7°C
Belo Horizonte	7월 18,1°C	2월 23,2°C	Vitória	7월 21,7°C	3월 29,5°C
Rio de Janeiro	7월 21°C	2월 26,5°C	São Paulo	7월 15,8°C	2월 22,4°C
Curitiba	6월 12,2°C	2월 19,9°C	Florianópolis	7월 16,3°C	2월 24,7°C
Porto Alegre	6월 14,3°C	2월 24,7°C	Campo Grande	6월 19,1°C	1월 24,4°C
Cuiabá	7월 22,0°C	11월 27,2°C	Goiânia	7월 20,8°C	10월 24,6°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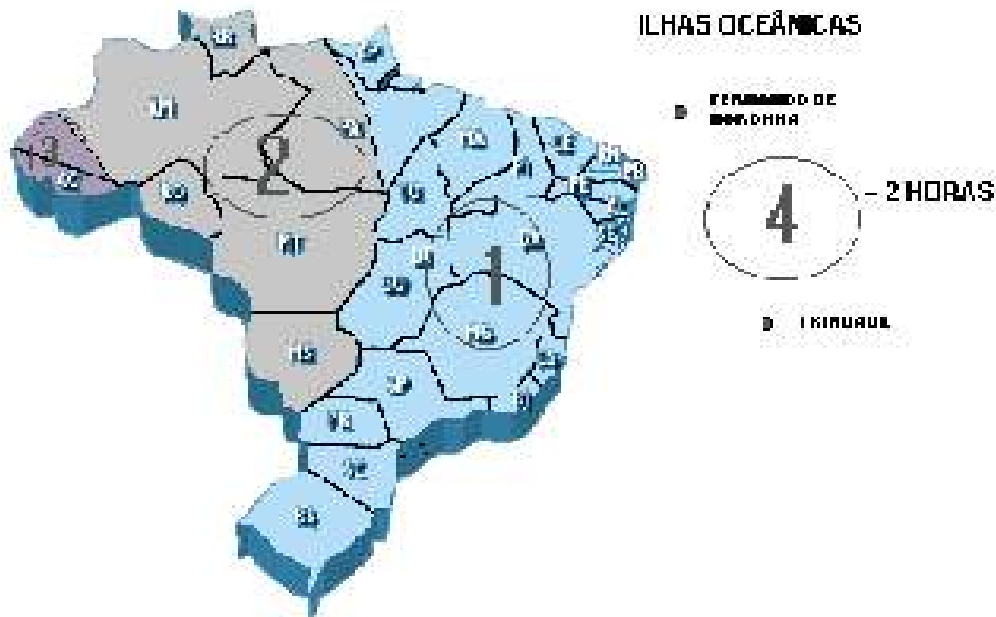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서울과 상파울루는 정확히 12시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서울 기준 10월 25일 오전 10시는 상파울루 24일 오후 10시가 된다. 하지만 한국과 브라질의 서머 타임 실시 기간에는 시간차가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 서머타임제는 브라질리아 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참가하는 주(州)들은 시계를 1시간 앞당겨 조절한다. 서머타임 기간 중에는 한-브라질 시차가 11시간이 된다.

국토가 방대한 브라질에서는 브라질리아 시각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있으며 그린위치 시계보다 적게는 2시간 많게는 5시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브라질리아(1지역)의 오전 10시는 파라(Pará) 주의 벨렝(Belém) 시(2지역)에서는 오전 9시, 아크레(Acre) 주의 리우브랑쿠(Rio Branco) 시(3지역)에서는 8시인 반면, 페르난도 데 노롱냐(Fernando de Noronha) 섬(4지역)에는 브라질리아(Brasília) 보다 1시간 빠른 오전 11시에 해당한다.



시차	지역
Greenwich 시각 - 3시간	제1지역
Greenwich 시각 - 4시간	제2지역
Greenwich 시각 - 5시간	제3지역: Acre 주와 Amazonas 주 일부
Greenwich 시각 - 2시간	제4지역: Fernando de Noronha Trindade 등의 대서양 연안의 섬

2) 근무 시간

근무 시간에 대한 규정은 도시마다 약간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심 시간은 12시~14시까지 두 시간이나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점심 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곳도 많다.

은행의 경우, 월~금 9시~16시까지 영업하며, 일반 상점 등은 월~토 9시~18시까지 영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레스토랑의 경우 11시에 개점하여 익일 새벽 2~3시까지 영업하는 곳도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금요일 근무는 평소보다 1시간 빠른 17시에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

쇼핑센터의 경우, 평일과 토요일에는 10시에 개점하여 22시에 폐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요일 또는 공휴일(업소 별 개점 여부 자유 선택)에는 14시에 개점하여 20시에 폐점한다.

다. 주요 단위

1) 전기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전압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상파울루와 리우 데 자네이루 지역에는 60Hz, 110V 또는 120V가 일반적이거나, 살바도르나 마나우스 시에는 127V, 헤시페, 브라질리아 등의 지역에서는 220V 가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브라질 가전제품 업체의 경우 110/220V 겸용 제품을 만들거나 2가지 모델을 독립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흔하다. 상파울루에서 220V 전용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적정 코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는 변압기를 사용하거나 새로 코드를 설치해야 한다. 전기코드는 미국산 모델과 유사하며 보통 2개의 구멍(11자, 돼지코 모양)이 나 있으나 한국산과는 규격이 조금 달라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도량형

세계 도량형 시스템과 일치

단위	단수	복수	표기
길이	metro(미터)	metros	m
	polegada(인치)	polegadas	"
면적	metro quadrado	metros quadrados	m ²
부피	metro cúbico	metros cúbicos	m ³
시간	segundo	segundos	s
	minuto	minutos	min
	hora	horas	h
주파수	hertz	hertz	Hz
속도	metro por Segundo(초속)	metros por segundo	m/s
무게	grama	gramas	g
	quilograma	quilogramas	kg
	tonelada	toneladas	t
압력	pascal	pascals	Pa
전력	watt	watts	W
전기	ampere	amperes	A
전압	volt	volts	V
온도	grau Celsius	graus Celsius	°C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 비자의 종류

비자 종류	D	O	T	II
무비자	90일까지	90일까지	90일까지	90일까지
대상	관용여권 소지자 (외교용)	관용여권 또는 취업여권 소지자	일반여권 소지자 (관광용)	일반여권 소지자 (비즈니스용)

- 위에 언급한 비자 종류는 다시 통과비자, 관광비자, 임시비자, 영구비자, 공무비자, 외교비자 등으로 나뉘어진다.
- 통과 비자: 브라질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향하는 여행객에게 발행하는 비자로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제시하고 브라질 경유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 관광 비자: 한국과 맺은 비자 협정에 의해 체류 기간 90일까지는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 기간 이상 체류를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관광, 친지 방문이나 비즈니스 상담 등의 목적으로 브라질을 방문할 경우에 해당하는 비자이다.

□ 비자 취득 및 체류 연장

- 브라질 비자 취득 또는 연장 시에는 업무 처리 시간이 지연되어 불편을 겪는 일이 빈번하나,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여 기한 내에 해당 기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브라질 정부는 일부 국가(브라질 국민에게 복수 비자를 발행해 주는 국가)에 한해서 복수 비자를 발행하기도 하는 데, 기간은 최고 5년까지이다.
-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통상 90일까지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자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하며, 복수 비자 소지자의 경우도 단수 비자 소지자와 동일하게 체류 기간이 적용된다.
- 체류 연장을 희망할 경우 비자 기간 만료 전에 연방 경찰의 이민국을 찾아 체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시 초과 일수에 비례하는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비자 만료일로부터 8일 안에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체류 연장은 12개월 마다 1회 가능하며, 연장 기간은 비자 기간과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나 연방 경찰의 결정에 따라 기간이 감소할 수도 있다.
- 비자 종류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진다. 관광 비자의 경우, 여권과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취업 비자 또는 이민 비자의 경우는 고용 계약서, 학력 증명서, 근무 경력 증명서 등이 추가된다. 비자 신청 비용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비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브라질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은 여권 만료 기간이 입국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간혹 이민국 통과 시 귀국 일이 명시된 비행기 티켓이나 여행자 수표, 신용카드, 현금 등의 제시를 요구하며 귀국일자 및 체류 비용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국민은 자국 주민등록증만 소유하면 브라질을 여행할 수 있다,

2) 출입국 수속 및 세관 신고

□ 출입국 수속 절차

- 이민국을 통과하여 입국 날짜가 명시된 도장을 여권에 날인한다.
- 세관 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직원으로부터 가방 검사를 받는다.

- 세관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공항 외부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세관 검사 유무를 판가름하는 버튼을 눌러야만 한다.
- 녹색 버튼이 켜지면 세관 검사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항 외부로 나갈 수 있으며, 적색 버튼이 켜지면 세관 검사를 거치게 된다. 버튼은 가방 크기나 화물의 종류의 상관 없이 무작위로 켜진다.
- 신고 대상 품목이 세관 검사 시(적색 등이 켜졌을 때)에 발견되면 자발적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많은 벌금이 부과된다.
- 세관 신고 면제 품목
 - 개인용 의류 및 위생용품
 - 서적 및 잡지
 - 개인 사용용 의약품
 - 담배 400g까지(시가는 250g까지): 18세 이상의 여행객에만 해당
 - 라디오 1대
 - CD 플레이어 1대
 - 카메라 1대
 - 캠코더 1대
 - 개인용 PC

* 위의 품목의 경우에는 세관 신고가 필요 없으며,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가격 제한은 없다. 농산물 중 특히 부패 위험이 있는 식품의 경우 국내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나, 단 공항 내 Duty Free Shop 에서 구입했을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하다.

□ 공항- 시내 간 교통편

- 브라질 입국은 일반적으로 상파울루 시에 위치한 과룰류스 국제공항(Aeroporto Internacional de São Paulo/Guarulhos)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밖에도 국내선 및 브라질을 거쳐 제3국으로 향하는 일부 항공사의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콩고냐스 (Aeroporto Internacional de Congonhas) 공항이 있다.

□ 과룰류스 공항 기점 순환 버스 노선

- Guarulhos – Hoteis Paulista/Augusta
 - 공항을 출발해 빠울리스타 거리(Avenida Paulista)와 아우구스타 거리(Rua Augusta) 근교의 호텔을 경유해 다시 공항으로 되돌아 오는 노선
- Guarulhos – República
 - 과룰류스 공항과 헤뿌블리카(Republica)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
- Guarulhos – Congonhas
 - 과룰류스 공항과 콩고냐스 공항 간을 연결하는 노선

- Guarulhos – Terminal Rodoviário Tietê
 - 과룰류스 공항과 치에떼(Tiete) 고속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노선
- Guarulhos – Shopping Eldorado
 - 과룰류스 공항과 엘도라도(Eldorado)쇼핑센터를 연결하는 노선
- Guarulhos – Terminal Rodoviário Barra Funda
 - 과룰류스 공항과 바하 폰다(Barra Funda) 고속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노선

□ 공항 순환버스 사용료

- 현재 Air Bus Service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항 순환 버스 이용료는 R\$29 이며, 고속 버스 터미널 Tiete와 Barra Funda 행은 R\$ 28을 받는다. 요금 인상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탑승 전에 미리 확인 하는 것이 좋다. (1달러= R\$1.80)

□ 공항 순환버스 티켓 구입처

- 과룰류스 공항 내 매표소: (11) 6445-3811
- 콩고냐스 공항 내 매표소: (11) 5090-9225



□ 과룰류스 공항- 시내(Avenida Paulista) 기준 택시

- 대략 R\$90.00 수준(1달러= R\$1.80)
- 공항 바로 앞에 택시 정류장이 있으며 행선지를 말하면 요금을 알려주고, 택시 정류장에서 순서대로 택시에 탑승한다. 요금은 운전자와 미리 합의한 금액 또는 미터기에 보이는 금액을 내면 된다.

□ 주의 사항

- 화물에는 반드시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연락처, 목적지 등을 적은 쪽지를 가방 안에 넣는다.
- 화물 분실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가방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도 이러한 개인 정보가 있으면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복잡한 공항 대기실이나 버스 터미널 등지에서는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짐을 보관하여 분실을 미연에 방지한다.

마. 환율/환전

1) 환율

1994년 화폐 개혁 이후 탄생한 브라질 화폐는 헤알(Real)로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현재 지폐로는 1헤알, 2헤알, 5헤알, 10헤알, 20헤알, 50헤알, 100헤알이 사용되고 있으며, 동전으로는 1센타보(Centavo), 5센타보, 10센타보, 25센타보, 50센타보, 1헤알이 사용되고 있다.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BANCO CENTRAL DO BRASIL 1 REAL R 0003002824 C	1 헤알
 BANCO CENTRAL DO BRASIL 2 REAIS R 0000000000 R	2헤알
 BANCO CENTRAL DO BRASIL 5 REAIS R 0000000000 R	5헤알
 BANCO CENTRAL DO BRASIL 10 REAIS R 0000003000 R	10헤알
 BANCO CENTRAL DO BRASIL 20 REAIS R 0000000000 R	20헤알
 BANCO CENTRAL DO BRASIL 50 REAIS R 0000003000 R	50헤알
 BANCO CENTRAL DO BRASIL 100 REAIS R 0000001000 R	100헤알

2) 환전

브라질에서 달러 ↔ 헤알 또는 유로 ↔ 헤알로 환전할 수 있으며, 특히 달러 환율은 보통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환전 시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2008년 9월22일 기준 환율 U\$1=R\$1.80)

- Dolar Comercial: 수출입 등 상거래 시 또는 은행 간 거래 시에 적용되며 중앙은행에 의해 엄격히 관리된다.
- Dolar Paralelo: 주로 달러 상인들에 의해 정부에 신고 없이 암거래할 때 적용된다.
- Dolar Turismo: 중앙은행에 등록된 환전소에서 거래되는 달러로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개인이 환전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일반 은행이나 환전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며, 상파울루 지역이나 리우 지역 중심지에는 곳곳에 환전소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쇼핑센터 및 관광지에서는 환전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환전 시에는 골목 등의 외진 곳보다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의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환전 시에는 가능하면 주변 사람에게 환전 액수가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하는 것이 좋다. 암달러 상 등을 이용할 경우 다소 높은 환율을 적용하여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위폐를 받게 될 위험도 크다. 브라질에는 중앙은행 허가 하에 영업 중인 환전소에서 바꾼 달러조차도 위폐일 경우가 간혹 있다.

달러 환율 변동 2007년 10월~2008년 9월



자료: 정보 포털 사이트 Terra

□ 상파울루 지역의 환전소 및 환전 가능한 은행

- Sagitur
 - Av. Roque Petroni Jr., 1089 (Morumbi Shopping – Piso Térreo),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5181-7386 / 5182-0287
- Action – Aeroporto de Guarulhos (과를류스 공항 내)
 - Rodovia Helio Smidt, S/N, TPS1, Piso Terreo, Cumbica, Zip 07141-970, Guarulhos, SP, Brazil
 - Tel: (55-11) 6445-4459
 - Fax: (55-11) 6445-4458
 - Email: aeroportodecumbica@actioncambio.com.br
 - www.actioncambio.com.br
- Action – Aeroporto de Congonhas(콩고냐스 공항 내)
 - Av. Washington Luiz , piso terre São Paulo SP Campo Belo
 - CEP 04626-001
 - Tel: 11 5090-9247
 - www.actioncambio.com.br
- Action – Shopping Center D&D
 - Av. Das Nacoes Unidas, 12.555, Lj. 144, Mezanino, Brooklin Novo, Zip 04578-903,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3043-9173
 - Fax: (55-11) 3043-9996
 - Email: shoppingded@actioncambio.com.br
 - www.actioncambio.com.br
- Action – Shopping Plaza Sul
 - Pca Leonor Kaupa, 100, Lj. 228, Jardim da Saude, Zip 04151-100,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5073-0355
 - Fax: (55-11) 5073-9145
 - Email: plazasul@actioncambio.com.br
 - www.actioncambio.com.br
- Banco do Brasil
 - R. São Bento, 483, Centro, Zip 01011-100,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3101-3614
 - www.bb.com.br
- Banco Real
 - Av. Paulista, 1374 1º Andar, Bela Vista, Zip 01310-100,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3174-9740
 - www.bancoreal.com.br

- Citibank
 - Av. Paulista , 1111, Zip 01311-920, Bela Vista,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4009-3000
 - www.citibank.com.br
- Bradesco
 - Av. Brigadeiro Faria Lima , 1664, Jd. Paulistano, Zip 01451-001,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3815-7299
 - www.bradesco.com.br

바. 교통/통신

1) 비행편

□ 서울-상파울루 비행편

- 2008년 6월 초 대한항공 서울-상파울루 간의 직항편이 다시 개통 되었으며 이외에도 유럽,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등을 경유하여 브라질에 입국할 수 있다.

항공사	출발지	경유지	경유지	도착지
Air Canada	Seoul	Vancouver-CAN	Toronto-CAN	São Paulo
대한항공	Seoul	LA-USA	LA-USA	São Paulo
Air France	Seoul	Paris-FRA	Paris-FRA	São Paulo
아랍에미리트	Seoul	Dubai-UAE	Dubai-UAE	São Paulo
Alitalia	Seoul	Roma-ITA	Roma-ITA	São Paulo
Continental Air lines	Seoul	Tokyo-JAP	New York-USA	São Paulo
KLM	Seoul	Amsterdam-HOL	Amsterdam-HOL	São Paulo
Lufthansa	Seoul	Frankfurt-GER	Frankfurt-GER	São Paulo
	Seoul	Frankfurt-GER	Zurique-SUI	São Paulo
Swiss International Air Lines	Seoul	Frankfurt-GER	Frankfurt-GER	São Paulo
United Airlines	Seoul	New York-USA	New York-USA	São Paulo

- 모든 항공사는 전화 및 웹사이트를 통하여 예약이 가능하며, 아래 요금은 서울 발 상파울로 행 비행편 이코노믹 클래스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여행시기 및 기간에 따라 가격이 다소 차이가 난다.

□ 취항 항공사 리스트

- 대한항공
 - Tel: (55-11) 3151-3922
 - Fax: (55-11) 3284-7173
- Air Canada
 - Tel: (55-11) 3254-6630
 - Fax: (55-11) 3254-6639

- Air France
 - Tel: (55-11) 3049-0900
 - Fax: (55-11) 3049-0900
 - 화물 관련 문의: (55-11) 6445-5835
 - 과룰류스 공항 데스크: (55-11) 6445-2211
- Alitalia
 - Tel: (55-11) 2171-7610
 - Fax: (55-11) 2171-7610
 - 화물 관련 문의: (55-11) 6445-5304
 - 과룰류스 공항 데스크: (55-11) 6445-2005
- American Airlines
 - Tel: (55-11) 4502-4000
 - Fax: (55-11) 4502-4000
 - 과룰류스 공항 내 데스크: (55-11) 6445-4069
- Continental Air lines
 - Tel: (55-11) 6445-4208
 - Fax: (55-11) 6445-4287
 - 화물관련정보: (55-11) 6445-4188
- KLM
 - 상파울루 사무소
 - Tel: 0800-880-1818 (무료 전화)
 - Fax: (55-11) 3212-1864
 - Check-In: (55-11) 6445-2011 / 6445-2887 Fax: (11) 6445-2623
 - 화물 관련 정보: (55-11) 3051-7210 / 3051-5788
 - 리우 데 자네이루 사무소
 - Tel: (55-21) 3212-1861
 - Fax: (55-21) 3212-1846
- Lufthansa
 - 상파울루 사무소
 - Tel: (55-11) 3048-5800
 - Fax: (55-11) 3846-5568
 - 공항 데스크: (55-11) 6445-3906 / 6445-2499
- Swiss International Air Lines
 - 상파울루 사무소
 - Telefax: (55-11) 3016-4747
 - 과룰류스 공항 데스크: (55-11) 6445-2572
 - Fax: (55-11) 6445-3158
 - 화물 관련 안내: (55-11) 6445-5010 / 6445-5003

- United Airlines
 - 상파울루 사무소
 - Tel: (55-11) 3145-4200
 - Fax: (55-11) 3145-4284

2) 시내교통

□ 버 스

버스는 브라질에서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이지만 버스 노선이 많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다. 상파울루 지역의 경우 9,000대의 일반버스가 통행하고 있지만 단번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노선이 없어, 2번 이상을 바꾸어 타거나 지하철로 바꾸어 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ilhete Unico는 일반 Pre-Paid 카드처럼 일정액을 입금한 후에 버스 또는 지하철 승차 시 요금 지불을 위해 사용하는 카드로, 여러 번 대중교통을 바꾸어 타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2시간 이내에 버스 또는 전철을 4번까지 환승할 수 있으며, 맨 처음에 탑승하는 교통수단에서만 (버스, 전철 또는 국철) 요금이 정산되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패스하면 된다. Bilhete Unico는 주요 지하철역에 매표소가 있다.

상파울루에서 운행하는 일반 버스



시영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시설은 상당히 낙후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

2008년 9월 기준, 상파울루 시내 버스요금은 R\$2.30(성인 기준)이다.

□ 지하철·철도

상파울루 시 지하철은 남북을 잇는 자바파라(Jabaquara)와 산타나(Santana)간의 17Km 노선(18 개역)과 동서로 달리는 이타게라(Itaquera)-바하 폰다(Barra Funda) 등 4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4호선 건설이 진행 중에 있다.

리우에는 1호선과 2호선이 있다. 철도편은 완전히 낙후되어있는 상황으로 상파울루 근교 도시를 잇는 구간을 제외하곤 거의 물품 수송 수단으로만 사용된다. 같은 지점을 가는 데에도 지방버스보다 시간이 더 걸리며 불편하므로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 상파울루 지하철 노선

- 1호선: Linha Azul(청색선): Jabaquara – Tucuruvi 구간 운행
- 2호선: Linha Verde(녹색선): Ana Rosa – Vila Madalena 구간 운행
- 3호선: Linha Vermelha(적색선): Corint/Itaquera – Barra Funda 구간
- 4호선: Linha Amarela(황색선): Luz – Vila Sonia 건설 중
- 5호선: Linha Lilas(자색선): Capao Redondo – Largo Treze 구간 운행

상파울루 지하철 티켓 종류 및 요금

	1회용 티켓	R\$2.40	1회 탑승 가능
	5호선 전용 티켓	R\$2.30	1회 탑승 가능
	노인용 티켓	-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으로 발급하며, 발급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함.
	실업자용 티켓	-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당한 실직자에게 무상으로 발급되며 90일간 유효함.

자료: 상파울루 지하철 공사, 2008년 9월 기준 환율 1달러= R\$1.80

□ 택시

택시는 우리나라의 콜택시에 해당하는 '라디오' 택시와 일반 택시가 있으며, 요금은 일반 택시에 비하여 콜택시가 약 2배 가량 비싼 편이다. 팁은 없지만 거스름돈이 잔돈일 경우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상례이다.

도심여행 중에는 택시 이용이 안전하며,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목적지를 적어 두었다가 운전기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브라질이 초행인 경우에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

브라질에서 택시제도가 잘 발달 되어 있으며, 주소만 운전사에게 말하면 대부분 목적지까지 안내해 준다. 단 운전사의 대부분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주소를 적어 줄 필요가 있다.

길에서 운행 중인 택시를 불러 타는 것보다 “Ponto de Taxi” 라고 표시된 택시 정류장에서 탑승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Ponto de Taxi” 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들은 시청에

등록된 차량이며, 신분이 분명한 택시 운전사만이 “Ponto de Taxi” 에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시절에는 택시 요금을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맞춰 수시 인상하였기 때문에 미터기를 지수화하고, 지수에 맞는 요금표를 택시에 비치하고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요금표를 수시로 교체하였다. 인플레이 시대 이후에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택시미터기에 직접 요금이 표시되고 있다.

택시 요금의 경우 시간 기준제와 거리기준제가 혼용되고 있고(기본은 시간제이나 일정 속도가 넘으면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함. 일례로 교통이 막혀 1시간 동안 주행하지 않고 멈춰있을 경우 약 28헤알의 요금을 물게 된다.) 대략 1km 주행 시 평균 R\$ 2,10 요금을 징수하며, 기본요금은 R\$3.50이다. 20시~익일 오전 6시 사이에는 30% 할증료가 붙는다.

3) 국내교통

□ 비행기

대부분의 세계 주요도시와 브라질 간 운행노선이 있어 항공편은 편리한 편이며 대부분 상파울루의 과룰류스(Guarulhos) 공항이나 리우데 자네이루의 갈레아웅(Galeao)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과룰류스 국제공항 공항세는 86헤알이며 유럽 또는 미국을 경유하여 한국-브라질 여행시 왕복 공항 이용요금은 400~500헤알선이다. 국내항공도 잘 발달되어 있으나 독과점인 관계로 요금이 비싼 편이다.

국내 항공요금

출발지	도착지	왕복 요금 (단위 R\$)
상파울루	리우	500~900
상파울루	마나우스	1700~3000
상파울루	쿠리치바	500~900
상파울루	포르투알레그레	500~900

□ 고속버스

고속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브라질에는 가까운 지방으로 여행할 경우에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 장거리 여행용 버스에는 침대 및 화장실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상파울루 시내에는 Tiete와 Barra Funda, Jabaquara 3개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으며 목적지에 따라 터미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발 전에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한다.

□ 자바파라(Jabaquara)터미널

지하철 자바파라 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9개 도시를 연결하는 6개 회사 17개 버스 노선이 운행 중에 있다.

- 주소: R. Jequitibas, S/N
- 전화: (55-11) 3235-0322
- 목적지: Cidade Ocian, Cubatao, Itanhaem, Mongagua, Peruibe, Santos, Sao Vicente, Bertioga, Guaruja, Vicente de Carvalho, Ponta da Praia, Praia Grande, Boqueirao, Rivieira

□ 바하폰다(Barra Funda) 터미널

지하철 바하폰다 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466개 도시를 연결하는 168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다.

- 주소: R. Mario de Andrade, 664
- 전화: (55-11) 3235-0322
- 목적지: 파라나 주, 상파울루 남부 지방, 고이아스 일부 도시, 마투그로수두술(Mato Grosso do Sul) 지역 일부 도시 및 볼리비아(Ribeira Alta)

□ 치에테(Tiete) 터미널

국내 최대 규모의 고속버스 터미널인 치에테 터미널에는 아마존지역과 아크레(Acre) 지역을 제외한 전국 611개 도시로 향하는 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등 국경선을 통과하여 이웃나라로 여행할 수 있는 고속버스 편도 이곳에 있다.

- 주소: Av. Cruzeiro do Sul, 1800, Vila Guilherme
- 전화: (55-11) 3235-0322
- 목적지: 전국 611 개 도시 및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4) 우편

우체국 업무시간은 월~금, 9시~18시이며 시가 직영하는 우체국과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우체국이 있는데 어느 쪽을 이용해도 우편물 운송에는 지장이 없다.

국내 우편 요금	일반 국내 우편 (단위: R\$)		상업용 인쇄물 (단위: R\$)	
무게 (g)	일반 우편	등기 우편	일반 우편	등기 우편
20 까지	0,60	3,20	0,90	3,50
20~50	0,90	3,50	1,20	3,80
50~100	1,35	3,95	1,70	4,30
100~150	1,65	4,25	2,05	4,65
150~200	2,00	4,60	2,40	5,00
200~250	2,30	4,90	2,80	5,40
250~300	2,60	5,20	3,15	5,75
300~350	2,90	5,50	3,55	6,15
350~400	3,20	5,80	3,90	6,50
400~450	3,50	6,10	4,30	6,90
450~500	3,80	6,40	4,65	7,25

자료: 브라질 우편 업무 사이트(www.correios.com.br)

□ SEDEX Mundi

우체국 특급우편이며 한국까지는 4일(서류) 또는 5일(소포)이 걸린다. 하지만 브라질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일을 제외한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해야 하며 tracking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는 다른 방법을 통해 우송하는 것이 좋다.

□ EMS

우체국 특급우편으로 해외로 보내지는 소포 배달 기간은 2~6일 정도 소요된다. 역시 트래킹이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소포 등은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서류 우송	소포 우송
수신지: 한국	수신지: 한국
무게: 500g	무게: 1000g
운송방법: EMS	운송방법: EMS
운송료: R\$67.00	운송료: R\$132.00
무료보험: R\$100.00 까지	무료보험: R\$200.00 까지

5) 특급운송회사

□ TNT

- 주소: R. Rishin Matsuda, 569, V. Santa Catarina, Zip 04371-000,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5564-8600
- Fax: (55-11) 5564-8620
- 홈페이지: www.tnt.com

□ DHL

- 주소: Av. Santa Maria 1660, Lap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618-3200
- Fax: (55-11) 3618-3303
- 홈페이지: www.dhl.com.br

□ FedEx

- 주소: Av. Das Nacoes Unidas, 17.891, Terreo, Zip 04795-100,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5641-7788
- Fax: (55-11) 5514-7343
- 홈페이지: www.fedex.com.br

6) 전화

호텔에서 외부로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사용요금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고 전화를 해야 한다. 일반 전화를 사용하여 국제통화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국내 통화를 희망할 경우, 현금 또는 카드가 없는 비상시에는 수신자부담 통화를 할 수 있다. 수신자부담 통화는 상대방이 통화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가 연결된 즉시 자신의 이름을 밝혀야만 상대방이 끊어버리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휴대폰, 공중전화 또는 일반 전화를 사용하여 통화가 가능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9090을 누르고 희망하는 번호(1234-5678)를 누른다.
 - 예) 9090 - 1234-5678
- 시외통화 희망 시 9를 누르고 지역번호와 통화 희망번호를 누른다.
 - 예) 9 - 19 - 1234-5678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국제전화를 할 경우 현지통화 요금이 적용되어 매우 저렴하게 한국과 통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atin America Telecom R\$50짜리를 구입하면 중국, 미국, 홍콩, 대만은 11시간 54분 통화 가능, 한국 및 유럽은 7시간 34분 통화 가능, 일본은 6시간 56분 통화가 가능하다. 또한 동 카드로 국내 전화를 할 경우에도 요금이 매우 저렴한 편이다.

50헤알, 30헤알, 10헤알 등 다양한 가격의 전화 카드가 있으며, 구입처는 오푸기 슈퍼, 롯데 식품, 제일 식품 등 한인 타운 소재 식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터넷 전화를 통해 국제 통화가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한인 타운인 봉헤찌로 지역에서 구할 수 있다.

7) 인터넷

Speedy, Virtua, Giro, Jato (Wi-Fi/Cable) 등의 인터넷 회사가 있으며 시내에서는 Lan house, PC Café 등 한국의 PC 방 같은 곳이 다수 있어 이메일 체크나 인터넷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Mc Café, Starbucks 등 일부 커피 전문점, 대형 서점 등에서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 신청절차 및 기본요금 등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서비스 회사를 선택 후, Uol, terra, globo.com 등의 인터넷 서버 업체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비는 R\$19.90~35.00이다.

모뎀 사용시 인터넷 회사에 따라 다르며 모뎀이 필수일 경우도 있으며 케이블 TV를 이용한 인터넷일 경우 별도로 모뎀이 필요없다. 임대를 할 경우, 매월 임대료를 사용비와 함께 지불하며 월 약 R\$30.00 가량이다.

□ 월 사용비

- Speedy - R\$35.00~180.00 (200 Kbps - 1M), 모뎀 임대비: R\$17.80
- Giro- 가입비 R\$120.00, 월 사용료- R\$70.00 ~ R\$100.00 + 모뎀 임대료 월 R\$30.00
- Virtua- NET 케이블 TV 가입자만 가능, 모뎀 임대비 없음.
 - 월 R\$30.00 ~ 209.90 (150 ~ 1200 Kbps)
- A Jato- 200kbps - 모뎀 및 가입비 없음
 - Wi-Fi: TVA 케이블 TV 가입자- R\$48.00, TVA 케이블 TV 비 가입자- 월 R\$54.00
 - Cable: TVA 케이블 TV 가입자- R\$68.80, TVA 케이블 TV 비 가입자- R\$63.80

사. 호텔/식당

1) 호텔

브라질 호텔은 세계 유명 호텔 체인점과 국내 자본으로 설립된 호텔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국제적인 품격과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시설 및 규모에 따라 별 1개 ~5개 등급의 호텔이 있으며, 해변의 리조트 지역이나 산장 지대 휴양지 호텔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건축 및 인테리어 장식으로 투숙객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파울루 시내에는 비즈니스맨을 위해 마련된 저렴한 호텔이 최근 많이 늘어 나고 있으며, 저렴한 숙박료에 비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계 호텔인 IBIS 와 Formula 1 등이 경제적인 호텔에 속한다. 특히 IBIS 호텔의 경우 최근 체인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바이아(Bahia) 주를 비롯하여 해안에 위치한 휴양지 호텔 들은 남국 특유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장식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고 남부 지방 및 산악 지역에 위치한 호텔들은 원목 가구에 벽난로 등 마치 스위스 살레와 같은 분위기로 고객을 사로잡고 있다.

비즈니스 출장 시, 접촉할 업체의 위치를 고려하여 호텔을 예약하는 것이 좋으며 숙박료(성수기와 비수기 요금이 다름), 체크 인/아웃 시간 및 아침 식사 포함 유무 등도 확인해야 한다.

□ 호텔 서비스 관련 용어

- Solteiro(Individual)- 싱글, Dúplo- 더블
- Ar Condicionado- 에어컨, Telefone- 전화
- Frigobar- 냉장고, Recepção- 프론트
- TV a cabo- 케이블 TV, Café da manhã- 아침 식사
- Cofre- 금고, Diária- 1일 숙박료
- Musica Ambiente- 객실용 음악, Televisão- TV

□ 관련 사이트

- <http://uk.hotels.com/index.jsp>
- <http://travel.hotels-and-discounts.com>

□ 상파울루 소재 호텔 리스트

- Maksoud Plaza Hotel
 - 주소: Alameda Campinas 150, Cerqueira Cesar, Zip 01404-00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145-8000
 - Fax: (55-11) 3145-8001
 - E-mail: maksoud@maksoud.com.br
 - Site: <http://www.maksoud.com.br>
 - 숙박료: Executive \$113.38, Jr. Suite \$138.02, Premium \$126.19, Premium Paulistana Suite \$211.97, Premium Brasileira Suite \$252.39

- Golden Tulipa Belas Artes
 - 주소: Rua Frei Caneca, 1199, Cerqueira Cesar, Zip 01307-002, Sao Paulo, SP, Brazil
 - Tel.: (11) 3549-6464
 - Fax: (11) 3288-8710
 - E-mail: l.bernardes@nh-hotels.com
 - Site: <http://www.nh-hotels.com>
 - 숙박료: Standard Room \$90.73
- Gran Estanplaza São Paulo
 - 주소: R. Arizona, 1517, Zip 04567-003, Sao Paulo, SP, Brazil
 - Tel: 55 11 2162 3500
 - Fax: 55 11 2162 3509
 - 예약: 0800 726 1500. 55 11 3059 3277
 - E-mail: reservas@estanplaza.com.br, granplaza@estanplaza.com.br
 - 숙박료: Exexutive Room의 경우 \$112 정도
- San Raphael
 - Largo do Arouche 150, 01219-000, Sao Paulo
 - Tel.: (55-11) 3325-0333
 - Fax: (55-11) 3221-3202
 - E-mail: sanraphael@sanraphael.com.br
 - Site: <http://www.sanraphael.com.br>
 - 숙박료: Standard Room 경우 \$60 정도
- Blue Tree Morumbi Convention
 - Av. Roque Petroni Junior, 1000, Zip 04707-000, São Paulo, SP, Brazil
 - 숙박료: Superior Roomdouble \$95, Superior Roomtriple \$160, Superior Roomquad \$230
- L'hotel
 - Al. Campinas 266, Bela Vista, Zip 01404-00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283-0500
 - Fax: (55-11) 3283-0515
 - E-mail: reservas@lhotel.com.br
 - Site: <http://www.lhotel.com.br>
 - 숙박료: Deluxe Room \$250
- Bourbon Sao Paulo Business
 - Av.Dr. Vieira de Carvalho 99, Zip 01210-010,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3337-2000
 - Fax: (55-11) 3337-1414
 - E-mail: bourbon.saopaulo@uol.com.br
 - Site: <http://www.bourbon.com.br>
 - 숙박료: Standard \$72
- Estanplaza Paulista
 - Al. Jau 497, Zip 01420-000, São Paulo, SP, Brazil
 - 숙박료: Executive Room \$70

- The Time Othon Flat
 - R. Hans Oersted 115, Zip 04575-010, Sao Paulo, SP, Brazil
 - 숙박료: Standard Room \$71
- Gran Melia São Paulo
 - 주소: Av. das Nacoes Unidas, 12559, Vila Cordeiro, Zip 04578-905,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3043-8000
 - Fax: (55-11) 3043-8001
 - E-mail: meliasps@dialdata.com.br
 - Site: <http://www.solmelia.es/>
- Hilton Hotel São Paulo
 - 주소: Av. Ipiranga, 165, Centro, Zip 01046-919,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3156-4300
 - Fax: (55-11) 257-3033
 - Site: <http://www.hilton.com>
 - 숙박료: \$200 이상

2) 식당

□ Feijoada 와 caipirinha



브라질 요리는 다양한 민족의 음식문화가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브라질 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오의 음식, 식민지 통치를 했던 포르투갈의 음식, 이탈리아 및 독일 이민자의 전통 요리 등이 어우러져 매우 독특한 음식 문화를 만들어 냈다. 또한 과거 커피 농장 등에서 일하던 아프리카인 노예용 음식인 "웨이조아다(feijoada)"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여러 부위를 검정콩과 함께 끓여 만든 요리인데, 과거의 값싼 요리에서 벗어나 명실 공히 브라질을 대표하는 대중적인 음식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대부분 식당의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의 단골 메뉴에 포함되어 있으며 "까이빠링라(Caipirinha)"라는 사탕수수 주와 레몬으로 만든 칵테일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다.

□ Bar 에서 식사하는 모습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는 거리 곳곳에 산재해 있는 바(Bar)가 있으며 원래는 커피, 음료수, 빵 등을 먹는 곳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간단한 점심 식사도 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상파울루 지역에는 요일별로 대표요리가 있어 어느 음식점에서나 이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Bar)에서 제공되는 점심식사는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메뉴이다.

예를 들어 목요일은 스파게티, 라비올리, 라자냐 등 파스타 중 한두 가지를 서비스하고, 금요일은 가톨릭 국가답게 생선요리가 보편화되어 있다.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브라질 국민 요리인 웨이조아다를 볼 수 있다. 물론 요일별 대표 요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 요일별 대표 요리

- 월요일: Virado a Paulista (돈육 T-Born 스테이크, 콩소스, 계란 부침, 소시지, 쌀밥)
- 화요일: Bife a Role (쇠고기안심에 야채를 돌돌 말아 구운 요리)
- 수요일: Feijoada (검정콩,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다양한 부위와 소세지 등을 장시간 끓여 만든 요리, 쌀밥과 돼지껍질 튀김, 케일 볶음이 함께 서비스됨)
- 목요일: 파스타 요리
- 금요일: 생선요리
- 토요일: Feijoada



상파울루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이탈리아 요리는 어느 곳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지만, 특히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밀집지역인 Bexiga 지역에는 정통 이탈리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즐비하며, 일본촌인 리베르다지(Liberdade) 지역에는 수십 개의 일본 음식점이 영업 중에 있고 최근 웰빙 음식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대부분의 쇼핑센터에서도 쉽게 일본음식을 먹을 수 있다.

웨이조아다와 함께 브라질을 대표하는 요리는 슈하스코(Churrasaco)로 전문식당인 슈하스카리아(churrascaria)에서 맛볼 수 있다. 브라질 전국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슈하스카리아는 1인당 식사 비용을 지불하고 (R\$20~70: 환율 1달러=1.81헤알) 마음껏 고기와 샐러드를 먹을 수 있는 뷔페 타입 식당이다.

고기 덩어리를 꼬챙이에 끼워 웨이터가 직접 들고 손님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서빙을 하며, 다양한 부위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세지, 닭고기, 양고기 등을 원하는 양만큼 먹을 수 있다. 테이블 위에는 표시판이 있어 파란 쪽으로 돌려놓으면 서빙을 계속하고 빨간 쪽은 서빙 중지를 의미하는데, 고기가 너무 빨리 서빙돼 조금 쉬었다 먹기를 희망할 경우 빨간 쪽으로 돌려놓으면 된다.

□ 한국 요리

한인식당은 주로 상파울루 시에 위치한 봉헤찌로 (Bom Retiro) 지역과 아클리마사웅 (Aclimacao)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으며,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특히 봉헤찌로 지역에는 5~6개의 한인 슈퍼마켓도 있어 한국반찬과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다.

○ 조선옥

- 주소: Av. Aclimacao, 502, Aclimaca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271-9621, 9851-0978
- 주요 메뉴: 정식, 찌개류, 불고기 등

○ 월궁

- 주소: Av. Armando Ferrentini, 182, Aclimaca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277-7823
- 주요 메뉴: 불고기, 냉면, 비빔밥 등

○ 한양관

- 주소: R. Lubavitch, 12, S/12,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223-2631/3361-8947
- 주요 메뉴: 순대국, 순대, 생선구이, 찌개류 등

○ 석정

- 주소: R. Corrêa de Melo 135,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338-0737/ 223-7163
- 주요 메뉴: 한정식, 불고기 정식, 생선구이, 찌개류 등

○ 빛고을

- 주소: Pça. General Polidoro, 111,
- 전화: (55-11) 3207-9893
- 주요 메뉴: 불고기, 찌개류, 냉면, 생선 구이 등

○ 오뚜기 슈퍼

- 주소: R. Tres Rios, 245,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326-1636
- 주요 상품: 한국 식료품 및 반찬, 일용잡화 판매

□ 브라질 식당

○ Fogo de Chão Churrascaria

- 주소: Av. Moreira Guimaraes, 964, Moem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5056-1795
- 주요 메뉴: 슈하스꼬(브라질식 바비큐) 등

○ Vento Haragano Churrascaria

- 주소: Av. Reboucas 1001, Jd. Paulist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083-4265
- 주요 메뉴: 슈하스꼬(브라질식 바비큐) 등

- Angelilca Grill
 - 주소: Av. Angelica, 430, Higienopolis,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664-0070
 - 주요 메뉴: 슈하스꼬(브라질식 바비큐) 등

□ 일식당

- 고야마(Koyama)
 - 주소: R. 13 de Maio, 1050, Bela Vist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283-1833
 - 주요 메뉴: 초밥/사시미, 우동
- 신토리(Shintory)
 - 주소: Al. Campinas, 600, Jd. Paulist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283-2455
 - 주요 메뉴: 다양한 일식 요리
- 야요이(YAYOI)
 - 주소: R. Sao Carlos do Pinhal, 451, Bela Vist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285-1226
 - 주요 메뉴: 초밥/사시미 등

□ 중국식당

- Golden Fish
 - 주소: Av. Divino Salvador 61, Moem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5561-2536
 - 주요 메뉴: 연어요리 등
- Guinza
 - 주소: R. Galvao Bueno, 700, Liberdade,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277-7204
 - 주요 메뉴: 북경오리요리 및 중국음식 전반
- 아서원
 - 주소: R. Corrêa de Melo, 166, Bom Retiro, Sao Paulo, SP, Brasil
 - 전화: (55-11) 3326-9488
 - 주요 메뉴: 중국요리, 짜장면, 짬뽕, 탕수육, 잡탕밥
 - 참고: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가 운영하는 중식당으로 한국인 입맛에 맞는 요리 제공

□ 이탈리아 식당

- Massimo
 - 주소: Al. Santos 1.826, Jd. Paulist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284-0311
 - 주요 메뉴: 스파게티, 리조또 등

- Lellis Trattoria
 - 주소: R. Bela Cintra 1,849, Jd. Paulist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064-2727
 - 주요 메뉴: 이탈리아 음식 전반

아. 관공서 관행

브라질의 관공서에서 한국에서와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정부기관은 물론 우체국이나 금융기관 등의 업무처리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며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브라질 특유의 관료주의적 성향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줄을 서서 차례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은 기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 등이 있으면 먼저 차례를 양보해야 한다. 같은 일도 한 번에 안 돼 여러 번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각 은행에 대해 창구에서 15분 이상 고객을 기다리게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 공휴일

1) 국경일

국경일	날짜	내용
Paz Mundial / Ano Novo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신정
Carnaval	매년변동 2월~3월	카니발 축제 기간으로 공휴일은 하루지만 보통 3~4일을 휴무하게 되는 대 축제 기간 (2008년은 2월 05일)
Paixão	매년변동 3월~4월	성 금요일: 부활 직전 금요일로 부활절 휴가의 시작. (2008년은 4월 21일)
Tiradentes	4월 21일	Jose Joaquim Xavier: 일명 Tiradentes 라고 불리던 브라질 독립투사의 죽음을 기념 하는 날
Dia dos Trabalhadores	5월 1일	노동절
Corpus Christi	매년변동 5월~6월	성체 축일(2008년은 6월 22일)
Independência do Brasil	9월 7일	독립 기념일
NossaSenhoradaAparecida	10월 12일	성모 마리아 기념일
Finados Proclamação da República	11월 2일	위령일
	11월 15일	공화국 선포일
Natal	12월 25일	성탄

2) 축제

□ Carnaval(카니발 축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금욕을 해야 하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고기를 먹고 가무를 즐겼던 것이 기원인 축제로 브라질 전국에서 화려한 가장행렬 축제가 펼쳐진다. 특히 리우에서 열리는 삼바 축제는 각 삼바 스쿨에서 1년 동안 연마한 솜씨를 겨루어 승자를 가리게 된다.

리우 카니발



□ Páscoa(부활절 축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 국교가 천주교인 브라질에서는 이 기간 동안 직장은 휴무이며, 대부분의 상가가 문을 닫는다.

□ Festa Junina (6월 축제)

천주교 성인 중 성 안토니오, 성 베드로, 성 요한의 기념일이 모두 6월에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여 탄생하게 된 축제로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교회 마당에 모여 시골 옷차림과 음식을 마련하여 먹고 각종 게임을 즐기는 축제다. 축제의 꽃인 Quadrilha라는 춤은 포르투갈로부터 전해진 것이며, 남녀가 짝을 이루어 시골 농부 또는 처녀의 옷차림으로 춤을 춘다. 브라질은 6월이 겨울철이라 축제가 열리는 어느 곳에서나 맛볼 수 있는 전통 축제 음식 중의 하나인 Vinho Quente (뜨거운 포도주)가 선선한 날씨와도 잘 어울린다.

Festa Junina



□ Natal(성탄 축제)

가톨릭 국가인 브라질은 거리 곳곳마다 화려한 성탄 장식을 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한다. 한 여름에 성탄을 맞이하는 브라질에는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 두꺼운 빨강 솜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사탕을 나누어주는 산타클로스의 모습과 눈 대신 스티로폼 조각을 뿌려주는 쇼핑센터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차. 여행 시 유의사항

1) 현지 팁 관행

택시를 이용할 때는 요금 외에 별도의 팁을 줄 필요가 없다.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는 무거운 짐을 싣는 경우 나중에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택시를 타기 전에 요금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 여행용 가방 1개 당 2 헤알 정도의 팁을 지불하지만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침실 청소 시 눈에 띄는 곳에 침대 1개당 2 헤알 정도 놓아 두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 봉사료 10%를 포함한 계산서를 청구하는데, 이때 역시 봉사료 10%는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명시하는 문장이 반드시 있다. 대부분의 고객은 별 이의 없이 봉사료를 지불하지만, 만일 서비스의 품질이 눈에 띄게 불만족스러웠을 경우 봉사료 계산을 거부해도 된다.

2) 체류 시 주의 사항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치안상태가 매우 불안하며 권총강도 및 납치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지인 가운데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지인과 불필요한 시비 및 언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야간 외출 시에는 현금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목걸이나 시계 등 고가품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권,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돈지갑과 다른 주머니에 휴대하도록 하고, 저녁에는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 강도를 만났을 때 행동요령

양손을 들어 무기가 없음을 확인시킨 뒤 주머니를 가리키며 돈을 꺼내겠다는 제스처를 보인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천천히 꺼내면서 지갑을 완전히 꺼내기 전에 지갑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킨 뒤 꺼내어 돈을 건네준다.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반항하는 것은 위험하다. (참고로 강도를 당할 것에 대비해 100~200헤알 정도가 든 별도의 지갑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임)

□ 택시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를 제시하면 거의 어디든지 대부분 찾아갈 수 있다. 거리에서 직접 택시를 부르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호텔이나 사무실에서 택시를 불러서 이동하는 것이 편리하며 안전하다. 특히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Ponto de Taxi’(택시 대기소: 시청에 등록된 택시만이 대기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 식수

석회질이 많아 수도물을 식수로 이용할 수 없으며, 미네랄워터를 구입하여야 한다. 음식점에서도 식수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으며 별도로 주문해야 한다. 미네랄 워터 주문 시에는

“아과 썸 가스(Água sem gás)”을 주문해야 가스가 포함되지 않은 보통 미네랄 워터를 가져온다. *탄산가스 포함 워터: “아과 썸 가스(Água com gás). 미네랄 워터는 용량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나 200ml 가 약 1헤알 ~ 2헤알 선이다. (1달러=1.81헤알)

□ 이발소 이용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발소가 현지 교포들이 주로 밀집해 있는 봉헤찌로(Bom Retiro)나 브라스(Bras) 등의 지역에 있으며, 요금은 25~30헤알 정도이다.

□ 구두닦이

거리에도 일부 있으나 가급적 건물 내 공공장소에 있는 구두닦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요금은 현지화 5헤알에서 20헤알까지 다양하다.

□ 응급구호

전화번호 '193'을 누르면 앰불런스가 시립병원으로 이송하며, 이송비용은 무료이다. 민간 병원의 응급실 이용 시에는 고가의 진료비, 입원비 등 관련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현지인 가정방문 시 선물준비

현지인 가정에 초대받은 경우 인삼차나 전통적인 한국문화가 담긴 민예품 등 한국적인 선물이면 바람직하나,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꽃이 무난하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공관 및 무역관

-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Av. das Nacoes, Lote 14, Zip 70436-900, Brazilia DF, Brazil
 - 전화: (55-61) 3321-2500
 - 팩스: (55-61) 3321-2508
- 상파울루 총영사관
 - 주소: Av. Paulista, 37, 9 andar,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141-1278
 - 팩스: (55-11) 3141-1279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 주소: Al. Santos, 700, 8th Fl, Trianon Corporate Building, CEP 01418-100, C.Cesar,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175-3030
 - 팩스: (55-11) 3175-3031

- 중소기업진흥공단 상파울루 사무소
 - 주소: Alameda Santos, 1827 Conj.82 Cerqueira Cesar,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142-9009
 - 팩스: (55-11) 3142-9096

2) 병 원

- 나사렛 종합병원
 - 주소: R.Newton Prado, 88,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331-2774/3337-6703
- 봉헤찌로 종합병원(원장 김재수)
 - 주소: R. dos Bandeirantes, 492,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311-8544
- 녹십자 종합병원(원장 이영만)
 - 주소: R. Bom Pastor, 905, Ipirang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6915-7444
- 김명규 안과(원장 김명규)
 - 주소: R. Saturno, 347, Aclimaca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209-5440/3209-1418
- 이병훈 치과(원장 이병훈)
 - 주소: R. dos Italianos, 327, Sala 12,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221-8070
- 조 소아과(원장 조원극)
 - 주소: Av. Turmalina, 176, Aclimaca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277-7669/3208/9423
- 김현경 산부인과(원장 김현경)
 - 주소: R. Newton Prado, 88,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331-2774 / 3221-7966

3) 공항 및 항공사

- 과를류스(곰비까) 국제공항: (55-11) 6445-2945
- 콩고냐스 국내공항: (55-11) 5090-9195
- VARIG(바리기) 브라질항공사: (55-11) 4003-7000
- TAM(탐) 브라질항공사: (55-11) 4002-5700
- AMERICAN AIRLINE 항공사: (55-11) 3214-4000

4) 긴급 연락처

- 화재: 193
- 경찰: 190
- 긴급구조: 192

- 교통사고: 194
- 휴일 약국문의: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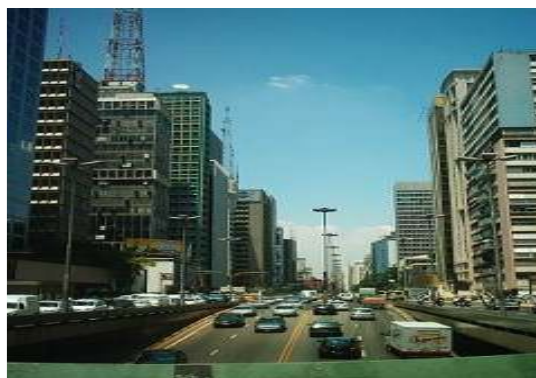
5) 교포언론사

- 동아일보
 - 전화: (55-11) 3272-0711
 - 팩스: (55-11) 3272-8986
- 조선일보
 - 전화: (55-11) 5579-9388
 - 팩스: (55-11) 5575-4083
- 중앙일보
 - 전화: (55-11) 3326-2522
 - 팩스: (55-11) 3313-0527
- 한국일보
 - 전화: (55-11) 3209-9711
 - 팩스: (55-11) 3341-3076
- 한국방송
 - 전화: (55-11) 5571-8197
 - 팩스: (55-11) 5575-3042

타. 관광명소

1) 상파울루(São Paulo)

□ 상파울루 시내 Paulista 거리



브라질은 세계적인 관광자원국가이나 국토가 광대하여 관광자원이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이구아수(Iguaçu), 오루 뿌레뚜(Ouro Preto), 살바도르(Salvador), 마나우스(Manaus) 등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상파울루는 브라질 최대 상공업 도시로서 역사가 깊은 유적지는 많지 않다.

□ SE 성당(Catedral SE)



상파울루에서 제일 큰 성당으로서 시내 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용능력은 대략 8,000 명 정도이다. 이 성당은 1914년에 준공하여 1954년도에 완공되었으며, 공사기간 중에 사망한 인부들의 시신과 역대 신부님들의 시신이 묻혀 있다. 성당의 둘레는 112미터, 폭은 44미터, 높이는 66미터(탑 꼭대기 까지)이다. 상파울루 발원지인 SE성당은 1554년 1월 25일 바로 이곳에서 조제 안시에따(Jose Anchieta) 신부와 마누엘 다 노부레가(Manuel da Noburega)신부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여기가 번지수로는 1번지가 된다.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방사선 모양으로 상파울루가 발전되어 갔다.

□ 이피랑가(Ipiranga) 독립기념 박물관



브라질은 1822년9월7일 D. Pedro 1세에 의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다. 유혈 혁명이 따른 독립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포르투갈)로부터 내정간섭의 분리가 바로 이 나라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독립기념 박물관 내에는 브라질의 독립에 기여했던 인물들과 식민지 역사 박물관, 브라질의 발전상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 동양인의 거리(Liberdade)



1974년 상파울루 시 정부에서 이 거리를 동양인의 거리라고 명명하였다. 이 거리에서는 일본 사람들의 가장 큰 문화 행사인 꽃 축제 "하나마쓰리"를 비롯하여 중국 북경사자 탈춤, 음력 설 맞이 축제 등 아시아 국가들의 행사가 다수 열리고 있다. 사실상 이 거리를 가보면 동양인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가게 간판들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써 있으며, 대표적으로 이 세 나라 사람들의 음식문화를 가장 손쉽게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 이비라뿌에라 공원(Parque do Ibirapuera)



상파울루가 시(市)로 지정된 지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54년 이 공원을 설립하였다. 보통 주중에는 자동차편을 이용하여 출입이 가능하나 주말에는 자동차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2000년에는 브라질 발견 500주년 행사가 성대하게 벌어져, 지금도 500주년 기념 행사 관련 전시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 공원의 면적은 15만 평 정도이며, 주말에는 해변가를 찾지 못한 상파울루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상투스-과루자 해변



브라질 5대 항구 중 하나인 상투스(Santos) 항은 무역항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상파울루 시민들이 주말을 보내는 최대 휴양지로서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상파울루 시내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상투스시 해변의 경치는 매우 아름답다. 바닷가에 인접한 레스토랑에서 해물 요리도 맛보고 모래 사장을 거닐어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관광 코스다. 상투스 시와 근접한 곳에 과루자(Guarujá) 시가 있는데 역시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해변으로 유명한 도시이다.

□ 수공예품 마을(Embú)



상파울루 시내에서 하포주 따바레스(Raposo Tavares)고속도로를 타고 40~50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엠부(Embu)는 도시 전체가 수공예품 및 컨트리풍의 목재 가구를 판매하는 수백여 개의 매장으로 가득차 있다. 일요일에는 중앙성당 앞 광장에 1일 장이 서고 각종 액세서리, 의류, 장식품, 그림, 조각 등을 판매한다. 주말에는 마을 곳곳에 거리 악사 및 퍼포먼스 예술가들의 공연이 열려 관광객들의 흥을 돋운다.

브라질산 돌로 만든 공예품, 가죽 제품, 나무 및 자연 소재 공예품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돼지고기 구이 요리 “레이띠웅 아 뿌루루까 (Leitão à Pururuca)” 전문점이 다수 있다.

2) 이과수(Iguaçu)

□ 이과수 폭포(Foz do Iguaçu)



상파울루시에서 1,348Km지점에 있는 폭포로, 버스로 약 16시간, 비행기로 약 2시간 거리이며,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3국간 국경을 이루는 빠라나(Paraná)주 포스두 이과수(Foz Do Iguaçu)시에 위치한 명물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폭포이다.

□ 이따이부 댐(Itaipu)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을 이루는 빠라나(Paraná) 강 상류에 위치하였고, 강 하류는 아르헨티나 내륙을 통과하여 대서양으로 이어진다. 이따이부 댐은 브라질과 파라과이 양국간 협정에 의거 1976년에 착공하여 1991년 완공되었는데, 총 공사기간은 15년이었다.

3)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는 포르투갈어로 "1월의 강"이란 뜻의 도시로,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항구도시이다. 주요 관광지로는 다음과 같다.

□ 예수상 (Corcovado)



리우 시내 해발 720미터 산 정상에 세워진 예수상. 높이는 38미터, 무게 1,100톤으로 리우 시민 모금에 의하여 1931년 이탈리아 천문학자 설계로 완성되었다. 동 예수상은 과나바라(Guanabara)만을 향하여 팔을 펴고 있으며, 이곳에서 리우 시내를 사방으로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조명에 의하여 예수가 재림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승용차로 정상에 도착할 수 있으며, 전철 이용도 가능하다. 전철 운행시간: 08:30~20:00(30분 간격으로 운행)

□ 빵 지 아수까르(Pão de Açúcar, 설당빵山)



원래 인디오의 발음을 흉내내 부르게 된 산으로, 빵을 세워놓은 듯한 2개의 바위산(해발 396미터)으로서 과나바라(Guanabara)만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동 관광지는 식민지 이전에는 인디오 부족이 살고 있었다. 1865년 포르투갈 식민지 이후에는 군부대 기지로 사용, 관측소로도 이용되었으나 1909년 케이블카 공사를 시작, 1912년부터 운행(케이블카 길이 1.4킬로미터)하고 있고, 리우 해안을 가로지르는 13킬로미터의 니테로이(Niteroi) 다리와 시내 측면을 바라볼 수 있으며 예수석상과는 맞은편에 위치하였다. 관광시간은 오전 08:00~22:00 이다. (케이블카는 30분 간격으로 운행)

카. 기타 유용한 정보

1) 주요 쇼핑센터

- Shopping Iguatemi
 - 주소: Av. Brig.Faria Lima 2232, Jd. Paulistano, SP
 - 전화: (55-11) 3038-6000
 - 특징: 상파울루 시내 가장 고급인 백화점

- Shopping Morumbi
 - 주소: Av. Roque Petroni Jr. 1089, Vl. Gertrudes, SP
 - 전화: (55-11) 5189-4800
- Shpping Patio Higienopolis
 - 주소: Av. Higienopolis 618, Higienopolis, SP
 - 전화: (55-11)3823-2300
- Shopping Ibirapuera
 - 주소: Av. Ibirapuera 3103, Moema, SP
 - 전화: (55-11) 5095-2300
- Jardim Analia Franco
 - 주소: Av. Reg.Feijo 1739, SP
 - 전화: (55-11) 6643-4360
- D & D
 - 주소: Av. das Nacoes Unidas 12555, Brooklin Novo, SP
 - 전화: (55-11)3043-9000)
 - 특징: 가구전문 쇼핑센터
- Lar Center
 - 주소: Av. Otto Baumgart 500, V. Guilherme, SP
 - 전화: (55-11)6224-5900
 - 특징: 가구전문 쇼핑센터

할인점으로는 Carrefour, Extra 등 대형 할인점 체인이 지역마다 있으며, 슈퍼 체인으로는 Pão de Açucar, Compre Bem 등이 있으며 할인점보다는 가격이 다소 비싸다. 가전제품 매장으로는 Ponto Frio 등이 있고 가전 및 가구 종합 매장으로는 Casas Bahia가 있다.

2) 특산물

커피의 강국 브라질에서 빼놓지 않고 사야 할 특산물 중 하나가 바로 커피이다. 인스턴트 커피서부터 에스프레소 커피까지 다양하며, 가격도 아주 저렴하다. 인스턴트 커피 중 맛이 순한 편인 브랜드는 Iguçu 커피다. 그 밖에도 Melita, Cafe do ponto, Pelé, Brasileiro, Pirlão, Nescafe 등 다양한 메이커 중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된다. 커피 가격은 500g 포장에 5~20헤알 사이이며 맛도 순한 맛, 보통 맛, 강한 맛, 아로마 커피 등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다.

또한, 브라질은 프로폴리스 산지로도 유명한데 양질의 프로폴리스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스포이드식 외에도 스프레이식, 알약, 꿀과 허브가 함유된 것 등 다양한 종류를 팔기 때문에 한국에 기념으로 사가기 좋다. 그 외에도 상파울루 특산물인 아가리쿠스 버섯도 건강에 아주 좋아 인기가 높다.

기념품으로는 브라질은 준보석류의 원석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석으로 브라질 밀림의 갖가지 아름다운 새들을 컬러풀한 돌로 깎아놓은 것도 브라질의 대표적인 기념품 중의 하나이며, 원석을 가공하여 만든 목걸이, 귀걸이 등의 액세서리도 기념품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